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2013년 한국인의 기부지수 (유산기부, 상호부조)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 제시

한국기부의 재발견 - 켜트돈부터 유산까지



Giving
Korea 2014

The 13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Giving Culture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2013년 한국인의 기부지수 (유산기부, 상호부조)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 제시

한국기부의 재발견 - 젓돈부터 유산까지

일 시: 2014년 10월 23일 (목) 오후 1시 ~ 오후 5시

장 소: (주)한독 컨벤션홀

주 최: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주 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제14회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14

한국기부의 재발견-겻돈부터 유산까지

2013년 한국인의 기부지수 (유산기부, 상호부조)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 제시

시간	프로그램	강연자
01:00~01:30	등록	사회: 박성연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01:30~01:33	개회사	김영진 (주) 한독 회장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장
01:33~01:36	환영사	예종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01:36~01:40	환영사	이용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1부 Giving Index - 개인기부지수 2013년도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 및 유산기부와 상호부조 심층연구		
01:40~02:10	2013 기빙인덱스와 나눔통계의 비교분석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02:10~02:30	한국인의 유산기부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02:30~02:50	한국인의 상호부조 행동분석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02:50~03:10	Q&A	
03:10~03:30	Coffee Break	
2부 문화예술 GIVING INDEX - 문화예술개인기부지수 한국 최초의 문화예술개인기부지수 및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전략		
03:30~04:00	2013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 지수 발표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04:00~04:20	토론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기부 활성화 전략 및 정책 방향	좌장 원윤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김재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센터장 김성규 한미 회계법인 대표 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문화정책학 박사 황용구 이음스토리 대표
04:20~04:30	Q&A	
04:30~04:40	폐회사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개 회 사

김 영 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주)한독의 김영진입니다.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 서 왔으며, 기부문화연구소는 국내 최초의 기부문화전문 연구소로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기빙코리아 2014〉에서는 한국형 기부문화가 더욱 성숙될 수 있는 도약의 준비를 하려 합니다. 1부에서는 ‘한국 기빙인덱스 2013’ 지표를 발표해 우리의 기부문화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의 유산 기부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인의 상호부조 행동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형 기부문화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기부문화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2부에서는 ‘2013년도 문화예술 개인기부 지수’ 결과가 발표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분야 개인기부에 대한 중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예술 개인기부 연구 및 사례발표를 통해 이 분야의 기부 활성화 방향이 제시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덧붙여 조사에 큰 도움 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 자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과 주제발표 연사,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 주신 연구자분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토론 참석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설문조사를 지원해 주신 (주)한국리서치를 비롯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한국형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에 더욱 성숙된 기부문화가 빨리 정착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환영사

예종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예종석입니다.

아름다운재단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00년에 설립된 아름다운재단은 2001년부터 우리 기부문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빙코리아 인덱스를 꾸준히 발표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정기적으로 기부관련 조사를 시행하고 표준화된 인덱스를 생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자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과 이해, 그리고 한국 기부문화의 발전에 열정을 가진 시민들과 관련기관의 뜨거운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빙코리아>는 우리 기부문화의 변화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왔고 한국형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이어오던 연구 외에 특별히 유산기부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우리의 독특한 기부문화형태인 상호부조에 대한 행동분석을 통해 한국 기부문화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문화예술분야의 개인기부지수 발표를 위해 연구를 맡아 주신 남기범 교수님과 토론의 패널로 참석하여 주신 김성규 대표님, 김휘정 입법조사관님, 황용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계속 연구를 기획하고 진행해주신 강철희 교수님, 한동우 교수님과 실태조사를 지원해 주신 (주)한국리서치에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매년 토론의 좌장과 행사 사회를 맡아서 애써주시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원윤희 소장님과 박성연 부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회와 연구위원 분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연구가 아름다운재단의 역할이라면 이를 토대로 우리 기부문화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생산되길 기대하며 오늘 오신 참석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CONTENTS

개회사	05
환영사	07

1부	11
GIVING INDEX : 2013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	

1. 2013 기빙인덱스와 나눔통계의 비교분석	13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2. 한국인의 유산기부	41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3. 한국인의 상호부조 행동분석	51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2부	65
문화예술 GIVING INDEX - 문화예술개인기부지수	
: 한국 최초의 문화예술개인기부지수 및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전략	

1. 2013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 지수 발표	67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부록	
부록1. 2013 Giving Index 조사결과 보고서	83
부록2. 2013 Giving Index 설문지(기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설문지)	199
부록3. 2013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보고서	223
부록4. 2013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설문지	247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개
연꽃기금, 나눔문화1% 기부자님, 참 고맙습니다.

1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P A R T

GIVING INDEX : 2013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

2013년도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 및
유산기부와 상호부조 심층연구

Session. 1

2013 기빙인덱스와 나눔통계의 비교분석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Session. 2

한국인의 유산기부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Session. 3

한국인의 상호부조 행동분석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SESSION

1

2013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

2013 기빙인덱스와 나눔통계의 비교분석

연구자 |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조사기관 | **HankookResearch**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학력

- 연세대학교 신학 전공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최근 주요 경력

- 2013.~현재 세계공동모금회(United Way Worldwide) 이사
- 2011.~현재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 2003.~현재 중부재단 이사
- 2009.~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 연구실적

- 2014.5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기업의 지역상생 발전 전략- 한국광해관리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 2013.11 종교와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종교성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학 2013.11 한국인의 보편적 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시민의 사회참여행동과 사회적 불평등 인식의 영향력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2013.8 기업과 비영리기관 사회공헌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 파트너십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2013.5 시민의 기부행동에 대한 현장실험 연구 - 구세군 자선냄비에 대한 기부, 연세대학교
- 2012.9 일상적 나눔행동과 유산기부 의향의 인과관계 추정: 성향점수 매칭(PSM) 분석, 한국사회정책
- 2013.3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기부법 제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13 Giving Korea 조사결과: 통계청 나눔통계결과와의 비교

2014년 10월 23일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I . 2013 Giving Index

2013 Giving Index 조사개요



조사 개요

• 조사설계

모 집 단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표 본 수	1,007명
표본추출	◆ 1단계 : 다단계 지역표본추출 (조사지점 선정) ◆ 2단계 :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할당표본추출 (응답자 선정)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 (face-to-face interview)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14. 6. 27 - 8. 6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I . 2013 Giving Index

자원봉사 (Secular & Religious Volunt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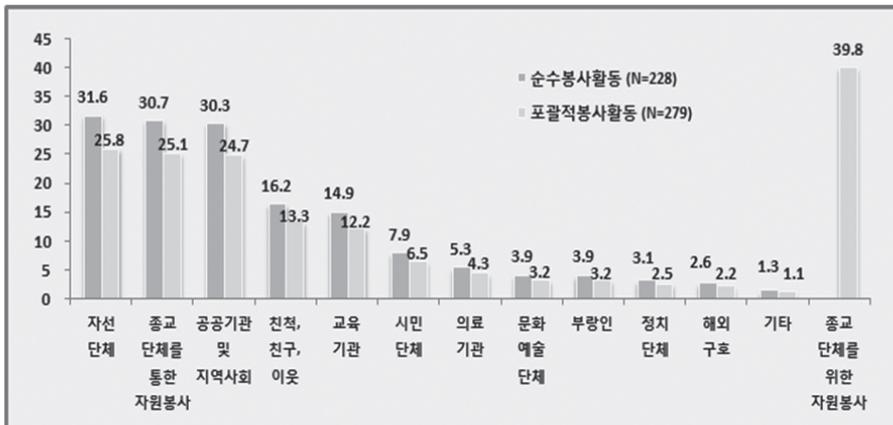
1-1. 자원봉사 참여 여부

- 22.6%가 일반 자원봉사에 참여 (2011년 26.5%에 비해 3.9%p 감소).
- 종교단체에서의 자원봉사까지 포함할 경우 27.7%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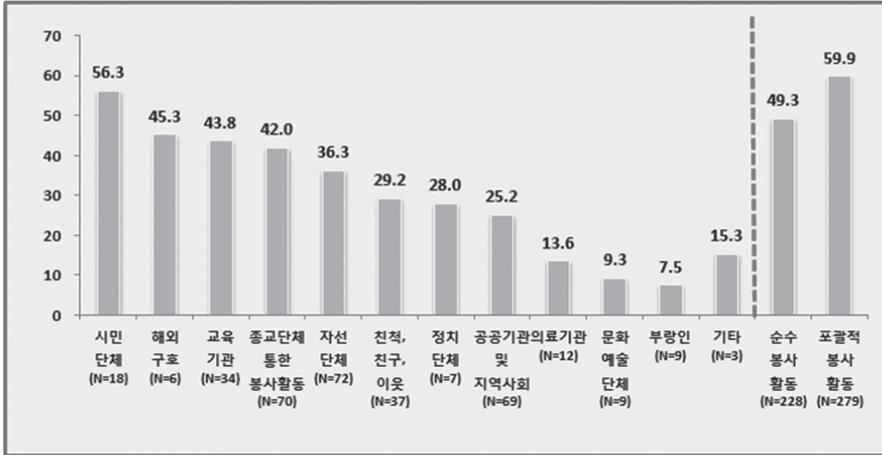
1-2. 자원봉사 활동처

- 순수(Secular) 자원봉사 참여자의 활동처로는 자선단체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는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30.7%),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30.3%), 친척/친구/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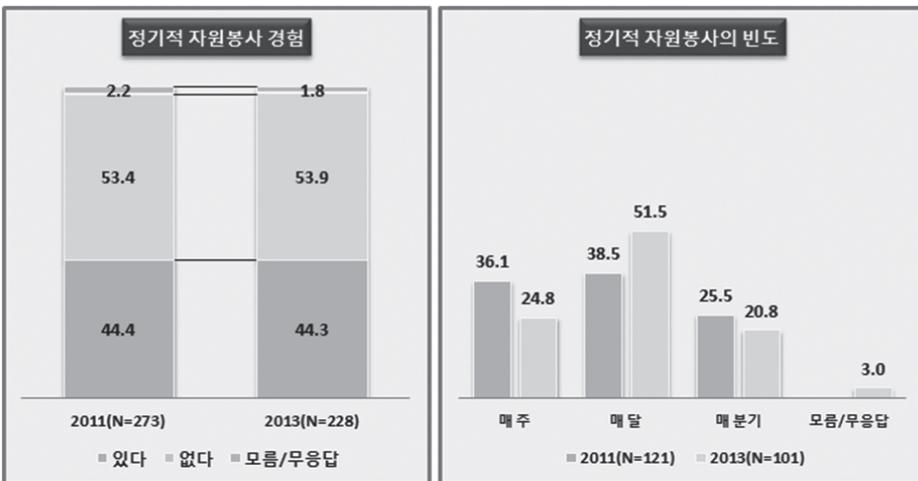
1-3. 자원봉사 시간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49.3시간, 포괄적(Secular & religious)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59.9시간.
- 자원봉사 활동처별로는 시민단체를 위한 자원봉사시간이 56.3시간으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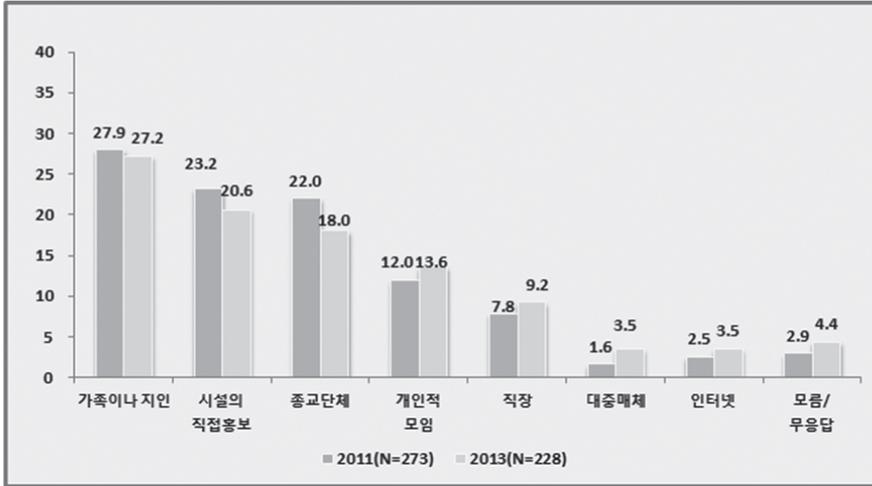
1-4.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및 빈도

- 순수자원봉사 참여자 중 44.3%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음. 이는 2011년 결과와 비슷함.
-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이들 중 51.5%는 매 달, 24.8%는 매 주, 20.8%는 매 분기마다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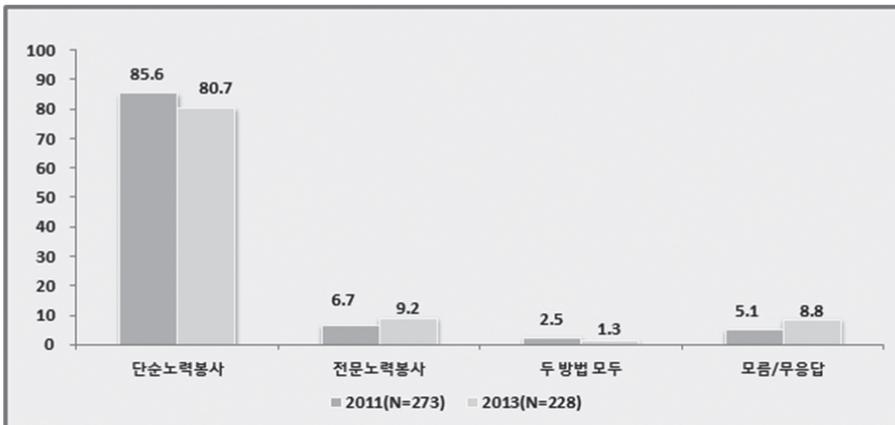
1-5.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 경로

- 자원봉사단체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가족 및 지인, 자원봉사단체의 직접홍보, 종교단체가 중요한 인지경로로 나타남.
- 가족 및 지인, 개인적 모임이 (40.8%)로 개인적 관계망의 중요성이 인지됨.



1-6. 자원봉사 활동 방법

-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노력봉사가 80.7%로 가장 많음.
- 2011년에 비해 단순노력봉사 형태의 봉사활동이 감소하고(4.9%p감소) 전문노력봉사 형태의 봉사활동이 다소 증가함(2.5%p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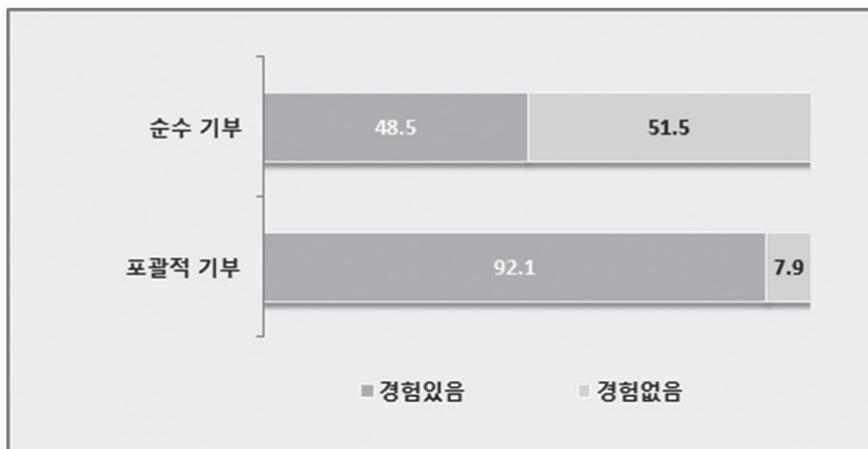
I. 2013 Giving Index

기부 (Secular Giving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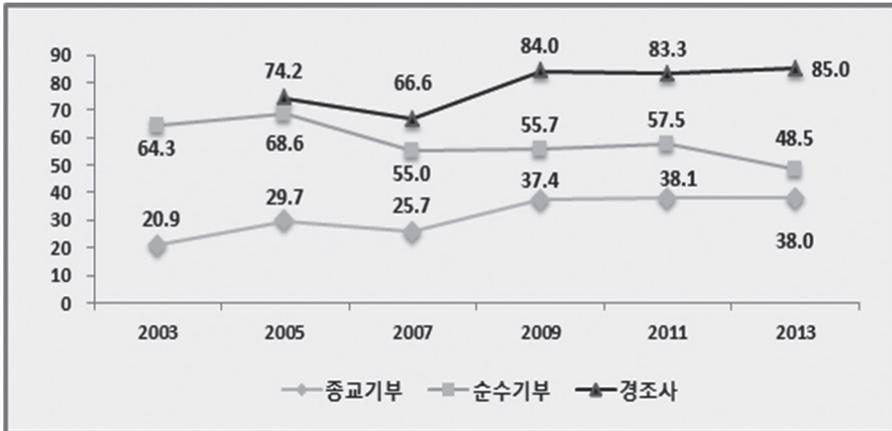
2-1. 기부 참여 여부

- 응답자의 48.5%가 순수한 자선적 기부(secular giving)에 참여함.
- 종교적 기부(religious giving)와 상호부조적 기부(경조사비, mutual aid giving)를 포함한 포괄적 기부에는 92.1%가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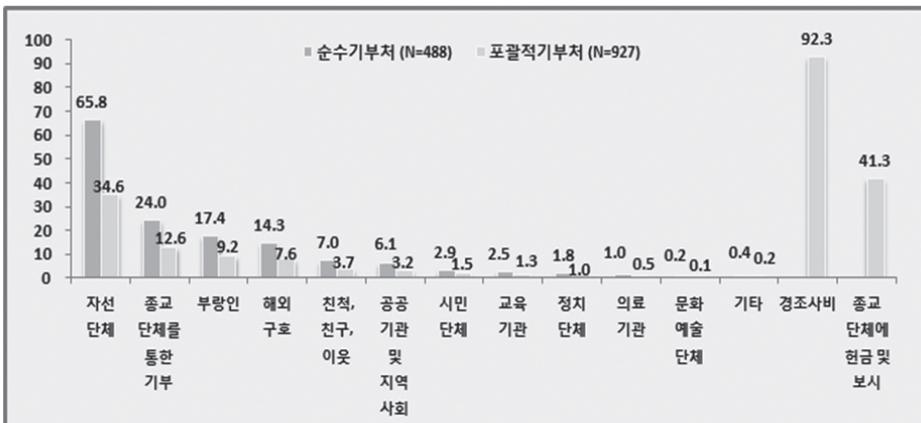
2-2. 기부 참여 여부 변화 추이

- 순수기부 참여율은 2011년에 비해 9.0%p 감소함.
- 종교기부 참여율은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경조사비 참여율은 1.7%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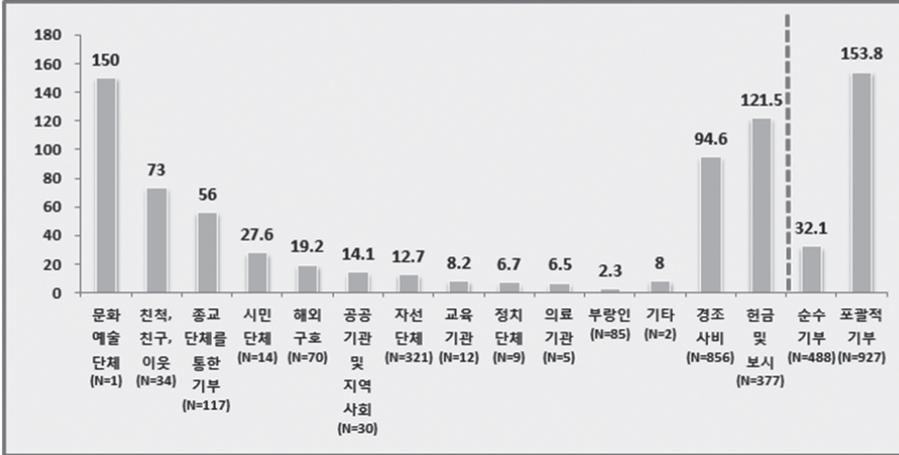
2-3. 기부처

- 순수 기부자의 경우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65.8%),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24.0%), 부랑인(17.4%), 해외구호(14.3%), 친척/친구/이웃(7.0%)을 위한 기부가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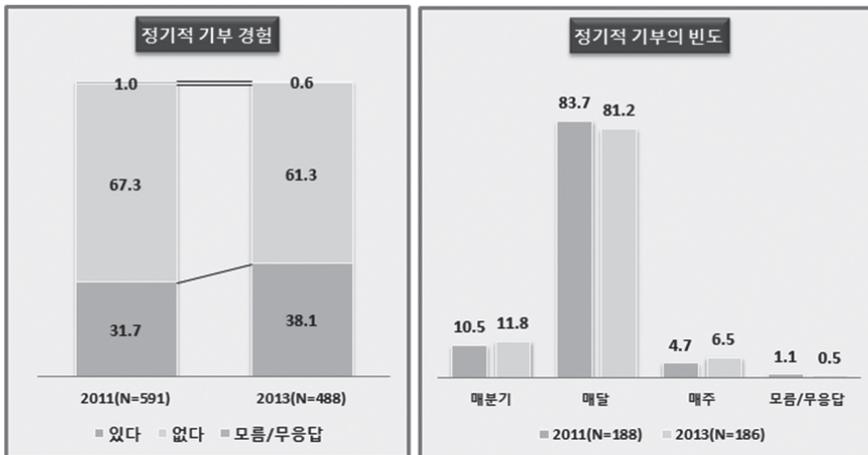
2-4. 기부금액

- 순수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32만 1천원, 포괄적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153만 8천원임.
- 경조사비의 평균기부금액은 94만 6천원, 종교기부의 평균기부금액 121만 5천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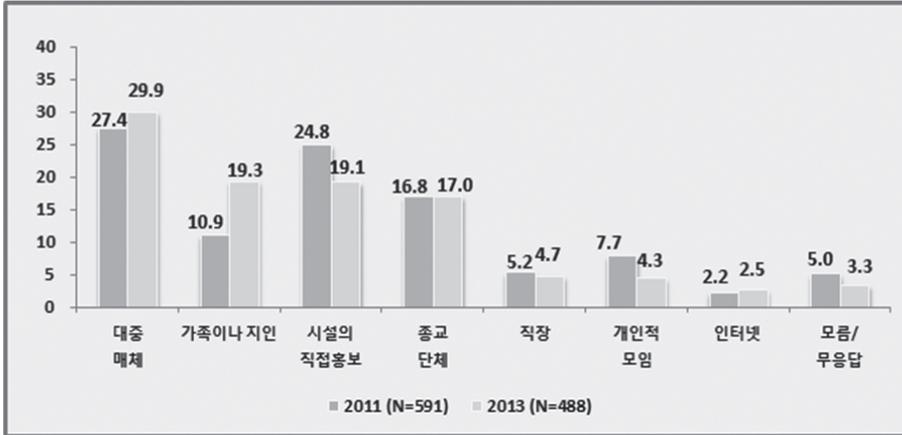
2-5. 정기 기부 참여 여부 및 빈도

- 순수 기부자 중 38.1%는 정기적 기부 경험이 있음. 2011년도에 비해 6.4%p 증가함.
- 정기 기부자 중 81.2%가 매 달 기부하고 있으며, 11.8%는 매 분기마다 기부하고 있음. 2011년도와 큰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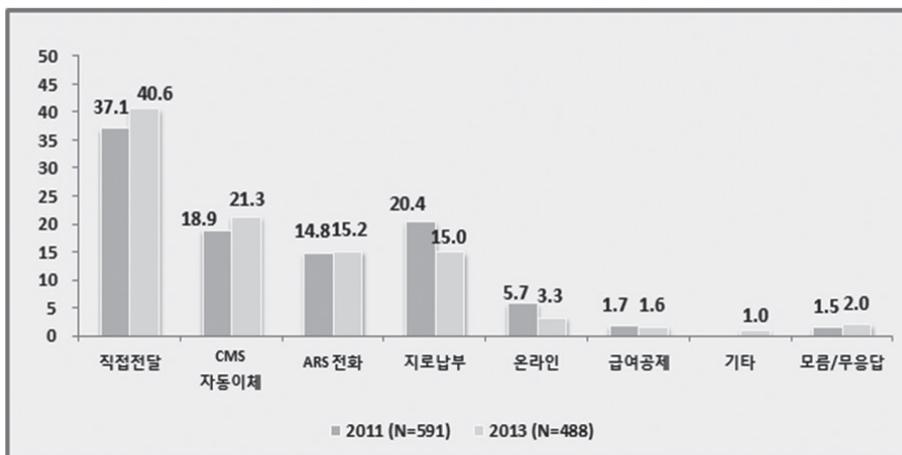
2-6. 기부처 인지 경로

- 기부처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해'가 29.9%로 가장 높음.
- 2011년에 비해 '가족 및 지인을 통해'라는 응답은 8.4%p 증가하였고, '시설의 직접홍보 및 요청에 의해'라는 응답은 5.7%p 감소함.



2-7. 기부 방법

- 기부 방법에 대해서는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이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음.



2-8. 기부의 내적 동기

- 기부의 내적 동기와 관련해서 '동정심'으로부터 비롯된 기부가 가장 많았음.
- 2011년 결과와 비교할 때, 기부의 내적 동기로서 '사회적 책임감'은 증가, '종교적 신념'은 다소 감소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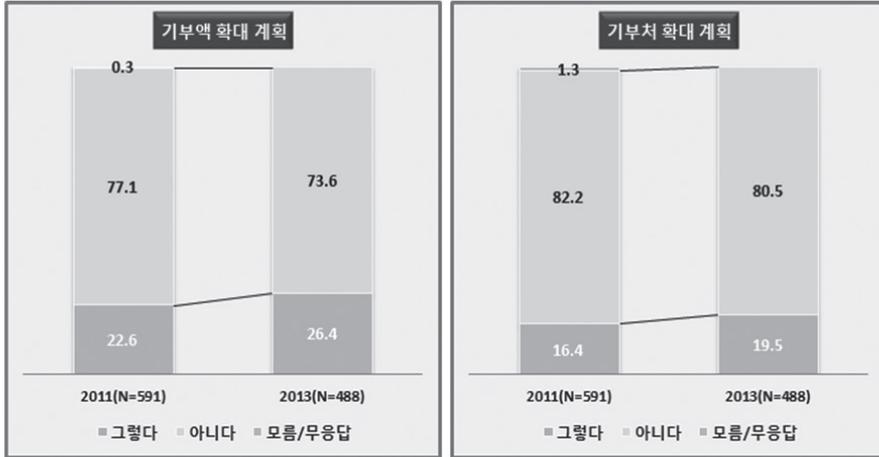
2-9. 기부의 외적 동기

- 기부의 외적 동기로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가 가장 높음.
- 2011년 결과의 비교할 때, 모든 외적 요인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증가함.



2-10. 기부액 및 기부처 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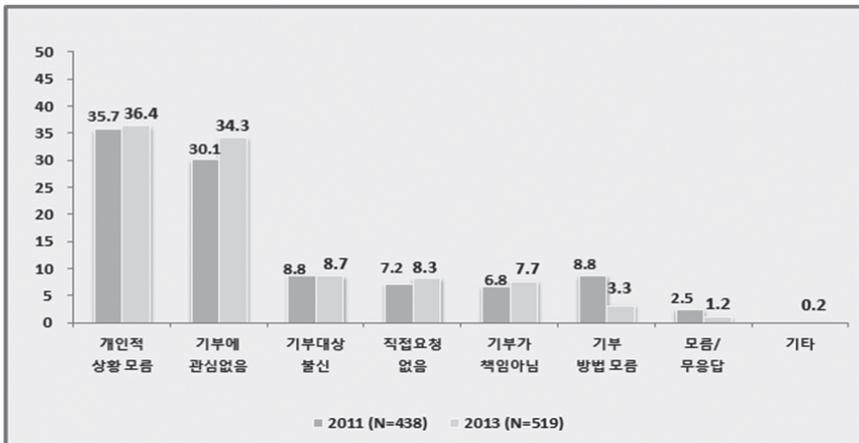
•2011년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기부액 및 기부처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둘 모두에서 다소 증가함.



2-11.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름'과 '기부에 대해 관심 없음'이 주를 이룸.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기부에 대한 무관심'이 4.2%p 증가한 반면, '기부방법 모름'은 5.5%p 감소함. 기부방법을 몰라서 기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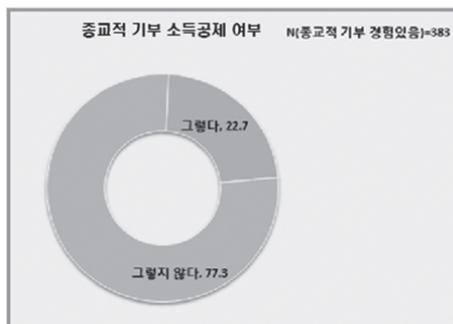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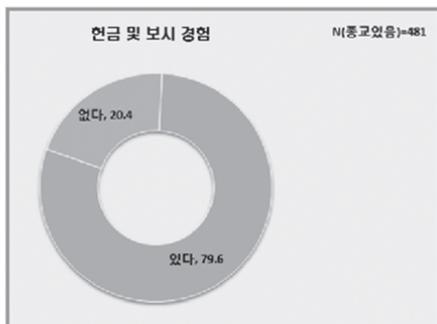
I. 2013 Giving Index

종교적 기부(Religious G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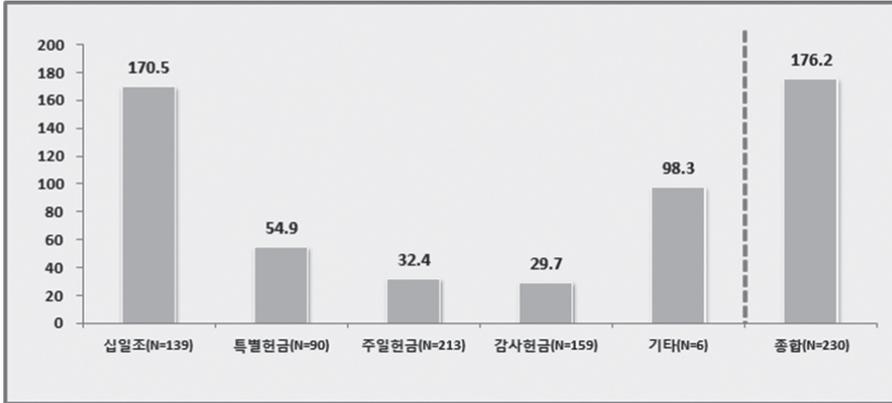
3-1. 종교적 기부 (헌금 및 보시) 경험 및 소득공제 여부

- 종교가 있는 사람 중 10명 중 8명은 헌금 및 보시 등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
- 헌금 및 보시를 하고 있는 응답자 중 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은 22.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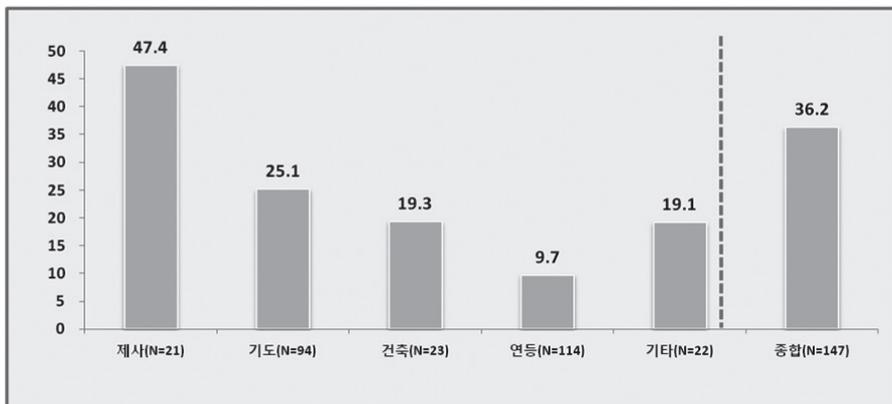
3-2.종교적 기부(개신교 및 천주교) 금액

- 개신교 및 천주교의 경우, 종교적 기부(헌금)의 평균 금액은 176만 2천원임.
- 종교적 기부 항목별 기부금액은 십일조 항목이 평균 170만 5천원으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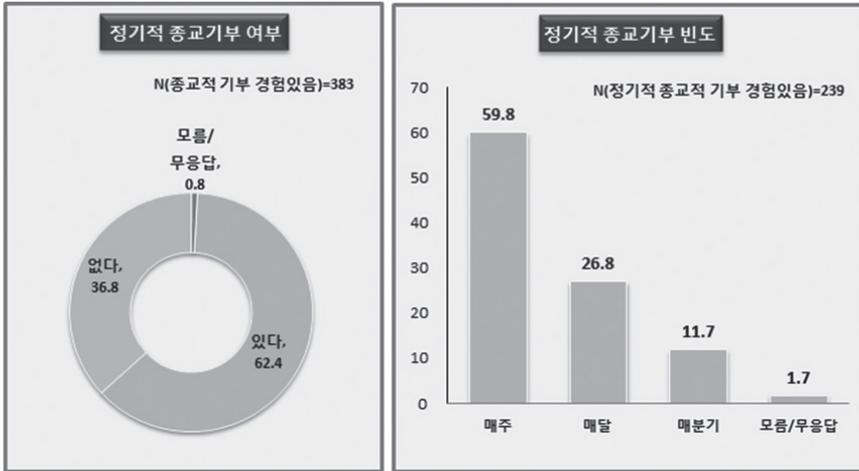
3-3.종교적 기부 (불교) 금액

- 불교의 경우, 종교적 기부(보시)의 평균 금액은 36만 2천원임.
- 종교적 기부 항목별 기부금액은 제사 항목이 47만 4천원으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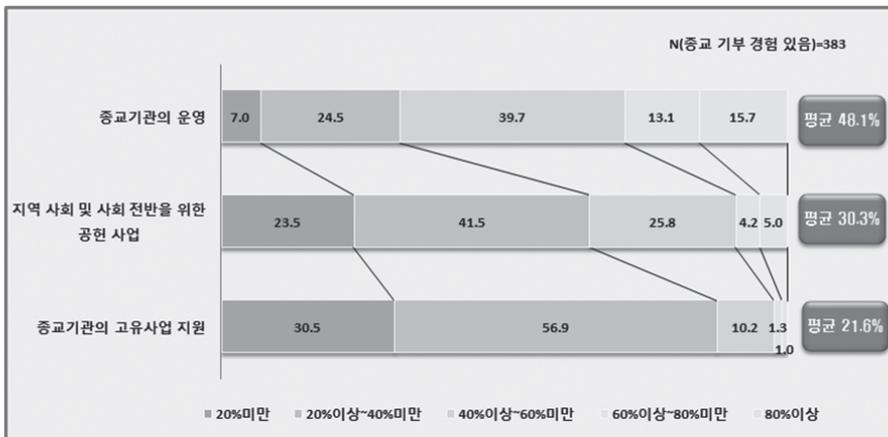
3-4. 정기적 종교기부 참여 여부 및 빈도

- 현금 및 보시를 내는 응답자 중 62.4%는 정기적인 현금 및 보시를 내고 있음.
- 빈도에 대해서 매 주 낸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59.8%).



3-5. 종교적 기부의 원하는 사용처

- 현금 및 보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8.1%가 현금 및 보시가 종교기관의 운영에 쓰이길 바라고, 30.3%는 사회를 위한 공헌사업, 21.6%는 종교기관의 고유사업지원에 쓰이길 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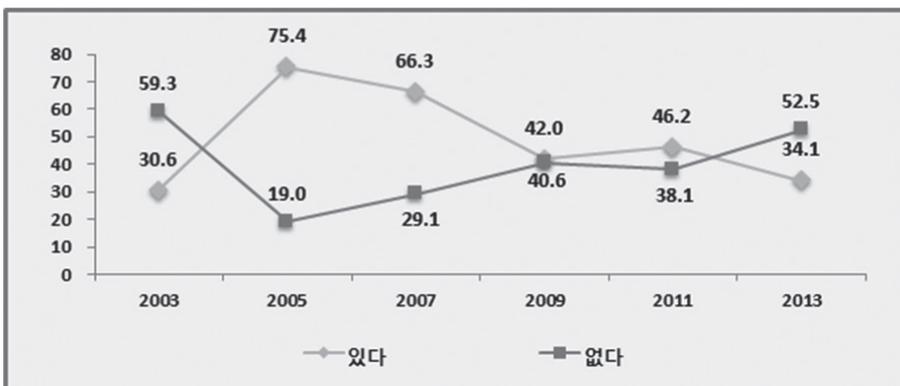
I . 2013 Giving Index

기부의향 및 계획



4-1. 기부 의향 변화 추이

•향후 1년 이내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4.1%로 2011년에 비해 12.1%p 감소함.
'없다'는 응답은 52.5%로 2011년에 비해 14.4%p 증가함.



4-2. 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 기부하고자 결정했을 때, 기부 대상(아동, 장애인, 노인, 빈곤층 등)에 대해 고려한다는 응답이 89.6%로 가장 높음.
- 아울러 기부기관에 대한 신뢰성, 기부기관의 사회적 명성, 기부를 통한 사회 개선 효과 순으로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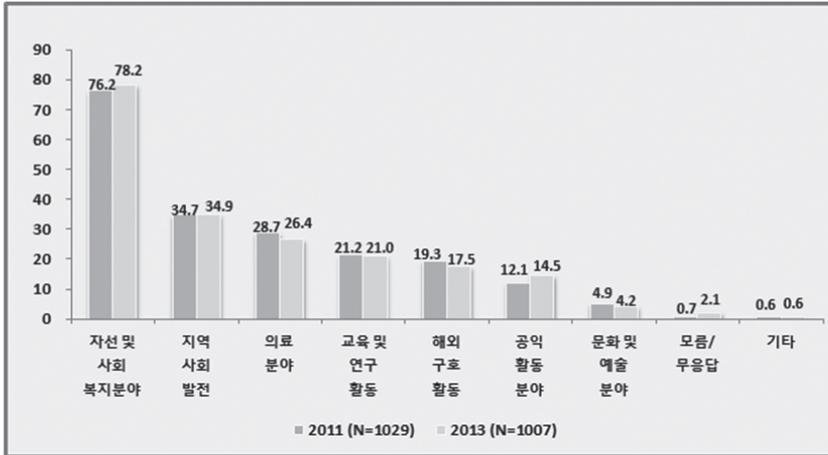
4-3.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 기관을 통해 기부하고자 할 때, '기관의 기부금 사용 및 활동이 투명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90.7%). 또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부액을 선택할 수 있는지'와 '기관이 얼마나 전문적인지'를 주로 고려함.
- '기부자에 대한 혜택 및 예우'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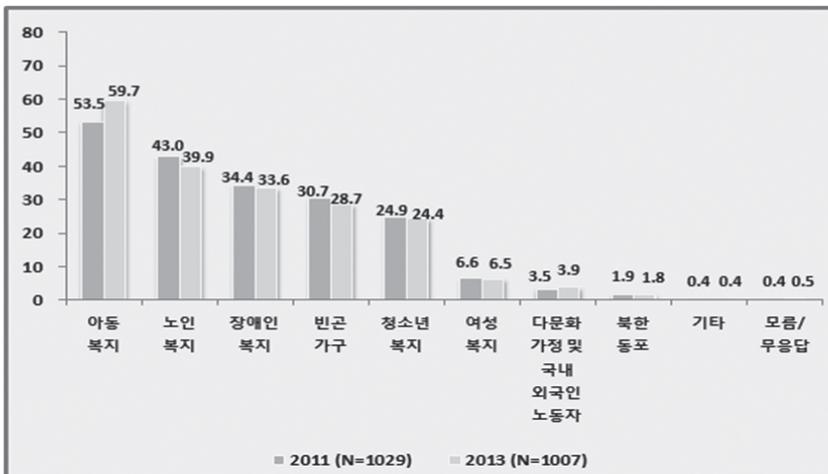
4-4.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분야

-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분야로는 여전히 자선 및 사회복지분야가 78.2%로 가장 높음.
- 지역사회발전, 의료분야, 교육 및 연구활동, 해외구호활동 등이 뒤를 이음.



4-5.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대상

- 기부금이 쓰이길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동이 59.7%로 가장 높고, 노인, 장애인, 빈곤가구, 청소년 순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북한 동포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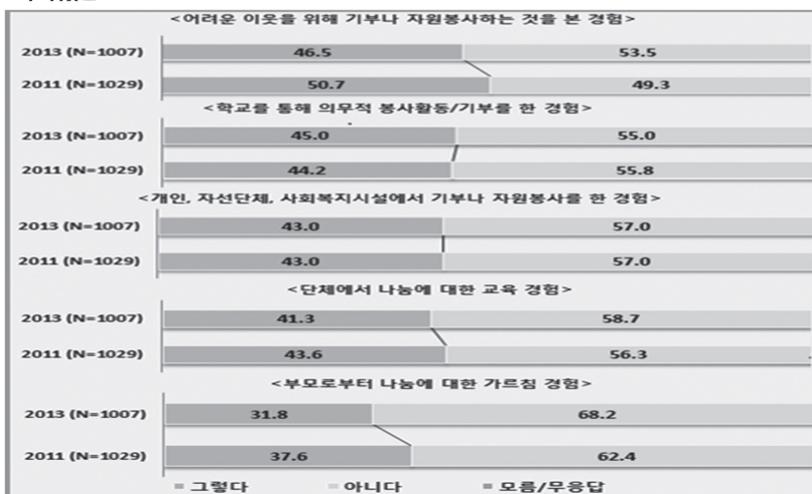
I. 2013 Giving Index

나눔교육과 사회자본



5-1. 나눔 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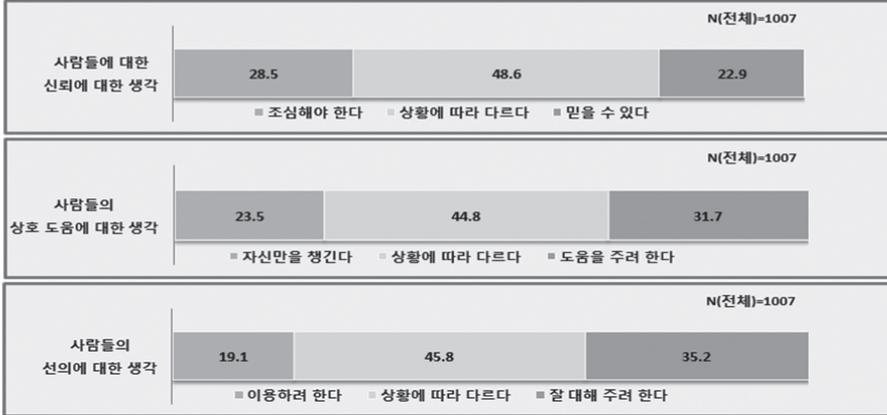
- 유/초/중/고/대학교 시절의 나눔 교육 경험과 관련해서, 부모님, 친척, 이웃 등의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을 본 적이 있음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나눔 교육 경험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5-2. 사회적 자본 (신뢰)

•신뢰와 관련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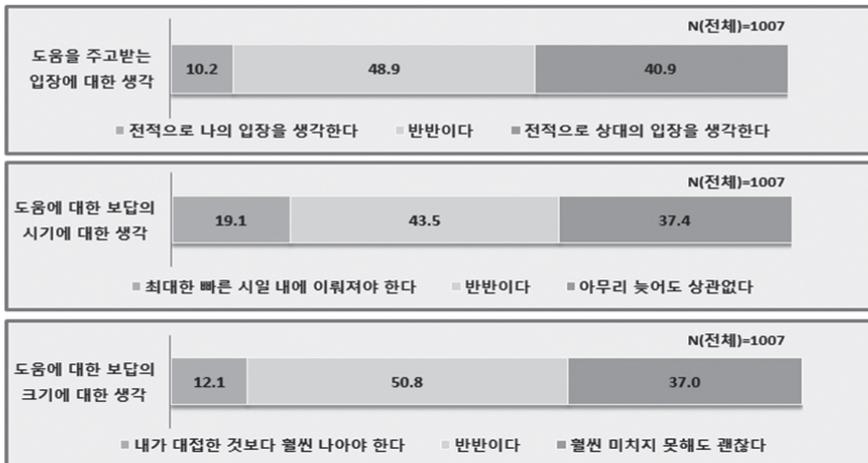
- 대부분의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응답이 '믿을 수 있다'는 응답보다 다소 더 높음.
-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응답이 '자신만을 챙기려 한다'는 응답보다 8.2%p 더 높음.
- 또한 자신에게 잘 대해 주려고 한다'는 응답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응답보다 16.1%p 더 높음.



5-3. 사회적 자본 (호혜성)

•호혜성과 관련해서,

- 이해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신보다 상대의 입장을 더 생각함.
- 내가 준 도움에 대해 보답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하기보다 늦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함.
- 내가 준 도움보다 상대의 보답이 더 커야 한다기보다 작아도 괜찮다고 생각함.



5-4. 사회적 자본 (규범)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과 관련

-나의 규범 준수에 대해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4.4%로 매우 높은 편이나 타인의 규범준수에 대해서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0.4%로 큰 차이가 있음.
-다른 사람들의 불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1.0%로 매우 높은 편이나 '나와 가족의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6.4% 상대적으로 낮음.



II. 나눔통계의 비교분석

- 기빙인덱스 2013과 사회조사 2013

1. 기빙인덱스 2013과 사회조사 2013의 조사개요

2. 기빙인덱스 2013과 사회조사 2013의 자선적 기부 및 자선적 자원봉사 결과 비교

3. 기빙인덱스 2013과 사회조사 2013의 자선적 기부 및 자선적 자원봉사 결정요인 모형추정 비교



1. 기빙인덱스 2013 vs 사회조사 2013 - 조사개요

구 분	기빙인덱스 2013	사회조사 2013
조사시기	2014년 7월	2013년 5월
대상시기	2013년 1월~12월 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	2012년5월11일~2013년 5월 10 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
대상지역	전국구	전국구
대상인원	1,007명	37,648명 (17,664가구)
대상연령	19세 이상	13세 이상
조사항목	자선적 기부 참여여부 및 금액 - 현금, 현물 (현물기부도 금액으로 환산하여 조사)	자선적 기부 참여여부 및 금액 - 현금, 현물 (단, 현물기부에 대해서는 횡수만 조사)
	자선적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시간	자선적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시간
	종교적 기부 참여여부 및 금액	X
	종교적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금액	X

2. 기빙인덱스 2013 vs 사회조사 2013 - 자선적 기부 및 자선적 자원봉사 결과 비교

구 분	기빙인덱스 2013	사회조사 2013 (age >= 19 대상에 대해서만)
기부참여율	48.5%	34.9%
국민1인당 평균기부금액 (‘현금’기부만 포함)	약 14만7천원	약 6만9천원
자원봉사참여율	22.6%	13%
국민1인당 평균자원봉사시간	약 10.9시간	약4시간

- ⇒ 전체적으로 기빙인덱스가 모든 항목에서 보다 높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조사에서 13세~18세를 포함시킬 경우에도 기빙인덱스가 전반적으로 더 높은 참여 경향을 보임.

3-1. 기빙인덱스 2013 vs 사회조사 2013 - 자선적 현금기부참여여부 결정요인 모형추정

자선적 기부 참여 여부 (현금기부)		기빙인덱스 2013		사회조사 2013 (age>=19)	
V 가구원수		-	x	-	0
V 지역 (서울 및 광역시=1, 그외=0)		+	x	+	0
V 직업 (ref. 임금근로자)	자영업	+	x	-	0
	학생, 주부, 무직 등	-	x	-	0
결혼 (미혼=0, 기혼=1)		+	0	+	0
나이		+	0	+	0
V 성별 (여=0, 남=1)		-	x	-	0
교육 (ref. 중졸이하)	고졸	+	0	+	0
	전문대제이상	+	0	+	0
월 평균 가구소득 log (ref. 0~100만원)	V100~200만원	+	x	+	0
	200~300만원	+	0	+	0
	300~400만원	+	0	+	0
	400~500만원	+	0	+	0
500만원 이상~		+	0	+	0

⇒ 참여여부에서 결혼, 나이, 교육, 소득에서는 같은 방향이고 두 자료간 차이도 없으나, 네 개 변수(가구원수, 지역, 직업, 성별) 및 월평균가구소득의 한 범주(100~200만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2. 기빙인덱스 2013 vs 사회조사 2013 - 자선적 현금기부금액 결정요인 모형추정

자선적 기부 참여 여부 (현금기부)		기빙인덱스 2013		사회조사 2013 (age>=19)	
V 가구원수		-	x	-	0
V 지역 (서울 및 광역시=1, 그외=0)		-	x	+	0
V 직업 (ref. 임금근로자)	자영업	-	x	-	0
	학생, 주부, 무직 등	-	x	-	0
결혼 (미혼=0, 기혼=1)		+	0	+	0
나이		+	0	+	0
V 성별 (여=0, 남=1)		+	x	-	0
교육 (ref. 중졸이하)	고졸	+	0	+	0
	전문대제이상	+	0	+	0
월 평균 가구소득 log (ref. 0~100만원)	V100~200만원	+	x	+	0
	200~300만원	+	0	+	0
	300~400만원	+	0	+	0
	400~500만원	+	0	+	0
500만원 이상~		+	0	+	0

⇒ 기부금액에서는 네 개 변수(가구원수, 지역, 직업, 성별) 및 월평균가구소득의 한 범주(100~200만원)에서 두 자료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 나이, 교육, 소득의 효과는 동일함.

3-3. 기빙인덱스 2013 vs 사회조사 2013 - 자선적 자원봉사 참여여부 결정요인 모형추정

자선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기빙인덱스 2013		사회조사 2013 (age>=19)	
가구원수					
지역 (서울 및 광역시=1, 그외=0)		-	0	+	0
V 직업 (ref. 임금근로자)	V 자영업	-	x	+	0
	학생, 주부, 무직 등	+	x	-	0
V 결혼 (미혼=0, 기혼=1)		-	0	+	x
V 나이		+	0	-	x
V 성별 (여=0, 남=1)		+	x	-	0
교육 (ref. 중졸이하)	V 고졸	+	x	+	0
	전문대제이상	+	0	+	0
월 평균 가구소득 log (ref. 0~100만원)	100~200만원	+	0	+	0
	200~300만원	+	0	+	0
	300~400만원	+	0	+	0
	V 400~500만원	+	x	+	0
	500만원 이상~	+	0	+	0

⇒ 참여여부에서는 네 개 변수(직업, 결혼, 나이, 성별) 및 두 변수의 하위 범주 중 교육(고졸) 및 월평균가구소득(400~500만원)에서 두 자료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3-4. 기빙인덱스 2013 vs 사회조사 2013 - 자선적 자원봉사 참여시간 결정요인 모형추정

자선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기빙인덱스 2013		사회조사 2013 (age>=19)	
가구원수					
지역 (서울 및 광역시=1, 그외=0)		-	0	-	0
직업 (ref. 임금근로자)	V 자영업	-	x	+	0
	학생, 주부, 무직 등	+	0	-	0
V 결혼 (미혼=0, 기혼=1)		-	0	+	x
V 나이		+	0	-	x
V 성별 (여=0, 남=1)		+	x	-	0
교육 (ref. 중졸이하)	V 고졸	+	x	+	0
	전문대제이상	+	0	+	0
월 평균 가구소득 log (ref. 0~100만원)	100~200만원	+	0	+	0
	200~300만원	+	0	+	0
	V 300~400만원	+	x	+	0
	V 400~500만원	+	x	+	0
	500만원 이상~	+	0	+	0

⇒ 자원봉사참여시간에서는 세 변수(결혼, 나이, 성별) 및 세 변수의 하위 범주 중 직업(자영업), 교육(고졸), 월평균가구소득(300~400만원과 400~500만원)에서 두 자료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Ⅲ. 요약 및 결론

첫째, 경제적 영향의 여파로 나눔의 저변이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전반적으로 나눔 참여에의 저변이 다소 약화되는 경향성은 있으나, 참여강도의 부분(정기성 및 금액과 시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셋째, 자선적 나눔에서는 저변 축소의 경향성이 있으나, 종교적 나눔과 상호부조 등의 영역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음.

넷째, 기빙코리아의 조사결과와 사회조사의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두 가지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됨.

첫째는 조사의 속성(**generalist survey vs. specialist survey**)과 큰 관련이 있음.

둘째는 조사규모의 차이(조사대상 인원 및 연령에 따른 포괄성)와도 관련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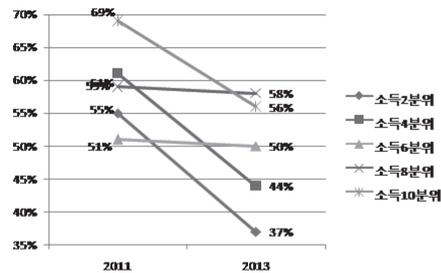
다섯째, 기본적으로 나눔 행동과 관련해서 결혼(+), 나이(+), 교육(+), 가구소득(+)¹의 영향력은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여섯째,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사회는 나눔 사회로의 진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향후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은 경제상황 및 major giving 등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됨.

소득수준별 기부참여 및 기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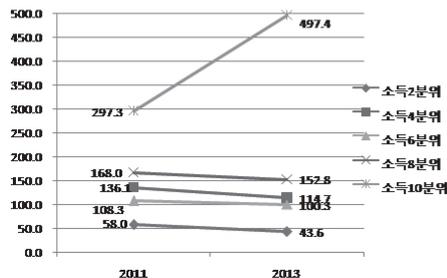
1) 소득수준별 평균 기부참여율 변화

기부참여율	2011	2013	2011->2013
소득2분위	55%	37%	-18%P
소득4분위	61%	44%	-17%P
소득6분위	51%	50%	-1%P
소득8분위	59%	58%	-1%P
소득10분위	69%	56%	-13%P



2) 소득수준별 평균 기부금액 변화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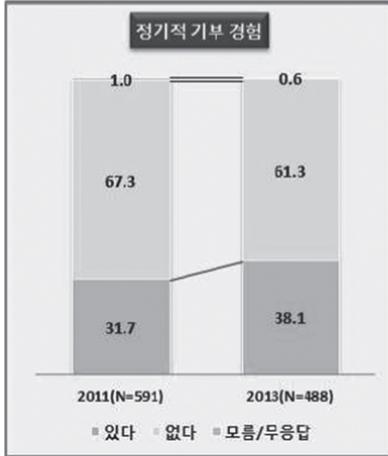
기부금액	2011	2013	2011->2013
소득2분위	58.0	43.6	-14.4
소득4분위	136.1	114.7	-21.3
소득6분위	108.3	100.3	-8.0
소득8분위	168.0	152.8	-15.2
소득10분위	297.3	497.4	200.1



*소득수준구분 - 국가통계포털 가구소득 10분위

정기/비정기 기부자의 기부참여 및 기부금액 비교

- 2011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기부자 중 정기기부자의 참여비율이 6.4%p 증가함.
- 정기기부자의 평균기부금액 또한 2013년 62만5천원으로 2011년에 비해 약 9만5천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평균 기부금액	2011	2013	2011->2013
정기 기부자	53만원	62만5천원	9만5천원 ↑
비정기 기부자	8만5천원	13만2천원	4만7천원 ↑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SESSION

2

2013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

한국인의 유산기부

연구자 |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조사기관 | **HankookResearch**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학력

- 연세대학교 신학 전공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최근 주요 경력

- 2013.~현재 세계공동모금회(United Way Worldwide) 이사
- 2011.~현재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 2003.~현재 중부재단 이사
- 2009.~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 연구실적

- 2014.5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기업의 지역상생 발전 전략- 한국광해관리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 2013.11 종교와 기부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종교성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학 2013.11 한국인의 보편적 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시민의 사회참여행동과 사회적 불평등 인식의 영향력 검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2013.8 기업과 비영리기관 사회공헌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 파트너십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2013.5 시민의 기부행동에 대한 현장실험 연구 - 구세군 자선냄비에 대한 기부, 연세대학교
- 2012.9 일상적 나눔행동과 유산기부 의향의 인과관계 추정: 성향점수 매칭(PSM) 분석, 한국사회정책
- 2013.3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인의 유산기부: 유산기부 의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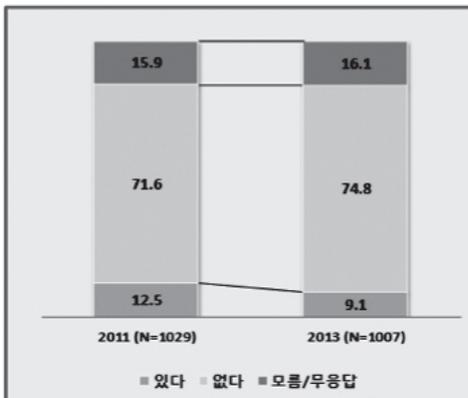
2014년 10월 23일

강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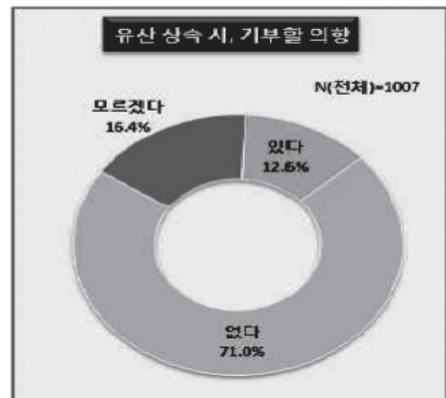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1. 유산 기부 의향 여부

- 기빙인덱스 2013에서는 유산기부 의향에 대해 본인의 자산에 대한 유산기부 의향과 가족으로부터의 유산상속 시의 유산기부 의향을 구분하여 질문함.
- 본인의 자산에 대한 유산을 기부할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기부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74.8%로 높은 반면,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1%(1007명 중 92명)로 2011년에 비해 3.4%p 감소함.
- 상속 유산에 대한 기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6%(1007명 중 127명)으로 본인의 자산에 대한 유산기부 의향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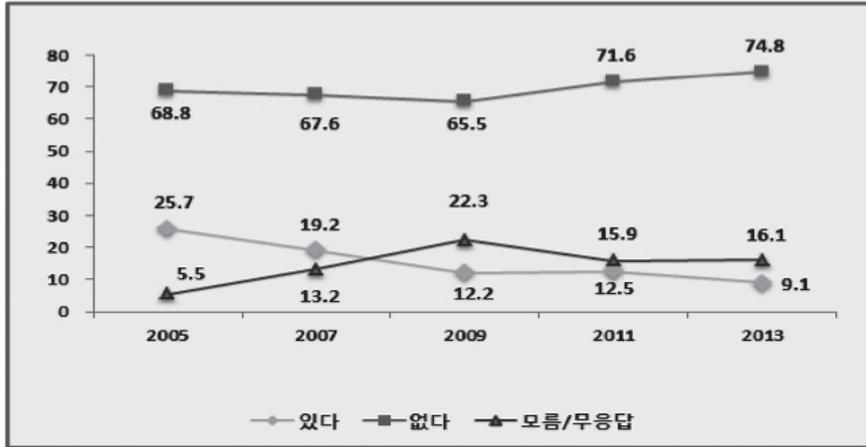
[본인 자산에 대한 유산기부 의향]



[유산상속시의 유산기부 의향]

2. 유산 기부 의향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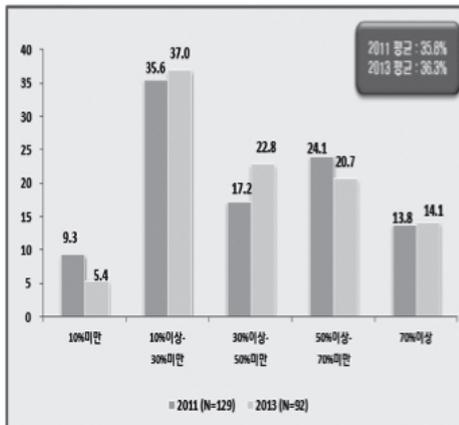
- ▶ 유산 기부 의향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도의 미미한 증가(0.3%p)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 2005년부터의 변화추이 속에서 2013년 조사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 이는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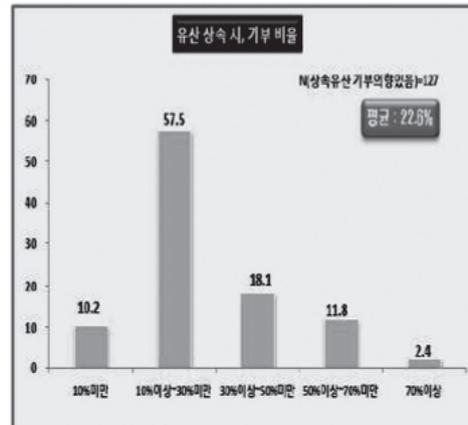
[2005~2013년 유산기부 의향 변화 추이]

3. 유산기부 희망 비율

- ▶ 유산기부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체 유산 중 어느 정도를 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유산기부 희망비율의 평균은 36.3%임. 2011년 35.8%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음.
- ▶ 유산기부에 긍정적인 응답자들은 10%이상 30%미만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경향이 있음.
- ▶ 상속 유산에 대한 희망기부비율의 평균은 22.6%로 본인 유산기부 희망비율에 비해 낮음.



[본인 자산에 대한 유산기부 의향]



[유산상속시의 기부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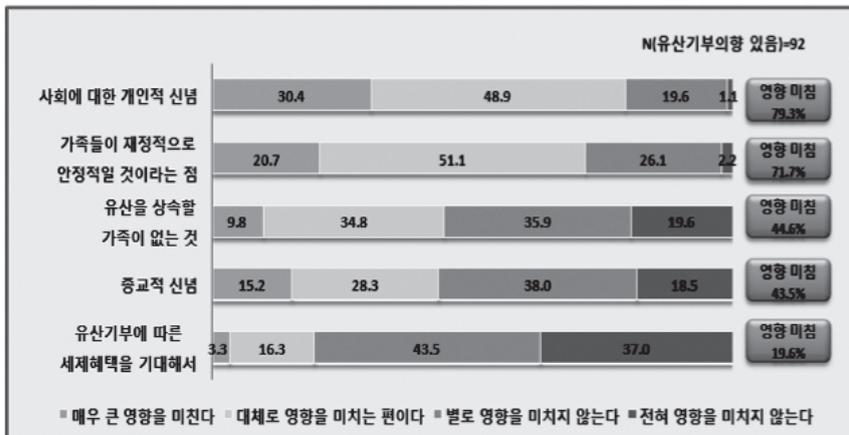
4. 유산 기부 의향이 높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계층인식이 높을 수록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9.7%), 40-49세(13.3%)** 가구소득**500만원 이상(13.2%)**, 중소도시 동부(**14.0%**), 미혼(**11.7%**), 종교 있음(**12.7%**), 행복한 편(**10.0%**), 노후 준비 됨(**10.1%**), 진보(**16.6%**) 등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음.
- ▶ 반면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일 수록, 계층인식이 낮을수록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76.1%), 60세 이상 (80.7%), 가구소득 100-199만원 (82.3%),** 기혼, 이혼, 사별(**78.0%**), 종교 없음(**79.4%**), 불행한 편(**79.5%**), 재정적으로 안정적임(**75.8%**), 노후 준비되지 않음(**75.1%**) 등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음.

영향구분	사양구분	인구(명)	영향	없다	부족하다	적
성별	남자	(497)	9.7	78.4	18.9	100.0
	여자	(910)	8.8	76.1	18.3	100.0
연령	19세~29세	(178)	9.8	69.7	24.7	100.0
	30세~39세	(196)	10.3	75.9	18.8	100.0
	40세~49세	(218)	13.3	70.8	18.1	100.0
	50세~59세	(198)	6.1	79.8	14.1	100.0
	60세 이상	(218)	6.4	80.7	12.8	100.0
지역	중대도시권이외	(200)	4.0	88.0	10.0	100.0
	대중도시권이외	(377)	6.4	81.2	12.8	100.0
	대중도시권내	(428)	15.8	85.8	22.9	100.0
	중소/무응답	(4)	28.0	78.0	0.0	100.0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64)	5.8	74.1	20.4	100.0
	100~199만원	(124)	4.8	82.3	12.9	100.0
	200~299만원	(162)	11.1	78.3	15.6	100.0
	300~399만원	(224)	6.7	79.4	17.8	100.0
	400~499만원	(188)	9.1	78.9	14.0	100.0
	500만원 이상	(236)	13.2	70.2	18.8	100.0
가구지역	대도시	(482)	6.9	80.3	12.8	100.0
	중소도시동부	(371)	14.0	85.2	20.8	100.0
	중소도시서남동부	(174)	4.8	80.9	14.8	100.0
혼인상태	미혼	(240)	11.7	64.8	23.8	100.0
	기혼, 이혼, 사별	(762)	8.4	78.0	18.8	100.0
	중소/무응답	(6)	0.0	80.0	20.0	100.0
종교	종교 있음	(481)	12.7	70.8	17.0	100.0
	종교 없음	(519)	5.8	79.4	14.8	100.0
	중소/무응답	(11)	9.1	84.9	28.4	100.0
행복도	행복한 편	(200)	9.5	79.5	18.0	100.0
	불행한 편	(807)	10.0	78.8	18.4	100.0
재정적 안정	안정적임	(528)	9.1	78.8	18.2	100.0
	안정적이지 않음	(479)	9.2	78.7	17.1	100.0
	중소/무응답	(478)	10.1	74.4	18.4	100.0
이념경향	진보	(247)	16.8	68.4	17.0	100.0
	보수	(486)	5.8	77.5	17.0	100.0
계통	상	(94)	17.8	81.8	20.8	100.0
	중	(589)	11.3	72.8	16.1	100.0
	하	(388)	5.2	79.1	15.7	100.0

5. 유산 기부 의향과의 관계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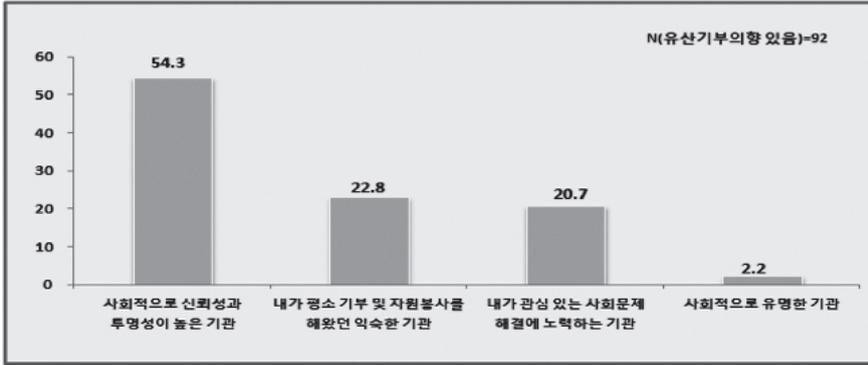
- ▶ 유산기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유산기부 의향에 관계를 갖는 요인 중에서 사회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 79.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점 (71.7%)도 그 다음으로 높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 유산을 상속할 가족이 없는 것(44.6%)과 종교적 신념(43.5%)이 그 뒤를 이음. 유산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기대(19.6%)는 상대적으로 가장 미약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유산기부 의향과의 관계 요인]

6.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기부처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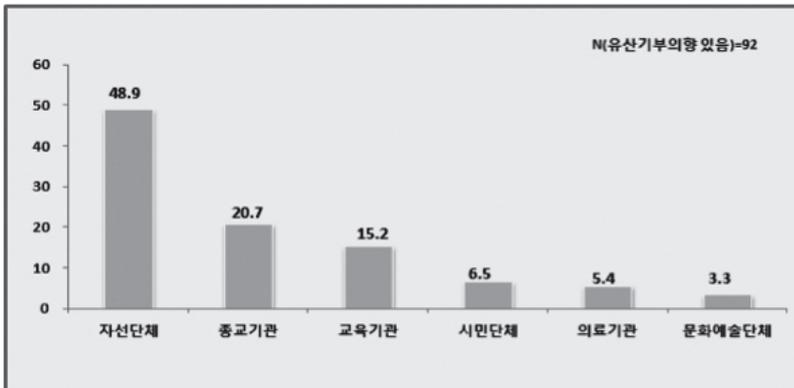
- ▶ 유산기부의향이 있을 경우, 유산을 기부하고 싶은 대상의 속성으로는 사회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은 기관이 54.3%로 가장 높았고, '내가 평소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해왔던 익숙한 기관(22.8%)', '내가 관심을 두는 사회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기관(20.7%)', '사회적으로 유명한 기관(2.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남. 신뢰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
- ▶ '사회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은 기관'에 유산기부를 원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일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그런 응답을 하는 경향을 보이며, '내가 평소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해왔던 익숙한 기관'에 유산기부를 원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일수록 상대적으로 그런 응답을 하는 경향을 보임.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기부처 속성]

7. 유산 기부를 희망하는 기부처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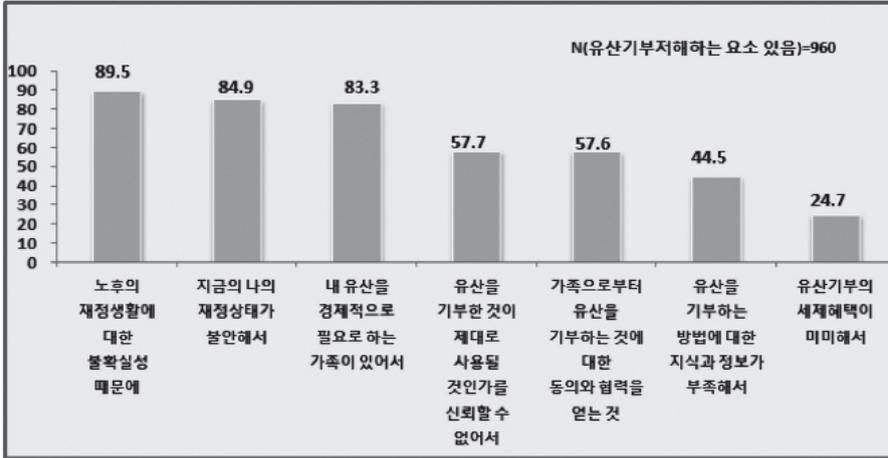
- ▶ 유산기부 의향이 있을 경우,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대상 기관의 형태로는 자선단체가 48.9%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기관(20.7%), 교육기관(15.2%), 시민단체(6.5%), 의료기관(5.4%), 문화예술단체(3.3%) 순으로 그 뒤를 이음. 자선단체가 가장 높게 선호됨.
- ▶ '자선단체'에 유산기부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일수록 그런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이며, 남자(52.1%), 19-29세(52.9%), 미혼(53.6%), 종교 없음(66.7%), 재정적으로 안정적임(50.0%), 중산층 계층(51.5%) 등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선택이 높음.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기부처 형태]

8. 유산 기부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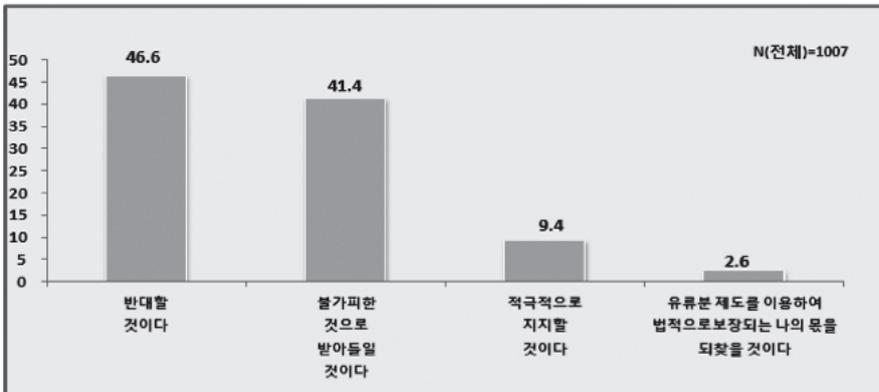
- 유산 기부 고려 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해 '노후의 재정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이 첫 번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9.5%), 현재 본인의 불안정한 재정상태(84.9%), 경제적으로 유산이 필요한 가족의 존재(83.3%)가 그 뒤를 이음.
- 이러한 사실은 유산기부 결정은 기부자들의 현재와 미래의 재정적 불안정성과 관련이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임.



[유산기부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

9. 가족의 유산 기부 결정 시 대응방식

- 마지막으로 가족이 유산기부 결정을 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약 47%(일반 국민 10명 중 약 5명)은 가족의 유산기부 결정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유류분 제도를 통해 즉 법적 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체 응답자의 9.4%(1007명 중 95명)만이 가족의 유산기부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가족의 유산기부 결정시 대응방식]

10-1. 유산기부 결정요인 추정모형 - 유산기부의향

▶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산기부의향 결정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문대 재학이상의 학력(+), 중소도시동부(+), 기독교(+), 천주교(+), 나눔교육 등의 나눔 간접경험(+), 자선적기부금액(+), 사회자본(+)¹이 유산기부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구분	변수	coef.	p> Z	구분	변수	coef.	p> Z	
인구 사회 학적 변수	연령	.0021682	0.907	기부주체 잠재요인	나눔경험_간접	.2964311	0.043*	
	성별	-.0324318	0.915		나눔경험_직접	-.1401402	0.509	
	결혼여부(미혼=0 기준=1)	-.6397031	0.155		기부금사용 개방성 (지역사회~국제사회)	.0412656	0.759	
	교육 (ref. 중졸이하)	고졸	.2076092		0.717	종교성 (월가구소득대비월현급)	.4370312	0.130
	거주지구모 (ref. 중소도시읍 면)	전문 대재 이상	1.165233	0.068*	기부주체 실천경험 요인	자선적기부금액(log)	.1854735	0.003***
		중소도시동부	1.383052	0.003***		자선적자원봉사시간(log)	.0459697	0.625
	재정상태	대도시	.1140239	0.814	기타 요인	사회계층의식	.0546946	0.626
		가구원수	-.154782	0.302		행복감	.144137	0.135
		가구월소득(log)	-.0502029	0.878		재정안정도	-.0383659	0.674
		금융자산(log)	-.0671828	0.124		노후준비정도	-.0483199	0.548
	부동산자산(log)	.0098461	0.774	이념성향(보수-진보)		.0723514	0.358	
	부채여부	-.4143219	0.228	사회자본 (신뢰,호혜성,규범)		.110255	0.011**	
	종교 (ref. 무교)	기독교	.8298286	0.028**		cons	-.5935275	0.023
		천주교	.8877283	0.068*				
불교		.2540125	0.541					
기타		1.559817	0.113					

10-2. 유산기부 결정요인 추정모형 - 유산기부희망비율

▶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산기부희망비율의 결정요인을 Tobit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중소도시 동부(+), 금융자산(+), 기독교(+), 종교성(+), 자선기부금액(+), 사회자본(+)¹이 유산기부희망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구분	변수	coef.	p>t	ME	구분	변수	coef.	p>t	ME
인구 사회 학적 변수	연령	-.0705026	0.895		기부주체 잠재요인	나눔경험_간접	6.579841	0.128	
	성별	2.068926	0.814			나눔경험_직접	-7.033832	0.271	
	결혼여부(미혼=0 기준=1)	-17.95824	0.182			기부금사용 개방성 (지역사회~국제사회)	3.484109	0.381	
	교육 (ref. 중졸이하)	고졸	1.907688	0.904		종교성 (월가구소득대비월현급)	15.61402	0.034**	1.73
	거주지구모 (ref. 중소도시 읍면)	전문 대재 이상	27.39841	0.135	기부주체 실천경험 요인	자선적기부금액(log)	4.504624	0.017**	0.5
		중소도시동부	31.49226	0.017**		2.08	자선적자원봉사시간(log)	.7900319	0.777
	재정상태	대도시	.9073496	0.946	기타 요인	사회계층의식	2543639	0.939	
		가구원수	-5.892472	0.183		행복감	4.277375	0.136	
		가구월소득(log)	4.660821	0.637		재정안정도	.3496657	0.895	
		금융자산(log)	-2.877675	0.030**		0.38	노후준비정도	-1.582211	0.508
	부동산자산(log)	.8219256	0.428	이념성향(보수-진보)		1.177552	0.597		
	부채여부	-11.00665	0.271	사회자본 (신뢰,호혜성,규범)		4.040025	0.002***	0.45	
	종교 (ref. 무교)	기독교	25.1666	0.022**		1.66	cons	-233.546	0.003
		천주교	20.3154	0.171					
불교		7.489262	0.525						
기타		52.39054	0.122						

요약 및 결론

첫째, 경제적 환경의 불안정성이 유산기부에 대한 의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유산을 상속 받게 될 경우의 유산기부를 향한 행동상의 차이(3.5%P 정도의 차이)가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셋째, 가족의 유산기부에 대한 부정적 정서(46.6%)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넷째,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리고 이른 정년 등의 문제로 재정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구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유산기부는 긍정적으로 선호되기 어려운 기부방식인 것으로 평가됨.

다섯째, 유산기부에 대한 이와 같은 선호 pattern은 개인과 가족의 향후 경제적 상황이라는 근본적인 이유와 관련된 사회적 조건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여섯째, 이런 상황에서도 종교, 현재의 자선적 나눔 행동, 사회자본 등은 유산기부에 대한 의향 및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해외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가 유산기부의 중요 channel이 될 수 있고, 동시에 현재의 나눔 행동 및 사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유산기부의 중요 channel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일곱째, 한국사회에서 유산기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종교, 현재의 자선적 나눔행동, 사회자본 축성 등의 채널에 기반한 노력이 일차적인 방안일 수 있음.



감사합니다

15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SESSION

3

2013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

한국인의 상호부조 행동분석

연구자 |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조사기관 | **HankookResearch**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학력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학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박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화연구 전공

◎ 최근 주요 경력

- 2004~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2000~2003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996~1999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06~현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부소장
- 2007~2012 다음세대재단 이사
- 2000~현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이사
- 2005~현재 한국비영리학회 이사
- 2002~2010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

◎ 연구실적

-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성과지표개발
- 한국 비영리조직의 디지털 미디어 이해 및 활용도 조사
- 한국 비영리 조직 실무자의 디지털 미디어 이해 및 활용도 조사
- 조직적 관점에서의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방안
- Corporate Philanthropy in South Korea
- Corporate Philanthropy in Korea during the economic crisis
- 사회생태주의적 관점에서의 한국 복지국가 담론 비판과 대안
- 복지국가와 시민사회
- 사회복지의 대안적이론체계로서의 사회생태주의

한국인의 상호부조행동

Mutual-Aid Giving in Korea

2014년 10월 23일

한동우(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조사개요

- 목적: 한국인의 상호부조 행동 실태 파악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14년 기획연구의 일환으로 실시
- 방법: Giving Korea 원 조사에 상호부조행동 부가 조사
 - 조사 표본과 자료수집 방법은 Giving Korea Index 조사와 동일
- 자료분석: SPSSWIN을 활용한 통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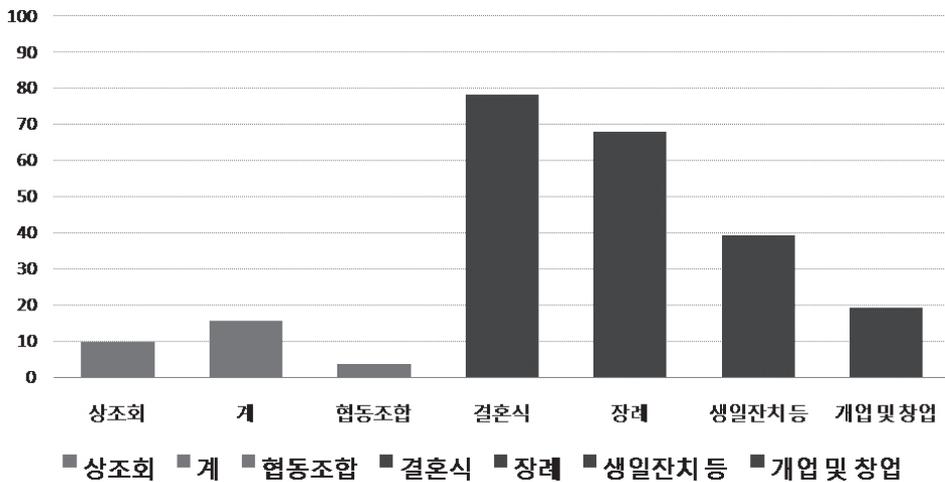
상호부조행동의 분류

상호부조행동	상호부조 조직에 대한 지출	현물	상조회
			계
		현금	협동조합
			상조회
	경조사 지출	현물	계
			협동조합
			결혼
		현금	장례
			생일잔치 등
			개업및 창업

상호부조지출경험 : 참여율

상조회 가입 등 상호부조 조직 참여율은 10% 내외이나 경조사비 지출 참여는 결혼식 축의금이 78%, 장례 조위금 68% 등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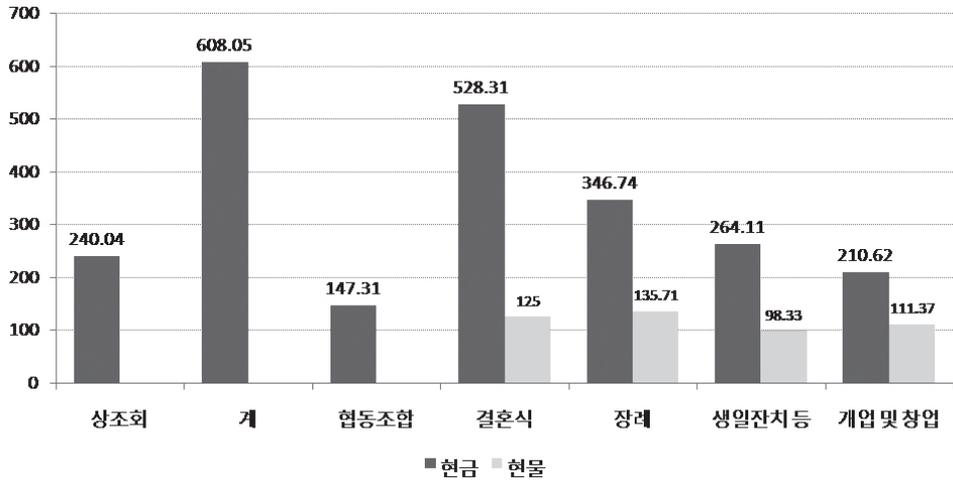
[상호부조지출 경험: 참여율 (% , N=1,007)]



상호부조지출 경험 : 연평균 금액

상호부조 조직에 출연한 금액은 계가 가장 많아서 연평균 60만8천원이며, 경조사 비용 중에서는 결혼식 축의금이 52만8천원으로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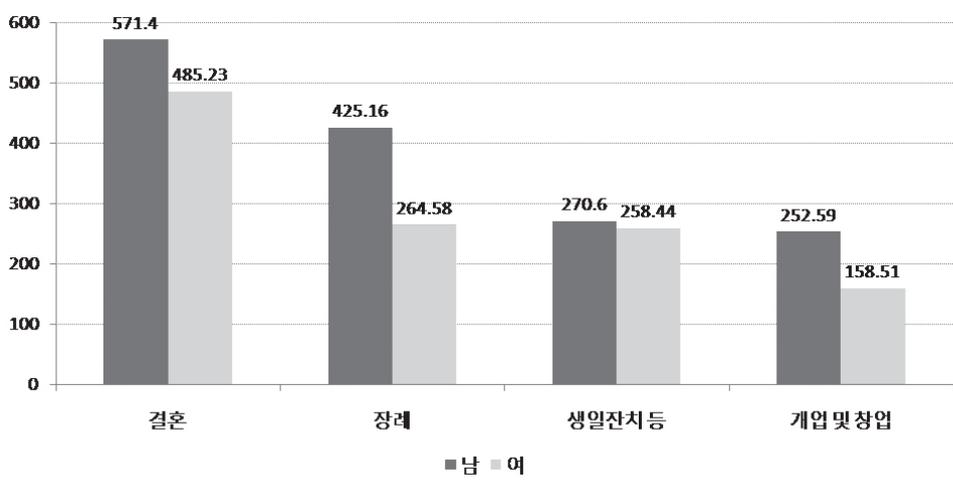
[상호부조지출 경험: 연 평균 금액 (천원)]



성별 경조사비 지출금액

대체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조사비용 지출 금액이 많으나, 생일잔치 축하금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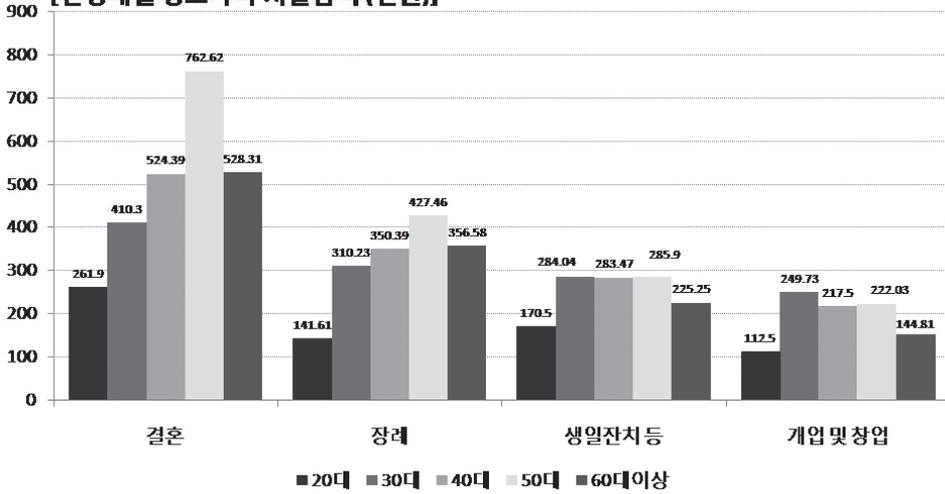
[성별 경조사비 지출금액 (천원)]



연령대별 경조사비 지출금액

연령대 별로는 대체로 나이가 많을 수록 경조사비 지출이 많으나, 특히 50대의 지출이 가장 많음. 그러나 생일잔치 축의금과 개업 및 창업 축의금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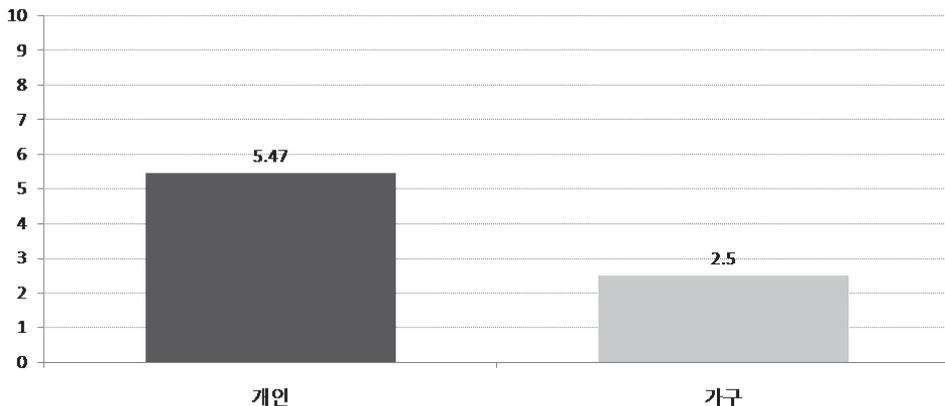
[연령대별 경조사비 지출금액 (천원)]



개인 및 가구 연평균 소득 대비 경조사비 지출비중

소득 대비 경조사비 지출 비중은 개인소득의 5.47%, 가구 소득의 2.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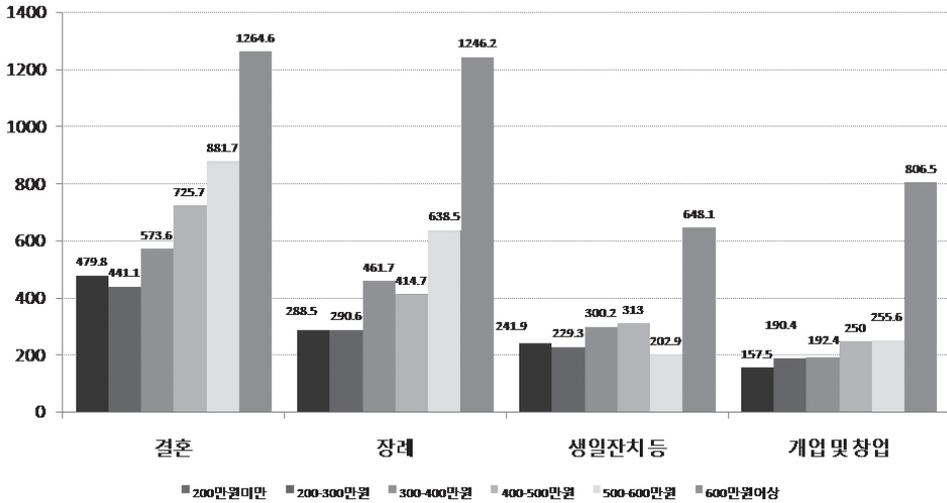
[개인 및 가구 연평균 소득 대비 경조사비 지출 비중 (%)]



월평균 소득대비 경조사비 지출 금액

대체로 개인 소득이 많을 수록 경조사비 지출금액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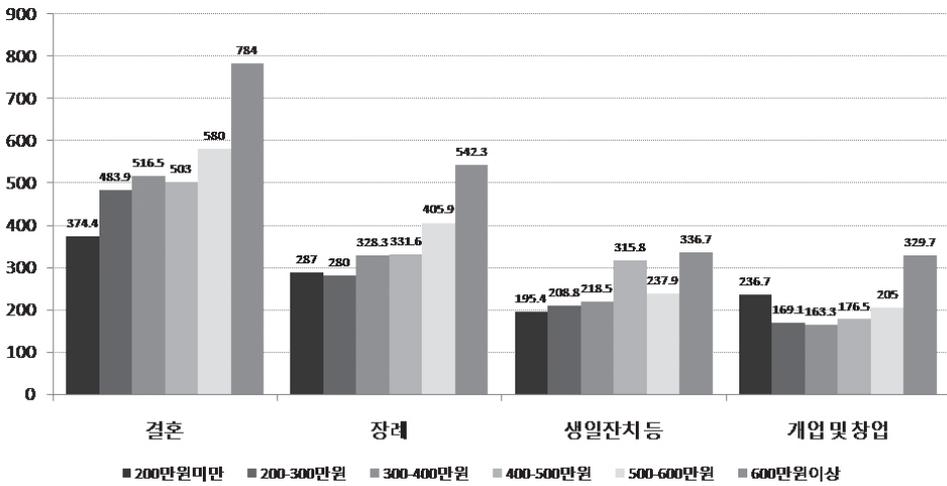
[월평균 소득 대비 경조사비 지출 금액 (천원)]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경조사비 지출금액

대체로 가구소득이 많을 수록 경조사비 지출금액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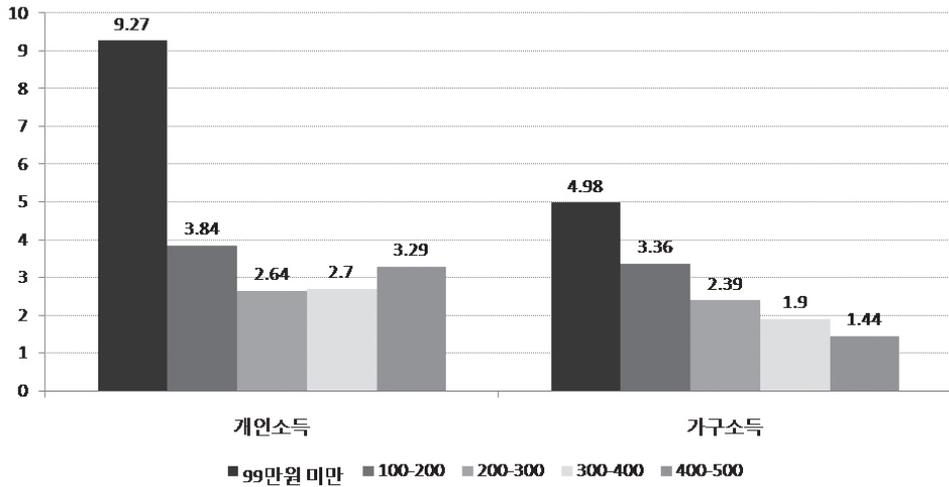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경조사비 지출 금액 (천원)]



소득구간별 경조사비 지출비중

대체로 소득이 적을 수록 경조사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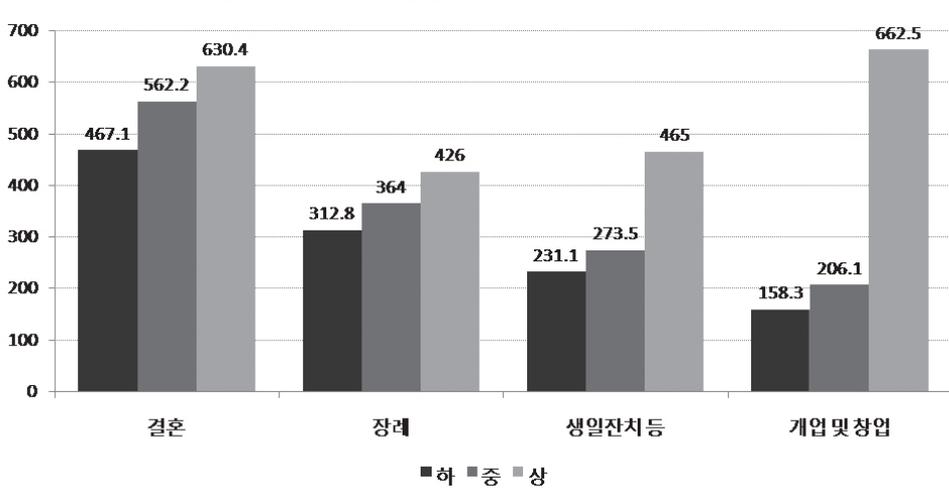
[소득구간별 경조사비 지출 비중: 연평균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대비 (%)]



주관적 계층별 경조사비 지출금액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의식이 높을 수록 경조사비 지출 금액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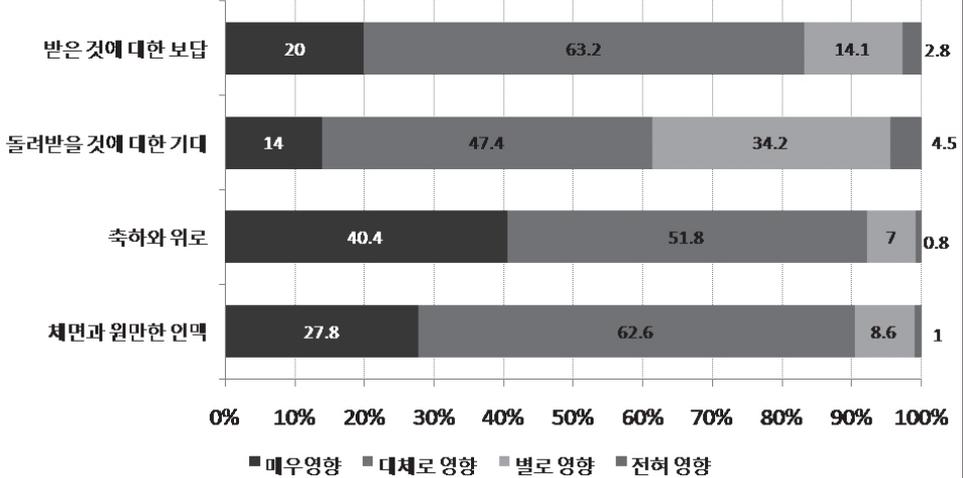
[주관적 계층별 경조사비 지출 금액 (천원)]



경조사비 지출과 관련된 태도

경조사비 지출은 대체로 체면과 인맥유지, 축하와 위로 위해서 지출하나, 돌려받을 것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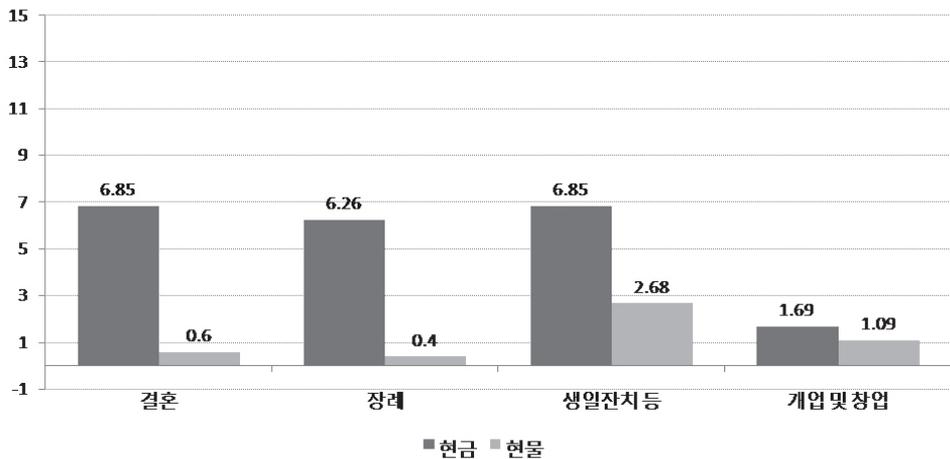
[경조사비 지출과 관련된 태도 (N=1,007, %)]



경조사비 수령 경험 : 지난 3년간

지난 3년간 경조사비를 받은 경험은 7% 수준이며, 개업 및 창업 축하금은 2% 미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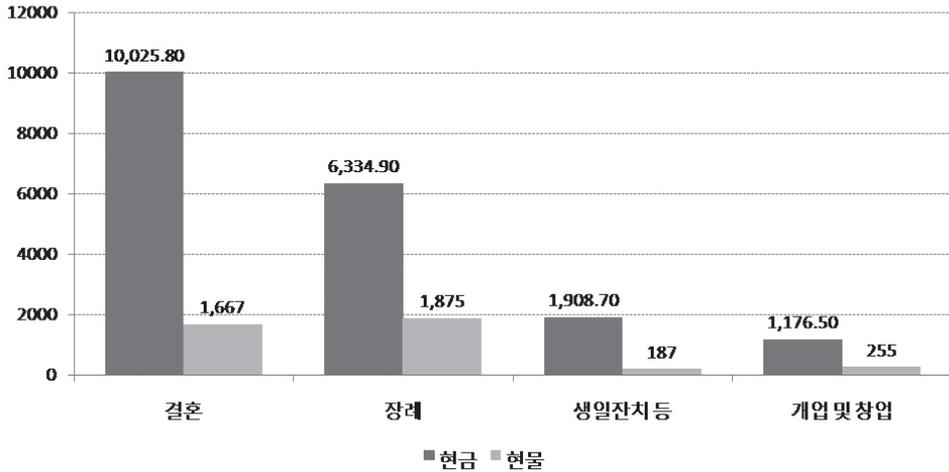
[경조사비 수령 경험: 지난 3년간 (%), N=1,007]



경조사비 수령경험 : 지난 3년간

경조사비로 받은 금액 중 결혼식 축의금이 1천만원 정도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장례 조위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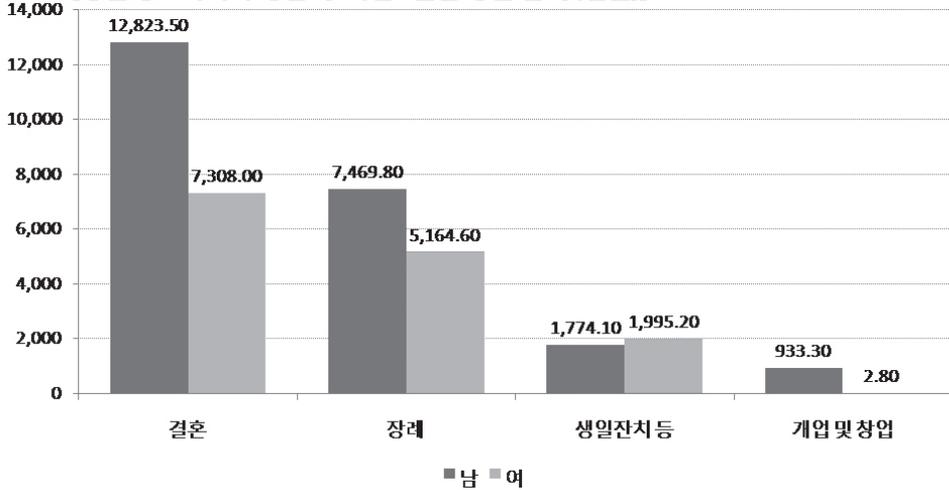
[경조사비 수령경험: 지난 3년간 평균금액 (천원)]



성별 조사비 수령금액 : 지난 3년간 평균 금액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경조사비 수령 금액이 많으나 생일잔치 축하금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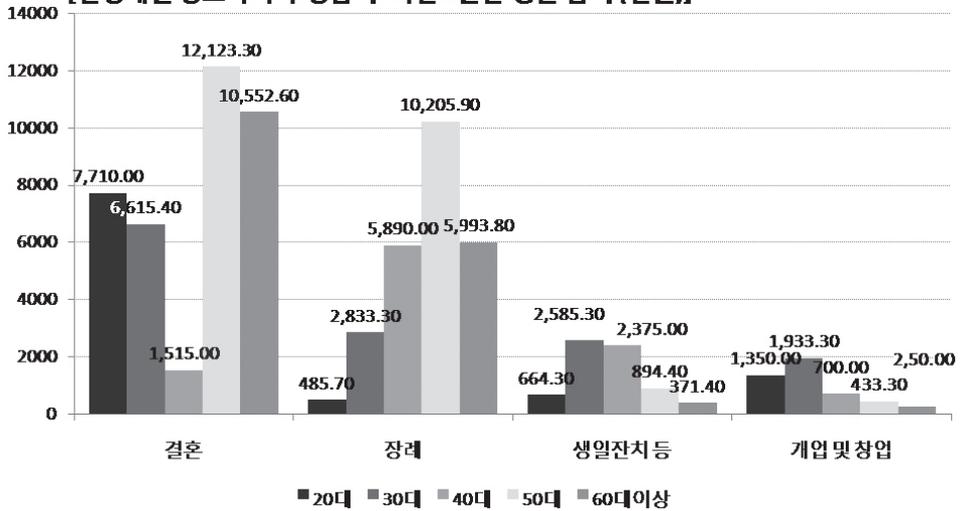
[성별 경조사비 수령금액: 지난 3년간 평균 금액 (천원)]



연령대별 경조사비 수령금액 : 지난 3년간 평균금액

대체로 50대의 경조사비 수령 금액이 가장 많으나, 생일잔치 축하금과 개업 및 창업 축하금은 30대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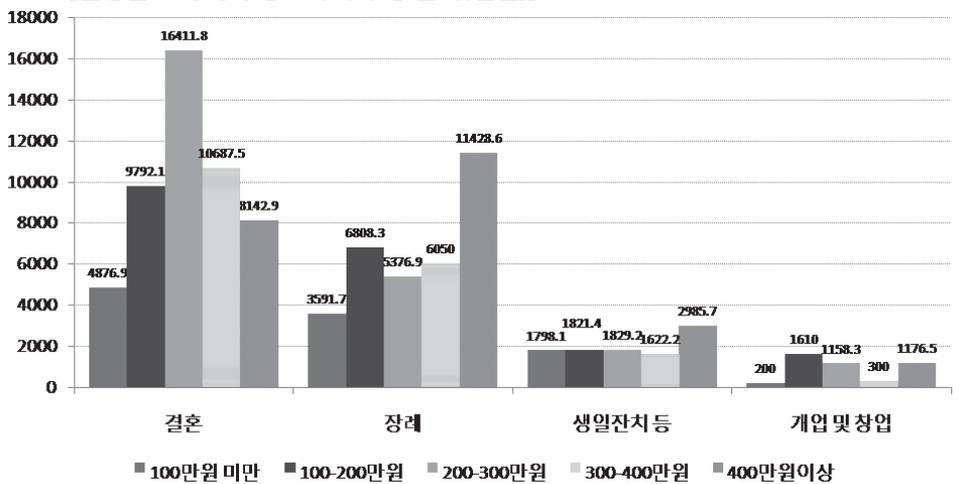
[연령대별 경조사비 수령금액: 지난 3년간 평균 금액 (천원)]



월평균 소득대비 경조사비 수령금액

결혼축의금은 중위소득 수준에서, 장례 조의금 등 기타 경조사비는 연령대가 높을 수록 수령금액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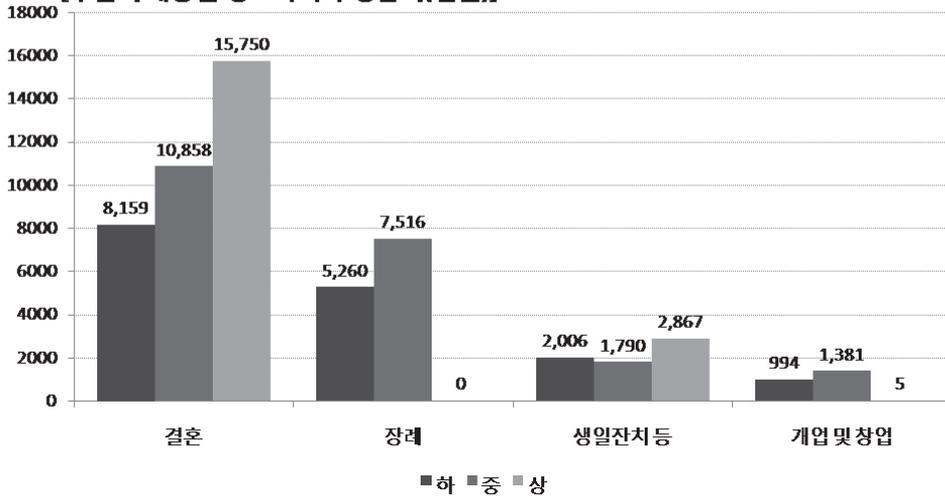
[월평균 소득대비 경조사비 수령 금액(천원)]



주관적 계층별 경조사비 수령금액

대체로 주관적인 계층의식이 높을 수록 경조사비 수령 금액이 많음

[주관적 계층별 경조사비 수령금액(천원)]



요약

1. 경조사비 지출 경험은 결혼식 축의금 78%, 장례식 조위금 68% 등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2. 1인당 평균 경조사비 지출 금액은 결혼식 축의금이 65만3천원(현물포함)으로 가장 많으며, 장례식 조위금은 45만2천원임
3.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경조사비 지출이 많음
4. 연령별로는 50대의 경조사비 지출이 가장 많음
5. 소득대비 경조사비 지출금액의 비중은 개인소득의 5.5%, 가구소득의 2.5%임
6. 소득이 많을 수록 경조사비 지출 금액이 많음
7. 소득이 적을 수록 소득대비 경조사비 지출 금액의 비중이 큼
8.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 수록 경조사비 지출 금액이 많음

요약

9. 경조사비 지출 이유는 체면과 인맥 유지, 축하와 위로를 위해서
10. 지난 3년간 경조사비 평균 수령 금액은 결혼식이 1천1백7십만원 장례식 조위금이 8백2십만원 등의 순임
11.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경조사비 수령 금액이 많음
12. 연령별로는 50대의 경조사비 수령 금액이 가장 많음
13. 소득수준별로는 결혼축의금은 중위소득 수준에서, 기타 경조사비는 소득이 높을 수록 수령금액이 많음
14. 주관적 계층 의식이 높을 수록 경조사비 수령 금액이 많음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상호부조 행동 관계에 관한 추가 분석
2. 상호부조 지출 금액의 총량 추계
3. 상호부조 행동과 기부행동의 관계 분석
- 경쟁적 관계 vs. 보완적 관계
4. 사회자본 수준과 상호부조 행동의 관계 분석
- 신뢰(trust), 규범(norm), 호혜성(reciprocity) 등과 상호부조 행동
5. 계층 의식에 따른 상호부조 행동 분석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2014년 기획연구결과 발표 시
후속 연구 과제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P A R T **2**

문화예술 GIVING INDEX
- 문화예술개인기부지수

한국 최초의 문화예술개인기부지수 및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전략

Session. 1

2013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 지수 발표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1

SESSION

문화예술개인기부지수

2013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 지수 발표

연구자 |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조사기관 | **HankookResearch**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 학력

- 서울대학교 지리학전공
- 캐나다 사스캐치완대학교 대학원 입지이론전공

◎ 최근 주요 경력

- 2013.~현재 대한지리학회, 공간사회분석과 연구과제 총괄, 지리연구소장
- 2013.~현재 한국경제지리학회, 학회지 편집총괄, 편집위원장
- 2012.~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조사, 계량분석, 도시연구 총괄, 도시사회연구소장
- 2011.~현재 Asian Geographer, 논문심사 및 특별호 주간, International Editorial Advisory Board Member

◎ 연구실적

- 2013.1-10 문화예술교육사 활용모델 연구, 연구책임/통계조사와 fgd를 통한 분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2013.1-11 수도권 공간체계 변화에 따른 신도시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통계조사, 현장조사, fgd를 통한 분석, LH공사
- 2012.1-12 청량리,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연구책임/사회통계조사, 심층면담분석, fgd를 통한 분석, 서울역사박물관
- 2011.1-5 문화예술교육정책 전달체계 분석, 연구책임/사회통계조사, 심층면담분석, fgd를 통한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년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남기범(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 조사목적과 개요

- 우리나라 개인의 기부활동 중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 실태 파악
 - 우리나라 개인의 문화예술 기부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분석
 - 향후 문화예술 기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 제공
-
-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조사전문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 구조화된 정량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활용한 웹조사 수행
 - 모집단은 문화예술분야 기부,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 남녀
 - 설문조사는 2014년 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시행됨. 총 523명 표집

2. 응답 표본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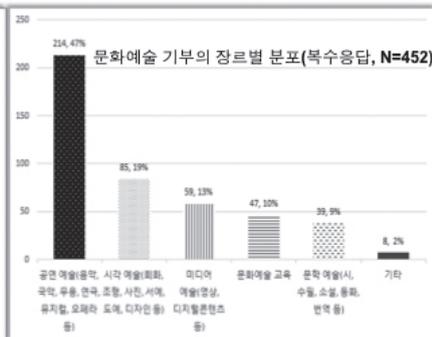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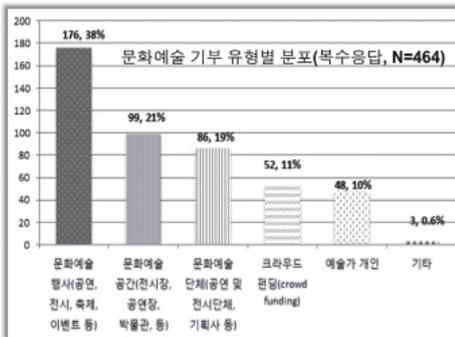
※ 성별 ※	N	%	※ 교육수준 ※	N	%	※ 직업 ※		
남	257	49.1	고졸이하	66	12.6	사무관리/전문직	293	56.0
여	266	50.9	전문대재이상	454	86.8	학생	73	14.0
※ 연령대 ※			무응답	3	0.6	자영업	45	8.6
30대 미만	131	25.0	※ 주거형태 ※			판매/영업/서비스직	49	9.4
30대	129	24.7	자가	354	67.7	기타	63	12.0
40대	133	25.4	기타	169	32.3	N = 523		
50대 이상	130	24.9	※ 예술나무운동 인지여부 ※					
※ 거주지역 1 ※			들어본 적 있음	170	32.5			
수도권	316	60.4	들어본 적 없음	353	67.5			
지방	207	39.6	※ 월평균 가구소득 ※					
※ 거주지역 2 ※			400만 미만	144	27.1			
광역시	275	52.6	400~599만	193	36.9			
그 외 지역	248	47.4	600만 이상	188	35.9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3. 문화예술기부의 현황과 특성

[문화예술 기부 분야와 장르]

- [분야] 문화예술행사 기부: 38%, 문화예술공간: 21%, 문화예술 공연단체: 19%, 크라우드펀딩, 예술가 개인: 11%, 10%.
- → 예술가 개인에 대한 기부가 상대적으로 낮고, 행사나 기관에 대한 기부가 대부분임.
- [장르] 공연예술: 47%, 시각예술 19%, 미디어예술: 13%, 문화예술교육: 10%, 문학·예술: 9%
- → 공연예술분야에 치중됨. 문화예술교육, 문학 등은 상대적으로 낮음.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3. 문화예술기부의 현황과 특성

[문화예술 기부금액]

- 문화예술분야 기부자 1인당 평균 1.4개 부문에 기부를 함.
- 현금 및 물품 등 모든 형태의 기부금액 포함 기부자 1인이 평균 37만 9천원 기부
- 기부금액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각기 1천원과 1천7백만원으로 격차가 큼
→ 기부금액의 차이가 큼.
- 현금 기부액보다 현물 기부액에서의 금액의 편차가 더 큼.
→ 공연예술분야에 치중됨. 문화예술교육, 문학 등은 상대적으로 낮음.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액 부문 및 금액 (N=339, 단위: 천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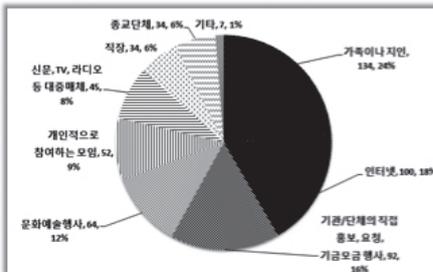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현금 기부액	198.8	449.5	0	5,000
현물 기부가액	180.5	1,010.8	0	15,000
현금, 현물 기부총액	379.4	1,263.1	1	17,000
1인당 기부분야 수	1.4	0.7	1	5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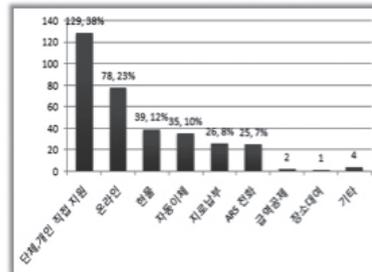
3. 문화예술기부의 현황과 특성

[문화예술 기부의 주기, 인지경로, 기부방식]

- 대부분의 문화예술기부가 부정기적임: 정기적 기부: 22.7%, 부정기적 기부: 73.5%, 정기적 기부자의 49.4%가 매달 기부
- 인지경로는 가족이나 지인: 24%, 인터넷: 18%, 각종 기금모금행사: 16%, 문화예술행사: 12%, 개인적 모임: 9%, 대중매체: 8%, 직장이나 종교단체: 각각 6%. → 개인적 경험이 주경로이며, 대중매체보다 인터넷이 10% 이상임.
- 기부방식은 단체나 개인 직접 지원: 38.1%, 온라인: 23%, 현물: 12%, 자동이체: 10%, 지로: 8%, ARS: 7% → (on-off line) 직접 기부 방식선호



문화예술 기부대상 인지경로(복수응답, N=33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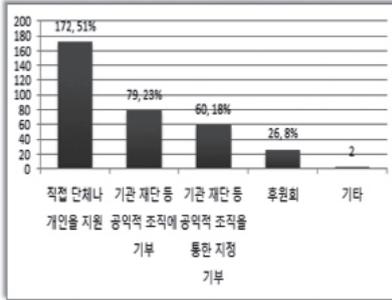
문화예술 기부방식(N=339, 단위: 명, %)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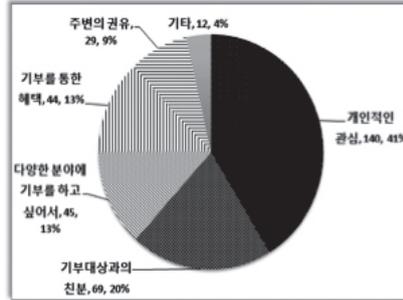
3. 문화예술기부의 현황과 특성

[문화예술 기부의 경로와 동인]

- [기부경로] 기부활동의 51%: 기부대상 단체나 개인을 직접 지원, 공익조직 기부: 23%, 지정기부: 18%
→ 특정 단체를 후원, 기부하는 경우는 7.7%에 불과.
- [기부동인] 기부경험자의 41%는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 때문. 기부대상 단체, 개인과 친분: 20%
, 다양한 분야의 기부: 13%, 기부를 통한 혜택: 13%, 권유: 9%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고, 향유하는 개인이 기부를 함. → 향후 기부활성화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



문화예술 기부경로(N=33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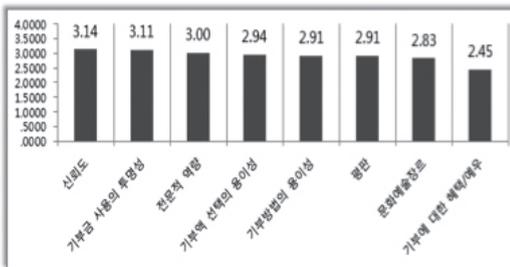
문화예술 기부 동인(N=339, 단위: 명, %)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4. 문화예술기부의 경험과 신뢰도

[문화예술 기부의 고려사항과 기부대상에 대한 의견]

- [문화예술 기부시 고려사항] (4점 척도) 기부대상의 신뢰도가 3.14점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도 3.11점, 혜택 2.45점,
→ 기부에 대한 혜택보다는 기부대상의 신뢰, 사용의 투명성, 역량 등 문화예술 창작의 본질적인 측면을 중시함.
→ 기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과 같은 기부행위의 부가적 혜택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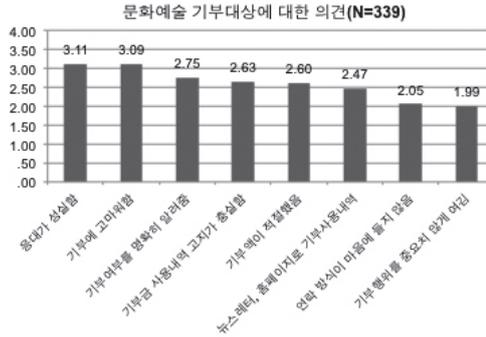
문화예술 기부시 고려사항(N=339)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4. 문화예술기부의 경험과 신뢰도

[문화예술 기부의 고려사항과 기부대상에 대한 의견]

- [문화예술 기부대상에 대한 의견] (4점 척도) 응대가 성실하다(4점 만점에 3.11), 기부에 고마워 함(4점 만점에 3.09).
→ 하지만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불만이 큼: 사용내역에 대한 고지는 2.63, 연락방식 불만, 2.05 등으로 대체로 부족하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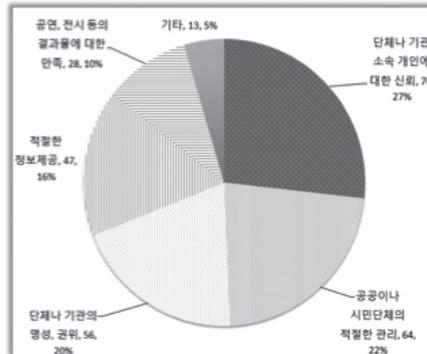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4. 문화예술기부의 경험과 신뢰도

[문화예술 기부의 고려사항과 기부대상에 대한 의견]

- [문화예술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신뢰] 기부금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84%로 대다수를 차지함.
- 단체, 개인에 대한 신뢰, 27%, 공공, 시민단체의 관리, 22%, 단체의 명성, 권위, 20%, 정보제공 16%, 결과물에 대한 만족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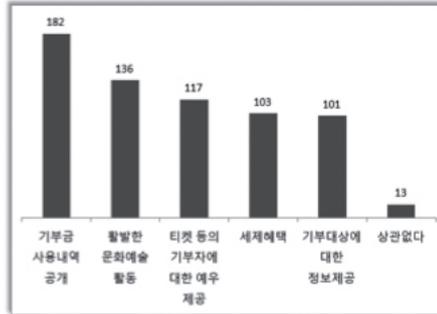
기부금 사용의 적절성을 신뢰하는 이유(N=284)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4. 문화예술기부의 경험과 신뢰도

[문화예술 기부의 고려사항과 기부대상에 대한 의견]

- [기부처에 대한 희망사항] 기부금의 운영 내역 정보공개 53.6%, 문화예술활동을 활발하게 영위 40.1%
 - 반면, 티켓 등의 기부자에 대한 예우, 34.5%,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혜택 30.4%, 다양한 정보제공 29.8%
- 기관의 명성과 권위에 신뢰는 하지만, 기부금 운영내역의 투명한 관리와 공개가 중요.



기부처에 대한 희망사항(N=339)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5. 문화예술분야 자원봉사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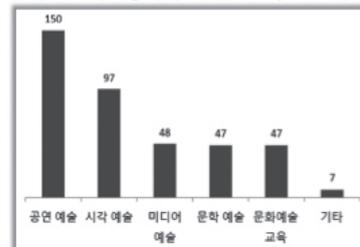
[문화예술 자원봉사 장르와 봉사시간]

- [자원봉사 장르] 공연예술 분야, 49.0%, 시각예술 분야, 31.7%, 미디어, 문학, 문화예술 교육, 각각 15% 임.
 - [자원봉사 시간] 봉사활동 경험자의 1인당 연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23.83시간, 편차가 39.96시간으로 상당히 높은 편.
 -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집단과 비정기적으로 자원봉사 집단 간의 1인당 평균 봉사활동시간은 각기 40.62시간과 18.89시간으로 큰 격차
 - 자원봉사 주기는 매 달 32%, 매 분기 34%, 매주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18%로, 주로 두 세달에 한 번 자원봉사를 함.
-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친숙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하며,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

1인당 연간 평균 자원봉사 시간 집단간 비교(N=294)

	집단	N	평균(시)	표준편차	T-test
연간 평균 봉사 활동시간	정기적 봉사	76	40.62	64.77	t=2.85**
	부정기적 봉사	218	18.89	25.53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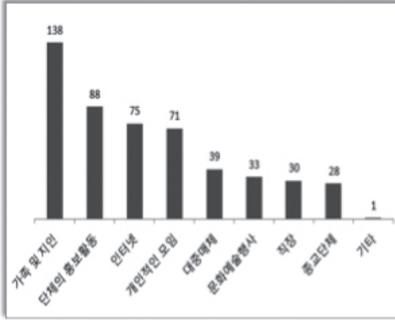
(복수응답) 자원봉사 대상 장르(N=306)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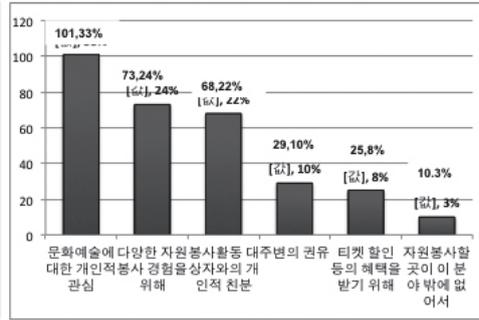
5. 문화예술분야 자원봉사기부

[문화예술 자원봉사 인지경로와 동기]

- [자원봉사 인지경로] 가족 및 지인 45.1%, 문화예술단체의 홍보활동(28.8%), 인터넷(24.5%), 개인적 모임(23.2%), 반면, 직장(9.8%)이나 종교단체(9.2%)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 개인적인 루트로 인지, 초대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식, 조직적 홍보기능이 취약함.
- [자원봉사 동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개인적 관심 33%, 봉사활동 경험의 다양성 24%, 개인적 친분 22%. 반면 티켓이나 할인 등의 혜택은 25.8% →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동기부여되며, 인센티브나 혜택은 상대적으로 약한 동기임.



자원봉사 대상 인지경로(N=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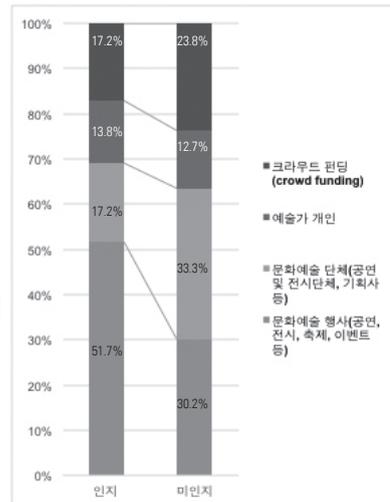


자원봉사 동기(N=306)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6. 예술나무운동 인지와 문화예술 기부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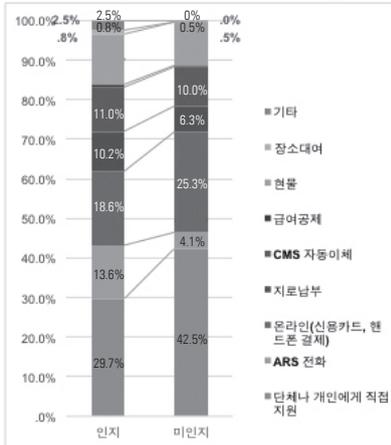
- [예술나무운동 인지에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나무운동'을 인지하는 비율은 33%에 불과, 예술나무운동의 인지도가 높지 않음.
- [예술나무운동 참여의향] 반면 '예술나무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68.5%,
→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예술나무운동 인지에 따른 차이-1] 인지하고 있는 집단은 전통적인 행사에 52% 기부, 반면, 인지 못하는 집단은 문화예술단체가 33.3%로 가장 높고, 크라우드펀딩도 23.8%로 높음. 또한 비인지집단의 기부방식에서 직접지원이 42.5%로 가장 높고, 온라인의 비중이 25.3%로 두 번째임.
→ 비인지 집단의 기부분야가 다양함. 개인적, 참여적, 취향적 기부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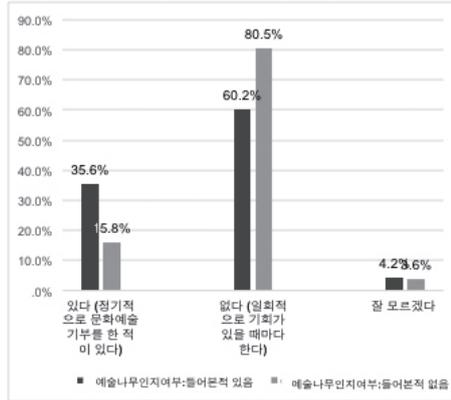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6. 예술나무운동 인지와 문화예술 기부의 특성

- [예술나무운동 인지에 따른 차이-2] 인지집단은 기부의 정기성이 높음(35.6% vs. 15.8%) → 로열티가 강한 내부집단의 특성



[예술나무운동 인지여부에 따른 기부방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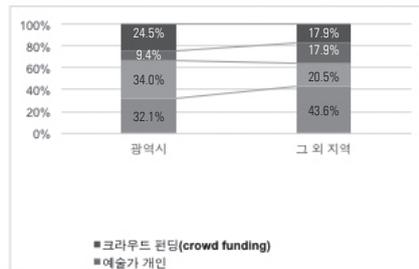


[예술나무운동 인지여부에 따른 기부의 정기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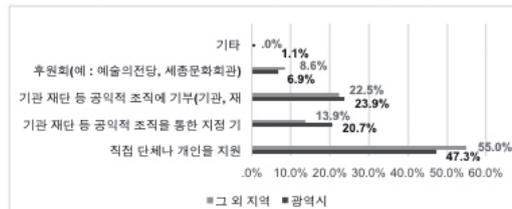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7. 지역에 따른 문화예술 기부의 특성

- [광역시 여부] 광역시 거주자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자는 공연, 행사분야 기부의 비중이 크고(43.6%), 예술가개인에 기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17.9%, 광역시 거주자의 2배 이상) → 상대적으로 단체나 기관이 적고 예술가의 직접 접촉기회가 많음
- [광역시 여부] 기부방법도 광역시 거주자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자는 직접지원 방식을 절반이상(55%) 선호, 반면 광역시 거주자는 기관이나 재단에 대한 기부가 상대적으로 높음(20.7% vs. 13.9%)
- [수도권 여부]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비수도권 거주자는 기부분야에서 미래 수요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7.5% vs. 43.1%)



[광역시/중소도시에 따른 문화예술 기부분야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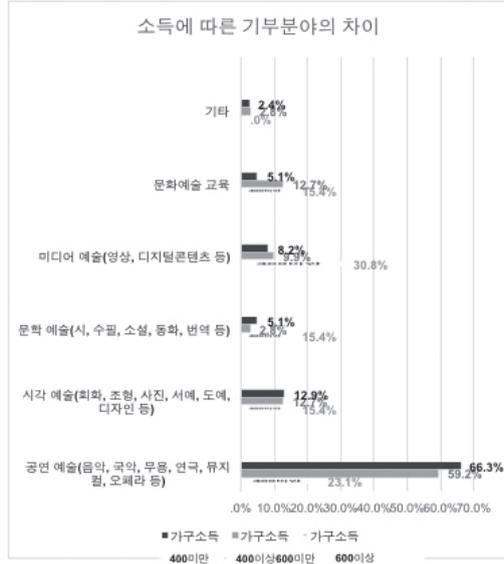
[광역시/중소도시에 따른 문화예술 기부방법의 차이]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8. 소득, 연령에 따른 문화예술기부 특성

- [소득에 따른 기부분야의 차이] 고소득 자일수록 전통적인 분야인 공연예술(66.3%) 선호, 반면 400만원이하 소득자는 23.1%로 낮음. 또한 미디어예술분야도 30.8%인데 비해 400-600만원 소득자는 9.9%, 600만원 이상은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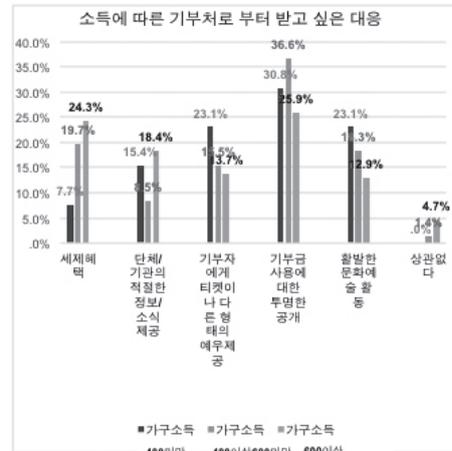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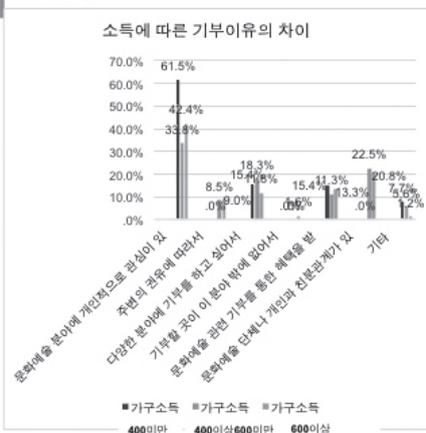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디어, 문학 등 새로운 분야,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이는 연령과도 관계가 있음. 문화예술기부 정책이 지향할 방향에 함의점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8. 소득, 연령에 따른 문화예술기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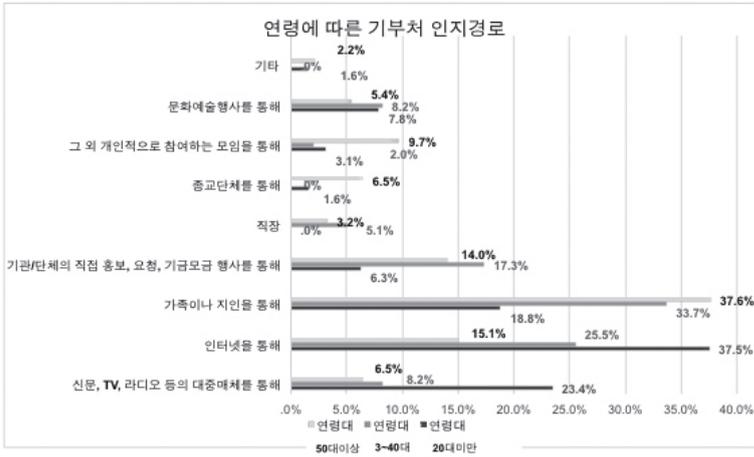
- [소득에 따른 기부처로부터 받고 싶은 대응] 투명한 사용내역공개가 가장 중요. 그 다음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제혜택, 정보공개 등의 비중이 높고, 소득이 낮아지면 활발한 문화예술활동, 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을 중시함. → 문화예술활동 자체를 즐기고 기부하는 대상에 대한 정책 필요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8. 소득, 연령에 따른 문화예술기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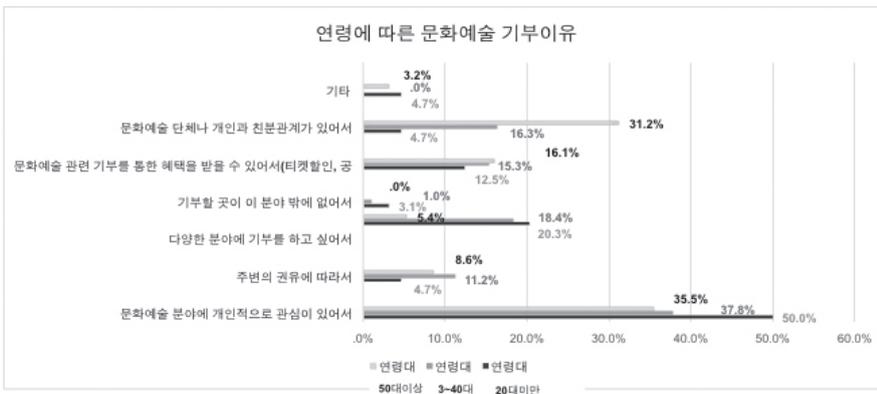
- [연령에 따른 기부처 인지경로]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크고, 연령이 높으면 가족이나 지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임. → 문화예술분야 기부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대중매체와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이 중요.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8. 소득, 연령에 따른 문화예술기부 특성

- [연령에 따른 기부이유] 연령이 낮을수록 압도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을 지적함(50.0% vs. 35.5%).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가장 중요(31.2% vs. 4.7%). → 미래세대의 문화예술 기부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향수의 저변확대가 가장 중요.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9. 결론 및 정책적 합의점

- 우리나라 문화예술분야 평균기부금액은 19만9천8백8십원 → 하지만 기부금액의 차이가 큼.
- 기부분야는 문화예술행사 기부와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기부가 대부분임 → 예술가 개인에 대한 기부가 상대적으로 낮음.
- 기부장르는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이 대다수를 차지함 → 전통적인 공연예술분야에 치중됨. 문화예술교육, 문학 등은 상대적으로 낮음.
- 인지경로는 개인적 경험이 주경로이며, 기부방식은 단체나 개인을 직접 지원 → (on-off line) 직접 기부 방식 선호
- 기부동인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고, 향유하는 개인이 기부를 함. → 향후 기부활성화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
-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에 대한 혜택보다는 기부대상의 신뢰, 사용의 투명성, 역량 등 문화예술 창작의 본질적인 측면을 중시함.
-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과 정보제공 필요: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불만이 큼

문화예술기부 분야, 방식은 전통적인 공연, 단체에 대한 기부에 치중
→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한 노력

기부인지경로, 동인은 개인적인 경험이 주를 이룸
→ 기부처, 기부방식에 대한 다양한 매체활용필요

기부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음
→ 기업기부와는 달리 개인적인 기부는 신뢰, 문화예술발전 중시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9. 결론 및 정책적 합의점

- 자원봉사: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친숙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하며,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 → 개인적인 루트로 인지, 초대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식, 조직적 홍보기능이 취약함.
- 자원봉사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동기부여되며, 인센티브나 혜택은 상대적으로 약한 동기임.
- '예술나무운동'을 인지하는 비율은 33%, 반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68.5%, →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예술나무운동 인지집단은 로열티가 강한 내부집단의 특성을 보인 반면, 비인지 집단의 기부분야가 다양함. 개인적, 참여적, 취향적 기부경향 → 예술나무운동이 확장성이 낮고 기존 전통적인 참여집단의 내부지향적 성향을 보임.

자원봉사는 문화예술기부의 확산에 중요
→ 매체나 기관의 홍보활동을 강화, 저변을 확대해야함.

예술나무운동은 내부지향적임
→ 예술나무운동의 확산은 문화예술향유의 확산과 기부의 확산과 연계

관객조사법의 활용
→ 기존 참여자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참여자의 이유, 동기부여가 중요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9. 결론 및 정책적 함의점

- 비수도권, 비광역시 지역의 기부자는 상대적으로 단체나 기관이 적고 개인 예술가의 직접 접촉기회가 많음 → 지방 중소도시로의 문화예술기관, 향유기회의 확대가 문화예술기부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임.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디어, 문학 등 새로운 분야, 문화예술교육에 관심. 이는 연령과도 관계가 있음. → 문화예술기부 정책이 지향할 방향에 함의점
- 고소득일수록 종교단체 기부, 가족, 지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통적인 방법 선호, 소득이 낮을수록 매체와 행사를 통한 fundraising이 중요.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문화예술 확대
→ 문화예술교육수료, 향유기회가 많을 수록 문화예술 기부의 증대



문화예술기부 저변확대를 위해
→ 문화예술 창작의 다양성 확대, 미래수요자 교육 등이 중요



다양한 시민의 참여확대를 위해
→ 각종 매체활용, 기금모금행사 등 시민참여행사 중요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9. 결론 및 정책적 함의점

- 문화예술분야 기부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문화예술향유가 많아져야 함. → 장기적으로 문화예술향수기회의 확대가 가장 중요
- 문화예술활동 자체를 즐기고 기부하는 대상에 대한 정책,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대중매체와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중요.
- 미래세대의 문화예술 기부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향수의 저변확대가 가장 중요.



문화예술기부의 문화예술기관 독점의 해소
→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통한 저변확대



고소득, 고액기부자 중심에서
→ 기부분야, 장르, 방법의 다양화 모색, 문화예술향수 기회의 확대가 중요



기부활성화 정책의 방향 전환: 고소득, 로열티 강한 집단위주에서 중간소득, 문화예술 향유자 중심으로

2013 문화예술분야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PART 3

부록

부록. 1

2013 Giving Index 조사결과 보고서

부록. 2

2013 Giving Index 설문지(기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설문지)

부록. 3

2013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보고서

부록. 4

2013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설문지

2013 Giving Index 조사결과 보고서



제 1 장. 조사개요	87
1. 조사개요	87
2. 조사내용	88
3. 응답자 구성	90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92
제 3 장. 조사결과	110
I. 자원봉사 실태	110
1. 자원봉사 참여 여부	110
2. 자원봉사 활동처	112
3. 자원봉사 시간	114
4.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및 빈도	116
5.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 및 활동 방법	118
6.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120
II. 기부 실태	122
1. 기부 참여 여부	122
2. 기부처	124
3. 기부금액	125
4.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 및 빈도	128
5. 기부처 인지경로 및 기부 방법	130
6. 기부의 내적요인	132
7. 기부의 외적요인	134
8. 기부액 및 기부처 확대 계획	137
9.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139
III. 종교적 기부 관련 경험	140
1. 종교적 활동 적극 참여 정도 및 헌금 및 보시 경험	140
2. 종교적 기부(개신교 및 천주교) 항목 및 금액	142
3. 종교적 기부(불교) 항목 및 금액	144
4. 정기적 종교기부 참여 여부 및 빈도	146
5. 종교적 기부 소득공제 여부	148
6. 종교적 기부의 원하는 사용처	149

IV. 상호부조 실태	151
1. 상호부조 참여 활동 및 참여 시간	151
2. 상호부조 활동 참여 동기	153
3. 상호부조적 지출 경험 및 항목별 금액	154
4. 경조사비 지출 경험 및 항목별 금액	157
5. 경조사비 지출의 동기	159
6. 경조사비 지출 의무감 및 지출 부담 정도	161
7. 경조사비 수령 경험 및 항목별 금액	162
8. 경조사비 지출규모 대비 수령규모 예상	165
V. 기부 의향 및 계획	166
1.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	166
2. 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168
3.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170
4. 기부 금품 사용 분야, 대상, 단위	173
VI. 유산 기부	177
1. 유산 기부 의향	177
2. 유산 기부 희망 비율	179
3. 유산 기부 의향에 미치는 요인	180
4. 유산 기부 의향이 있는 대상, 기관	182
5. 유산기부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	184
6. 유산 상속 시, 기부할 의향 및 기부 비율	185
7. 가족의 유산기부 결정 시, 대응방식	187
VII. 나눔교육에 대한 인식	188
1. 나눔 교육 경험	188
VIII. 사회적 자본	191
1.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식	191
2.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인식	194
3.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	197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 집 단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표 본 수	1,007명
표본추출	◆ 1단계 : 다단계 지역표본추출 (조사지점 선정) ◆ 2단계 :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할당표본추출 (응답자 선정)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 (Face-to-Face interview)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14. 6. 27 - 8. 6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2.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자원봉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참여 여부 • 자원봉사 활동처 • 자원봉사 시간 •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빈도 •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 • 자원봉사 활동 방법 •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 경험 및 시간
기부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 참여 여부 • 기부처 • 기부금액 • 향후 기부액 확대 계획 • 기부처 이외 다른 곳 기부 계획 유무 •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 • 정기적 기부 참여 빈도 • 기부처 인지경로 • 기부 방법 • 기부의 내적요인 • 기부의 외적요인 •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종교적 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 • 종교적 활동 참여 정도 • 지난 1년간 종교단체 헌금 및 보시 경험 • 지난 1년간 종교적 항목 기부 경험 유무 및 금액 • 정기적 헌금 및 보시 참여 여부 • 정기적 헌금 및 보시 참여 빈도 • 헌금 및 보시 금액 소득공제 혜택 받는지 여부 • 헌금 및 보시가 쓰이길 원하는 사업 내용 및 비중
상호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상호부조 활동 참여 여부 • 지난 1년간 상호부조 활동 참여 시간 • 상호부조 활동 참여 동기 • 상호부조적 기부 지출 여부 및 지출 금액 • 지난 1년간 경조사비 지출 여부 및 지출 금액 • 경조사비 지출 동기 • 경조사비 지출에 대해 느끼는 의무감 • 경조사비 지출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 • 지난 3년간 경조사비 수령 여부 및 수령 금액 • 향후 경조사비 수령 규모에 대한 기대 정도

구 분	내 용
기부 의향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 • 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분야 •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대상 •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단위
유산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 기부 의향 • 유산 기부 희망 비율 • 유산 기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유산 기부 의향이 있는 대상 및 기관 • 유산 기부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 • 유산 상속 시 기부할 의향 및 기부 비율 • 가족의 유산기부 결정 시 대응 방식
나눔교육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 교육 경험
사회적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식 •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인식 •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

3. 응답자 구성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		(1,007)	100.0
성별	남자	(497)	49.4
	여자	(510)	50.6
연령	19세-29세	(178)	17.7
	30세-39세	(195)	19.4
	40세-49세	(218)	21.6
	50세-59세	(198)	19.7
	60세 이상	(218)	21.6
학력	중학교졸업이하	(200)	19.9
	고등학교졸업	(377)	37.4
	전문대재이상	(426)	42.3
	모름/무응답	(4)	0.4
직업	농/임/어업	(48)	4.8
	자영업	(133)	13.2
	판매/영업/서비스직	(118)	11.7
	생산/기능/노무직	(160)	15.9
	사무/관리/전문직	(186)	18.5
	주부	(222)	22.0
	학생	(72)	7.1
	무직/퇴직/기타	(68)	6.8
	개인소득	99만원 이하	(372)
100-199만원		(251)	24.9
200-299만원		(196)	19.5
300-399만원		(92)	9.1
400만원 이상		(84)	8.3
모름/무응답		(12)	1.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54)	5.4
	100-199만원	(124)	12.3
	200-299만원	(162)	16.1
	300-399만원	(224)	22.2
	400-499만원	(186)	18.5
	500만원 이상	(235)	23.3
거주지규모	모름/무응답	(22)	2.2
	대도시	(462)	45.9
	중소도시동부	(371)	36.8
	중소도시읍면부	(174)	17.3

Base=전체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		(1,007)	100.0
권역			
	서울	(205)	20.4
	인천/경기	(296)	29.4
	대전/충청/세종	(100)	9.9
	광주/전라	(104)	10.3
	대구/경북	(105)	10.4
	부산/울산/경남	(155)	15.4
	강원/제주	(42)	4.2
가구원수			
	1명	(99)	9.8
	2명	(196)	19.5
	3명	(227)	22.5
	4명	(390)	38.7
	5명 이상	(94)	9.3
	모름/무응답	(1)	0.1
혼인상태			
	미혼	(240)	23.8
	기혼, 이혼, 사별	(762)	75.7
	모름/무응답	(5)	0.5
종교여부			
	종교있음	(481)	47.8
	종교없음	(515)	51.1
	모름/무응답	(11)	1.1
행복도			
	불행한편	(200)	19.9
	행복한편	(807)	80.1
재정적 안정도			
	안정적임	(528)	52.4
	안정적이지 않음	(479)	47.6
노후준비			
	준비됨	(473)	47.0
	준비되지 않음	(534)	53.0
이념성향			
	진보	(247)	24.5
	중도	(466)	46.3
	보수	(294)	29.2
계층			
	상	(34)	3.4
	중	(585)	58.1
	하	(388)	38.5

제2장. 조사결과 요약

I. 자원봉사 실태

**순수 자원봉사 경험 있다, 22.6%,
포괄적 자원봉사 경험 있다, 27.7%**

- ◎ 순수 자원봉사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의 비율이 22.6%, ‘경험없음’의 비율이 77.4%임
- ◎ 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경험을 포함한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의 비율이 27.7%. ‘경험없음’의 비율이 72.3%임
- ◎ 순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2011년에 비해 3.9%p 감소하였음
- ◎ 반면,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2011년에 비해 3.9%p 증가하였음

**순수 자원봉사 활동처,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31.6%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30.7%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30.3%**

-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활동처로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고,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 불우이웃돕기, 해외구호활동 등의 특별 자원봉사(30.7%)’,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30.3%)’ 순임
- ◎ 순수 자원봉사 활동처로 2003년, 2005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2009년에는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2007년과 2011년, 2013년에는 ‘자선단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순수 자원봉사 참여 평균 시간, 49.3시간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 평균 시간, 59.9시간
국민 1인당 자원봉사시간은 10.9시간

-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49.3시간,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59.9시간임
-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2011년 61.4시간에 비해 12.1시간 감소함. 국민 1인당 자원봉사 시간은 2011년에 비해 5.4시간 감소함
-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2005년 이후, 국민 1인당 자원봉사 시간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였으나, 2013년에는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과 국민1인당 자원봉사 시간 모두 감소함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 있다, 44.3%
정기적 자원 봉사 빈도, 매 달, 51.5%

-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 중 정기적 참여 여부에 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4.3%, '없다'는 응답이 53.9%, '모름/무응답'이 1.8%임
- ◎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자원봉사 빈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매달'이라는 응답이 51.5%로 가장 높고, '매주(24.8%)', '매분기(20.8%)'의 순임
- ◎ 일반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정기적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자 중 5명 정도는 매달 참여 형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
- ◎ 정기적 봉사 참여 비율은 2007년 39.5%에서 2009년 45.9%로 6.4%p 증가하였고, 2013년은 44.3%로 2009년, 2011년과 비슷한 수준임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 경로, 가족이나 지인, 27.2%
자원봉사 활동 방법, 단순노력봉사, 80.7%

◎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로 ‘가족이나 지인’ 이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높고, 활동 방법의 경우 ‘단순노력봉사’ 라는 응답이 80.7%로 높음

◎ 자원봉사 활동 방법에 대한 응답은 2011년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임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나의 시간 등 개인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38.3%
자원 봉사에 관심이 없어서, 36.1%**

◎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나의 시간 등 개인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고, ‘자원 봉사에 관심이 없어서(36.1%)’, ‘직접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8.6%)’, ‘자원봉사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5.4%)’, ‘어디서, 어떻게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4.9%)’, ‘대상자 및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3.5%)’ 의 순으로 응답함

◎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시간 등 개인적 상황 때문에 자원 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 전반적으로 2011년 조사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가운데, ‘개인적 상황을 몰라서’ 라는 응답이 9.5%p 감소하고, ‘자원봉사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라는 응답은 13.8%p 증가하여 자원봉사에 관심이 없어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II. 기부 실태

순수 기부 참여 경험 있다, 48.5%
포괄적 기부 참여 경험 있다, 92.1%

- ◎ 순수 기부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의 비율이 48.5%, 경조사비, 종교단체에 하는 현금 및 보시를 포함한 포괄적 기부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의 비율이 92.1%임
- ◎ 순수 기부 참여비율은 2011년 57.5%에 비해 9.0%p 감소하였으나, 경조사비 비율과, 현금 및 보시 등 종교기부 비율은 지난해와 유사함

기부처,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 65.8%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24.0%
부랑인, 노숙자를 위한 기부, 17.4%

- ◎ 순수 기부 참여자의 기부처로 ‘자선 단체를 위한 기부’라는 응답이 65.8%로 가장 높고,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 현금(24.0%)’,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기부(17.4%)’ 순으로 응답함
- ◎ 2007, 2009, 2011, 2013년 4개년 간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라는 응답은 2011년 72.2%에 비해 6.4%p 감소하였으며,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라는 응답은 2.4%p 증가함

순수 기부자 평균 기부액 32만 1천원
포괄적 기부자 평균 기부액 153만 8천원
국민 1인당 순수기부액 15만 5천원

- ◎ 순수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32만1천원, 포괄적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153만8천원임. 국민 1인당 순수기부액은 15만 5천원임

- ◎ 순수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2011년 대비 10만2천원 증가하였으며, 국민1인당 순수기부액은 3만1천원 증가함

정기적 기부 경험 있다, 38.1%
정기적 기부 빈도, 매 달, 81.2%

- ◎ 순수 기부 참여자 중 정기적 참여 여부에 대해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은 38.1%이며, 정기적 기부 빈도의 경우 ‘매달’ 이라는 응답이 81.2%임.
- ◎ 2013년 정기적 기부 경험은 2011년 31.7%에 비해 6.4%p 증가였으며, 정기적 기부 빈도는 2011년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임

기부처 인지 경로, 신문, TV, 라디오 등 대중 매체, 29.9%
기부 방법, 직접 전달, 40.6%

- ◎ 기부처 인지경로에 대해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라는 응답이 29.9%로 가장 높고, 기부 방법의 경우,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 이라는 응답이 40.6%로 높음.
- ◎ 기부처 인지경로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2011년과 비슷한 추세인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라는 응답은 2011년에 비해 8.4%p 증가한 반면,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 라는 응답이 2011년에 비해 5.7%p 감소함
- ◎ 기부 방법에 대한 결과를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1년에 비해 ‘CMS 자동이체’ 가 2.4%p 증가한 반면, ‘지로납부’ 로 기부를 한다는 응답은 5.4%p 감소함

기부 내적 동기, 동정심, 63.5%,

- ◎ 기부를 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친 내적동기로 ‘동정심’ 의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이 63.5%로 가장 높고, ‘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62.9%)’, ‘개인적 행복감(62.7%)’, ‘종교적 신념(34.4%)’ 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동정심’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라는 응답은 1.4%p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책임감’은 3.5%p, ‘개인적 행복감’은 5.0%p 증가함. 반면, ‘종교적 신념’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라는 응답은 0.5%p 감소함

기부 외적 동기,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54.9%,

- ◎ 기부를 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친 외적요인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라는 응답이 54.9%로 가장 높고, ‘대중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로부터의 자극, 요청(51.8%)’, ‘경제적 여유(46.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친구,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의 자극(43.6%)’, ‘모범기부자에 의한 자극(40.8%)’,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20.7%)’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기부액 확대 계획 있다, 26.4%

기부처 확대 계획 있다, 19.5%

- ◎ 2013년에 기부를 한 응답자에게 기부액 확대 계획에 대해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26.4%, 기부처 확대 계획에 대해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19.5%임
- ◎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기부액 확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2011년 22.6%에 비해 3.8%p 증가하였으며, 기부처 확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1%p 증가함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36.4%

- ◎ 2013년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고,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34.3%)’, ‘기부를 요청한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8.7%)’,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8.3%)’, ‘기부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7.7%)’, ‘어디에, 어떻게 기부해야 하는지 몰라서(3.3%)’ 순임

- ◎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라는 응답이 4.2%p 증가한 반면, ‘어디에, 어떻게 기부해야 하는지 몰라서’ 라는 응답은 5.5%p 감소함

III. 종교적 기부 관련 경험

정기적 종교행사, 참여한다, 52.6%
비정기적 종교행사, 35.6%
종교기관의 소그룹 모임, 24.5%
종교기관을 위한 봉사활동, 23.1%
선교 및 포교활동 12.9%

- ◎ 종교가 있는 응답자에게 종교활동 참여 경험에 대해 묻은 결과, ‘정기적 종교행사’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고, ‘비정기적 종교행사(35.6%)’, ‘종교기관의 소그룹 모임(24.5%)’, ‘종교기관을 위한 봉사활동(23.1%)’, ‘선교 및 포교활동(12.9%)’의 순임

지난 1년간 현금 및 보시 경험 있다, 79.6%

- ◎ 종교가 있는 응답자에게 지난 한 해 동안의 종교단체 현금 및 보시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금 및 보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9.6%, ‘없다’는 응답은 20.4%임
- ◎ 종교가 있는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현금 및 보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기독교 또는 천주교 신자, 주일헌금 낸 적 있다, 92.6%
지난 1년간 현금 및 보시 금액, 십일조, 170만 5천원으로 가장 높음
지난 1년간 기독교 또는 천주교 신자, 현금 및 보시 총액 평균 176만 2천원

- ◎ 기독교 또는 천주교 신자 중 현금 및 보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종교적 기부 항목에 대해 묻은 결과, ‘주일헌금’이라는 응답이 92.6%로 가장 높고, ‘감사헌금(69.1%)’,

‘십일조(60.4%)’, ‘특별헌금(39.1%)’, ‘기타(2.6%)’ 순으로 응답함

- ◎ 지난 1년간 종교적 기부 항목별 기부금액(헌금+물품)은 ‘십일조’가 평균 170.5만원으로 가장 높고, ‘특별헌금(54.9만원)’, ‘주일헌금(32.4만원)’, ‘감사헌금(29.7만원)’의 순임
- ◎ 기독교 및 천주교 신자의 헌금 및 보시 금액의 평균은 176.2만원임

불교 신자, 연등 관련 기부한 적 있다, 77.6%

지난 1년간 헌금 및 보시 금액, 제사, 47만 4천원

지난 1년간 불교 신자, 헌금 및 보시 총액 평균 36만 2천원

- ◎ 불교 신자이면서 지난 1년간 헌금 및 보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기부 항목에 대해 물은 결과 ‘연등’이라는 응답이 77.6%로 가장 높고, ‘기도(63.9%)’, ‘건축(15.6%)’, ‘제사(14.3%)’ 등의 순임
- ◎ 불교 기부 항목별 기부 평균 금액은 제사가 47.4만원으로 가장 높고, ‘기도’가 25.1만원, ‘건축(19.3만원)’, ‘연등(9.7만원)’의 순임
- ◎ 불교 기부 금액 평균은 36.2만원임

정기적 종교기부 경험 있다, 62.4%

매주 종교기부 하고 있다, 59.8%

- ◎ 종교적 헌금 및 보시 유경험자 중 정기적 종교기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2.4%, ‘없다’는 응답은 36.8%임
- ◎ 종교적 헌금 및 보시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정기적인 종교 헌금 및 보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
- ◎ 정기적 종교 기부의 빈도에 대해서는 ‘매주’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높고, ‘매달(26.8%)’, ‘매분기(11.7%)’ 순임

헌금 및 보시, 소득공제 받고 있다, 22.7%

- ◎ 헌금 및 보시를 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가 여부를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22.7%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7.3%로, 헌금 및 보시 경험자 10명 중 2명 정도만 소득공제를 받고 있음

IV. 상호부조 실태

상호부조 활동 참여한 적 있다, 7.5%

품앗이 활동(38.2%) > 협동조합 활동(10.5%) > 자조모임 활동(6.6%)

- ◎ 지난 1년간 상호부조 활동 참여 경험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한 반면, ‘없다’는 응답은 92.5%임
- ◎ 상호부조 활동 경험자에게 참여한 활동 유형에 대해 ‘품앗이 활동’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고, ‘협동조합 활동, 10.5%’, ‘자조모임 활동, 6.6%’ 순임

상호부조 활동 참여 동기

이웃 등과 관계를 맺기 위해, 59.2%

- ◎ 상호부조 활동 참여자의 참여 동기로는 ‘이웃 등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고, ‘대안적 삶을 경험 및 실천하고 싶어서(10.5%)’, ‘실질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7.9%)’,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7.9%)’,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5.3%)’, ‘기타(1.3%)’ 순임

상호부조 지출 경험 있다, 25.6%

계(61.6%) > 직장상조회비(39.1%) > 협동조합 출자금 및 조합비(15.1%)

상호부조 지출 총 금액 평균, 49만 1천원

- ◎ 지난 1년간 상호부조 지출 경험에 대해 상호부조적 지출을 한 적이 '있다' 는 응답이 25.6%이며,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에 대해서는 '계' 라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고, '직장상조회비(39.1%)', '협동조합 출자금 및 조합비(15.1%)' 순임
- ◎ 상호부조적 지출 총 금액 평균은 49.1만원임

경조사비 지출한 적 있다, 85.0%
결혼(92.5%) > 장례(80.6%) > 생일잔치(47.1%) > 개업 및 창립(25.5%)
경조사비 지출 총 금액 평균 94만 6천원

- ◎ 지난 1년간 경조사비 지출 경험에 대해 경조사비를 지출한 적이 '있다' 는 응답이 85.0%로 높음. 경조사비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결혼' 이라는 응답이 92.5%로 가장 높고, '장례(80.6%)', '생일잔치(47.1%)', '개업 및 창립(25.5%)' 순임
- ◎ 경조사비 총 지출 금액 평균은 94.6만원임

경조사비 지출 동기,
상대에게 필요한 축하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92.3%

- ◎ 경조사비 지출 동기에 대해서는 '상대에게 필요한 축하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라는 응답이 92.3%로 가장 높음
- ◎ 그 외 '체면과 원활한 관계(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90.4%)', '내가 경조사비를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 필요해서(83.1%)',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기대해서(64.1%)' 의 순임

경조사비를 받은 사람에게 경조사비를 내야 한다, 93.9%
경조사비, 부담스럽다, 77.3%

- ◎ 경조사비를 받은 사람에게 경조사비를 내야 한다는 의무감 정도에 대해서 '내야 한다고 느낀다(반드시 내야 한다+내야 한다)' 는 응답이 93.9%로, 일반 국민 10명 중 9명은

본인 경조사에 경조사비를 낸 사람에게 내야 한다고 느끼고 있음

- ◎ 반면, 경조사비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매우+대체로)’ 라는 응답이 77.3%로, 일반국민 10명 중 7명은 경조사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함

경조사비 받은 적 있다, 20.8%

생일잔치(38.8%) > 결혼(34.9%) > 장례(32.1%) > 개업 및 창립(10.5%)

경조사비 수령 총 금액 평균, 624만 6천원

- ◎ 지난 3년간 경조사비를 수령한 적이 ‘있다’ 라는 응답은 20.8%, ‘없다’ 는 응답은 79.2%임. 일반 국민 10명 중 2명은 지난 3년간 경조사비를 수령한 경험이 있음
- ◎ 경조사비 수령 항목으로는 ‘생일잔치’ 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고, ‘결혼(34.9%)’, ‘장례(32.1%)’, ‘개업 및 창립(10.5%)’ 순임
- ◎ 경조사비로 수령한 총 금액 평균은 624만 6천원임

향후 경조사비 수령 규모, 내가 지출한 만큼일 것이다, 61.6%

- ◎ 지금까지 받은 경조사비 규모와 비교하여 향후 경조사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에 대해 물은 결과, ‘내가 지출한 만큼일 것이다’ 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고, ‘내가 지출한 규모보다 적을 것이다(24.0%)’, ‘내가 지출한 규모보다 더 클 것이다(14.4%)’ 순임
- ◎ 일반 국민 10명 중 6명은 본인이 낸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조사비를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V. 기부 의향 및 계획

향후 1년 이내 기부할 의향, 있다, 34.1%

- ◎ 향후 1년 이내 기부할 의향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34.1%, ‘없다’는 응답이 52.5%로, 일반 국민 10명 중 3명 정도는 향후 1년 이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있다’는 응답은 12.1%p 감소한 반면, ‘없다’는 응답은 14.4%p 증가함

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기부대상(89.6%) > 기관의 신뢰성(85.7%)

> 기관의 사회적 명성(78.3%) > 사회 개선 효과(75.6%)

- ◎ 기부 결정 시 ‘기부 대상’에 대해 ‘고려한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89.6%로 가장 높고, ‘기관의 신뢰성(85.7%)’, ‘기관의 사회적 명성(78.3%)’, ‘사회 개선 효과(75.6%)’ 순으로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기부 대상’에 대해 고려한다는 응답이 5.5%p, ‘기관의 신뢰성’에 대해 고려한다는 응답이 1.1%p, ‘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대해 고려한다는 응답이 16.3%p, ‘사회 개선 효과’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8.3%p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활동내역 투명성 고려, 90.7%

- ◎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활동내역 투명성’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90.7%로 가장 높고, ‘기부액 선택 가능성(86.6%)’, ‘기관 전문성(84.1%)’, ‘방법의 용이성(75.6%)’, ‘혜택 및 예우(55.5%)’의 순임
- ◎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1년과 2013년 모두 ‘활동내역 투명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높음. 2011년에 비해 ‘활동내역 투명성’ 응답이 5.8%p, ‘기부액

선택 가능성' 3.4%P, '기관 전문성' 7.4%P, '방법의 용이성' 4.0%P, '혜택 및 예우' 8.0%P 증가함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분야, 자선 및 사회복지 분야, 78.2%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대상, 아동복지, 59.7%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단위,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 43.3%

- ◎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자선 및 사회복지분야' 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고, '지역사회발전 (34.9%)', '의료분야(26.4%)', '교육 및 연구활동(21.0%)', '해외구호활동(17.5%)', '공익활동분야(14.5%)', '문화 및 예술 분야(4.2%)' 등의 순임
- ◎ 기부금에 쓰이길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동복지' 라는 응답이 59.7%로 가장 높고, '노인복지(39.9%)', '장애인복지(33.6%)', '빈곤가구(28.7%)', '청소년복지(24.4%)', '여성복지(6.5%)', '다문화가정 및 국내 외국인 노동자(3.9%)', '북한동포(1.8%)', '기타(0.4%)' 의 순임
- ◎ 기부 금품이 쓰이길 희망하는 문제의 단위에 대해서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 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음. 그 외 '국내의 사회문제(37.1%)', '나와 연고가 있는 공동체의 문제(10.2%)', '국제 사회의 문제(8.0%)' 의 순임

VI. 유산 기부

유산 기부할 의향, 있다, 9.1%

유산 기부 의향자, 희망 비율, 36.3%

- ◎ 유산을 기부할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기부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74.8%로 높은 반면, ‘있다’는 응답은 9.1%에 불과함
- ◎ 기부할 의향이 있는 유산의 희망 비율의 평균은 36.3%임
- ◎ 2011년에 비해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3.2%p 증가하였으며, ‘있다’는 응답은 3.4%p 감소함

유산 기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에 대한 개인적 신념, 79.3%

- ◎ 유산 기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사회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라는 응답이 7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점(71.7%)’, ‘유산을 상속할 가족이 없는 것(44.6%)’, ‘종교적 신념(43.5%)’, ‘유산기부에 따른 세제혜택을 기대해서(19.6%)’의 순임

유산 기부 의향 대상,

사회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은 기관, 54.3%

유산 기부 의향 기관, 자선단체, 48.9%

- ◎ 유산 기부 의향이 있는 대상에 대해 ‘사회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은 기관’ 응답은 54.3%로 가장 높고, ‘내가 평소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해왔던 익숙한 기관(22.8%)’, ‘내가 관심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기관(20.7%)’, ‘사회적으로 유명한 기관(2.2%)’의 순임
- ◎ 유산 기부 의향이 있는 기관에 대해 ‘자선단체’ 응답은 48.9%로 가장 높고, ‘종교기

관(20.7%) , ‘교육기관(15.2%)’ , ‘시민단체(6.5%)’ , ‘의료기관(5.4%)’ , ‘문화예술 단체(3.3%)’ 의 순임

유산 기부 장애 요인,

노후의 재정생활에 대한 불확실성, 89.5%

- ◎ 유산 기부의 장애요인에 대해 ‘노후의 재정생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라는 응답이 89.5%로 가장 높고, ‘지금의 나의 재정상태가 불안해서(84.9%)’ , ‘내 유산을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어서(83.3%)’ , ‘유산을 기부한 것이 제대로 사용될 것인가를 신뢰할 수 없어서(57.7%)’ , ‘가족으로부터의 유산을 기부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협력을 얻는 것(57.6%)’ , ‘유산을 기부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44.5%)’ , ‘유산기부의 세제혜택이 미미해서(24.7%)’ 순임

유산 물려 받을 시, 기부 의향 있다, 12.6%

유산 기부 희망 비율, 10% 이상-30% 미만, 57.5%

- ◎ 유산을 물려받을 경우의 기부 의향에 대해 참여 의향이 ‘있다’ 는 응답은 12.6%이며, ‘없다’ 는 응답은 71%, ‘모름/무응답’ 은 16.4%임
- ◎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에게 물려받은 유산의 기부 희망 비율을 물어본 결과, ‘10%이상-30%미만’ 이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고, ‘30%이상-50%미만(18.1%)’ , ‘50%이상-70%미만(11.8%)’ , ‘10%미만(10.2%)’ , ‘70%이상(2.4%)’ 의 순임

가족 유산 결정 시, 반대할 것이다, 46.6%

- ◎ 가족의 유산기부 결정 시, ‘반대할 것이다’ 가 46.6%로 가장 높고,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41.4%)’ ,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9.4%)’ ,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보장되는 나의 몫을 되찾을 것이다(2.6%)’ 순임

VII. 나눔 교육에 대한 인식

**나눔 교육,
부모님, 친척, 이웃 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나 자원봉사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46.5%**

- ⊙ 유/초/중/고/대학교 시절의 나눔 교육 경험에 대해 ‘부모님, 친척, 이웃 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나 자원봉사(모금활동 포함)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음

VIII. 사회적 자본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생각
상황에 따라 다르다(48.6%) > 조심해야 한다(28.5%) > 믿을 수 있다(22.9%)**

- ⊙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음. ‘조심해야 한다(28.5%)’, ‘믿을 수 있다는(22.9%)’ 순임

**주변 사람들의 상호 도움에 대한 생각
상황에 따라 다르다(44.8%) > 대체로 도움을 주려 한다(31.7%)
> 자신만을 챙기려 한다(23.5%)**

- ⊙ 주변 사람들의 상호 도움에 대한 생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음. 그 외 ‘대체로 도움을 주려 한다(31.7%)’, ‘자신만을 챙기려 한다(23.5%)’ 순임

주변 사람들의 신의에 대한 생각

상황에 따라 다르다(45.8%) > 잘 대해 주려 한다(35.2%) > 기회가 된다면 이용하려 한다(19.1%)

- ◎ 주변 사람들의 신의에 대한 생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높음. 그 외 ‘잘 대해 주려 한다(35.2%)’, ‘기회가 된다면 이용하려 한다(19.1%)’ 순임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입장에 대한 생각

반반이다(48.9%) > 전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한다(40.9%) > 전적으로 나의 입장을 생각한다(10.2%)

- ◎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입장에 대한 생각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반이다’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음. ‘전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한다(40.9%)’, ‘전적으로 나의 입장을 생각한다(10.2%)’ 순임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대한 보답의 시기에 대한 생각

반반이다(43.5%) > 아무리 늦어도 상관없다(37.4%)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1%)

- ◎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대한 보답의 시기에 대한 생각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반이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음. 그 외 ‘아무리 늦어도 상관없다(37.4%)’,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1%)’ 순임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대한 보답의 크기에 대한 생각

반반이다(50.8%) >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37.0%) > 내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나아야 한다(12.1%)

- ◎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대한 보답의 크기에 대한 생각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반이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높음. 그 외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37.0%)’, ‘내가 대

접한 것보다 훨씬 나아야 한다(12.1%)' 순임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

나는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 94.4%

- ◎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나는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 에 '그렇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이 94.4%로 가장 높고, '사람들의 불법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는 정당화할 수 없다(91.0%)' , '나와 가족의 경우라도 불법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86.4%)' ,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70.4%)' 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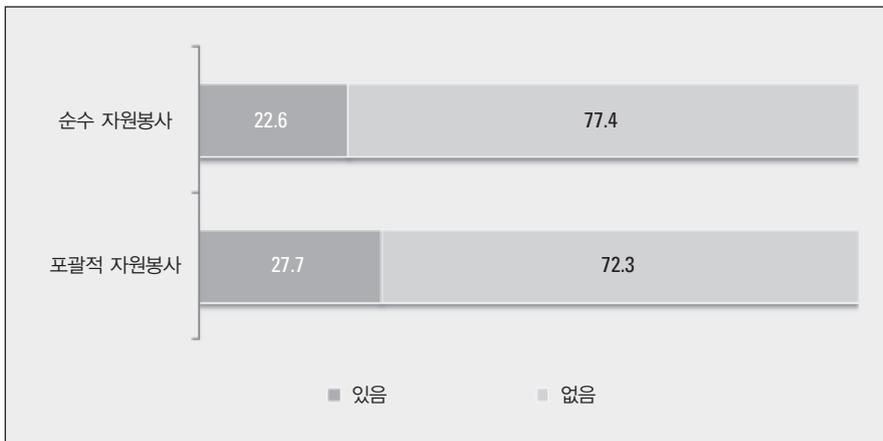
제3장. 조사 결과

I. 자원봉사 실태

1. 자원봉사 참여 여부

문: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자원봉사’ 를 한 시설/기관/단체/개인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



〈그림1〉 자원봉사 참여 여부

(단위 : %)



〈그림2〉 순수 자원봉사 참여 여부 변화 추이

전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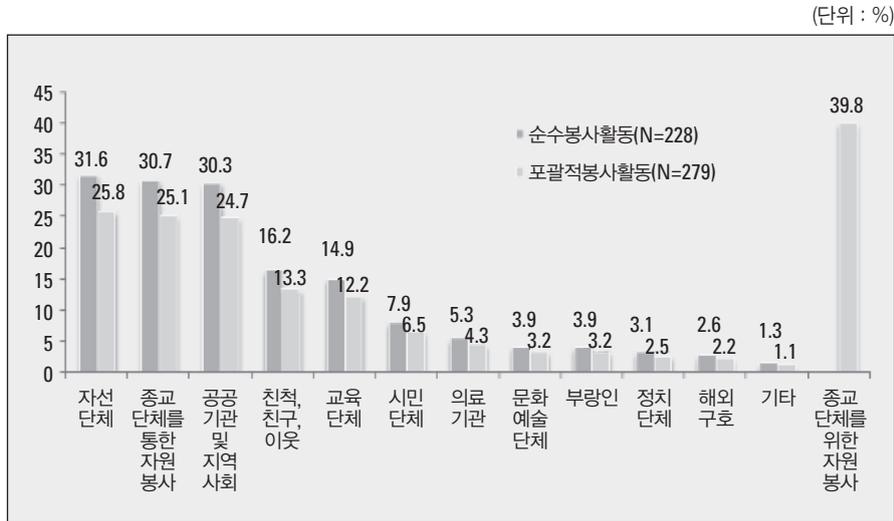
- ◎ 순수 자원봉사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의 비율이 22.6%, ‘경험없음’의 비율이 77.4%임
- ◎ 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경험을 포함한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의 비율이 27.7%, ‘경험없음’의 비율이 72.3%임
- ◎ 순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2011년에 비해 3.9%p 감소하였음
- ◎ 반면,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2011년에 비해 3.9%p 증가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 ◎ 순수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에 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23.7%), △50-59세(28.8%) 및 19세-29세(27.5%),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30.6%), △중소도시 동부(27.5%), △미혼(25.4%), △종교 있음(30.4%), △행복한 편(24.3%), △중 계층(26.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78.4%), △30-39세(85.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92.6%), △대도시(80.3%), △기혼/이혼/사별(78.2%), △종교 없음(84.1%), △불행한 편(84.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2. 자원봉사 활동처

문)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자원봉사’ 를 한 시설/기관/단체/개인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림3〉 자원봉사 활동처

전 체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활동처로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고,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 불우이웃돕기, 해외구호활동 등의 특별자원봉사(30.7%)’,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30.3%)’,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16.2%)’, ‘교육기관을 위한 자원봉사(14.9%)’, ‘시민단체를 위한 자원봉사(7.9%)’, ‘의료기관을 위한 자원봉사(5.3%)’,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3.9%)’,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3.9%)’,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3.1%)’, ‘해외구호를 위한 자원봉사(2.6%)’ 순으로 응답함
-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자의 활동처로는 ‘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라는 응답이 39.8%로 가장 높음

- ◎ 순수 자원봉사 활동처로 2003년, 2005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2009년에는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 2007년과 2011년, 2013년에는 ‘자선단체’ 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 본 설문은 2003년, 2005년, 2007년의 설문에서 수정(문항 보기 변화)되어 직접 비교가 힘들으나, 2009년, 2011년, 2013년도 설문은 동일하여 직접 비교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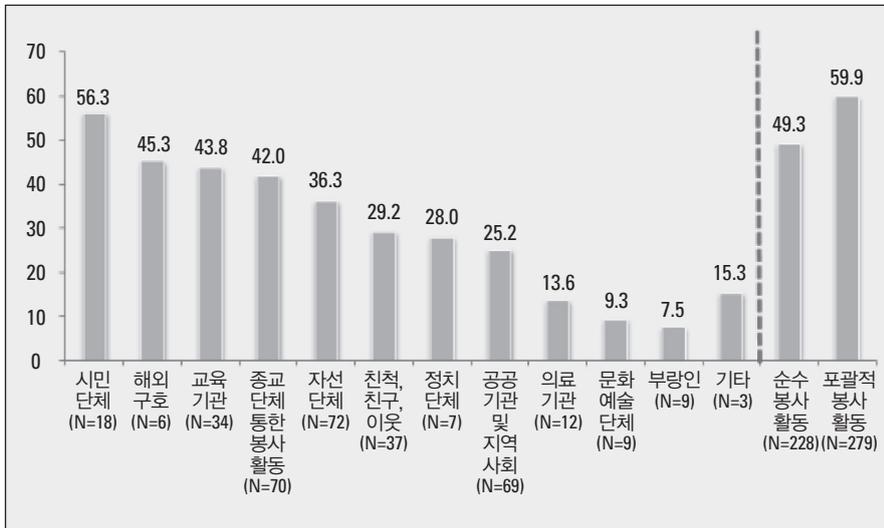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 순수자원봉사 활동처로 가장 높게 응답된 ‘자선 단체를 위한 자원봉사’ 라는 응답은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38.2%), △30-39세(46.4%), △전문대재이상(34.2%), △가구소득 200-299만원(39.5%) 및 400-499만원(38.2%), △대도시(38.5%), △미혼(37.7%), △종교 없음(36.6%), △불행한 편(37.5%), △중도(34.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종교 단체를 통한 자원 봉사’ 라는 응답은 거주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31.8%), △60세 이상(39.5%), △중학교졸업이하(37.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50.0%), △기혼/이혼/사별(36.1%), △종교 있음(43.8%), △행복한 편(31.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3. 자원봉사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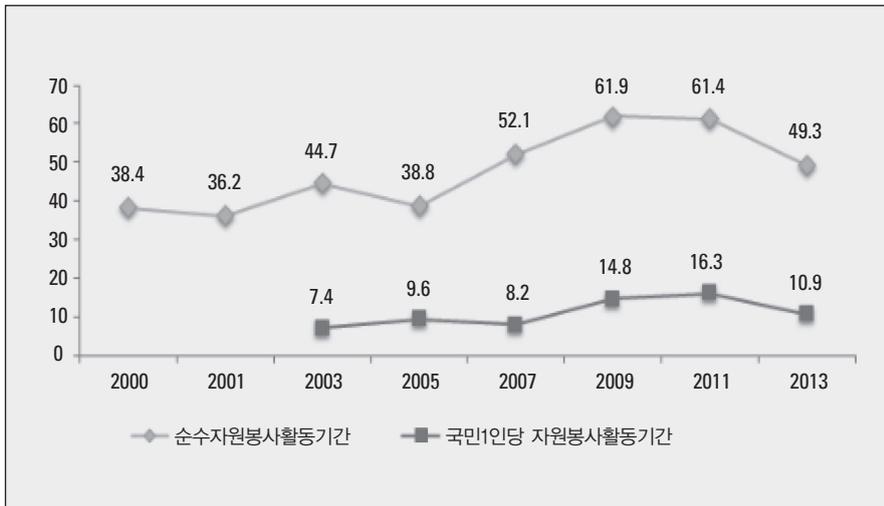
문] 작년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자원봉사’를 한 시간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시간)



〈그림 4〉 자원봉사 시간

(단위 : 시간)



〈그림 5〉 순수 자원봉사 시간 변화 추이

전 체

-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49.3시간, 포괄적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59.9시간임

- ◎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을 포함한 포괄적 자원봉사 활동처를 기준으로 할 때 ‘시민단체를 위한 자원봉사’가 56.3시간으로 가장 높고, ‘해외구호를 위한 자원봉사(45.3시간)’, ‘교육기관을 위한 자원봉사(43.8시간)’,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 불우이웃돕기, 해외구호활동 등의 특별자원봉사(42.0시간)’,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36.3시간)’,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29.2시간)’,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28.0시간)’,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25.2시간)’, ‘의료기관을 위한 자원봉사(13.6시간)’,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9.3시간)’,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자원봉사(7.5시간)’ 순임

-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2011년 61.4시간에 비해 12.1시간 감소함. 국민 1인당 자원봉사 시간은 2011년에 비해 5.4시간 감소함

-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2005년 이후, 국민 1인당 자원봉사 시간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였으나, 2013년에는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의 평균 자원봉사 시간과 국민1인당 자원봉사 시간 모두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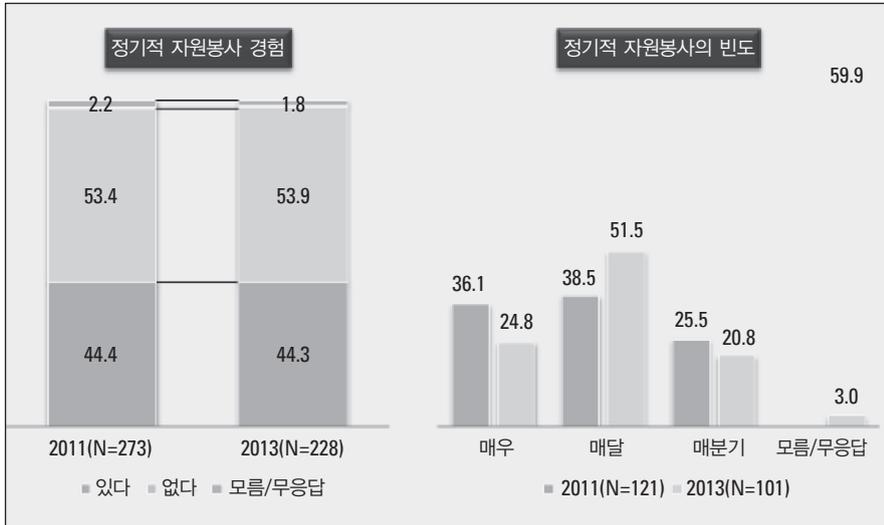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 순수자원봉사 활동 평균시간은 학력이 낮을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59.8시간), △60세 이상(90.0시간), △가구소득 100-199만원(54.2시간), △중소도시동부(55.1시간), △기혼,이혼,사별(53.8시간), △종교있음(52.9시간), △불행한 편(64.6시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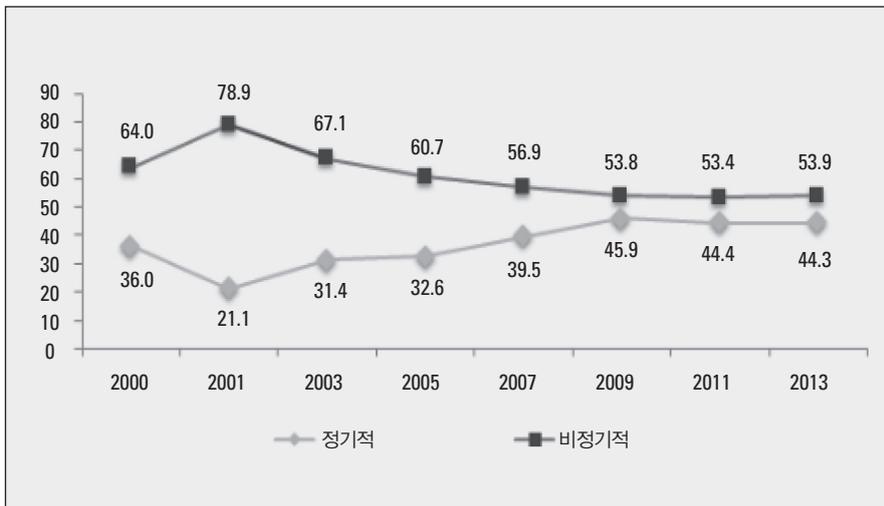
문] 작년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자원봉사’를 한 시간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



〈그림6〉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단위 : %)



〈그림7〉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변화 추이

전 체

- ◎ 순수 자원봉사 참여자 중 정기적 참여 여부에 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4.3%, ‘없다’는 응답이 53.9%, ‘모름/무응답’이 1.8%임
- ◎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자원봉사 빈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매달’이라는 응답이 51.5%로 가장 높고, ‘매주(24.8%)’, ‘매분기(20.8%)’의 순임
- ◎ 일반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정기적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자 중 5명 정도는 매달 참여 형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
- ◎ 정기적 봉사 참여 비율은 2007년 39.5%에서 2009년 45.9%로 6.4%p 증가하였고, 2013년은 44.3%로 2009년, 2011년과 비슷한 수준임

응답자 특성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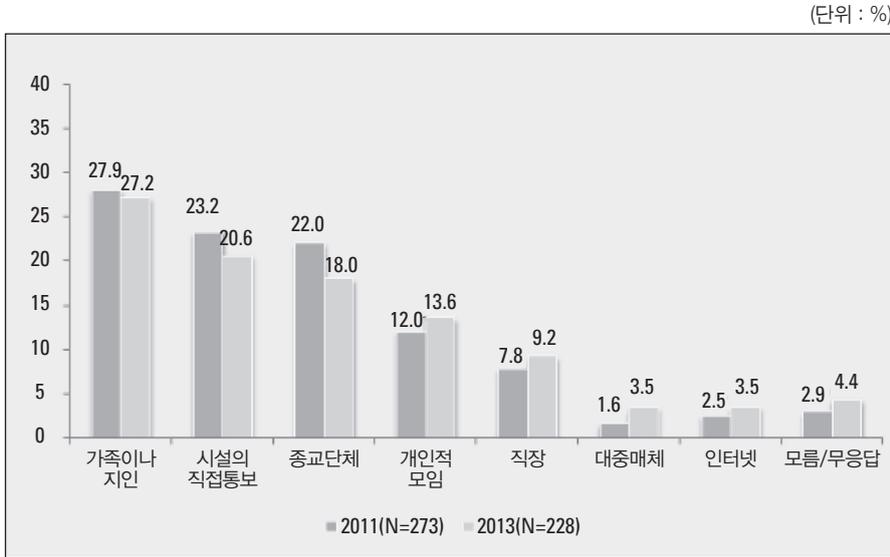
- ◎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48.2%), △가구소득 400-499만원(52.9%), △대도시(50.5%), △기혼/이혼/사별(52.4%), △종교 있음(51.4%), △행복한 편(45.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55.9%), △가구소득 100-199만원(61.3%) 및 200-299만원(63.2%), △중소도시 동부(58.8%), △미혼(77.0%), △종교 없음(65.9%), △불행한 편(62.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2)

- ◎ 정기적 자원봉사 빈도가 ‘매 달’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52.8%), △기혼,이혼,사별(54.0%), △종교 있음(52.0%), △행복한 편(54.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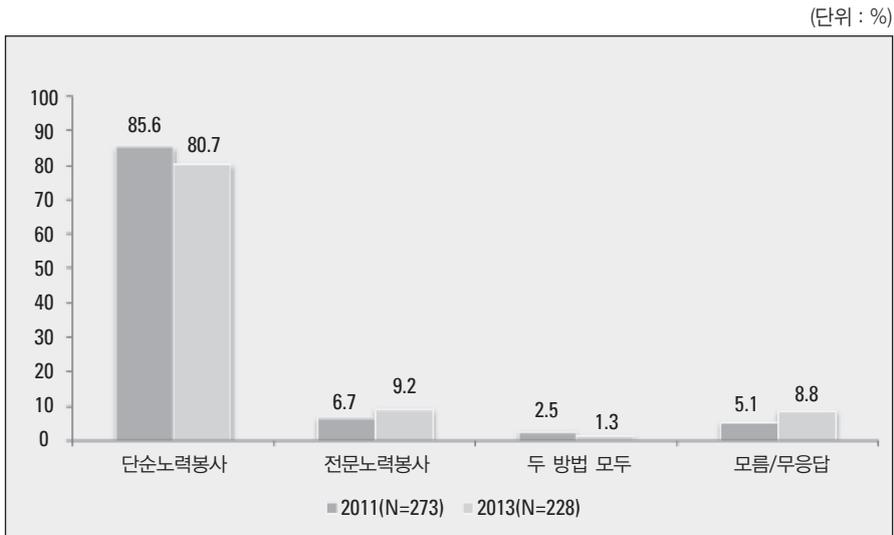
5.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 및 활동 방법

문) 가장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시설/기관/단체/개인’ 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그림8〉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

문) 가장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그 ‘시설/기관/단체/개인’ 에게 주로 어떤 방법으로 봉사하셨습니까?



〈그림9〉 자원봉사 활동 방법

전 체

- ◎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로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높고,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20.6%)’, ‘종교단체를 통해(18.0%)’, ‘그 외 개인적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13.6%)’, ‘직장을 통해(9.2%)’,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3.5%)’, ‘인터넷을 통해(3.5%)’ 순으로 응답함
- ◎ 자원봉사 활동 방법에 대해 ‘단순노력봉사’라는 응답이 80.7%로 가장 높고, ‘전문노력봉사(9.2%)’, ‘두 방법 모두(1.3%)’ 순임
- ◎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2011년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 ‘시설의 직접홍보’, ‘종교단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011년에 비해 0.7%p, 2.6%p, 4.0%p 감소한 반면, ‘개인적 모임’, ‘직장’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1.6%p, 1.4%p 증가함
- ◎ 자원봉사 활동 방법에 대한 응답은 2011년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임

응답자 특성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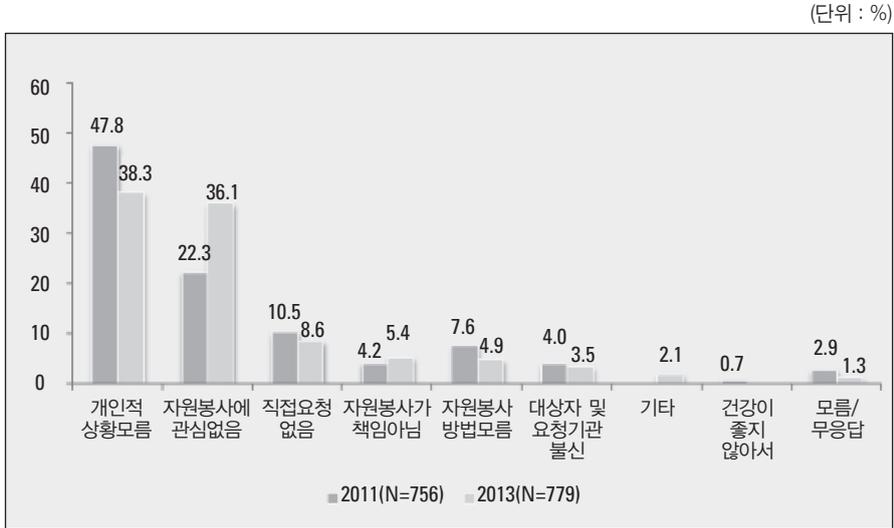
-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라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29.1%), △40-49세(41.2%), △고등학교 졸업(35.9%), △가구소득 400-499만원(38.2%), △기혼,이혼,사별(27.7%), △종교 없음(28.0%), △행복한 편(28.6%), △중도(35.5%), △중 계층(33.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보수적일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28.2%), △60세 이상(30.2%), △가구소득 100-199만원(32.3%), △종교 없음(26.8%), △불행한 편(25.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2)

- ◎ ‘특정 대상/이슈 또는 조직을 위한 단순 노력 봉사’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86.4%), △19세-29세(83.7%) 및 60세 이상(83.7%), △가구소득 400-499만원(100.0%), △종교 있음(82.9%), △행복한 편(81.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6.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문) 귀하께서는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림10〉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전 체

- ◎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나의 시간 등 개인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고, ‘자원 봉사에 관심이 없어서(36.1%)’, ‘직접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8.6%)’, ‘자원봉사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5.4%)’, ‘어디서, 어떻게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4.9%)’, ‘대상자 및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3.5%)’ 의 순으로 응답함
- ◎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시간 등 개인적 상황 때문에 자원 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 ◎ 전반적으로 2011년 조사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가운데, ‘개인적 상황을 몰라서’ 라는 응답이 9.5%p 감소하고, ‘자원봉사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라는 응답은 13.8%p 증가하여 자원봉사에 관심이 없어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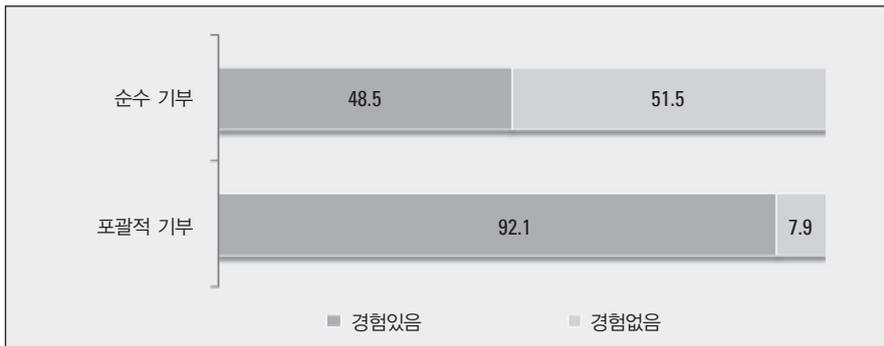
- ◎ ‘나의 시간 등 개인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라는 응답은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41.5%), △19세-29세(40.3%) 및 30-39세(40.7%), △전문대재 이상(43.9%), △기혼,이혼,사별(38.8%), △행복한 편(39.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자원봉사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40.6%), △19세-29세(38.8%), △미혼(41.9%), △불행한 편(41.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II. 기부 실태

1. 기부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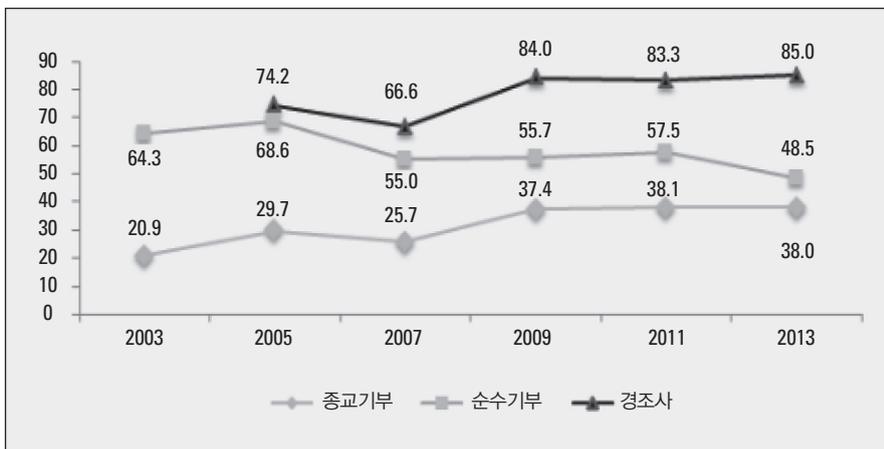
문)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기부' 를 하신 시설/기관/단체/ 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



〈그림11〉 기부 참여 여부

(단위 : %)



〈그림12〉 기부 참여 여부 변화 추이

전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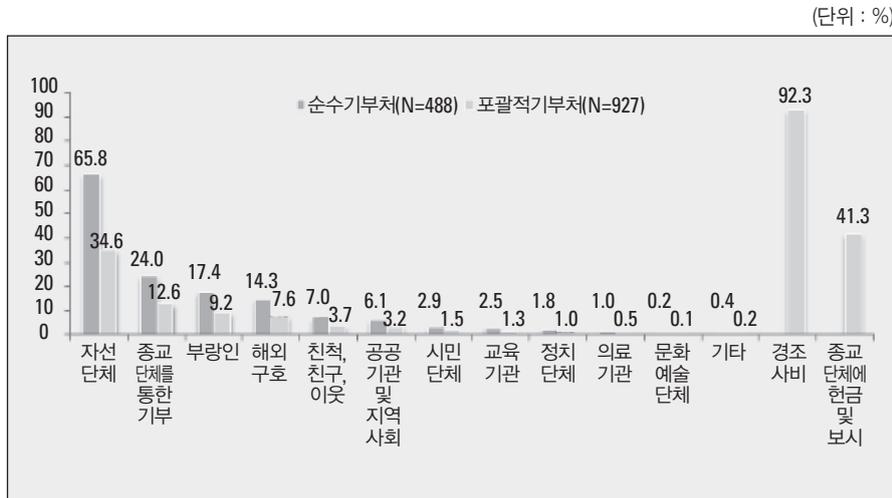
- ◎ 순수 기부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의 비율이 48.5%, ‘경험없음’의 비율이 51.5%임
- ◎ 경조사비, 종교단체에 하는 현금 및 보시를 포함한 포괄적 기부 참여에 대해 ‘경험있음’의 비율이 92.1%, ‘경험없음’의 비율이 7.9%임
- ◎ 순수 기부 참여비율은 2011년 57.5%에 비해 9.0%p 감소함
- ◎ 경조사비 비율은 2011년에 비해 1.7%p 증가하였고, 현금 및 보시 등 종교기부 비율은 2011년에 비해 0.1%p 감소함

응답자 특성별

- ◎ 순수기부 경험에 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50.4%), △40-49세(59.6%), △기혼, 이혼, 사별(51.7%), △종교 있음(60.5%), △행복한 편(51.8%), △재정적으로 안정적임(52.8%), △노후 준비 됨(56.2%), △진보(52.6%), △중 계층(52.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순수기부 경험에 대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53.5%), △19-29세(63.5%), △미혼(61.7%), △종교 없음(62.3%), △불행한 편(65.0%),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56.4%), △노후 준비되지 않음(58.4%), △중도(53.9%), △하 계층(58.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2. 기부처

문)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기부’ 를 하신 시설/기관/단체/ 개인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림13〉 기부처

전 체

◎ 순수 기부 참여자의 기부처로 ‘자선 단체를 위한 기부’ 라는 응답이 65.8%로 가장 높고,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 현금(24.0%)’,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기부(17.4%)’, ‘해외구호를 위한 기부(14.3%)’,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기부(7.0%)’,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6.1%)’, ‘시민단체를 위한 기부(2.9%)’, ‘교육기관을 위한 기부(2.5%)’,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기부(1.8%)’, ‘의료기관을 위한 기부(1.0%)’, ‘문화 예술 단체를 위한 기부(0.2%)’의 순으로 응답함

◎ 포괄적 기부 참여자의 기부처로는 ‘경조사비’ 라는 응답이 92.3%로 가장 높음

◎ 2007, 2009, 2011, 2013년 4개년 간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 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 라는 응답은 2011년 72.2%에 비해6.4%P 감소하였으며,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라는 응답은 2.4%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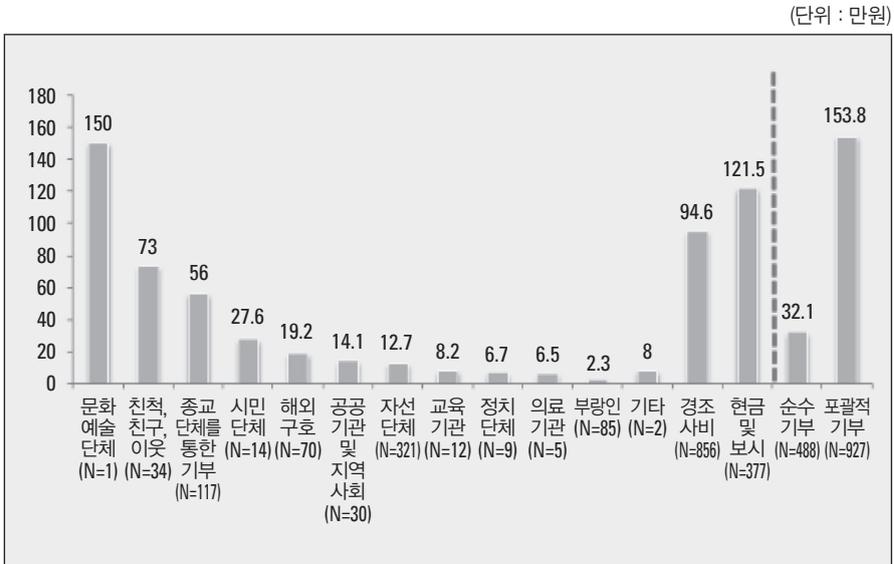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순수기부 활동 기부처로 가장 높게 응답된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 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66.1%), △30-39세(72.1%), △가구소득 400-499만원(77.1%), △대도시(68.4%), △기혼,이혼,사별(68.0%), △종교 없음(76.3%), △불행한 편(72.9%), △중 계층(68.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순수기부 활동 기부처로 두 번째로 높게 응답된 ‘종교 단체를 통한 기부’ 라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28.0%), △50-59세(29.4%), △중학교졸업 이하(27.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29.4%), △기혼,이혼,사별(25.4%), △종교 있음(37.1%), △행복한 편(24.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3. 기부금액

문1 작년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 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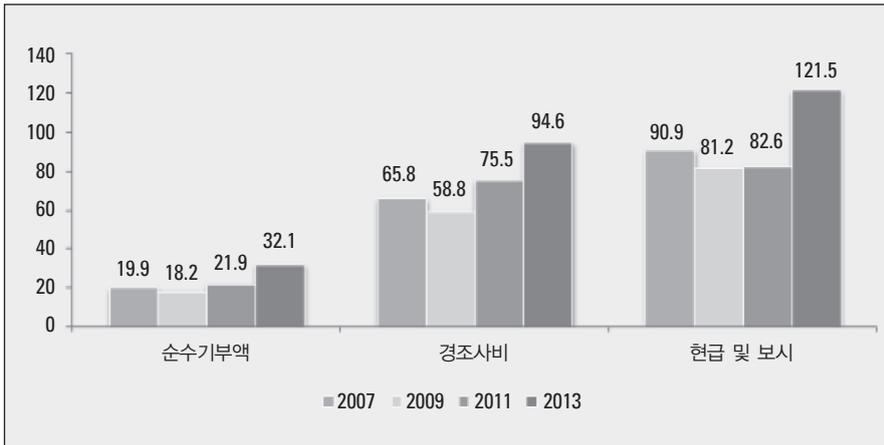
〈그림14〉 기부처별 기부 금액

(단위 : 만원)



〈그림15〉 순수 기부액 변화 추이

(단위 : 만원)



〈그림16〉 기부처별 기부액 변화 추이

전 체

- ◎ 순수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32만1천원, 포괄적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153만8천원임
- ◎ 경조사비 및 종교단체로의 현금 및 보시를 포함한 포괄적 기부를 기준으로 할 때 ‘현금 및 보시’ 평균 기부금액이 121만5천원으로 가장 높고, ‘경조사비(94만6천원)’,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기부(73만원)’, ‘종교 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 돕기 현금(56만원)’, ‘시민단체를 위

한 기부(27만6천원), ‘해외구호를 위한 기부(19만원2천원)’,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14만1천원)’,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12만7천원)’, ‘교육기관을 위한 기부(8만2천원)’,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기부(6만7천원)’ 등의 순임¹⁾

◎ 순수 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2011년 21만9천원에서 2013년 32만1천원으로 10만2천원 증가하였으며, 국민1인당 순수기부액은 2011년 12만4천원에서 2013년 15만5천원으로 3만1천원 증가함

◎ 기부처별 평균 기부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 비해 순수기부액의 경우 10만2천원 증가하였고, 경조사비의 경우 19만1천원 증가, 현금 및 보시의 경우 38.9만원 증가함. 경조사비와 현금 및 보시의 경우, 2013년부터 세부 항목별로 금액을 응답 받아, 기부액이 지난 조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됨

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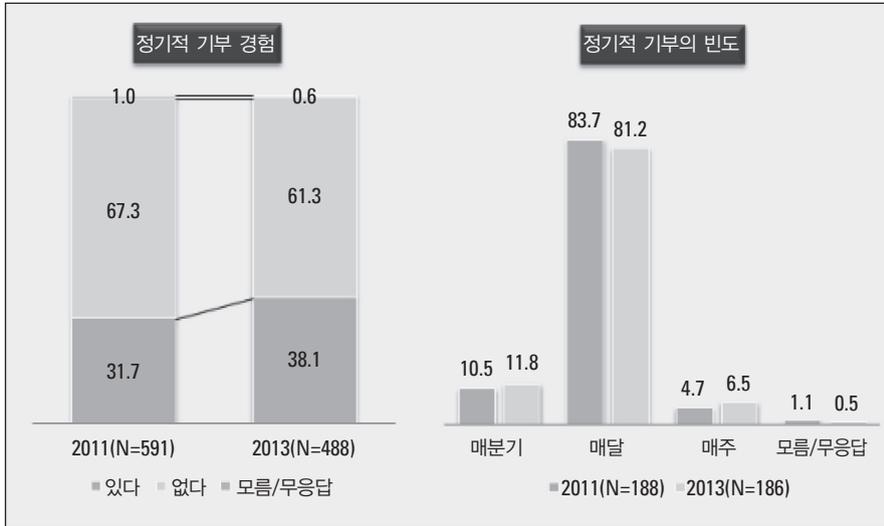
◎ 순수기부 평균금액(현금+물품)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41만 1천 원), △40-49세(45만3천 원) 및 50-59세(42만 6천 원),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59만 4천 원), △기혼,이혼,사별(35만 3천 원), △종교 있음(44만 7천 원), △행복한 편(33만원), △재정적으로 안정적임(39만 3천 원), △노후 준비됨(42만 6천 원), △상 계층(122만 7천 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1) 문화예술단체에의 기부는 1명으로, 평균 기부액을 집계 않음

4.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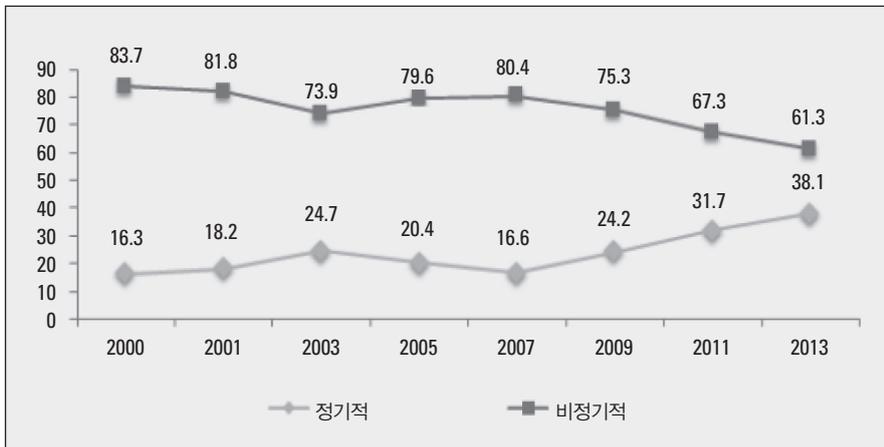
문) 작년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기부’ 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단위 : %)



〈그림17〉 정기적 기부 경험과 빈도

(단위 : %)



〈그림18〉 정기적 기부 참여 변화 추이

전 체

- ◎ 순수 기부 참여자 중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에 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8.1%, '없다'는 응답은 61.3%, '모름/무응답'은 0.6%임
- ◎ 정기적 기부 참여자에게 정기적 기부 빈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매달'이라는 응답이 81.2%로 높고, '매분기(11.8%)', '매주(6.5%)' 순임
- ◎ 2013년 정기적 기부 경험은 2011년 31.7%에 비해 6.4%p 증가였으며, 정기적 기부 빈도는 2011년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임
- ◎ 정기적 기부 참여 비율은 2007년 16.6%, 2009년 24.2%, 2011년 31.7%, 2013년 38.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비정기적 기부 참여 비율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응답자 특성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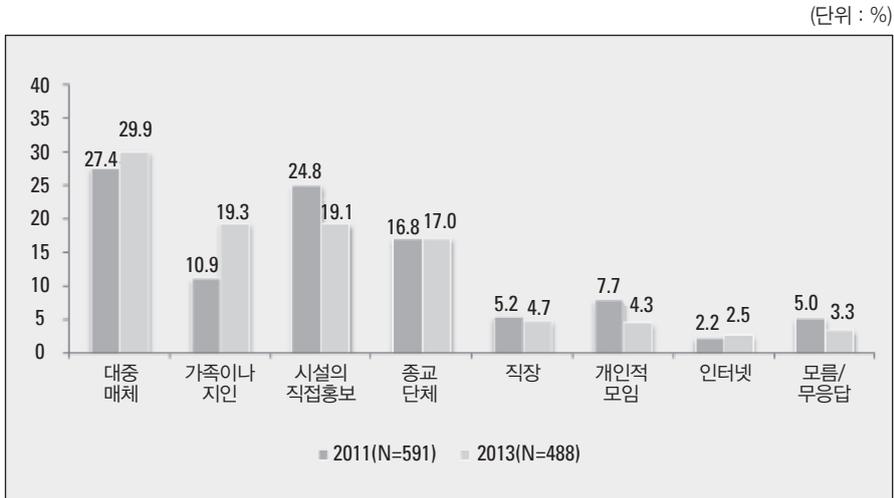
- ◎ 정기적 기부 참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부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진보적일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39.8%), △40-49세(48.5%), △기혼,이혼,사별(40.6%), △종교 있음(44.7%), △행복한 편(39.7%), △재정적으로 안정적임(39.8%), △노후 준비 됨(43.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정기적으로 기부를 한 적이 '없다'는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적일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63.0%), △19세-29세(72.3%) 및 60세 이상(73.5%), △미혼(71.7%), △종교 없음(70.6%), △불행한 편(67.1%),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64.1%), △노후 준비되지 않음(68.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2)

- ◎ 정기적 기부 참여 빈도에 대해 '매달' 정기적 기부를 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83.7%), △30-39세(88.2%), △중소도시 동부(85.2%), △종교 없음(82.1%), △행복한 편(81.9%), △노후 준비 됨(84.5%), △중 계층(85.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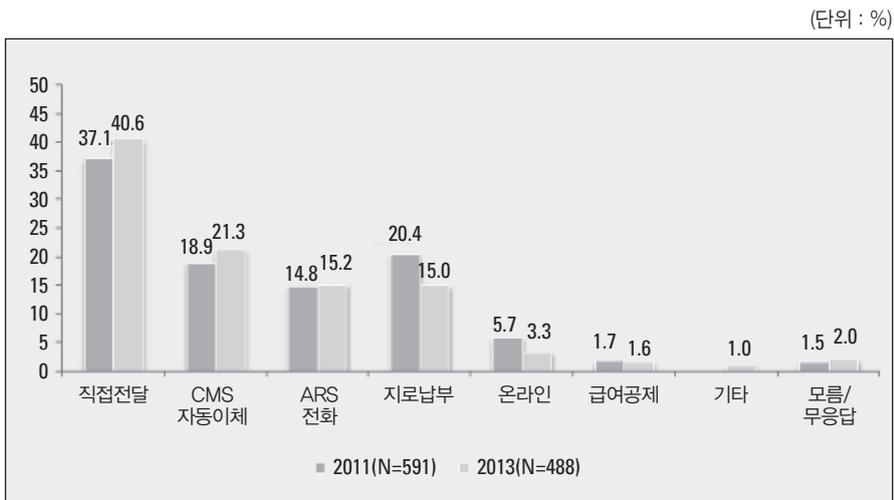
5. 기부처 인지경로 및 기부 방법

문)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신 ‘시설/기관/단체/개인’ 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그림19〉 기부처 인지경로

문)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신 그 ‘시설/기관/단체/개인’ 에게 주로 어떤 방법으로 기부하셨습니까?



〈그림20〉 기부 방법

전 체

- ◎ 기부처 인지경로에 대해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라는 응답이 29.9%로 가장 높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19.3%)’,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19.1%)’, ‘종교단체를 통해(17.0%)’, ‘직장을 통해(4.7%)’, ‘그 외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4.3%)’, ‘인터넷을 통해(2.5%)’의 순으로 응답함

- ◎ 기부 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이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고, ‘CMS 자동이체(21.3%)’, ‘ARS 전화(15.2%)’, ‘지로납부(15.0%)’, ‘온라인(신용카드, 핸드폰 결제)(3.3%)’, ‘급여공제(1.6%)’의 순으로 응답함

- ◎ 기부처 인지경로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2011년과 비슷한 추세인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라는 응답은 2011년에 비해 8.4%p 증가한 반면,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라는 응답이 2011년에 비해 5.7%p 감소함

- ◎ 기부 방법에 대한 결과를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1년에 비해 ‘CMS 자동이체’가 2.4%p 증가한 반면, ‘지로납부로 기부를 한다’는 응답은 5.4%p 감소함

응답자 특성별(1)

- ◎ 기부처 인지경로에 대해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60세 이상(37.8%), △종교 없음(3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라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21.5%) 및 50-59세(21.1%), △고등학교 졸업(23.4%), △종교 있음(21.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라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26.2%), △고등학교 졸업(24.0%), △종교 없음(25.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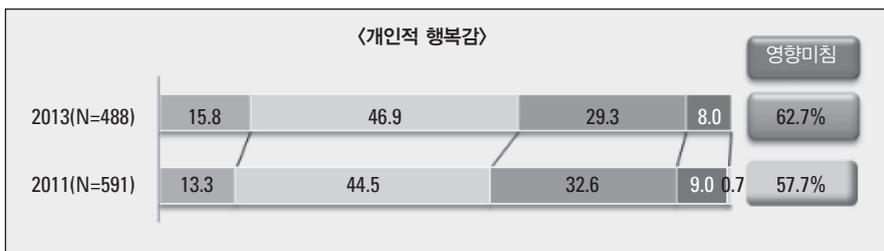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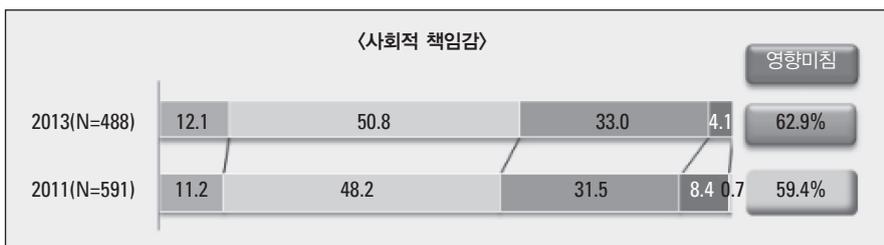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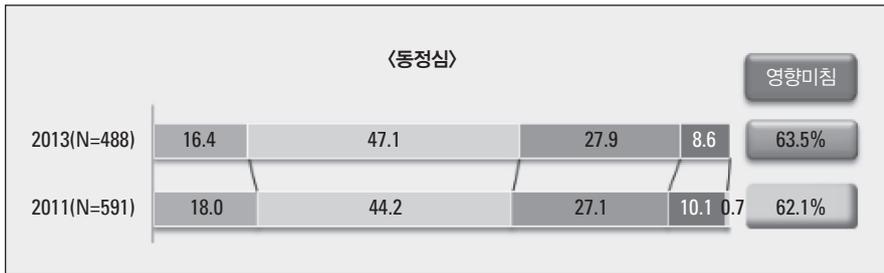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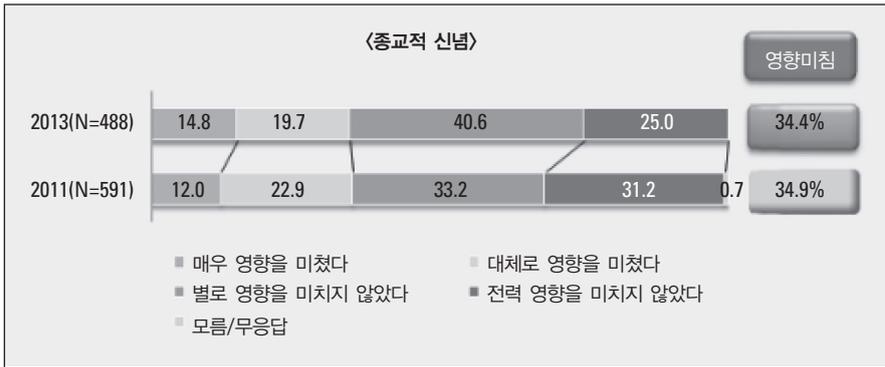
- ⊙ 기부 방법에 대해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이라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50-59세(47.7%), △고등학교 졸업(46.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47.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CMS 자동이체’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30.8%),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32.6%), △중소도시동부(22.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6. 기부의 내적요인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실 때 다음의 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내적 요인)

(단위 : %)





〈그림21〉 기부의 내적요인

전 체

- ◎ 기부를 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친 내적동기로 ‘동정심’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63.5%로 가장 높고, ‘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62.9%)’, ‘개인적 행복감(62.7%)’, ‘종교적 신념(34.4%)’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동정심’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라는 응답은 1.4%p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책임감’은 3.5%p, ‘개인적 행복감’은 5.0%p 증가함. 반면, ‘종교적 신념’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라는 응답은 0.5%p 감소함

응답자 특성별

- ◎ 동정심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보수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70.6%), △19-29세(70.8%), △전문대재 이상(65.1%), △가구소득 100-199만원(68.1%), △미혼(71.7%), △종교 있음(70.1%), △불행한 편(78.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60세 이상(70.4%), △고등학교 졸업(65.7%), △가구소득 400-499만원(67.7%), △기혼, 이혼, 사별(64.5%), △종교 있음(64.9%), △행복한 편(63.4%), △보수(64.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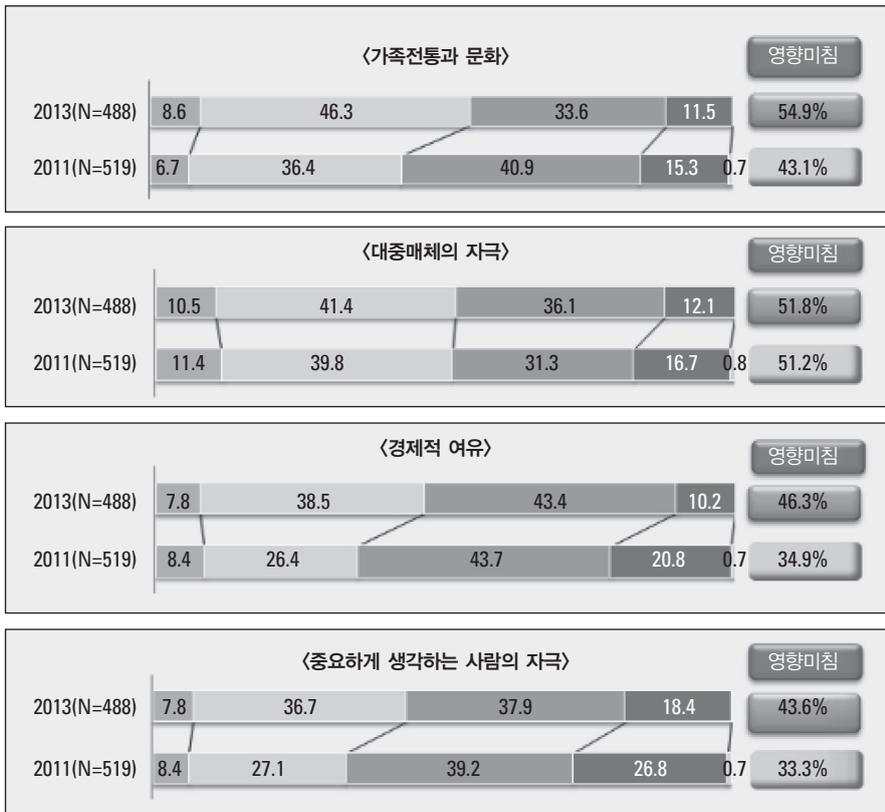
◎ 개인적인 행복감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19-29세(69.2%), △가구소득 100-199만원(72.3%), △미혼(68.5%), △종교 있음(66.3%), △행복한 편(62.9%), △중도(63.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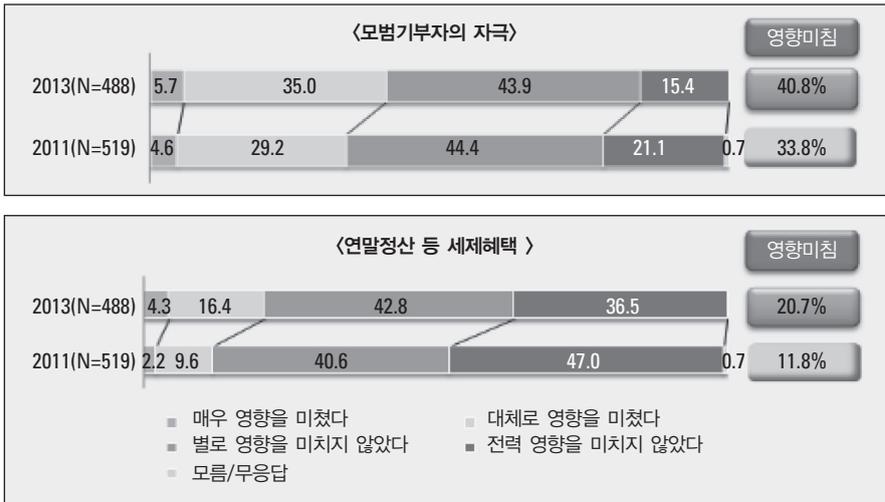
◎ 종교적 신념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50세 미만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고등학교 졸업(36.0%), △가구소득 200-299만원(39.1%), △기혼,이혼,사별(36.8%), △종교 있음(49.5%), △행복한 편(35.4%), △보수(35.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7. 기부의 외적요인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실 때 다음의 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외적 요인)

(단위 : %)





〈그림21〉 기부의 내적요인

전 체

◎ 기부를 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친 외적요인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라는 응답이 54.9%로 가장 높고, ‘대중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로부터의 자극, 요청(51.8%)’, ‘경제적 여유(46.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친구,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의 자극(43.6%)’, ‘모범기부자에 의한 자극(40.8%)’,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20.7%)’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11.8%p, 대중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로부터의 자극, 요청은 0.6%p, ‘경제적 여유’는 11.4%p,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친구,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의 자극’은 10.3%p, ‘모범 기부자에 의한 자극’은 7.0%p,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은 8.9%p 증가하여, 지난 조사에 비해 모든 외적 요인이 기부를 하는 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응답자 특성별

◎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56.3%), △50-59세(63.3%),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58.7%), △기혼, 이혼, 사별(56.1%), △종교 있음(59.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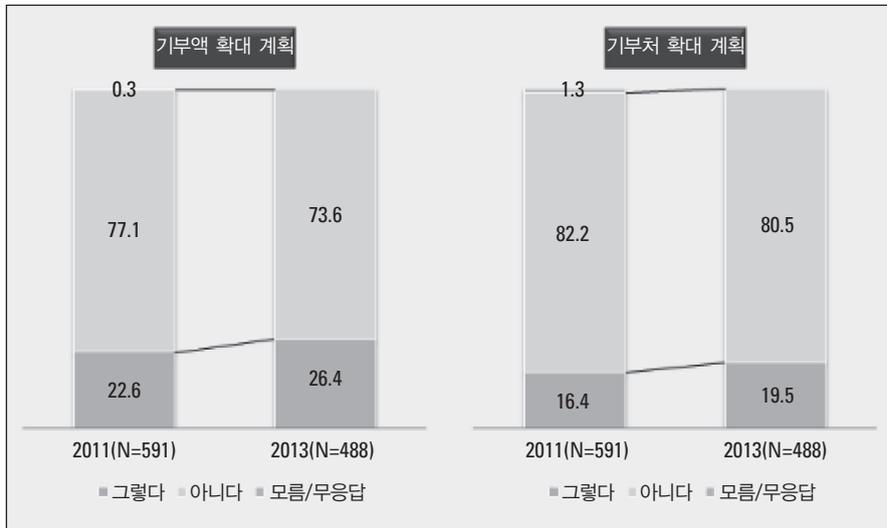
- ◎ 대중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로부터의 자극, 요청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여자(53.3%), △40-49세(56.2%), △전문대재 이상(53.4%), △가구소득 100-199만원(61.7%), △미혼(52.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경제적인 여유가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남자(47.2%), △60세 이상(49.0%), △전문대재 이상(49.6%), △가구소득 400-499만원(53.1%), △기혼,이혼,사별(47.0%), △종교 있음(49.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친지,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의 자극, 요청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남자(45.5%), △50-59세(48.6%), △전문대재 이상(47.8%),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50.7%), △기혼,이혼,사별(44.4%), △종교 있음(45.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모범적 기부자들에 의한 자극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500만원 미만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42.9%), △40-49세(45.4%), △기혼,이혼,사별(41.9%), △종교 있음(45.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연말 정산 등 세제혜택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21.6%), △40-49세(27.7%), △가구소득 400-499만원(28.1%), △기혼,이혼,사별(21.3%), △종교 있음(22.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8. 기부액 및 기부처 확대 계획

문1 기존의 기부액을 올해 혹은 내년에 늘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2 현재 기부처 이외에 다른 곳에도 기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단위 : %)



〈그림23〉 기부액 및 기부처 확대 계획

전 체

- ◎ 2013년에 기부를 한 응답자에게 기부액 확대 계획에 대해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26.4%, ‘아니다’는 응답이 73.6%임.
- ◎ 기부처 확대 계획에 대해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19.5%, ‘아니다’는 응답이 80.5%임.
- ◎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기부액 확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2011년 22.6%에 비해 3.8%p 증가하였으며, 기부처 확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1%p 증가함
- ◎ 2013년 기부 유경험자의 10명 중 2명 정도는 기부액 확대 계획이 있으며, 10명 중 2명 정도는 기부처 확대 계획이 있음

응답자 특성별(1)

- ◎ 기부액 확대 계획 여부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27.6%), △19-20세(43.1%), △가구소득 99만원 이하(35.3%), △종교 있음(28.5%), △행복한 편(26.8%), △안정적이지 않음(31.1%), △중 계층(29.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아니다’ 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74.9%), △50-59세(78.0%), △200-299만원(81.2%), △종교 없음(76.3%), △불행한 편(75.7%), △재정적으로 안정적임(77.1%), △상 계층(82.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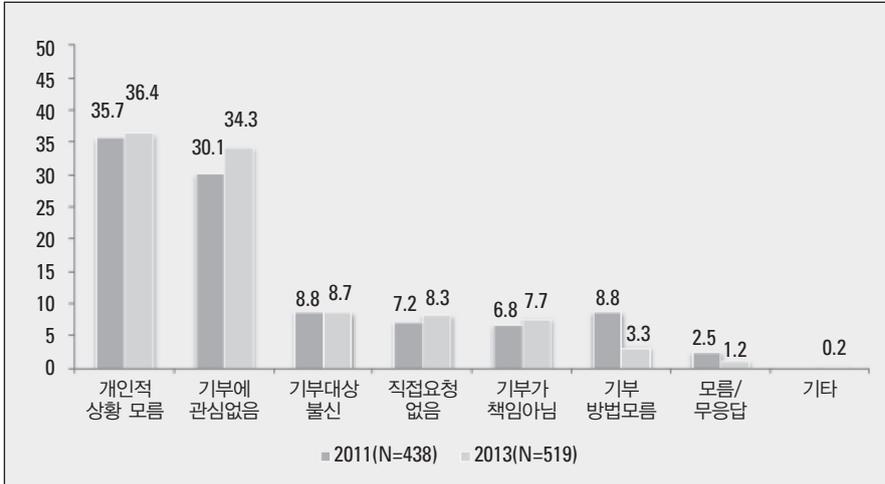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2)

- ◎ 기부처 확대 계획 여부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21.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23.5%), △미혼(33.7%), △행복한 편(21.3%), △안정적이지 않음(21.5%), △중 계층(21.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아니다’ 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82.7%), △가구소득 100-199만원(87.2%), △기혼,이혼,사별(83.8%), △불행한 편(91.4%), △재정적으로 안정적임(82.1%), △하 계층(84.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9.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 는 무엇입니까?

(단위 : %)



〈그림24〉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전 체

◎ 2013년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고,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34.3%)’, ‘기부를 요청한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8.7%)’,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8.3%)’, ‘기부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7.7%)’, ‘어디에, 어떻게 기부해야 하는지 몰라서(3.3%)’ 순임

◎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라는 응답이 4.2%p 증가한 반면, ‘어디에, 어떻게 기부해야 하는지 몰라서’ 라는 응답은 5.5%p 감소함

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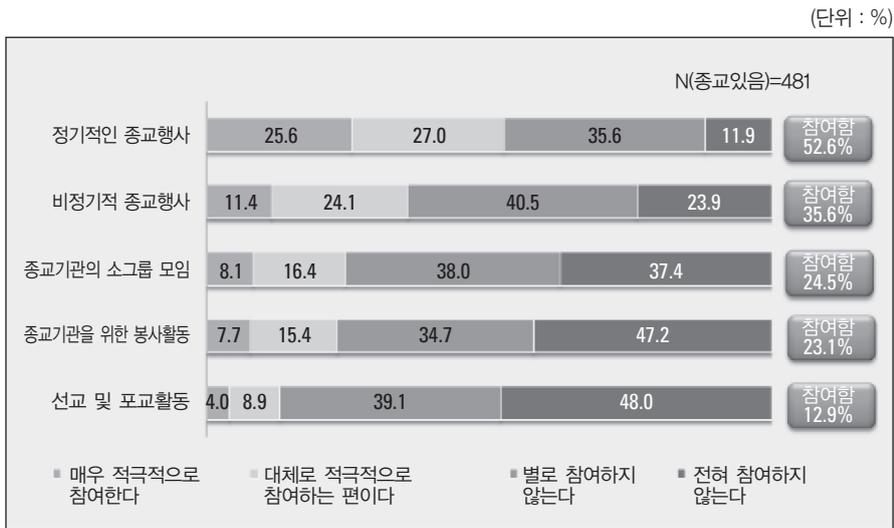
◎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39.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43.2%),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42.6%), △상 계층(64.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37.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45.9%), △불행한 편(36.9%), △재정적으로 안정적임(36.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III. 종교적 기부 관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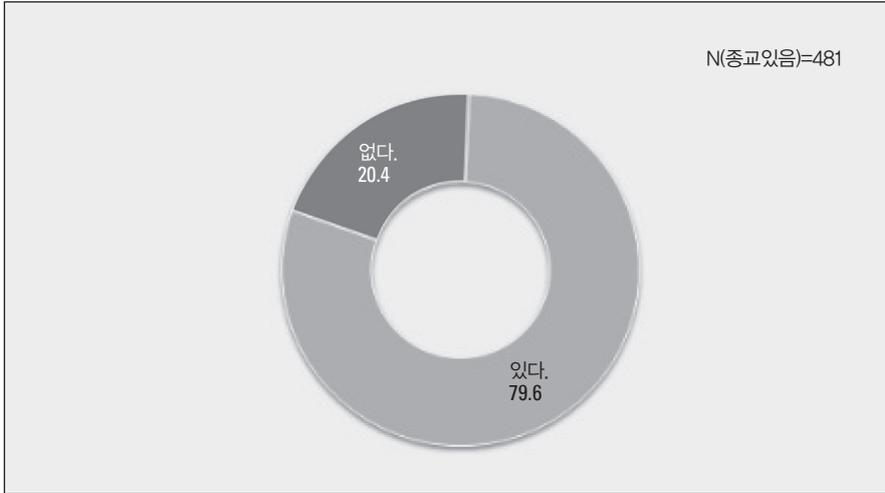
1. 종교적 활동 적극 참여 정도 및 헌금 및 보시 경험부

문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종교적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문2 귀하께서는 작년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종교단체에 헌금 및 보시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림25〉 종교적 활동 적극 참여 정도

(단위 : %)



〈그림25〉 종교적 활동 적극 참여 정도

전 체

- ◎ 종교가 있는 응답자에게 종교활동 참여 경험에 대해 물은 결과, ‘정기적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매우 적극적+대체로 적극적)’는 응답이 52.6%로 가장 높음
- ◎ 그 다음으로는 ‘비정기적 종교행사(35.6%)’, ‘종교기관의 소그룹 모임 (24.5%)’, ‘종교기관을 위한 봉사활동(23.1%)’, ‘선교 및 포교활동(12.9%)’의 순임
- ◎ 종교가 있는 응답자에게 지난 한 해 동안의 종교단체 헌금 및 보시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헌금 및 보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9.6%, ‘없다’는 응답은 20.4%임
- ◎ 종교가 있는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헌금 및 보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1)

- ◎ ‘정기적인 종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여자(56.5%), △대도시 (58.1%), △미혼(56.2%), △행복한 편(54.1%), △재정적 안정적임(54.5%), △상 계층(69.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비정기적인 종교행사’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 여자(37.7%), △중소도시 동부(39.4%), △행복한 편(37.2%), △재정적 안정적 임(37.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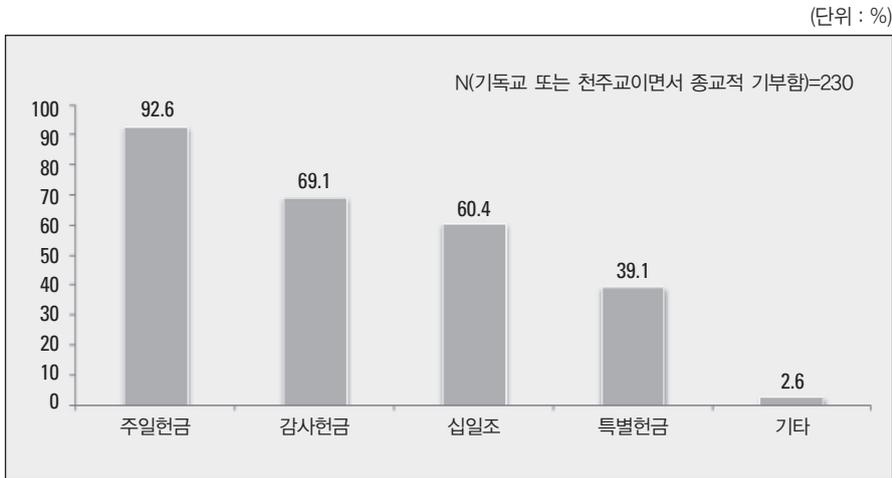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2)

- ◎ 지난 1년 간 현금 및 보시를 한 적이 ‘있다’ 라는 응답은 △여자(81.9%), △ 50-59세(89.8%),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85.3%), △대도시(83.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반면, ‘없다’ 는 응답은 △남자(23.4%), △19-29세(35.5%), △가구소득 100-199만원(27.0%), △중소도시 동부(25.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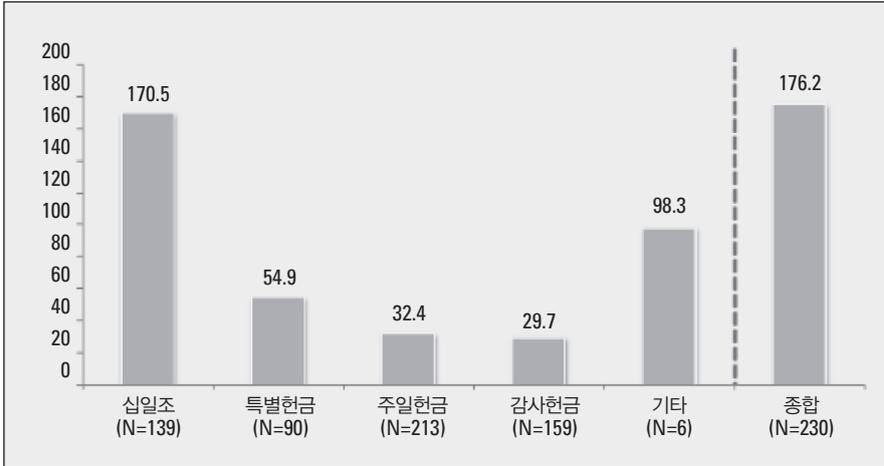
2. 종교적 기부(개신교 및 천주교) 항목 및 금액

문) 작년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종교적 기부항목에 기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작년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기부한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림27〉 종교적 기부(개신교 및 천주교) 항목

(단위 : 만원)



〈그림28〉 종교적 기부(개신교 및 천주교) 항목별 기부금액(현금+물품)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 기독교 또는 천주교 신자 중 헌금 및 보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종교적 기부 항목에 대해 물은 결과, ‘주일헌금’ 이라는 응답이 92.6%로 가장 높고, ‘감사헌금(69.1%)’, ‘십일조(60.4%)’, ‘특별헌금(39.1%)’, ‘기타(2.6%)’ 순으로 응답함
- ◎ 지난 1년간 종교적 기부 항목별 기부금액(현금+물품)은 ‘십일조’가 평균 170.5만원으로 가장 높고, ‘특별헌금(54.9만원)’, ‘주일헌금(32.4만원)’, ‘감사헌금(29.7만원)’의 순임
- ◎ 기독교 및 천주교 신자의 헌금 및 보시 금액의 평균은 176.2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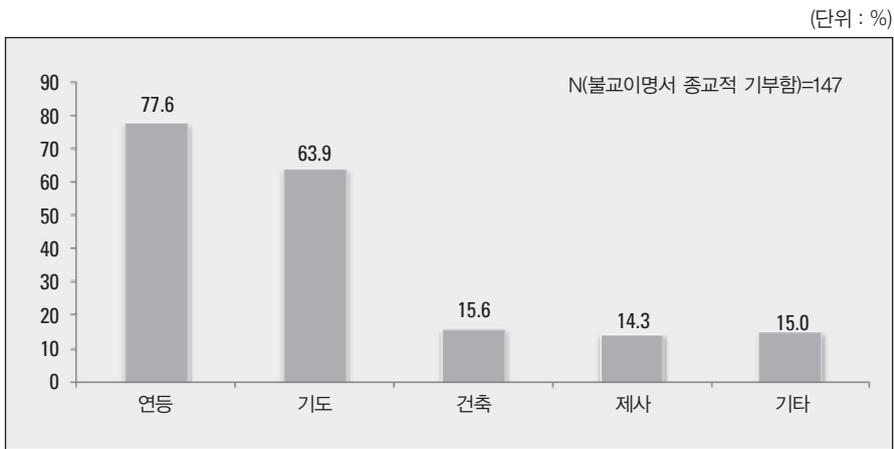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 종교적 기부 항목 중 ‘주일헌금’을 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여자(93.4%), △고등학교 졸업(96.6%), △불행한 편(97.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감사헌금’을 낸 적이 있다는 응답은 △남자(71.3%), △중학교 졸업 이하(72.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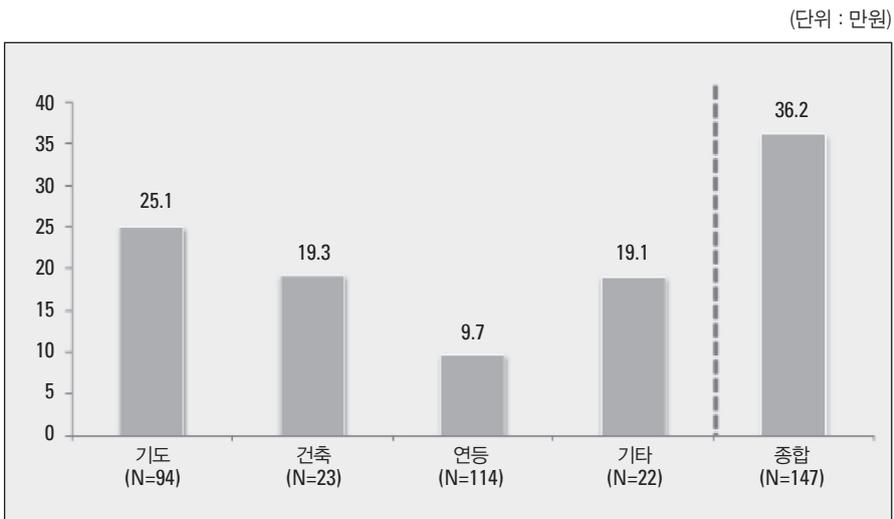
- ◎ ‘십일조’ 를 낸 적이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행복한 편(60.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3. 종교적 기부(불교) 항목 및 금액

문] 작년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종교적 기부항목에 기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작년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기부한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림29〉 종교적 기부(불교) 항목



〈그림30〉 종교적 기부(불교) 항목별 기부금액(현금+물품)

전 체

- ◎ 불교 신자이면서 지난 1년간 현금 및 보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기부 항목에 대해 물은 결과 ‘연등’이라는 응답이 77.6%로 가장 높고, ‘기도(63.9%)’, ‘건축(15.6%)’, ‘제사(14.3%)’ 등의 순임
- ◎ 불교 기부 항목별 기부 평균 금액은 ‘기도’가 25.1만원으로 가장 높고, ‘건축(19.3만원)’, ‘연등(9.7만원)’의 순임
- ◎ 불교 기부 금액 평균은 36.2만원임

응답자 특성별(1)

- ◎ 불교 신자에게 종교적 기부를 한 항목에 대해 물은 결과, ‘연등’이라는 응답은 △여자(83.9%), △고등학교 졸업(83.9%), △대도시(84.8%), △행복한 편(78.3%), △보수(81.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기도’라는 응답은 △여자(67.8%), △고등학교 졸업(67.9%), △대도시(72.7%), △행복한 편(65.0%), △진보(76.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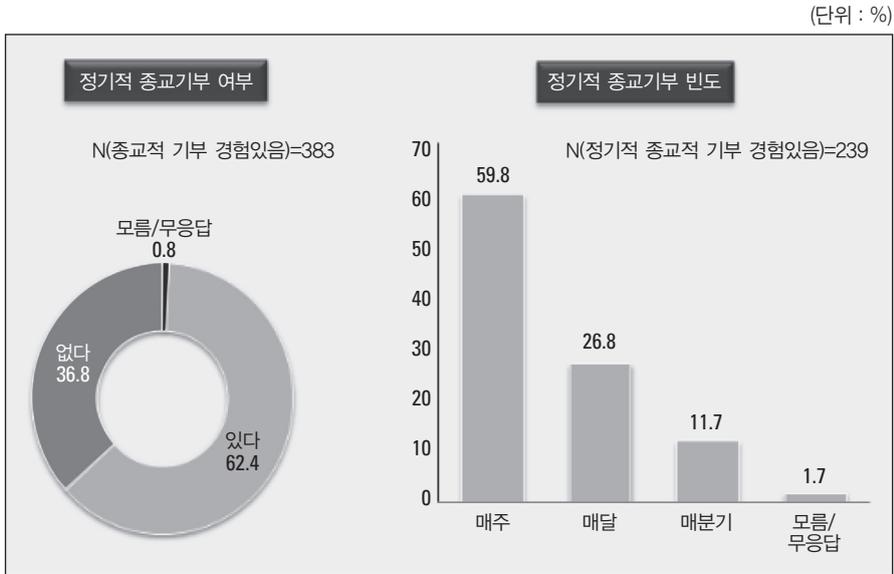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2)

- ◎ 불교 신자가 종교적 기부한 평균 금액(현금+물품)은 △50-59세(58만 2천원), △전문대재 이상(57만 4천원),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66만원), △대도시(40만 8천원), △불행한 편(49만원), △중도(45만 4천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 정기적 종교기부 참여 여부 및 빈도

문] 작년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귀하께서는 헌금 및 보시를 ‘정기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 정기적일 경우, 얼마나 자주 헌금 및 보시 등을 하십니까?



〈그림31〉 정기적 종교기부 참여 여부 및 빈도

* 2011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 종교적 헌금 및 보시 유경험자 중 정기적 종교기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2.4%, ‘없다’는 응답은 36.8%임
- ◎ 종교적 헌금 및 보시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정기적인 종교 헌금 및 보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함
- ◎ 정기적 종교 기부의 빈도에 대해서는 ‘매주’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높고, ‘매달(26.8%)’, ‘매분기(11.7%)’ 순임

응답자 특성별(1)

- ◎ 정기적으로 종교적 기부를 하고 '있다' 는 응답은 △여자(65.5%),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74.2%), △중소도시 동부(66.4%), △미혼(67.2%), △재정적으로 안정적임(66.5%), △진보(67.0%) 및 중도(66.3%), △상 계층(63.6%) 및 중 계층(63.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반면, 정기적으로 종교적 기부를 한 적이 '없다' 는 응답은 △남자(40.1%), △중소도시 읍면부(44.8%), △기혼, 이혼, 사별(38.4%),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41.1%), △보수(45.0%), △하 계층(39.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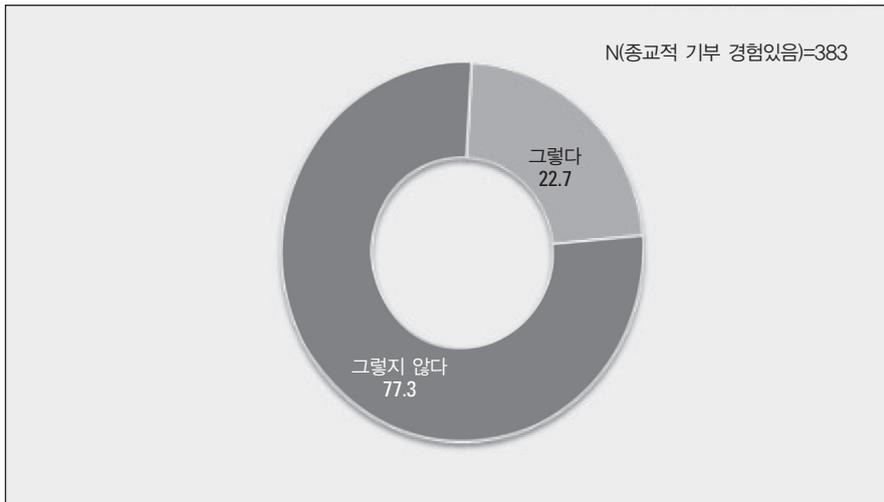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2)

- ◎ '매주' 종교적 기부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여자(62.2%), △19-29세(71.0%), △고등학교 졸업(65.3%), △불행한 편(65.9%), △중도(63.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매달' 종교적 기부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남자(33.0%), △40-49세(38.0%), △전문대재 이상(34.8%), △행복한 편(28.2%), △진보(36.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 종교적 기부 소득공제 여부

문) 귀하께서는 현금 및 보시를 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계십니까? 귀하께서 현금 및 보시를 하였지만, 귀하 명의를 아닌 가족 중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위 : %)



〈그림32〉 종교적 기부 소득공제 여부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현금 및 보시를 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가 여부를 묻은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22.7%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7.3%로, 현금 및 보시 경험자 10명 중 2명 정도만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됨

응답자 특성별

○ 종교적 기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남자(25.5%), △40-49세(31.7%), △전문대재 이상(30.8%),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38.7%), △중소도시 동부(29.0%), △행복한 편(24.4%), △재정적으로 안정적임(26.6%), △진보(30.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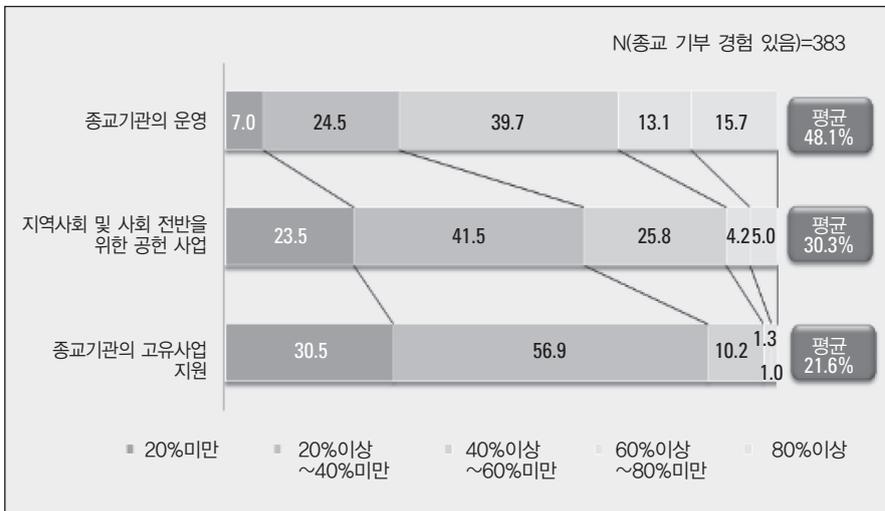
○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여자(79.2%), △19-29세(87.5%) 및 60세 이상(87.

1%), △대도시(77.8%), △불행한 편(85.3%),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81.7%), △보수(83.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6. 종교적 기부의 원하는 사용처

문) 귀하께서 한 현금 및 보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귀하께서 하신 현금 및 보시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체를 100%로 보았을 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비중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단위 : %)



〈그림33〉 종교적 기부 원하는 사용처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지난 1년간 종교적 현금 및 보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원하는 사용처에 대해 물은 결과, ‘종교기관의 운영’에 쓰이길 원하는 비율 평균이 48.1%로 가장 높음.
- ‘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을 위한 공헌사업’에 쓰이길 원하는 비율 평균은 30.3%, ‘종교기관의 고유사업 지원’에 쓰이길 원하는 비율 평균은 21.6%임

- ◎ 전반적으로 ‘종교기관의 운영’, ‘지역 사회 및 사회 전반을 위한 공헌 사업’, ‘종교기관의 고유사업 지원’ 이 5:3:2의 비율로 쓰이길 원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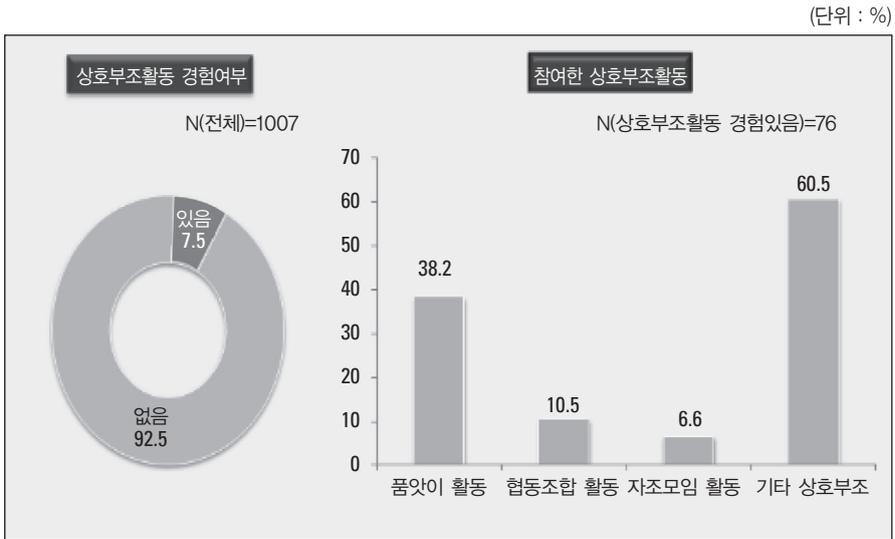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 현금 및 보시 사용처별 비중에 대해 ‘종교기관의 운영’에 쓰이기를 원하는 비중(%) 평균은 △고등학교 졸업(50.2%), △기혼, 이혼, 사별(48.5%), △중 계층(48.7%) 및 하 계층(47.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지역 사회 및 사회 전반을 위한 공헌 사업’에 쓰이기를 원하는 비중(%) 평균은 △남자(32.1%), △전문대재 이상(31.9%), △미혼(3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종교기관 고유사업 지원’에 쓰이기를 원하는 비중(%) 평균은 △여자(22.5%), △기혼, 이혼, 사별(22.0%), △상 계층(3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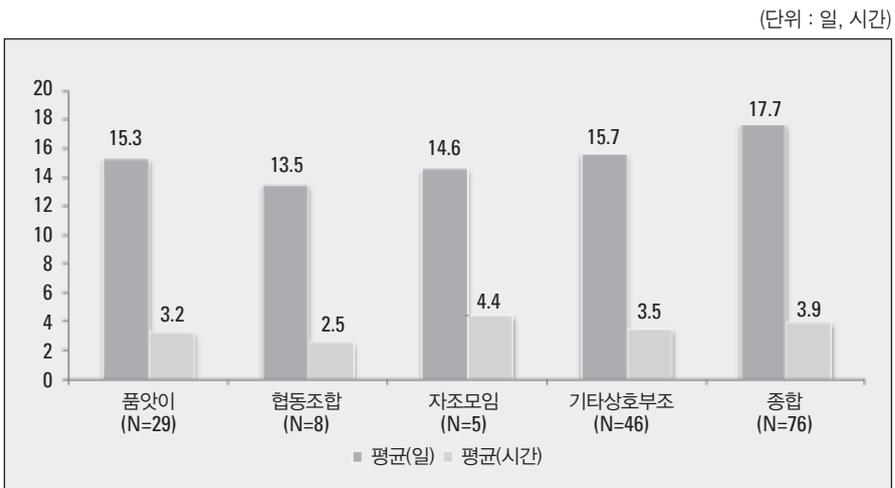
IV. 상호부조 실태

1. 상호부조 활동 참여 활동 및 참여 시간

문] 작년 한 해(2013년 1월~12월)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호부조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셨습니다가?



〈그림34〉 상호부조 활동 참여 여부 및 참여 활동



〈그림35〉 상호부조 활동 참여 시간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 지난 1년간 상호부조 활동 참여 경험에 대해 ‘있다’ 는 응답은 7.5%에 불과한 반면, ‘없다’ 는 응답은 92.5%임
- ◎ 상호부조 활동 경험자에게 참여한 활동 유형에 대해 ‘품앗이 활동’ 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고, ‘협동조합 활동, 10.5%’, ‘자조모임 활동, 6.6%’ 순임
- ◎ 그 외 기타 상호부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60.5%임
- ◎ 각 상호부조 유형별 참여한 시간에 대해 물은 결과 ‘품앗이’ 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 평균은 (15.3일 3.2시간)이며, ‘협동조합의 경우는 13.5일 2.5시간’, ‘자조모임의 경우는 14.6일 4.4시간’ 임
- ◎ 상호부조 활동 참여자의 총 참여 일수 및 시간 평균은 ‘17.7일 3.9시간’ 임

* 상호부조적 활동의 경우 일과 시간을 각각 물어, 일과 시간의 평균을 따로 산출하여 제시함

응답자 특성별(1)

- ◎ 상호부조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은 △여자(10.8%), △60세 이상(11.0%), △중학교 졸업 이하(10.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11.1%) 및 500만원 이상(11.5%), △중소도시 읍면부(10.3%), △강원/제주(23.8%), △종교 있음(1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반면 상호부조 활동 경험이 ‘없다’ 는 응답은 △남자(95.8%), △19-29세(97.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2)

- ◎ 상호부조 활동 중 ‘품앗이 활동’ 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자(42.9%), △대도시(50.0%), △종교 있음(47.9%), △행복한 편(39.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협동조합 활동’ 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자(23.8%), △중소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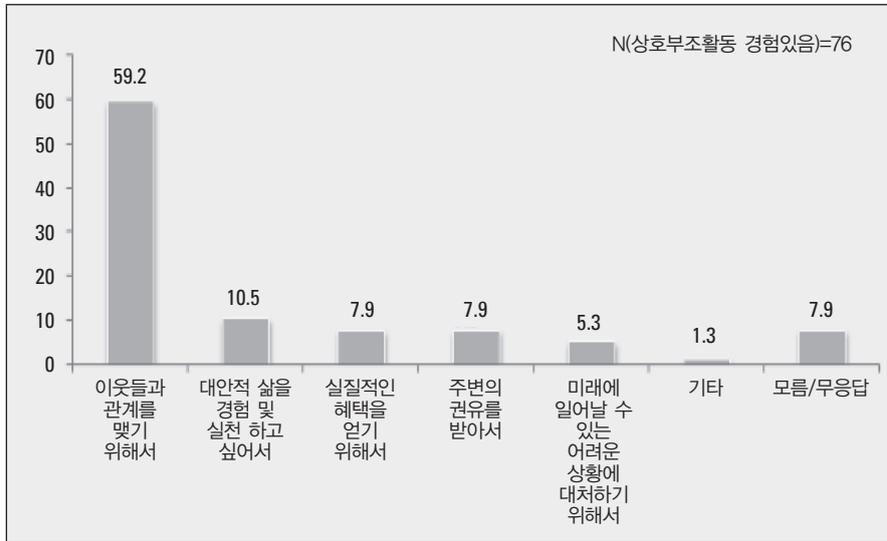
동부(15.4%), △종교 있음(12.5%), △불행한 편(15.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자조모임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자(14.3%), △중소도시 동부(11.5%) 및 중소도시 읍면부(11.1%), △종교 있음(10.4%), △불행한 편(15.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2. 상호부조 활동 참여 동기

문1 위의 상호부조활동 중 하나라도 참여하신 경우, 귀하께서 상호부조 활동에 참여하신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단위 : %)



〈그림36〉 상호부조 참여 동기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상호부조 활동 참여자의 참여 동기로는 ‘이웃 등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고, ‘대안적 삶을 경험 및 실천하고 싶어서(10.5%)’, ‘실질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7.9%)’,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7.9%)’,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5.3%)’, ‘기타(1.3%)’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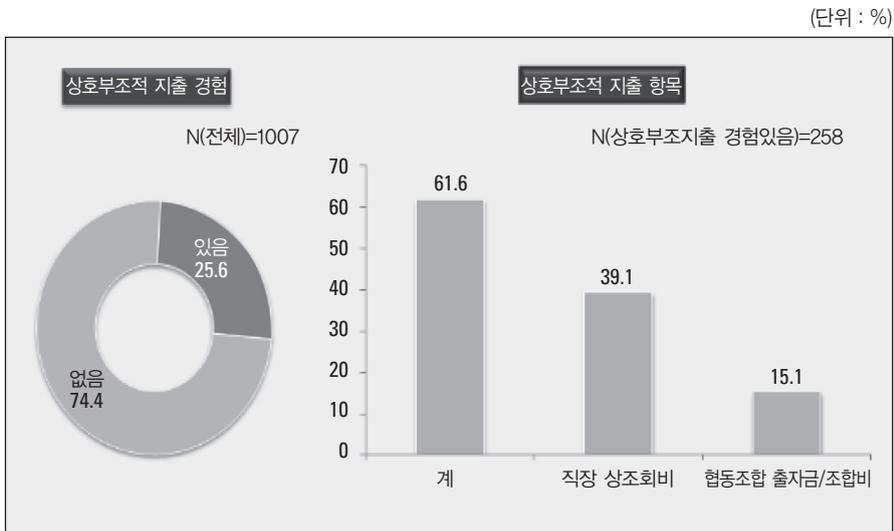
- ◎ 상호부조활동 경험자 10명 중 6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상호부조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 ◎ 상호부조 활동에 참여한 동기에 대해 ‘이웃 등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라는 응답은 △여자(63.6%), △50-59세(76.5%), △중소도시 동부(57.7%) 및 중소도시 읍면부(83.3%), △기혼, 이혼, 사별(62.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대안적 삶을 경험 및 실천하고 싶어서’ 라는 응답은 △남자(14.3%), △대도시 (12.5%), △미혼(42.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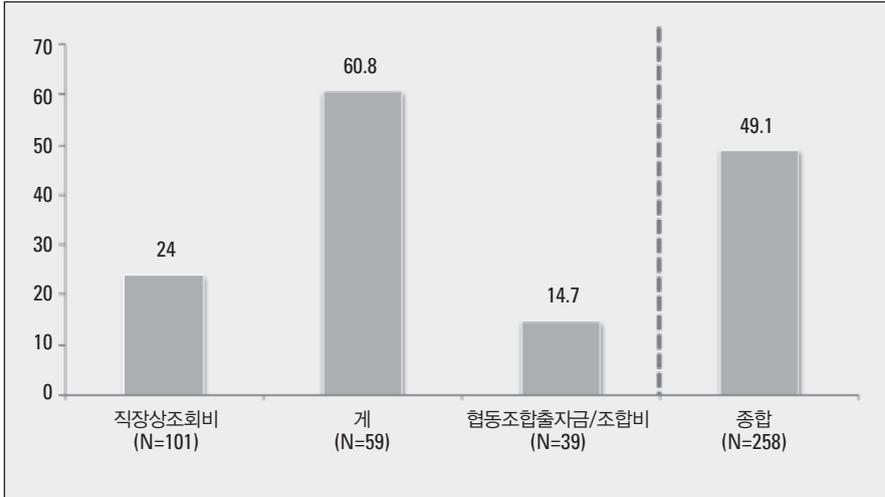
3. 상호부조적 지출 경험 및 항목별 금액

문] 작년 한 해(2013년 1월~12월)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호부조적 지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림37〉 상호부조적 지출 경험 및 항목

(단위 : 만원)



〈그림38〉 상호부조적 지출 항목별 금액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 지난 1년간 상호부조 지출 경험에 대해 상호부조적 지출을 한 적이 '있다' 는 응답이 25.6%로 낮은 반면, '없다' 는 응답은 74.4%임
- ◎ 상호부조적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는 '계' 라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고, '직장상조회비(39.1%)', '협동조합 출자금 및 조합비(15.1%)' 순임
- ◎ 지난 1년간 상호부조적 지출 항목별 금액은 '계' 에 지출한 평균 금액이 60.8만원으로 가장 높고, '직장상조회비(24만원)', '협동조합 출자금 및 조합비(14.7만원)'의 순임
- ◎ 상호부조적 지출 총 금액 평균은 49.1만원임

응답자 특성별(1)

- ◎ 지난 1년간 상호부조적 지출을 한 적이 '있다' 는 응답은 △남자(29.4%), △사무/관리/전문직(44.6%),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30.2%), △기혼, 이혼, 사별(28.5%), △행복한 편(27.1%), △중도(30.3%), △중 계층(28.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반면 상호부조적 지출을 한 적이 '없다' 는 응답은 △여자(78.0%), △미혼(83.8%), △불행한 편(80.5%), △진보(80.6%), △상 계층(82.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2)

- ◎ 상호부조적 기부 항목 중 '계' 에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여자(69.6%), △중학교 졸업 이하(80.0%), △주부(79.6%), △대도시(68.0%), △기혼, 이혼, 사별(65.9%), △보수(65.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직장 상조회' 에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남자(50.7%), △전문대재 이상(60.2%), △사무/관리/전문직(75.9%), △미혼(64.1%), △진보(43.8%) 및 중도(42.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협동조합 출자금 및 조합비' 에 지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여자(18.3%), △중학교 졸업 이하(20.0%), △농/임/어업(33.3%), △중소도시 읍면부(20.0%), △진보(2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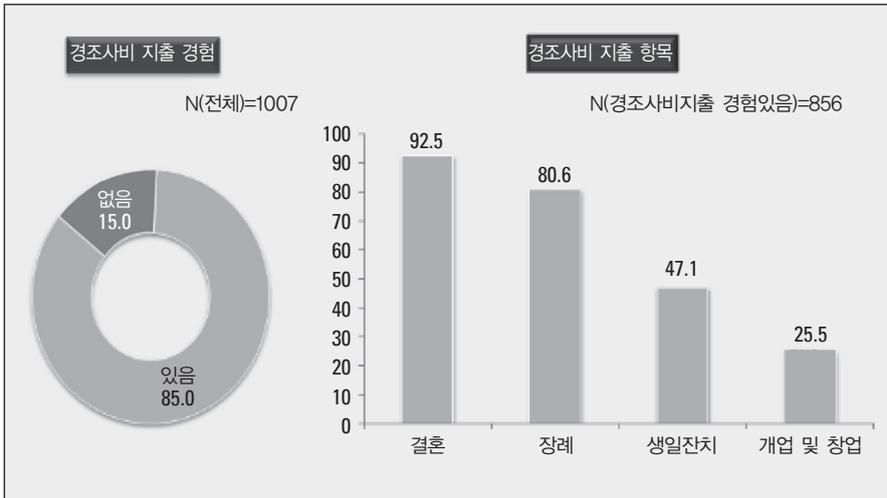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3)

- ◎ 상호부조적 기부 총 평균 금액은 △50-59세(63만 7천원), △고등학교 졸업(62만 3천원),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66만 2천원), △중소도시 읍면부(55만 9천원), △종교 있음(62만 6천원), △행복한 편(50만 9천원), △보수(52만 2천원), △중 계층(51만 7천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 경조사비 지출 경험 및 항목별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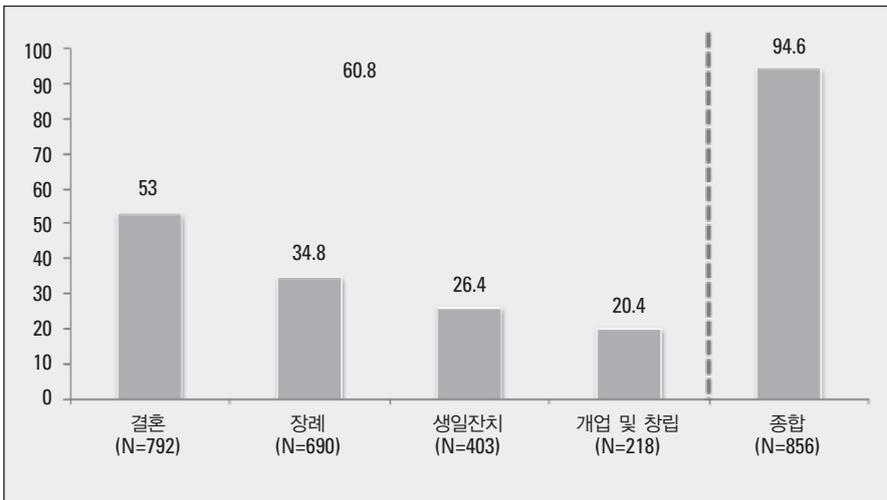
문) 작년 한 해(2013년 1월~12월) 동안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조사에 경조사비를 지출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조사비를 지출하신 적이 있다면,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

(단위 : %)



〈그림39〉 경조사비 지출 여부 및 항목

(단위 : 만원)



〈그림40〉 경조사비 지출 항목별 금액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 지난 1년간 경조사비 지출 경험에 대해 경조사비를 지출한 적이 '있다' 는 응답이 85.0%로 높고, '없다' 는 응답은 15.0%에 불과함
- ◎ 지난 1년간 지출한 경조사비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결혼' 이라는 응답이 92.5%로 가장 높고, '장례(80.6%)', '생일잔치(47.1%)', '개업 및 창립(25.5%)' 순임
- ◎ 지난 1년간 경조사비 항목별 지출 평균 금액은 '결혼' 이 53.0만원으로 가장 높고, '장례(34.8만원)' , '생일잔치(26.4만원)' , '개업 및 창립(20.4만원)' 순임
- ◎ 경조사비 총 지출 금액 평균은 94.6만원임

응답자 특성별(1)

- ◎ 지난 1년간 경조사비를 낸 적이 '있다' 는 응답은 △50-59세(98.0%), △기혼, 이혼, 사별(92.5%), △재정적으로 안정적인(86.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반면 경조사비를 낸 적이 '없다' 는 응답은 △19-29세(47.8%), △미혼(39.2%), △불행한 편(17.5%),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16.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2)

- ◎ 지난 1년간 경조사비를 낸 항목에 대해 '결혼' 이라는 응답은 △50-59세(96.4%), △기혼, 이혼, 사별(93.9%), △상 계층(96.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장례' 라는 응답은 △남자(82.6%), △50-59세(89.2%) 및 60세 이상(85.3%), △기혼, 이혼, 사별(84.4%), △상 계층(86.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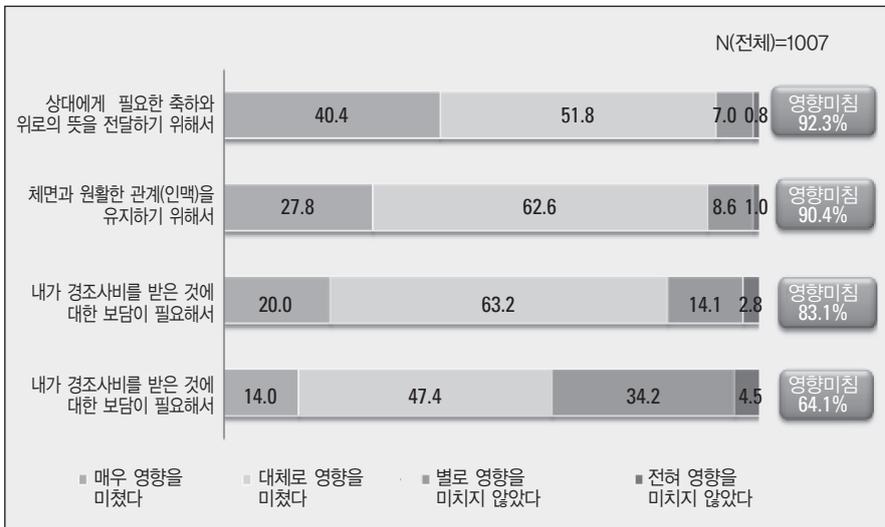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3)

- ◎ 경조사비 지출 총 금액 평균은 △남자(107만 2천원), △50-59세(131만 6천원),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124만 9천원), △중소도시 읍면부(110만 2천원), △행복한 편(100만 3천원), △재정적으로 안정적임(104만 2천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 경조사비 지출의 동기

문) 귀하께서 경조사비를 내실 때 다음 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단위 : %)



〈그림41〉 경조사비 지출의 동기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 경조사비 지출 동기에 대해서는 ‘상대에게 필요한 축하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라는 응답이 92.3%로 가장 높음

- ◎ 그 외 ‘체면과 원활한 관계(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90.4%)’, ‘내가 경조사비를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 필요해서(83.1%)’,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기대해서(64.1%)’ 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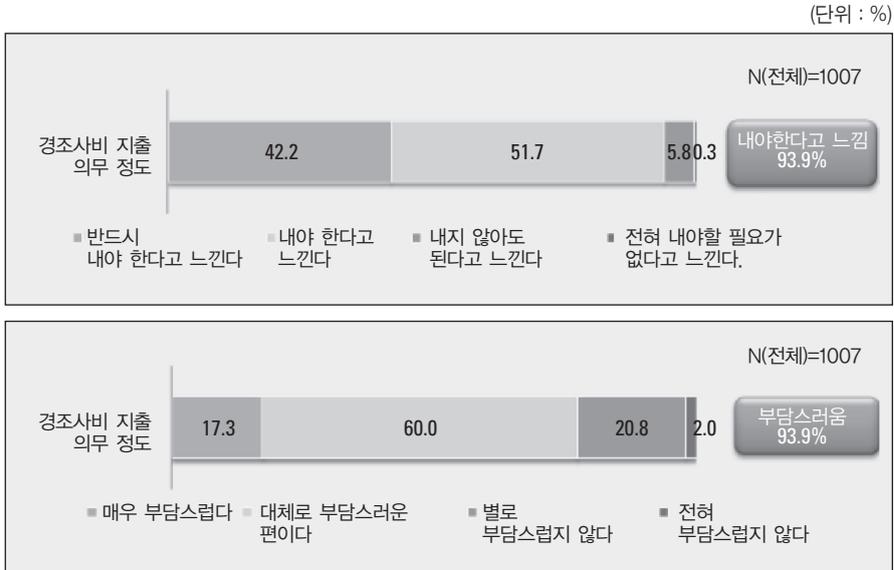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동기에 대해 ‘상대에게 필요한 축하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라는 동기가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50-59세(95.5%), △전문대재 이상(95.1%), △행복한 편(93.2%), △상 계층(9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체면과 원활한 관계(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는 동기가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여자(92.2%), △30-39세(94.4%), △전문대재 이상(92.0%), △기혼, 이혼, 사별(92.9%), △행복한 편(91.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내가 경조사비를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 필요해서’ 라는 동기가 ‘영향을 미쳤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여자(84.5%), △중학교 졸업 이하(85.5%) 및 고등학교 졸업(85.7%), △기혼, 이혼, 사별(86.4%), △행복한 편(84.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기대해서’ 라는 응답은 △50-59세(69.7%), △대도시(66.0%), △기혼, 이혼, 사별(63.3%), △행복한 편(62.3%), △상 계층(73.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6. 경조사비 지출 의무감 및 지출 부담 정도

문1 귀하께서는 귀하에게 경조사비를 낸 사람에게 경조사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 귀하의 경제적 상황에서 경조사비 지출의 부담은 어떠하십니까?



〈그림41〉 경조사비 지출의 동기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경조사비를 받은 사람에게 경조사비를 내야 한다는 의무감 정도에 대해서 ‘내야 한다고 느낀다(반드시 내야 한다+내야 한다)’는 응답이 93.9%로, 일반 국민 10명 중 9명은 본인 경조사에 경조사비를 낸 사람에게 내야 한다고 느끼고 있음

◎ 반면, 경조사비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매우+대체로)’라는 응답이 77.3%로, 일반국민 10명 중 7명은 경조사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1)

◎ 경조사비를 받은 사람에게 경조사비를 내야 한다는 의무감에 대해 ‘내야 한다고 느낀다(반드시 내야 한다+내야 한다)’는 응답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

을 보이며, △기혼, 이혼, 사별(94.8%), △행복한 편(94.7%), △중 계층(94.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내지 않아도 된다고 느낀다(내지 않아도 된다고 느낀다+전혀 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미혼(8.8%), △불행한 편(9.0%), △상 계층(8.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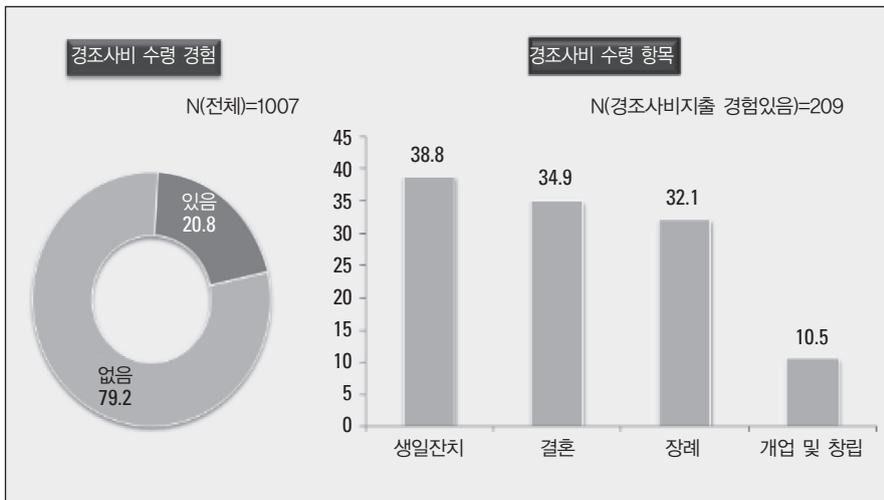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2)

- 경조사비 지출이 ‘부담스럽다(매우+대체로)’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기혼, 이혼, 사별(81.9%),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79.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부담스럽지 않다(별로+전혀)’라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미혼(36.7%), △불행한 편(26.5%), △재정적으로 안정적임(24.8%), △상 계층(26.5%) 및 중 계층(2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7. 경조사비 수령 경험 및 항목별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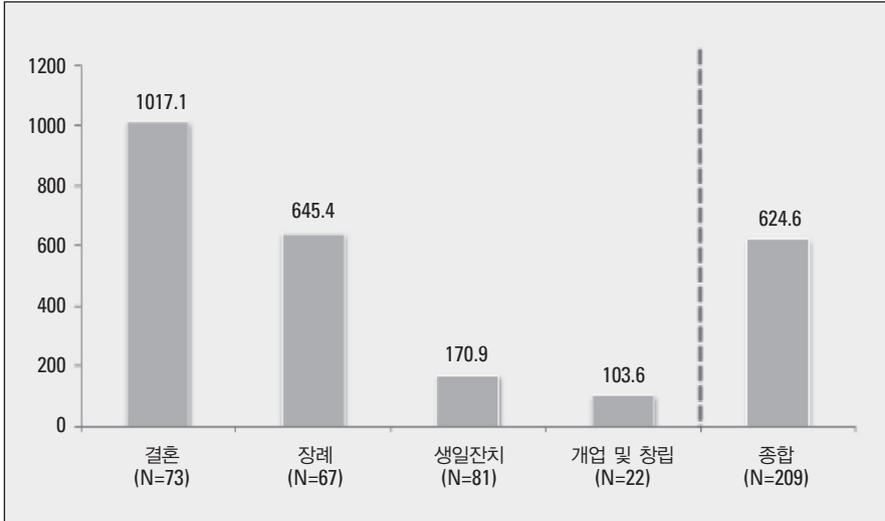
문: 지난 3년 동안(2011년 1월 ~ 2013년 12월) 귀하께서는 다음의 경조사로 인한 경조사비를 수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단위 : %)



〈그림43〉 경조사비 수령 경험 및 항목

(단위 : 만원)



〈그림44〉 수령 경조사비 항목별 금액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 지난 3년간 경조사비를 수령한 적이 ‘있다’ 라는 응답은 20.8%, ‘없다’ 는 응답은 79.2%임. 일반 국민 10명 중 2명은 지난 3년간 경조사비를 수령한 경험이 있음
- ◎ 경조사비 수령 항목으로는 ‘생일잔치’ 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고, ‘결혼 (34.9%)’, ‘장례(32.1%)’, ‘개업 및 창립(10.5%)’ 순임
- ◎ 경조사비 항목별 수령 금액 평균은 ‘결혼’ 이 1017.1만원으로 가장 높고, ‘장례 (645.4만원)’, ‘생일잔치(170.9만원)’, ‘개업 및 창립(103.6만원) 순임
- ◎ 경조사비로 수령한 총 금액 평균은 624만 6천원임

응답자 특성별(1)

- ◎ 지난 3년간 경조사비를 수령한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은 △30-39세(26.7%) 및 50-59세(26.8%), △기혼, 이혼, 사별(24.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2)

- ◎ 지난 2년간 경조사비를 수령한 항목에 대해 ‘생일잔치(돌잔치, 칠순, 팔순)’ 라는 응답은 △여자(44.0%), △30-39세(73.1%), △기혼, 이혼, 사별(4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결혼’ 이라는 응답은 △남자(37.0%), △50-59세(56.6%), △기혼, 이혼, 사별(37.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장례’ 라는 응답은 △40-49세(54.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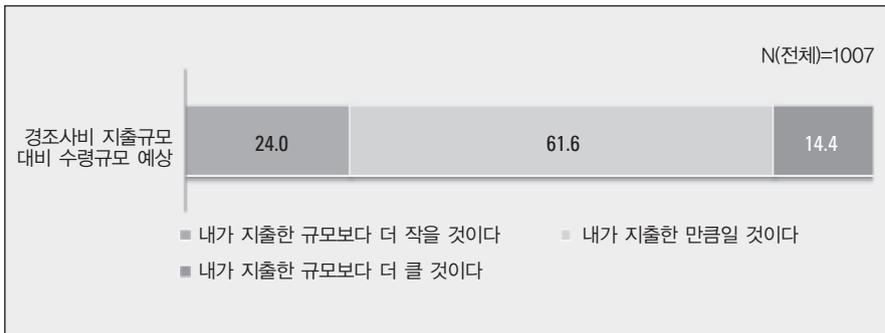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3)

- ◎ 지난 2년간 경조사비를 수령한 평균 금액은 △남자(767만 2천원), △50-59세(1085만 4천원),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757만 3천원), △기혼, 이혼, 사별(685만 1천원), △행복한 편(657만 8천원), △상 계층(810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8. 경조사비 지출규모 대비 수령규모 예상

문) 우리는 경조사를 통해 경조사비를 지인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경조사를 통해 지출한 금액 규모와 비교하여, 향후 경조사에서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그 동안 지출하신 경조사비의 총액과 향후 받을 것으로 기대하시는 경조사비의 총액을 비교하여 귀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단위 : %)



〈그림45〉 경조사비 지출규모 대비 수령규모 예상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지금까지 받은 경조사비 규모와 비교하여 향후 경조사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에 대해 물은 결과, ‘내가 지출한 만큼일 것이다’ 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고, ‘내가 지출한 규모보다 적을 것이다(24.0%)’ , ‘내가 지출한 규모보다 더 클 것이다(14.4%)’ 순임
- 일반 국민 10명 중 6명은 본인이 낸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조사비를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응답자 특성별

- 지금까지 받은 경조사비 규모와 비교하여 향후 경조사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에 대해 ‘내가 지출한 만큼일 것이다’ 는 응답은 △여자(63.7%), △19-29세(75.8%), △미혼(67.5%), △중 계층(64.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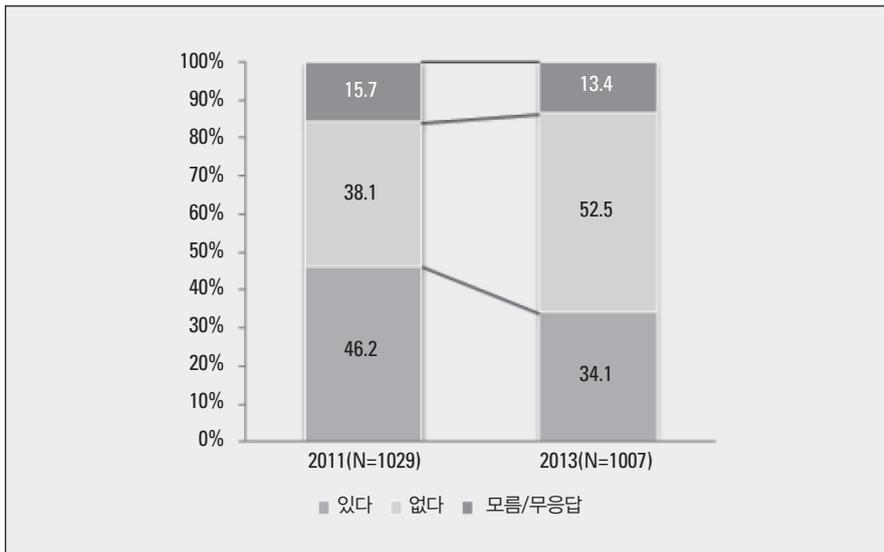
- ◎ ‘내가 지출한 규모보다 더 적을 것이다’ 는 응답은 △40-49세(28.9%), △중소 도시 동부(29.6%), △기혼, 이혼, 사별(26.0%), △불행한 편(30.5%), △하 계층(26.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내가 지출한 규모보다 더 클 것이다’ 는 응답은 △행복한 편(15.6%), △상 계층(20.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V. 기부 의향 및 계획

1.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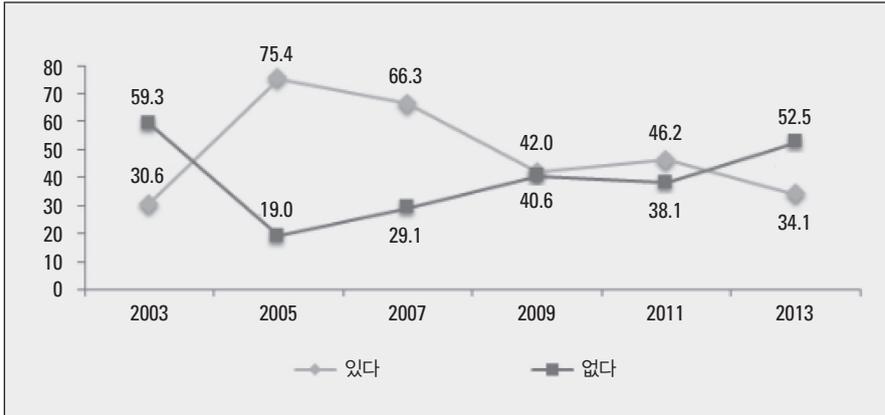
문) 귀하는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위 : %)



〈그림46〉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

(단위 : %)



〈그림47〉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 변화 추이

전 체

- ◎ 향후 1년 이내 기부할 의향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34.1%, ‘없다’는 응답이 52.5%로, 일반 국민 10명 중 3명 정도는 향후 1년 이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있다’는 응답은 12.1%p 감소한 반면, ‘없다’는 응답은 14.4%p 증가하여, 향후 기부 의향에 대한 인식이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향후 1년 이내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1년에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 다시 감소함

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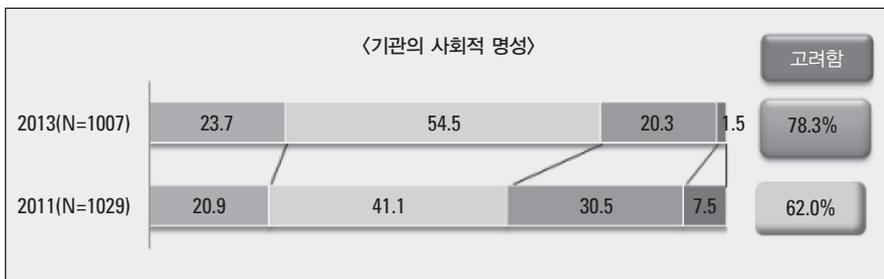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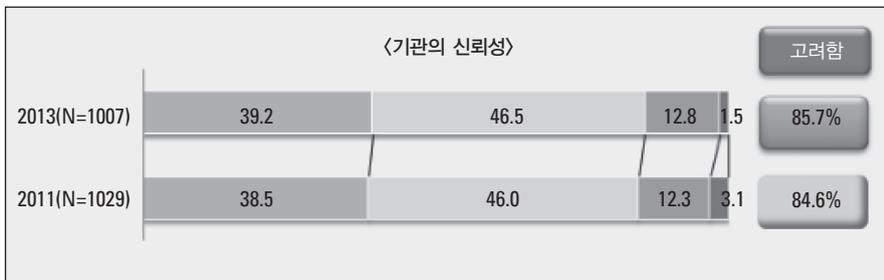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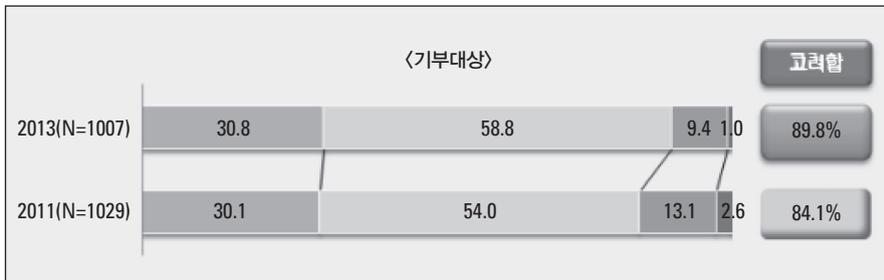
- ◎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41.7%), △중교 있음(44.3%), △행복한 편(36.8%), △재정적으로 안정적임(36.6%), △노후준비됨(37.6%), △진보(39.7%), △중 계층(39.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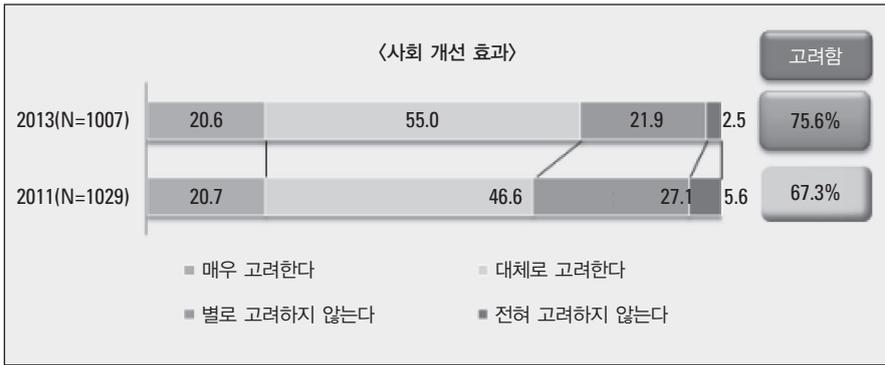
◎ 반면 의향이 '없다' 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가구소득 99만원 이하(72.2%), △대도시(53.9%) 및 중소도시 읍면부(54.0%), △종교 없음(61.4%), △불행한 편(61.0%), △노후 준비되지 않음(54.3%), △하 계층(60.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2. 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문] 귀하께서 향후에 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시겠습니까?

(단위 : %)





〈그림48〉 기부 결정 시 고려 사항

전 체

- ◎ 기부 결정 시 ‘기부 대상’에 대해 ‘고려한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89.6%로 가장 높고, ‘기관의 신뢰성(85.7%)’, ‘기관의 사회적 명성(78.3%)’, ‘사회 개선 효과(75.6%)’ 순으로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기부 대상’에 대해 고려한다는 응답이 5.5%p, ‘기관의 신뢰성’에 대해 고려한다는 응답이 1.1%p, ‘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대해 고려한다는 응답이 16.3%p, ‘사회 개선 효과’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8.3%p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응답자 특성별

- ◎ 기부 시 ‘기부 대상’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19-29세(92.7%) 및 50-59세(91.9%), △미혼(91.3%), △행복한 편(90.3%), △중도(91.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향후 기부 시 ‘기관 신뢰성’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진보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19-29세(88.8%) 및 40-49세(88.1%), △미혼(89.2%), △행복한 편(86.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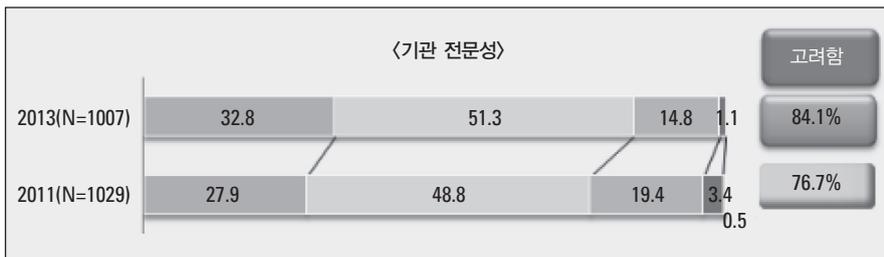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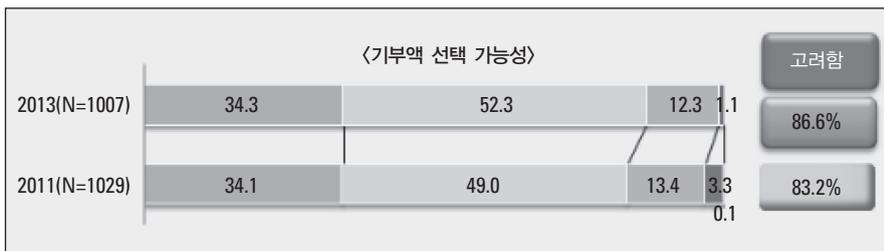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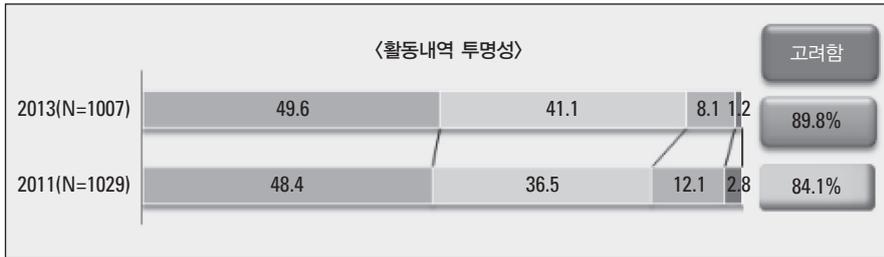
◎ 기부 시 '기관의 사회적 명성' 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30-39세(80.5%) 및 50-59세(80.8%), △가구소득 400-499만원(83.3%), △행복한 편(79.4%), △중도(81.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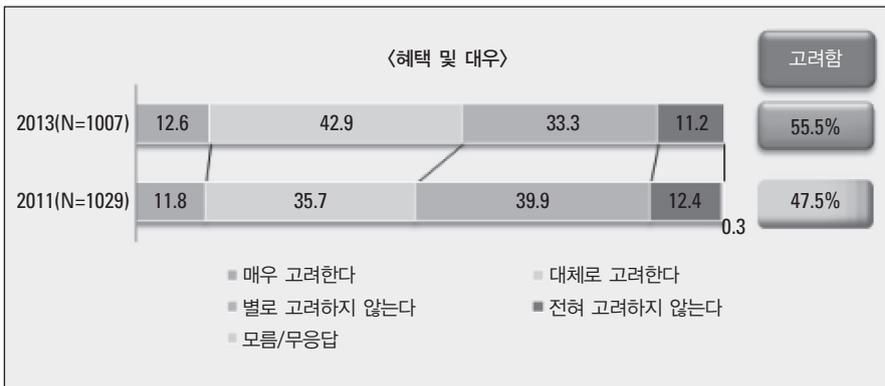
◎ '사회 개선효과' 를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60세 미만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500만원 미만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기혼,이혼,사별(76.6%), △행복한 편(77.2%), △중도(78.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3.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문] 귀하께서 향후에 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시겠습니까?

(단위 : %)





〈그림49〉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전 체

- ◎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활동내역 투명성’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90.7%로 가장 높고, ‘기부액 선택 가능성(86.6%)’, ‘기관 전문성(84.1%)’, ‘방법의 용이성(75.6%)’, ‘혜택 및 예우(55.5%)’의 순임
- ◎ 일반국민 10명 중 9명은 기부하는 기관의 ‘활동내역 투명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10명 중 8명 정도는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부액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부의 대상이 되는 단체/시설/기관이 얼마나 전문적인지를 고려하고 있음
- ◎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1년과 2013년 모두 ‘활동내역 투명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높음. 2011년에 비해 ‘활동내역 투명성’ 응답이 5.8%p, ‘기부액 선택 가능성’ 3.4%p, ‘기관 전문성’ 7.4%p, ‘방법의 용이성’ 4.0%p, ‘혜택 및 예우’ 8.0%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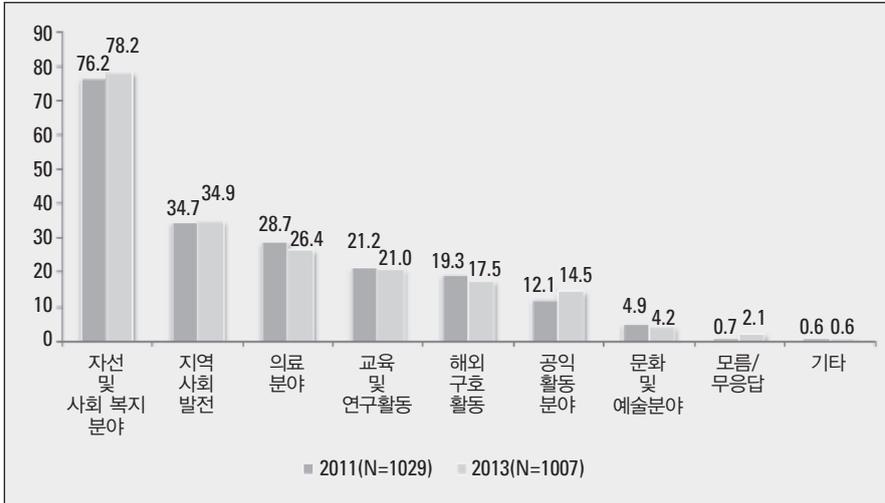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 ‘활동 내역의 투명성’ 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진보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미혼(92.1%), △행복한 편(91.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기부액수 선택 가능성’ 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진보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19-29세(91.0%), △가구소득 400-499만원(90.3%) 및 500-599만원(90.2%), △미혼(90.4%), △행복한 편(86.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단체/시설/기관의 전문성’ 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가구소득 400-499만원(89.8%) 및 500-599만원(88.9%), △미혼(87.1%), △행복한 편(85.0%), △진보(86.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기부방법의 간편성 및 용이성’ 을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진보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가구소득 400-499만원(83.3%), △미혼(77.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기부자에 대한 혜택 및 예우(행사참여, 인정 및 감사)’ 를 ‘고려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19-29세(61.2%), △고등학교 졸업(57.3%), △가구소득 400-499만원(61.3%), △중소도시 읍면부(60.3%), △미혼(58.3%), △행복한 편(56.6%), △중도(57.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 기부 금품 사용 분야, 대상, 단위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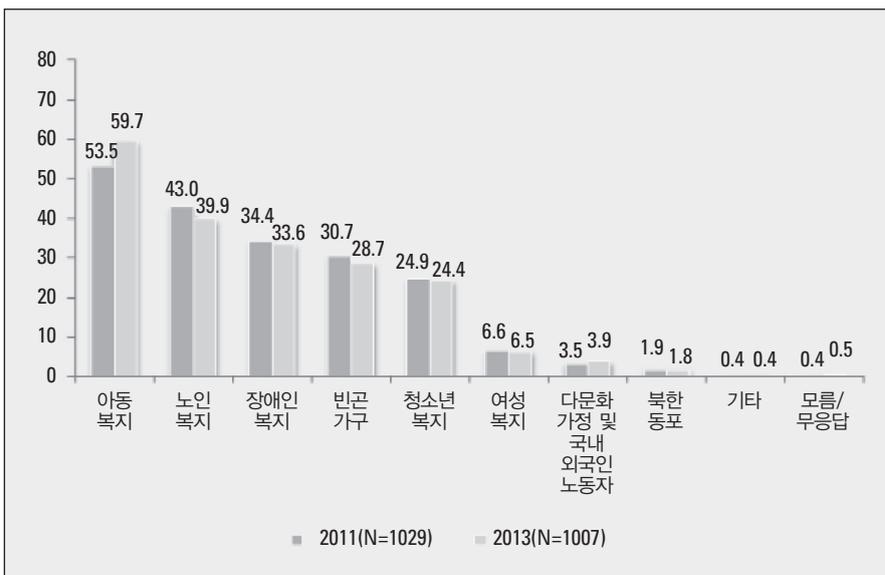
(단위 : %)



〈그림50〉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분야 (중복응답)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대상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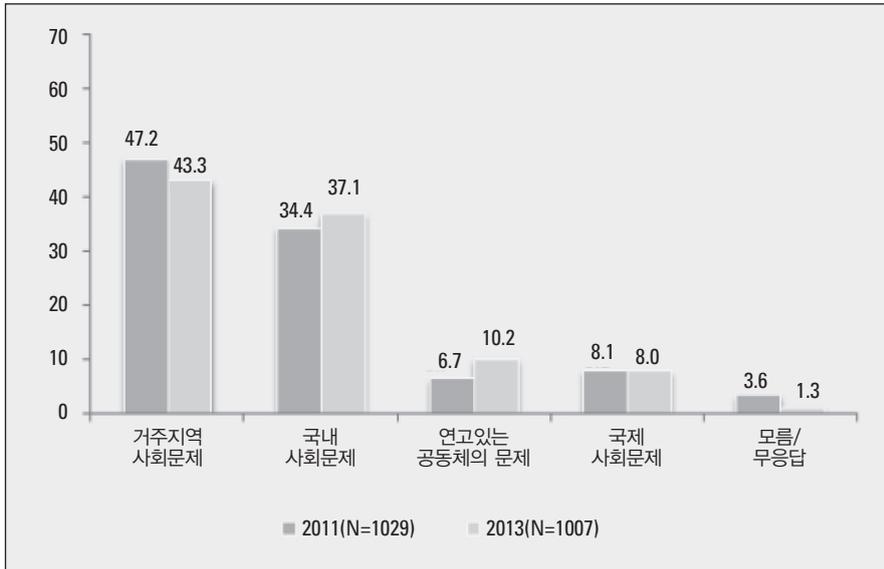
(단위 : %)



〈그림51〉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대상 (중복응답)

문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단위의 문제 해결에 주로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

(단위 : %)



〈그림52〉 기부 금품 사용 희망 단위

전 체

- ⊙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자선 및 사회복지분야’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고, ‘지역사회발전(34.9%)’, ‘의료분야(26.4%)’, ‘교육 및 연구활동(21.0%)’, ‘해외구호활동(17.5%)’, ‘공익활동분야(14.5%)’, ‘문화 및 예술 분야(4.2%)’ 등의 순임
- ⊙ 기부금에 쓰이길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라는 응답이 59.7%로 가장 높고, ‘노인복지(39.9%)’, ‘장애인복지(33.6%)’, ‘빈곤가구(28.7%)’, ‘청소년복지(24.4%)’, ‘여성복지(6.5%)’, ‘다문화가정 및 국내 외국인 노동자(3.9%)’, ‘북한동포(1.8%)’, ‘기타(0.4%)’의 순임
- ⊙ 기부 금품이 쓰이길 희망하는 문제의 단위에 대해서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음. 그 외 ‘국내의 사회문제(37.1%)’, ‘나와 연고가 있는 공동체의 문제(10.2%)’, ‘국제 사회의 문제(8.0%)’의 순임

- ◎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응답을 지난 조사와 비교해 볼 때, 2013년도 조사에서도 ‘자선 및 사회 복지 분야’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그러나 2011년 조사 결과에 비해 ‘자선 및 사회복지분야’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P,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응답이 0.2%P 증가한 반면, 의료분야라는 응답은 2.3%P 감소하여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음
- ◎ 기부 금품이 쓰이길 희망하는 대상에 대한 응답은 2011년 조사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응답 경향을 보이나, ‘아동복지’라는 응답은 2011년에 비해 6.2%P 증가한 반면, ‘노인복지’라는 응답은 3.1%P 감소함
- ◎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거주지역의 사회문제에 기부 금품이 쓰이길 희망한다는 응답은 2013년에 3.9%P 감소함. 반면, ‘국내 사회문제’라는 응답은 2.7%P 증가함

응답자 특성별(1)

- ◎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 ‘자선 및 사회복지분야 지원’이라는 응답은 60세 미만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79.5%), △중학교졸업 이하(81.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85.2%), △기혼,이혼,사별(79.5%), △종교 있음(79.0%), △불행한 편(80.5%), △보수(80.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지역사회발전 지원’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일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60세 이상(40.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40.7%), △중소도시 읍면부(38.5%), △기혼, 이혼, 사별(35.8%), △종교 있음(35.6%), △불행한 편(39.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2)

- ◎ 기부금이 쓰이길 희망하는 대상에 대하여 ‘아동복지 지원’이라는 응답은 진보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30-39세(69.7%), △가구소득 200-299만원(66.7%), △대도시(67.3%), △미혼(61.7%), △중 계층(61.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노인복지 지원’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보수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가구소득 100-199만원(50.8%), △기혼,이혼,사별(43.3%), △상 계층(50.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응답자 특성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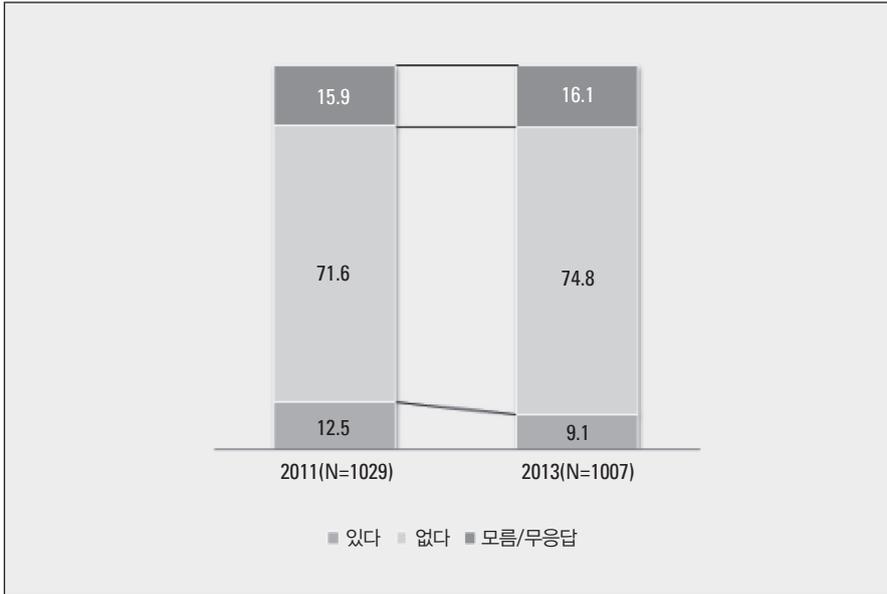
- ◎ 기부 금품이 쓰이길 희망하는 문제 단위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지규모가 작을수록, 보수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가구소득 99만원 이하(64.8%), △기혼,이혼,사별(46.6%), △하 계층(50.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국내의 일반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규모가 클수록, 진보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30-39세(41.5%), △가구소득 400-499만원(46.2%), △미혼(40.4%), △중 계층(40.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VI. 유산 기부

1. 유산 기부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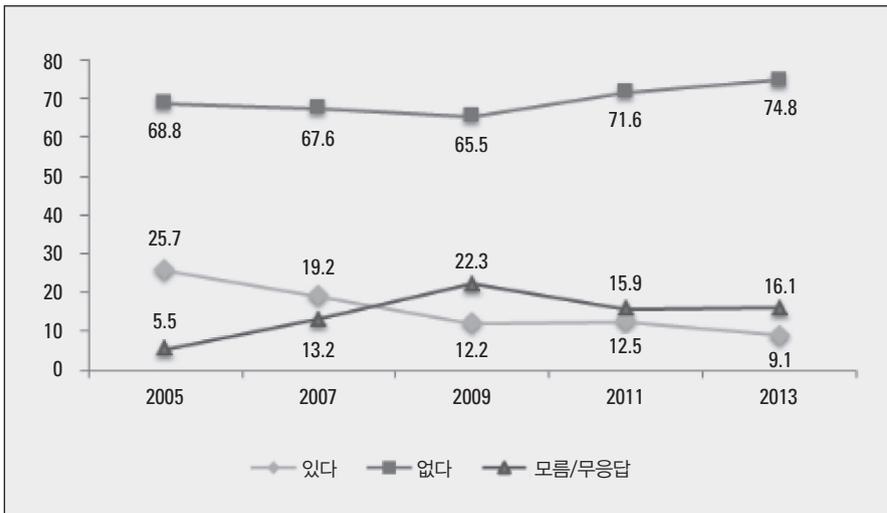
문) 귀하께서는 유산의 일부를 개인/단체/시설/기관/에 기부하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단위 : %)



〈그림46〉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

(단위 : %)



〈그림54〉 유산 기부 의향 변화 추이

전 체

- ◎ 유산을 기부할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기부할 의향이 ‘없다’ 는 응답은 74.8%로 높은 반면, ‘있다’ 는 응답은 9.1%에 불과함
- ◎ 2011년에 비해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없다’ 는 응답은 3.2%p 증가하였으며, ‘있다’ 는 응답은 3.4%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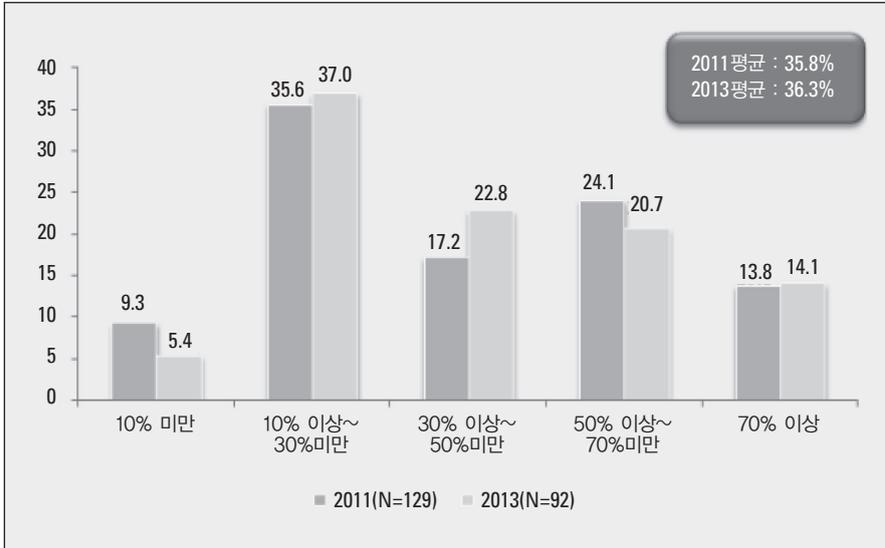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다’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9.7%), △40-49세(13.3%),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13.2%), △중소도시 동부(14.0%), △미혼(11.7%), △종교 있음(12.7%), △행복한 편(10.0%), △노후 준비 됨(10.1%), △진보(16.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반면,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없다’ 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일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76.1%), △60세 이상(80.7%), △가구소득 100-199만원(82.3%), △기혼, 이혼, 사별(78.0%), △종교 없음(79.4%), △불행한 편(79.5%), △재정적으로 안정적임(75.8%), △노후 준비되지 않음(75.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2. 유산 기부 희망 비율

문) 유산을 기부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전체 유산의 몇 % 정도까지 기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위 : %)



〈그림55〉 유산 기부 희망 비율

전 체

○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에게 유산 기부 희망 비율을 물어본 결과, ‘10%이상-30%미만’ 이라는 응답이 37.0%로 가장 높고, ‘30%이상-50%미만 (22.8%)’, ‘50%이상-70%미만(20.7%)’, ‘70%이상(14.1%)’, ‘10%미만(5.4%)’의 순임

○ 기부할 의향이 있는 유산의 희망 비율의 평균은 36.3%임

○ 유산 기부 희망 비율 평균을 지난 조사 결과에 비교해 볼 때, 2011년 35.8%, 2013년 36.3%로 유산 희망 비율에 큰 변화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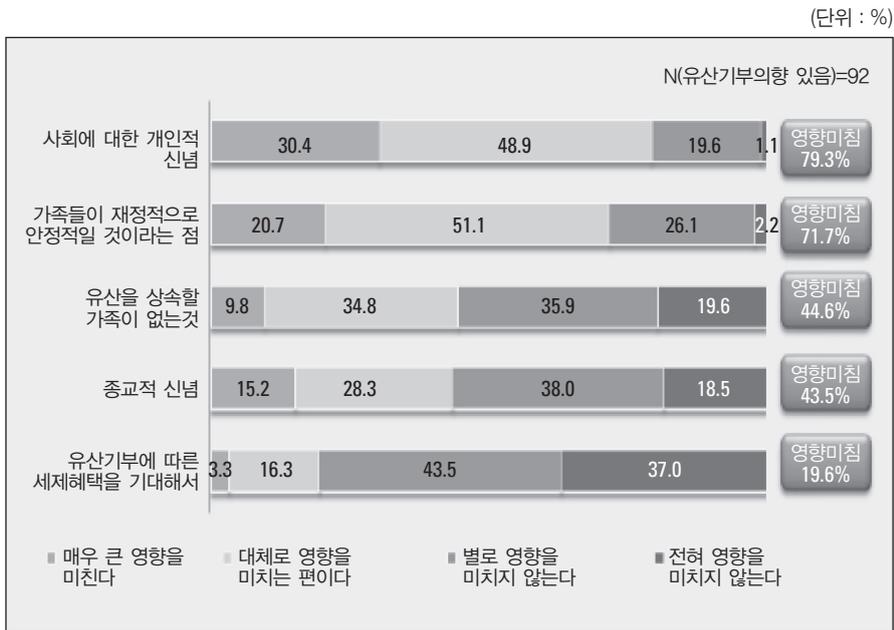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유산 기부 평균 희망 비율은 보수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38.8%), △40-49세(41.7%) 및 50-59세(40.0%), △중학교졸업 이하(37.5%), △대도

시(37.5%), △미혼(42.9%), △종교 없음(37.2%), △행복한 편(36.4%), △안정적이지 않음(38.4%), △노후준비 되지 않음(38.2%), △하 계층(42.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3. 유산 기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 귀하께서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귀하의 기부하실 의향에 다음의 항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림56〉 유산 기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유산 기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사회에 대한 개인적 신념’ 이라는 응답이 79.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점(71.7%)’, ‘유산을 상속할 가족이 없는 것(44.6%)’, ‘종교적 신념(43.5%)’, ‘유산기부에 따른 세제혜택을 기대해서(19.6%)’의 순임

- 유산기부 의향이 있는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사회에 대한 ‘개인적 신념’ 과 ‘가족들의 재정적 안정성’ 이 유산기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반면, ‘유산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이 유산기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19.6%에 불과함

응답자 특성별

- ◎ 유산 기부에 ‘사회에 대한 개인적 신념’ 이 ‘영향을 미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86.2%), △전문대재 이상(83.1%), △기혼,이혼,사별(82.8%), △종교 있음(80.3%), △행복한 편(82.7%),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81.8%), △노후 준비됨(85.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점’ 이 ‘영향을 미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84.1%), △19-29세(82.4%), △미혼(75.0%), △종교 없음(76.7%), △행복한 편(74.1%), △재정적으로 안정적임(77.1%), △노후 준비됨(81.3%), △중도(76.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유산을 상속할 가족이 없는 것’ 이 ‘영향을 미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45.5%), △19-29세(52.9%), △미혼(53.6%), △종교 없음(53.3%), △행복한 편(45.7%),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50.0%), △노후 준비되지 않음(47.7%), △보수(48.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종교적 신념’ 이 ‘영향을 미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47.7%), △50-59세(75.0%), △기혼,이혼,사별(50.0%), △종교 있음(60.7%), △행복한 편(44.4%),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50.0%), △노후 준비됨(47.9%), △보수(56.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유산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이 ‘영향을 미친다(매우+대체로)’ 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보수적일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20.5%), △19-29세(29.4%), △고등학교 졸업(20.8%) 및 전문대재이상(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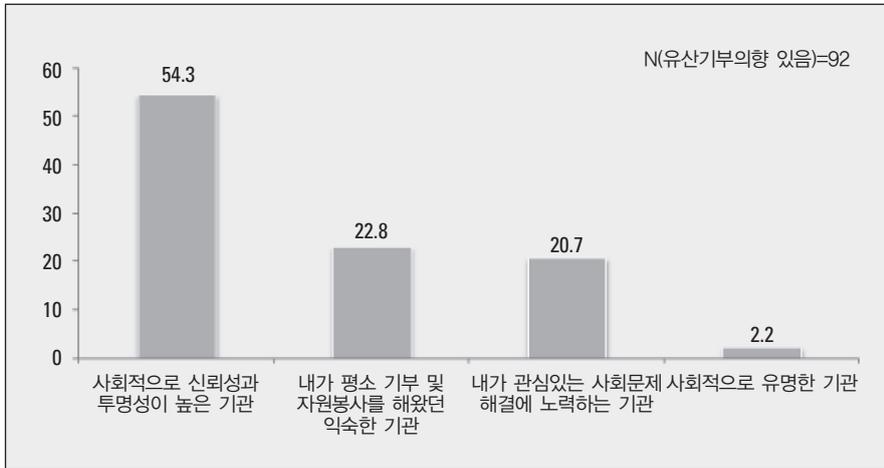
△미혼(21.4%), △종교 없음(30.0%),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27.3%), △노후 준비되지 않음(25.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4. 유산 기부 의향이 있는 대상, 기관

문] 만약 귀하께서 유산기부에 대한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대상에 유산기부를 하고 싶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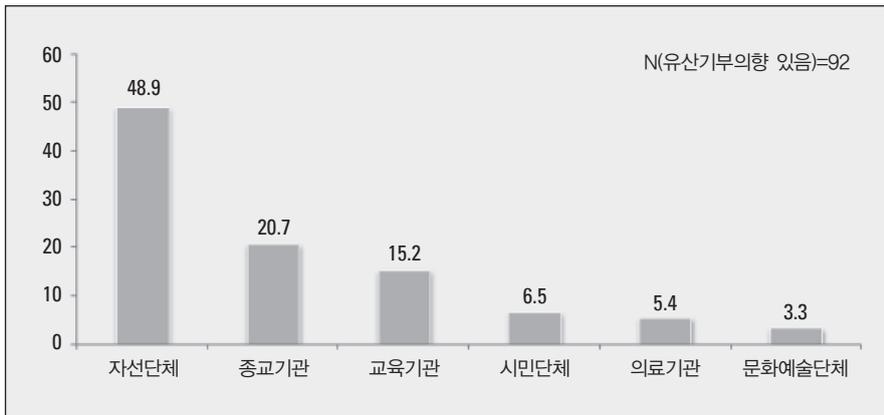
문]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유산을 기부하시길 원하십니까?

(단위 : %)



〈그림57〉 유산 기부 의향 있는 대상

(단위 : %)



〈그림58〉 유산 기부 의향 있는 기관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 유산 기부 의향이 있는 대상에 대해 ‘사회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은 기관’ 응답은 54.3%로 가장 높고, ‘내가 평소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해왔던 익숙한 기관(22.8%)’, ‘내가 관심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기관(20.7%)’, ‘사회적으로 유명한 기관(2.2%)’ 의 순임
- ◎ 유산 기부 의향이 있는 기관에 대해 ‘자선단체’ 응답은 48.9%로 가장 높고, ‘종교기관(20.7%)’, ‘교육기관(15.2%)’, ‘시민단체(6.5%)’, ‘의료기관(5.4%)’, ‘문화예술단체(3.3%)’ 의 순임

응답자 특성별(1)

- ◎ ‘사회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은 기관’ 에 유산기부를 원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일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60.4%), △40-49세(65.5%), △미혼(57.1%), △종교 없음(66.7%), △재정적으로 안정적임(62.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내가 평소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해왔던 익숙한 기관’ 에 유산기부를 원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29.5%), △50-59세(41.7%), △기혼,이혼,사별(26.6%), △종교 있음(29.5%),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27.3%), △상 계층(33.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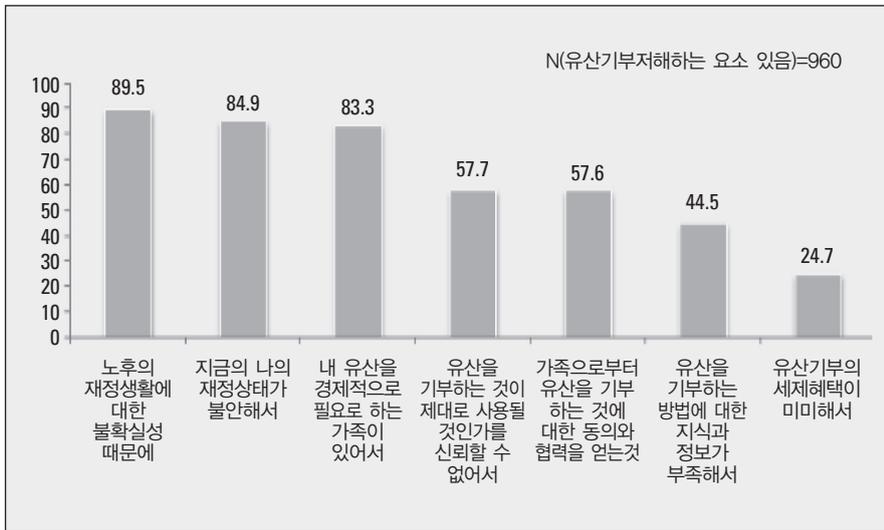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2)

- ◎ ‘자선단체’ 에 유산기부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52.1%), △19-29세(52.9%), △미혼(53.6%), △종교 없음(66.7%), △재정적으로 안정적임(50.0%), △중 계층(51.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종교기관’ 에 유산기부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31.8%), △30-39세(30.0%), △기혼,이혼,사별(26.6%), △종교 있음(29.5%), △진보(26.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5. 유산기부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

문] 귀하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유산을 기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유산기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단위 : %)



(그림59) 유산기부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중복응답)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유산 기부의 장애요인에 대해 ‘노후의 재정생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라는 응답이 89.5%로 가장 높고, ‘지금의 나의 재정상태가 불안해서(84.9%)’, ‘내 유산을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어서(83.3%)’, ‘유산을 기부한 것이 제대로 사용될 것인가를 신뢰할 수 없어서(57.7%)’, ‘가족으로부터의 유산을 기부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협력을 얻는 것(57.6%)’, ‘유산을 기부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44.5%)’, ‘유산기부의 세제혜택이 미미해서 (24.7%)’ 순임

응답자 특성별

- ‘노후의 재정생활에 대한 불확실성’ 이 유산기부를 어렵게 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30-39세(91.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92.2%),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91.7%), △노후준비 되지

없음(92.0%), △중 계층(89.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지금의 나의 재정상태에 대한 불안’ 이 유산기부를 어렵게 한다는 응답은 보수적일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87.0%), △고등학교 졸업(87.2%), △가구소득 200-299만원(90.4%), △미혼(86.1%),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88.6%), △노후 준비되지 않음(89.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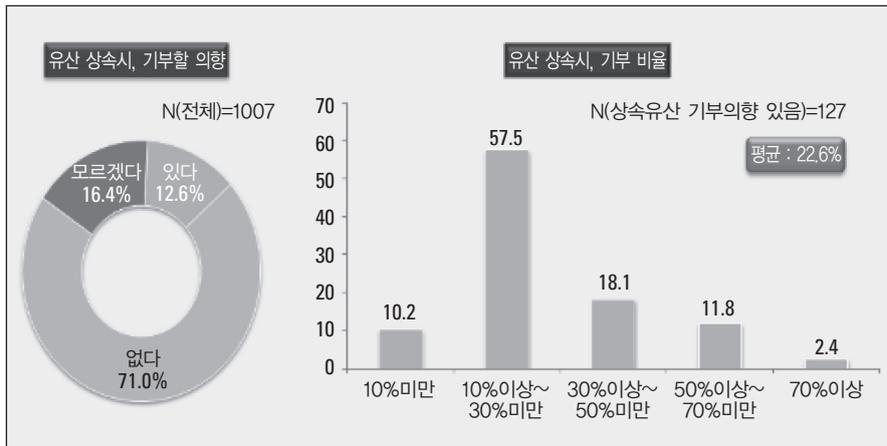
◎ ‘내 유산을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것’ 이 유산기부를 어렵게 한다는 응답은 가구소득 100만원 이상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88.4%) 및 50-59세(88.9%), △고등학교 졸업(86.1%), △기혼,이혼,사별(86.9%), △재정적으로 안정적임(84.5%), △노후 준비됨(85.3%), △중도(84.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6. 유산 상속 시, 기부할 의향 및 기부 비율

문1 귀하께서는 부모나 배우자 등의 가족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 일부를 기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2 기부하실 의향이 있다면, 물려받을 유산의 몇 % 정도까지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그림60〉 유산 상속 시, 기부할 의향 및 기부 비율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 유산을 물려받을 경우의 기부 의향에 대해 참여 의향이 '있다' 는 응답은 12.6%이며, '없다' 는 응답은 71%, '모름/무응답' 은 16.4%임

- ◎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에게 물려받은 유산의 기부 희망 비율을 물어본 결과, '10%이상-30%미만' 이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고, '30%이상-50%미만(18.1%)' , '50%이상-70%미만(11.8%)' , '10%미만(10.2%)' '70% 이상(2.4%)' 의 순임

- ◎ 가족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유산의 일부를 기부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일반 국민 10명 중 1명에 불과하며, 대다수 국민은 유산 기부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응답자 특성별(1)

- ◎ 유산 상속 시, 기부할 의향이 '있다'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40-49세(17.0%),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17.4%), △종교 있음(16.8%), △행복한 편(14.1%), △노후 준비됨(15.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반면, 의향이 '없다' 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60세 이상(78.9%), △가구소득 99만원 이하(81.5%), △종교 없음(75.7%), △불행한 편(78.5%), △노후 준비되지 않음(73.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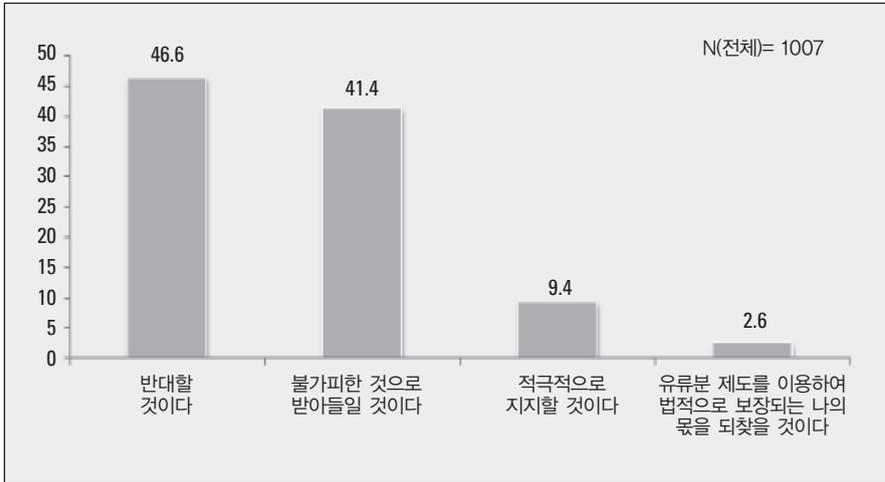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2)

- ◎ 유산 상속 시, 기부할 유산의 평균 비율은 △남자(26.6%), △50-59세(28.3%), △전문대재 이상(24.4%), △가구소득 200-299만원(27.3%), △노후 준비 됨(23.6%), △상 계층(36.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7. 가족의 유산기부 결정 시, 대응방식

문1 만약 귀하의 부모나 배우자 등의 가족이 유산기부를 결정하시는 경우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단위 : %)



〈그림61〉 가족의 유산기부 결정 시, 반응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가족의 유산기부 결정 시, ‘반대할 것이다’가 46.6%로 가장 높고,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41.4%)’,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9.4%)’,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보장되는 나의 몫을 되찾을 것이다(2.6%)’ 순임

◎ 일반 국민 10명 중 5명은 가족의 유산기부 결정 시, ‘반대할 것이다’라고 응답했지만, 유류분 제도를 이용한 적극적 반대를 할 것이라는 응답은 낮음

응답자 특성별

◎ 가족의 유산기부 결정 시, ‘반대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50-59세(54.5%) 및 60세 이상(51.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55.6%) 및 100-199만원(56.5%), △기혼,이혼,사별(48.2%), △불행한 편(54.5%),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48.4%), △하 계층(55.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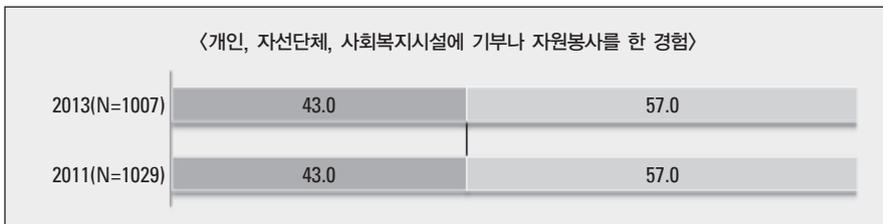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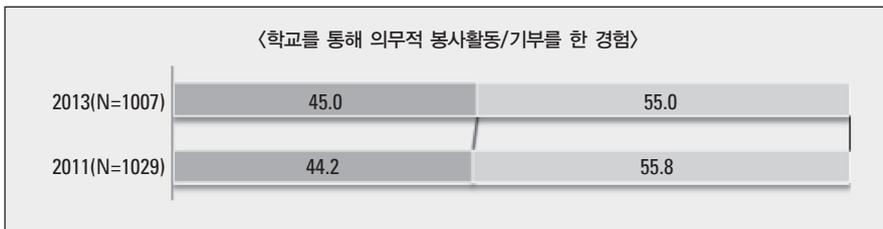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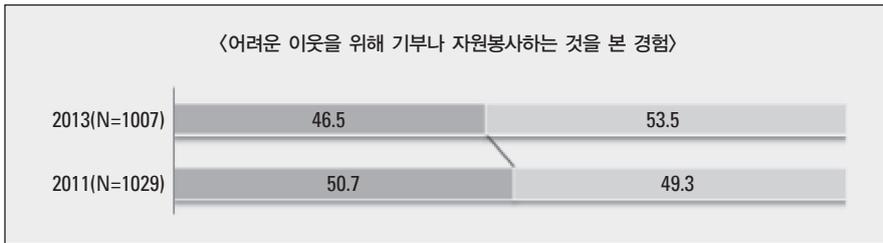
- ⊙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100만원 이상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19세-29세(46.6%) 및 30-39세(45.6%), △미혼(44.2%), △행복한 편(42.6%), △재정적으로 안정적임(43.0%), △중 계층(45.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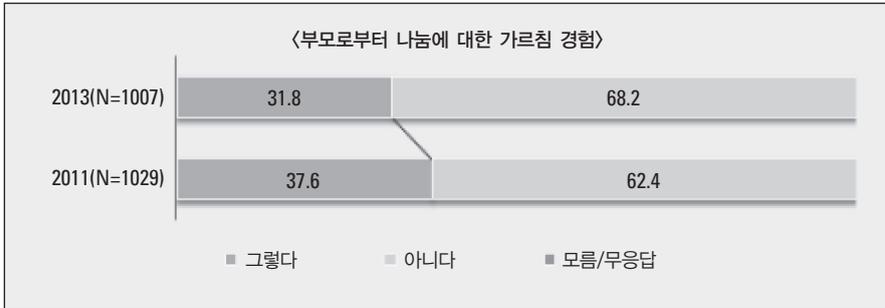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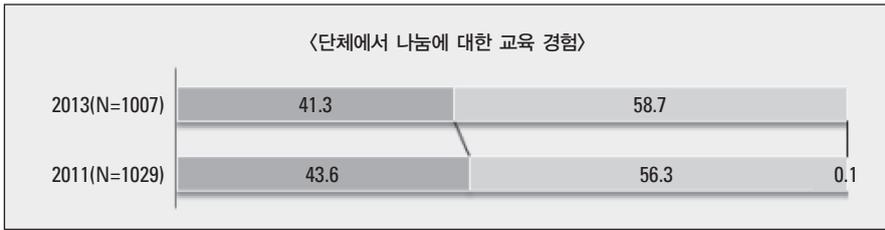
VII. 나눔 교육에 대한 인식

1. 나눔 교육 경험

문] 귀하께서는 유/초/중/고/대학교 시절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단위 : %)





〈그림62〉 나눔 교육 경험

전 체

- 유/초/중/고/대학교 시절의 나눔 교육 경험에 대해 ‘부모님, 친척, 이웃 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나 자원봉사(모금활동 포함)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음. 그 외 ‘학교를 통해 의무적 봉사활동/기부를 행한 적이 있다(45.0%)’, ‘개인, 자선단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나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43.0%)’, ‘학교,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 그 밖의 단체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41.3%)’, ‘부모로부터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31.8%)’ 순임
- 201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학교를 통해 의무적 봉사활동/기부를 한 경험이 있다’ 0.8%p 증가한 반면, ‘부모님, 친척, 이웃 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나 자원봉사(모금활동 포함)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4.2%p, ‘학교,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 그 밖의 단체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2.3%p, ‘부모로부터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5.8%p 감소함

응답자 특성별

- ◎ ‘부모님, 친척, 이웃 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나 자원봉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진보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48.3%), △가구소득 400-499만원(54.8%) 및 500만원 이상(57.0%), △미혼(60.8%), △행복한 편(48.2%), △재정적으로 안정적임(49.1%), △노후 준비됨(51.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학교를 통해 의무적 봉사활동/기부를 행한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진보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47.5%), △미혼(67.9%), △종교 없음(48.5%), △행복한 편(47.1%),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46.8%), △노후 준비됨(45.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개인, 자선단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나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45.1%), △19-29세(57.3%),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56.6%), △미혼(52.5%), △종교 있음(46.2%), △행복한 편(45.1%), △재정적으로 안정적임(44.9%), △노후 준비됨(47.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학교,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 그 밖에 단체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미혼(55.0%), △종교 없음(44.9%), △행복한 편(43.7%), △재정적으로 안정적임(42.2%), △노후 준비됨(43.8%), △중도(4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부모로부터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진보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33.3%), △미혼(36.7%), △종교 있음(33.3%), △행복한 편(33.3%), △노후 준비됨(34.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VIII. 사회적 자본

1.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식

문1 귀하께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 귀하께서는 사람들이 대체로 도움을 주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만을 챙기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3 귀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가 된다면 당신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히 잘 대해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그림63〉 주변 사람들에 대한 느낌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음. ‘조심해야 한다(28.5%)’, ‘믿을 수 있다(22.9%)’ 순임
- ◎ 주변 사람들의 상호 도움에 대한 생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음. 그 외 ‘대체로 도움을 주려 한다(31.7%)’, ‘자신만을 챙기려 한다(23.5%)’ 순임
- ◎ 주변 사람들의 신의에 대한 생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높음. 그 외 ‘잘 대해 주려 한다(35.2%)’, ‘기회가 되면 이용하려 한다(19.1%)’ 순임
- ◎ 주변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응답이 ‘믿을 수 있다’는 응답보다 5.6%p 높은 반면, 주변 사람들의 상호 도움에 대해 ‘대체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응답이 ‘자신만을 챙기려 한다’는 응답보다 8.2%p, 사람들의 신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잘 대해 주려고 한다’는 응답이 ‘이용하려 한다’는 응답보다 16.1%p 높음

응답자 특성별

-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라는 응답은 가구소득 500만원 미만에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31.2%), △50-59세(31.3%), △중학교졸업 이하(37.0%), △중소도시 동부(32.9%), △미혼(30.8%), △불행한 편(41.0%), △보수(34.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 라는 응답은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23.1%), △60세 이상(28.0%), △중학교졸업 이하(24.5%), △가구소득 400-499만원(27.4%), △기혼, 이혼, 사별(23.5%), △중교 있음(24.7%), △행복한 편(25.2%), △보수(27.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만을 챙긴다’ 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24.5%), △60세 이상(28.4%), △가구소득 100-199만원(36.3%), △중소도시 동부(29.1%), △기혼,이혼,사별(24.1%), △불행한 편(38.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사람들은 대체로 도움을 주려한다’ 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33.7%), △50-59세(33.8%),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41.3%), △종교 있음(32.6%), △행복한 편(35.1%), △진보(40.1%), △중 계층(36.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사람들은 기회가 된다면 나를 이용하려 한다’ 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 500만원 미만에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적일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남자(21.5%), △중소도시 동부(22.6%), △미혼(20.8%), △종교 없음(20.6%), △불행한 편(32.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사람들은 나에게 적절히 잘 대해주려 한다’ 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38.0%), △고등학교 졸업(37.4%), △가구소득 400-499만원(41.4%), △중소도시 읍면부(44.8%), △기혼,이혼,사별(38.2%), △종교 있음(36.8%), △행복한 편(38.7%), △진보(41.7%), △중 계층(39.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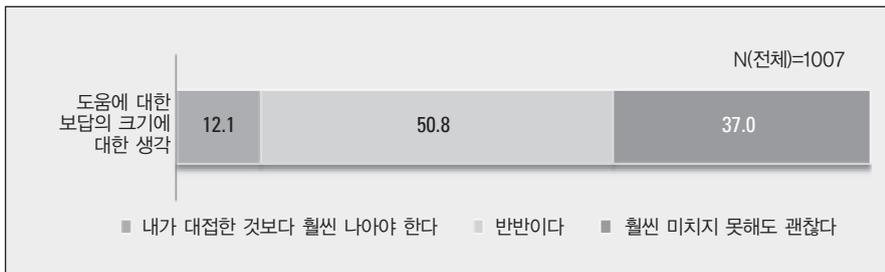
2.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인식

문1] 평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때, 귀하의 입장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상대의 입장을 생각합니까?

문2] 귀하께서 주고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3] 귀하께서 주고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의 정도나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그림64〉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생각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입장에 대한 생각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반이다’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음. ‘전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한다(40.9%)’, ‘전적으로 나의 입장을 생각한다(10.2%)’ 순임
- ◎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대한 보답의 시기에 대한 생각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반이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음. 그 외 ‘아무리 늦어도 상관없다(37.4%)’,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1%)’ 순임
- ◎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대한 보답의 크기에 대한 생각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반이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높음. 그 외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37.0%)’, ‘내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나아야 한다(12.1%)’ 순임
- ◎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입장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응답이 ‘전적으로 나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응답보다 30.7%p 높음. 그 외,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대한 보답의 시기에 대해 ‘늦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보다 18.3%p, 도움에 대한 보답의 크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는 응답이 ‘내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나아야 한다’는 응답보다 24.9%p 높음

응답자 특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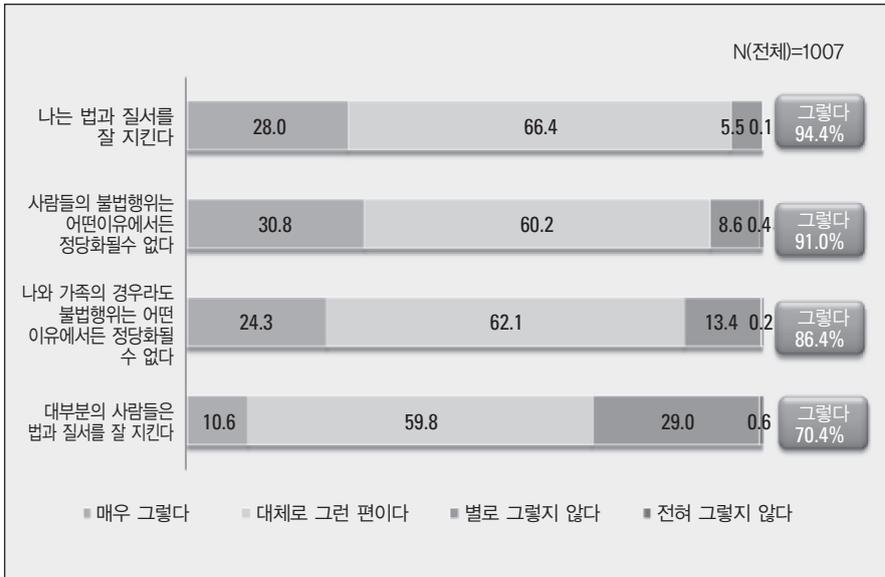
- ◎ 평소 도움을 주고 받을 때 ‘나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19-29세(10.7%) 및 30-39세(12.3%), △가구소득 100-199만원(14.5%), △미혼(11.3%), △종교 없음(11.3%), △불행한 편(11.5%), △중도(12.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평소 도움을 주고 받을 때 ‘상대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응답은 △남자(42.9%), △40-49세(46.3%) 및 60세 이상(46.8%), △가구소득 99만원 이하(46.3%), △기혼, 이혼, 사별(42.5%), △종교 있음(42.8%), △보수(43.9%), △상 계층(52.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도움에 대한 보답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진보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20.6%), △19-29세(23.6%), △고등학교 졸업(21.5%),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23.0%), △중소도시 동부(22.6%), △미혼(21.7%), △종교 있음(20.0%), △중 계층(20.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도움에 대한 보답은 ‘늦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은 △남자(39.0%), △30-39세(41.0%), △고등학교 졸업(39.0%), △400-499만원(41.9%), △대도시(39.0%), △종교 있음(38.3%), △불행한 편(39.5%), △보수(40.1%), △상 계층(38.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도움에 대한 크기가 ‘내가 대접한 것보다 나아야 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60세 이상(16.5%), △가구소득 100-199만원(19.4%), △중소도시 동부(14.0%), △기혼,이혼,사별(13.4%), △불행한 편(14.0%), △진보(15.4%), △하 계층(15.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도움에 대한 크기가 ‘내가 대접한 것에 미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종교 있음(38.5%), △행복한 편(38.5%), △보수(45.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3.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

문) 다음은 사회규범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입니다. 귀하께서는 사회규범 준수와 관련된 다음 내용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



〈그림65〉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

* 2013년도 조사에 추가된 문항임.

전 체

○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나는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에 ‘그렇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94.4%로 가장 높고, ‘사람들의 불법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91.0%)’, ‘나와 가족의 경우라도 불법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86.4%)’,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70.4%)’의 순임

○ 10명 중 9명 정도는 나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사람들의 불법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응답자 특성별

- ◎ ‘나는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 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 라는 응답은 △ 여자(96.9%), △중소도시 읍면부(97.7%), △행복한 편(95.5%), △재정적으로 안정적임(96.0%), △노후 준비됨(96.4%), △중도(95.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사람들의 불법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 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92.7%), △50-59세(92.4%) 및 60세 이상(92.2%), △가구소득 99만원 이하(94.4%), △대도시(92.6%), △기혼, 이혼, 사별(91.9%), △행복한 편(91.3%), △재정적으로 안정적임(92.2%), △노후 준비됨(92.4%), △진보(93.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나와 가족의 경우라도 불법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 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작을수록, 보수적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87.1%), △50-59세(90.9%), △가구 소득 99만원 이하(90.7%), △기혼, 이혼, 사별(87.0%), △종교 있음(87.1%), △행복한 편(87.0%), △재정적으로 안정적임(87.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 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 라는 응답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자(74.5%), △40-49세(73.9%), △고등학교 졸업(71.9%) 및 전문대재 이상(71.6%), △기혼, 이혼, 사별(72.6%), △행복한 편(72.7%), △재정적으로 안정적임(76.1%), △노후 준비됨(78.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부록

2

2013 Giving Index 설문지

(기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설문지)



기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000입니다.

본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조사 결과는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부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통계적인 자료 분석용으로만 활용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관기관 :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조사기관 :  **Hankook Research**

문의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장윤주 차장 (02) 6930-4564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성현정 과장 (02) 3014-0168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 -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연령	만 _____세
지 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거주지 규모	① 대도시(광역시 이상) ② 중소도시(동부) ③ 중소도시(읍면부)		
직 업	① 농/임/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사무/관리/전문직 ⑥ 주부 ⑦ 학생 ⑧ 무직/퇴직/기타 ⑨ 모름/무응답		
주 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면접일시	월 일 시 분	면접시간	분 동안
면접원 성명		검증결과	

A3.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자원봉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정기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기적'의 기준은 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의 활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있다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곳이 있다) → A3-1로 가십시오
- ② 없다 (모든 자원봉사를 기회가 닿는 때 일회적으로 하곤 한다) → A4로 가십시오
- ③ 모름/무응답 → A4로 가십시오

A3-1. 정기적일 경우, 얼마나 자주 자원봉사를 하십니까?

- ① 매 주
- ② 매 달
- ③ 매 분기
- ④ 모름/무응답

A4. 가장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시설/기관/단체/개인'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만약 가족, 친척, 친구, 선배 등이 자원봉사 시설/기관/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그분들의 요청으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을 경우 '④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 ② 인터넷을 통해
- ③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 ④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방문, 우편, 전화등)
- ⑤ 직장(직장활동 혹은 고용주)을 통해
- ⑥ 종교단체를 통해
- ⑦ 그 외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동호회 등)
- ⑧ 모름/무응답

A5. 가장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주로 어떤 방법으로 봉사하셨습니까?

- ① 특정대상/이슈 또는 조직을 위한 단순노력봉사 (예: 설거지, 목욕봉사, 서류정리, 태안환경봉사 등)
 - ② 특정대상/이슈 또는 조직을 위한 전문노력봉사 (예: 번역봉사, 법률서비스 제공, 자문위원회 활동 등)
 - ③ 두 방법 모두
 - ④ 모름/무응답
- A7로 가십시오

A6. (A1에서 모두 ②인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원봉사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 ② 자원봉사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 ③ 자원봉사 대상자나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기부’ 한 곳	B1. 기부여부	B2. 기부금액	
		B2-1. 현금	B2-2. 물품
(1) 종교단체(교회, 성당, 사찰 등)를 통한 사회복지기관, 불우이웃에 대한 특별 헌금 (종교적 헌금 및 보시 제외)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2) 자선단체(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기관, 모금단체 등)를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3) 해외구호를 위한 기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아프리카 의료지원 등)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4)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을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5) 의료기관(병원, 연구센터 등)을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6) 문화예술단체(미술관, 문화재단, 박물관 등)를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7) 시민단체(사회권익단체,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 등)를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8)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9)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10)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 등을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11)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기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12) 기타 ()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 B1에서 모두 ‘②없다’ 라고 응답한 경우 B10으로 가십시오

B3. 기존의 기부액을 올해 혹은 내년에 늘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B4. 현재 기부처 이외에 다른 곳에도 기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B5.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 대한 기부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정기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기적'의 기준은 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의 기부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있다 (정기적으로 기부를 한 곳이 있다) → B5-1로 가십시오
- ② 없다 (모든 기부를 기회가 닿는 때 일회적으로 하곤 한다) → B6으로 가십시오
- ③ 모름/무응답 → B6으로 가십시오

B5-1. 정기적일 경우, 얼마나 자주 기부하십니까?

- ① 매 주
- ② 매 달
- ③ 매 분기
- ④ 모름/무응답

B6.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신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만약 가족, 친척, 친구, 선배 등이 기부 시설/기관/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그분들의 요청으로 인해 기부를 했을 경우 '④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 ② 인터넷을 통해
- ③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 ④ 시설/기관/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방문, 우편, 전화등)
- ⑤ 직장/직장활동 혹은 고용주)을 통해
- ⑥ 종교단체를 통해
- ⑦ 그 외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동호회 등)
- ⑧ 모름/무응답

B7.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신 그 '시설/기관/단체/개인'에게 주로 어떤 방법으로 기부하셨습니까?

- ①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
- ② ARS 전화
- ③ 온라인(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 ④ 지로납부
- ⑤ CMS 자동이체
- ⑥ 급여공제
- ⑦ 기타 ()
- ⑧ 모름/무응답

B8. 귀하께서 기부를 하실 때 다음의 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내용	매우 영향을 미쳤다	대체로 영향을 미쳤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 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	①	②	③	④
(2) 종교적 신념	①	②	③	④
(3) 동정심	①	②	③	④
(4) 개인적인 행복감	①	②	③	④

B9. 귀하께서 기부를 하실 때 다음의 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내용	매우 영향을 미쳤다	대체로 영향을 미쳤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 경제적 여유	①	②	③	④
(2) 연말 정산 등 세제혜택	①	②	③	④
(3)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친구, 직장동료 등)으로부터의 자극·요청	①	②	③	④
(4) 대중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로부터의 자극·요청	①	②	③	④
(5) 모범적 기부자들에 의한 자극	①	②	③	④
(6)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①	②	③	④

→ C1으로 가십시오

B10. (B1에서 모두 ②인 응답자만) 귀하께서 '기부를 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 ② 기부가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 ③ 기부를 요청한 시설/기관/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 ④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 ⑤ 어디에, 어떻게 기부해야 하는지 몰라서
- ⑥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 ⑦ 기타 ()
- ⑨ 모름/무응답

종교적 기부(개신교 및 천주교)를 낸 항목	C4-1. 기부여부	C4-2. 기부금액	
		C4-2-1. 현금	C4-2-2. 물품
(1) 십일조(교무금)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2) 주일헌금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3) 감사헌금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4) 특별헌금(선교, 건축, 구제헌금 등)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5) 기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C5. (문C1의 ③이고, 문C3의 ① 응답자만) 작년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종교적 기부항목에 기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작년 한 해 동안 (2013년 1월~12월) 기부한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종교적 기부(불교)를 낸 항목	C5-1. 기부여부	C5-2. 기부금액	
		C5-2-1. 현금	C5-2-2. 물품
(1) 기도(인등, 관음기도 등)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2) 제사(천도재, 49재 등)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3) 건축(불사, 봉축장엄물)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4) 연등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5) 기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C6. (문C3의 ①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현금 및 보시를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정기적'의 기준은 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을 말합니다.

- ① 있다 → C7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C8로 가십시오
- ③ 모름/무응답 → C8로 가십시오

C7. 정기적일 경우, 얼마나 자주 현금 및 보시 등을 하십니까?

- ① 매 주 ② 매 달 ③ 매 분기 ④ 모름/무응답

C8. 귀하께서는 현금 및 보시를 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계십니까? 귀하께서 현금 및 보시를 하였지만, 귀하 명의가 아닌 가족 중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C9. 귀하께서 한 현금 및 보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귀하께서 하신 현금 및 보시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체를 100%로 보았을 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비중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업 내용	비 중
(1) 종교기관의 운영 (기관 자체 운영)	_____ %
(2) 종교기관의 고유사업 지원 (선교 및 포교)	_____ %
(3) 지역 사회 및 사회 전반을 위한 공헌 사업 (사회복지 등)	_____ %
계	100%

D. 상호부조

※ C1~C9번은 귀하의 종교적 기부 경험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D1. 작년 한 해(2013년 1월~12월)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호부조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셨습니다?

- 품앗이 활동이란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육아, 교육, 반찬 등을 공동으로 나누어 서로 돕는 활동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 활동이란 공통의 전체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발적 조직으로 생활협동조합(생협), 의료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조합 등이 있습니다.
- 자조모임 활동이란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인 비전문적 활동을 함으로써 집단 성원 개개인이 도움을 얻는 모임으로 환우회, 이주여성, 독거노인,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 등이 있습니다.

D4. 작년 한 해(2013년 1월~12월) 동안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조사에 경조사비를 지출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조사비를 지출하신 적이 있다면, 얼마나 지출하셨습니다?

경조사	D4-1. 지출여부	D4-2. 지출금액	
		D4-2-1. 현금	D4-2-2. 물품
(1) 결혼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2) 장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3) 생일잔치(돌잔치, 칠순, 팔순 등)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4) 개업 및 창립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D5. 귀하께서 경조사비를 내실 때 다음 내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경조사비 지출의 동기	매우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영향을 미친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체면과 원활한 관계(인맥)를 유지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2) 상대방에게 필요한 축하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①	②	③	④
(3)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기대해서	①	②	③	④
(4) 내가 경조사비를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 필요해서	①	②	③	④

D6. 귀하께서는 귀하에게 경조사비를 낸 사람에게 경조사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내야 한다고 느낀다
- ② 내야 한다고 느낀다
- ③ 내지 않아도 된다고 느낀다
- ④ 전혀 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D7. 귀하의 경제적 상황에서 경조사비 지출의 부담은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부담스럽다
- ② 대체로 부담스러운 편이다
- ③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 ④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D8. 지난 3년 동안(2011년 1월 ~ 2013년 12월) 귀하께서는 다음의 경조사로 인한 경조사비를 수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 본인 또는 가족의 결혼, 장례, 돌잔치, 개업 및 창립 등의 경조사비로 들어온 총금액 중 본인의 지인으로부터 들어온 경조사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예를 들어 본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들어온 총금액 중,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의 지인을 통해서 들어온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의 지인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의 금액을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내용	D8-1. 수령여부	D8-2.수령금액	
		D8-2-1. 현금	D8-2-2. 물품
(1) 결혼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2) 장례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3) 생일잔치(돌잔치, 칠순, 팔순 등)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4) 개업 및 창립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D9. 우리는 경조사를 통해 경조사비를 지인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경조사를 통해 지출한 금액 규모와 비교하여, 향후 경조사에서 어느 정도로 기대하십니까? 그 동안 지출하신 경조사비의 총액과 향후 받을 것으로 기대하시는 경조사의 총액을 비교하여 귀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E. 기부 의향 및 계획

※ E1~E6번은 귀하의 기부 의향 및 계획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E1. 귀하는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모름/무응답

E2.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향후에 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시겠습니까?

내용	매우 고려한다	대체로 고려한다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1) 누구에게 기부할 것인지 (아동, 장애인, 노인, 빈곤층 등)	①	②	③	④
(2) 기부할 시설/기관/단체/개인을 얼마나 믿을 만한지	①	②	③	④
(3) 기부를 요청하는 시설/기관/단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지	①	②	③	④
(4) 기부가 우리 사회 발전에 얼마나 긍정적 변화를 가져 오는지	①	②	③	④

E3.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단체/시설/기관 등에 기부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하시겠습니까?

내용	매우 고려한다	대체로 고려한다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1) 기부 방법이 얼마나 간편하고 쉬운지	①	②	③	④
(2) 나의 경제적 상황에 맞도록 기부액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	①	②	③	④
(3) 기부의 대상이 되는 단체/시설/기관이 얼마나 전문적인지	①	②	③	④
(4) 기부금 사용 및 활동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①	②	③	④
(5)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나 예우가 어떠한지	①	②	③	④

F. 유산기부

※ F1~F9번은 귀하의 유산 기부에 대한 의견과 의향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F1. 귀하께서는 귀하의 재산을 유산기부의 형태로 기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유산기부'란 사전 유언을 통한 사후의 기증으로서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소장품 등의 권리를 특정 개인/단체/시설/기관 등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있다 → F2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F6으로 가십시오
- ③ 모르겠다 → F6으로 가십시오

F2. (문F1의 ① 응답자만) 유산기부를 행하실 의향이 있다면, 전체 재산의 몇 % 정도까지 기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F3. (문F1의 ① 응답자만) 귀하께서 유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귀하께서 기부하실 의향에 다음의 항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유산기부 의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유산을 상속할 가족이 없는 것	①	②	③	④
(2) 가족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는 점	①	②	③	④
(3) 사회에 대한 개인적 신념 (예: 삶을 의미있게 마감하고자 하는 생각)	①	②	③	④
(4) 종교적 신념	①	②	③	④
(5) 유산기부에 따른 세제혜택을 기대해서	①	②	③	④

F4. (문F1의 ① 응답자만) 만약 귀하께서 유산기부에 대한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대상에 유산기부를 하고 싶으십니까?

- ① 내가 평소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해왔던 익숙한 기관
- ② 사회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은 기관
- ③ 사회적으로 유명한 기관
- ④ 내가 관심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기관

F5. (문F1의 ① 응답자만)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유산을 기부하시길 원하십니까?

유산기부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내 유산을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어서	①	②
(2) 지금의 나의 재정상태가 불안해서	①	②
(3) 가족으로부터 유산을 기부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협력을 얻는 것이 어려워서	①	②
(4) 노후의 재정생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①	②
(5) 유산을 기부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	①	②
(6) 유산기부의 세제혜택이 미미해서	①	②
(7) 유산을 기부한 것이 제대로 사용될 것인가를 신뢰할 수 없어서	①	②

F7. 귀하께서는 부모나 배우자 등의 가족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 일부를 기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F8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F9로 가십시오
- ③ 모르겠다 → F9로 가십시오

F8. 기부하실 의향이 있다면, 물려받을 유산의 몇 % 정도까지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F9. 만약 귀하의 부모나 배우자 등의 가족이 유산기부를 결정하시는 경우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 ①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 ②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 ③ 반대할 것이다
- ④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보장되는 나의 몫을 되찾을 것이다

G. 나눔교육 경험

※ G1번은 귀하의 나눔교육 경험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G1. 귀하께서는 유/초/중/고/대학교 시절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의무적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은 (5)로 간주합니다.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학교,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 그 밖의 단체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부모로부터 기부 및 자원봉사 등 나눔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부모님, 친척, 이웃 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나 자원봉사 (모금활동 포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4) 개인(친구나 이웃 등), 자선단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나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	①	②
(5) 학교를 통해 의무적 봉사활동('학생봉사활동' 또는 '사회봉사' 교양과목 등)/기부를 행한 적이 있다	①	②

H. 사회적 자본

※ H1~H3번은 귀하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H1. 귀하께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심해야 한다	\leftarrow	상황에 따라 다르다	\rightarrow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H2. 귀하께서는 사람들이 대체로 도움을 주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만을 챙기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만을 챙긴다	←	상황에 따라 다르다	→	도움을 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H3. 귀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가 된다면 당신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히 잘 대해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하려 한다	←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잘 대해 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 H4~H6번은 귀하가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H4. 평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때, 귀하의 입장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상대의 입장을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나의 입장을 생각한다	←	반반이다	→	전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H5. 귀하께서 주고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	반반이다	→	아무리 늦어도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⑤

H6. 귀하께서 주고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의 정도나 크기는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나아야 한다 ← 반반이다 → 훨씬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H7. 다음은 사회규범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입니다. 귀하께서는 사회규범 준수와 관련된 다음 내용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법과 질서(국민의 4대 의무 및 기초질서 등)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2)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3) 나와 가족의 경우라도 불법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①	②	③	④
(4) 사람들의 불법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①	②	③	④

I. 통계분류를 위한 질문

※ 11~13번은 통계적 분류를 위해 여쭙고자 합니다.

11. 전체적으로 보아 귀하의 생활에 대한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는 매우 불행하다 ← → 나는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8. 귀하는 귀하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없으시면 0을 기입해 주십시오.

1) 부동산 : __억 __천 __백 __십 __만원
(토지, 주택, 건물 등의 현재가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2) 금융자산 : __억 __천 __백 __십 __만원
(저축, 주식·채권, 보험, 현금 등)

19. 귀하는 귀하의 명의의 부채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있다 → 119-1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110으로 가십시오

19-1. 부채가 있으시다면 총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억 천 백 십 만원

110.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하의 하
- ② 하의 중
- ③ 하의 상
- ④ 중의 하
- ⑤ 중의 중
- ⑥ 중의 상
- ⑦ 상의 하
- ⑧ 상의 중
- ⑨ 상의 상



111. 귀댁의 가구원 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이십니까?

_____ 명

112.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 ② 기혼(현재 배우자가 있다)
- ③ 이혼
- ④ 사별
- ⑤ 모름/무응답

113. 귀하께서는 이 조사에 참여하시기 전에 아름다운재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들어본 적이 있다
- ② 들어본 적이 없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부 록

3

2013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보고서



CHAPTER ; |

조사 목적 및 개요

- 1 조사목적
- 2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 및 자원봉사 실태 파악
- 문화예술 분야 기부에 대한 인식과 태도 파악
- 문화예술 분야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위한 정책 방안 마련 위한 기초 자료 마련

문화·예술 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



2. 조사 개요

구분	내 용																										
모 집 단	2013년에 문화예술분야 기부 또는 자원 봉사한 경험이 있는 전국 만19세 이상 59세 이하 성인남녀																										
표 본 수	523명																										
표본추출	성별, 연령별 연의할당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2">19~29세</th> <th colspan="2">30대</th> <th colspan="2">40대</th> <th colspan="2">50대</th> <th rowspan="2">계</th> </tr> <tr> <th>남</th> <th>여</th> <th>남</th> <th>여</th> <th>남</th> <th>여</th> <th>남</th> <th>여</th> </tr> </thead> <tbody> <tr> <td>63</td> <td>63</td> <td>63</td> <td>63</td> <td>63</td> <td>63</td> <td>63</td> <td>63</td> <td>504</td> </tr> </tbody> </table>	19~29세		30대		40대		50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63	63	63	63	63	63	63	63	504
19~29세		30대		40대		50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63	63	63	63	63	63	63	63	504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 설문지를 이용한 이메일을 활용한 웹조사 (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																										
조사기간	2014. 7. 8 (화) - 8. 6 (수)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역상)																										

5

CHAPTER ; II

조사결과 : (1) 2013년 문화예술분야 기부

- 1 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 여부
- 2 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처/기부금액
- 3 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장르
- 4 2013년 문화예술 분야 정기적 기부 여부 및 빈도
- 5 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처 인지경로
- 6 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방식
- 7 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방법
- 8 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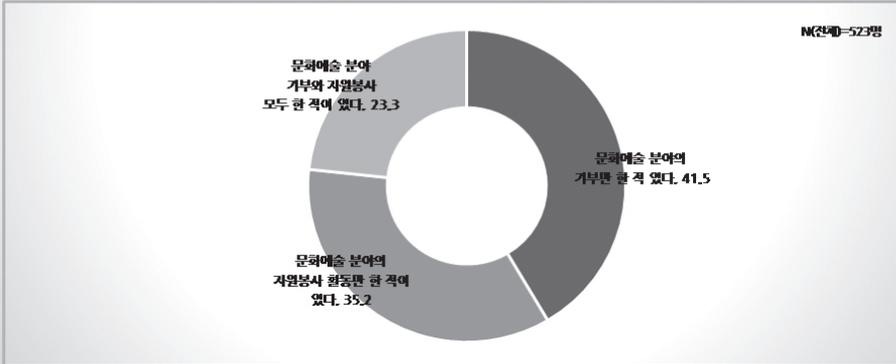
1. 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 여부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및 기부,

'기부만 함(41.5%)' > '자원봉사 활동만 함(35.2%)' >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함(23.3%)'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 또는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만 한 적 있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고, '문화예술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만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5.2%였
- 그 외, '문화예술 분야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3.3%였

(단위: %)



7

2. 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처/기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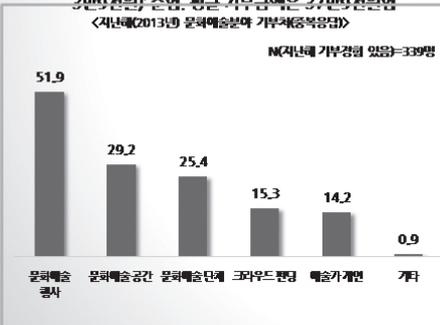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문화예술 행사(51.9%)' > '문화예술 공간(29.2%)' > '문화예술 단체(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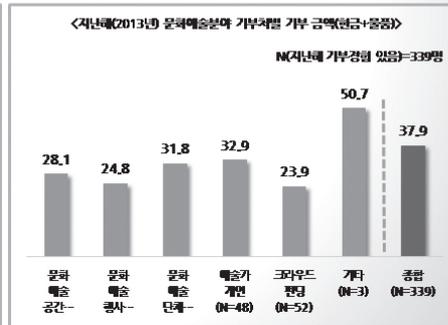
지난해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액, 평균 37만9천원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경험이 있는 사람 중, '문화예술 행사'에 기부했다는 응답이 51.9%로 가장 높고, '문화예술 공간(29.2%)', '문화예술 단체(25.4%)', '크라우드 펀딩(15.3%)', '예술가 개인(14.2%)', '기타(0.9%)' 순임
- '기타' 분야의 평균 기부금액이 50만7천원으로 가장 높고, '예술가 개인(32만9천원)', '문화예술단체(31만8천원)', '문화예술공간(28만1천원)', '문화예술행사(24만8천원)', '크라우드펀딩(23만9천원)' 순임. 평균 기부금액은 37만9천원임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분야 기부처(중복응답)>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분야 기부처별 기부 금액(단금+동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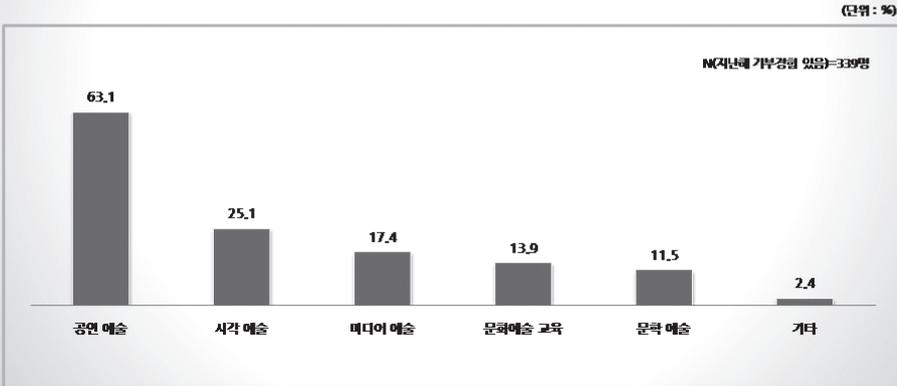


8

3. 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장르(중복응답)

지난해(2013년) 기부한 문화예술의 장르, '공연예술(63.1%)' > '시각예술(25.1%)' > '미디어예술(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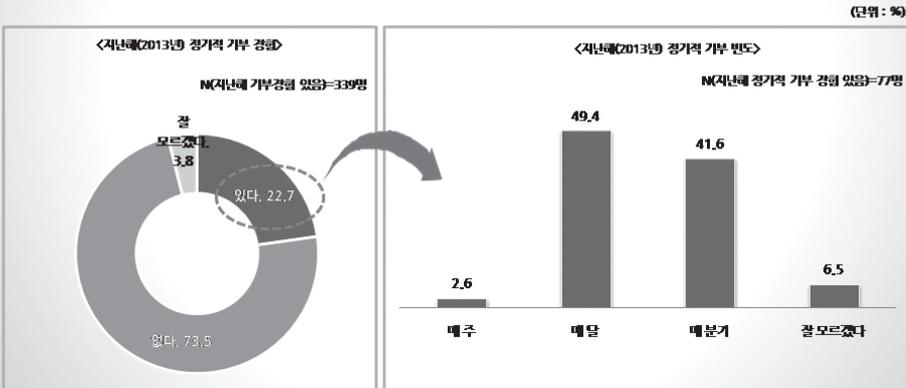
- 지난해(2013년) 기부한 문화예술 장르는 '공연 예술'이 63.1%로 가장 높음
- 그외, '시각 예술(25.1%)', '미디어 예술(17.4%)', '문화예술 교육(13.9%)', '문학 예술(11.5%)', '기타(2.4%)' 순임



4. 2013년 문화예술 분야 정기적 기부 여부 및 빈도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분야 기부자 10명 중 2명 이상, '정기적 기부 경험 있음(22.7%)' 정기적 기부 빈도, '매 달(49.4%)' > '매 분기(41.6%)' > '매 주(2.6%)'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분야 정기적 기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2.7%인 반면, '없다'는 응답은 73.5%임
- 정기적 기부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매 달' 정기적으로 기부했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고, '매 분기(41.6%)', '매 주(2.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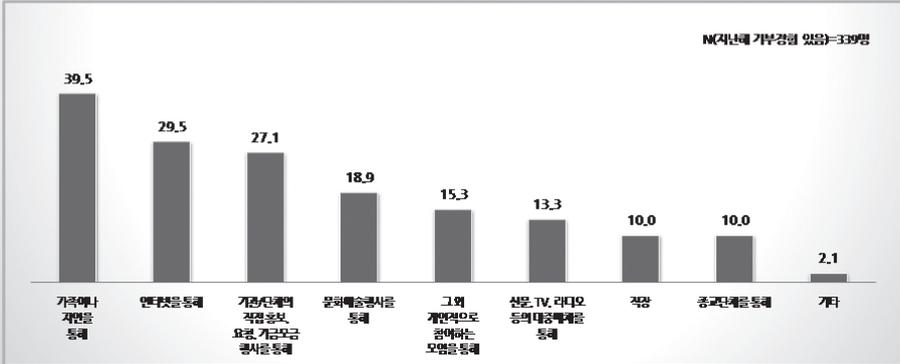
5. 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처 인지경로(중복응답)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처 인지경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39.5%)' > '인터넷을 통해(29.5%)' > '기관/단체의 직접 홍보, 요청, 기금모금 행사를 통해(27.1%)'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분야 기부처를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고, '인터넷을 통해(29.5%)', '기관/단체의 직접 홍보, 요청, 기금모금 행사를 통해(27.1%)', '문화예술행사를 통해(18.9%)', '그 외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15.3%)',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13.3%)', '격강(10.0%)', '종교단체를 통해(10.0%)', '기타(2.1%)' 순임

(단위: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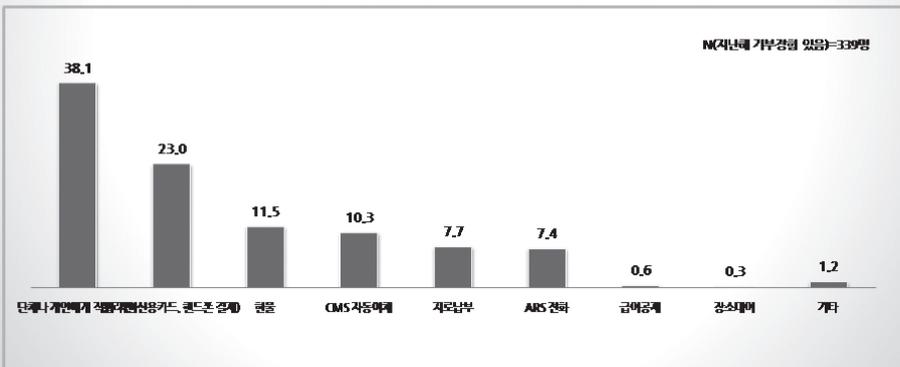
6. 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방식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방식,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지원(38.1%)' > '온라인(23.0%)' > '현물(11.5%)'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분야 기부 방식에 대해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지원' 했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음
- 그 외, '온라인(23.0%)', '현물(11.5%)', 'CMS 자동이체(10.3%)', '지로납부(7.7%)', 'ARS 전화(7.4%)', '급여공제(0.6%)', '강소대어(0.3%)', '기타(1.2%)' 순임

(단위: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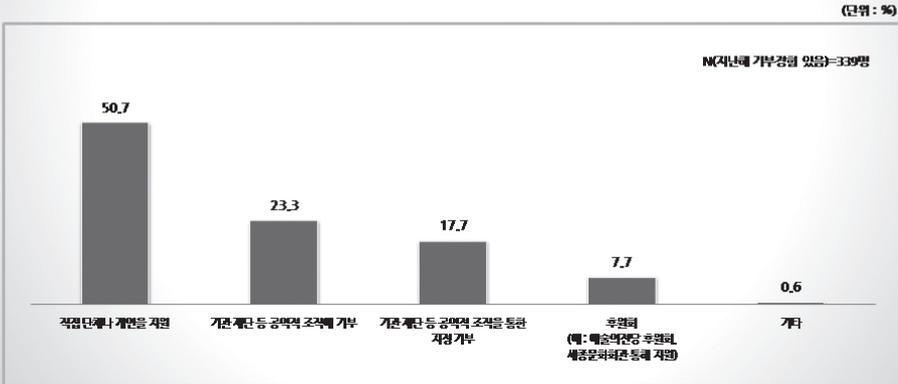
7. 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방법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방법,

'직접 단체나 개인을 지원(50.7%)' > '기관 재단 등 공역적 조직에 기부(23.3%)' >

'기관 재단 등 공역적 조직을 통한 지정 기부(17.7%)'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분야 기부의 주된 방법으로 '직접 단체나 개인을 지원'했다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고, '기관 재단 등 공역적 조직에 기부(23.3%)', '기관 재단 등 공역적 조직을 통한 지정 기부(17.7%)', '후원회(7.7%)', '기타(0.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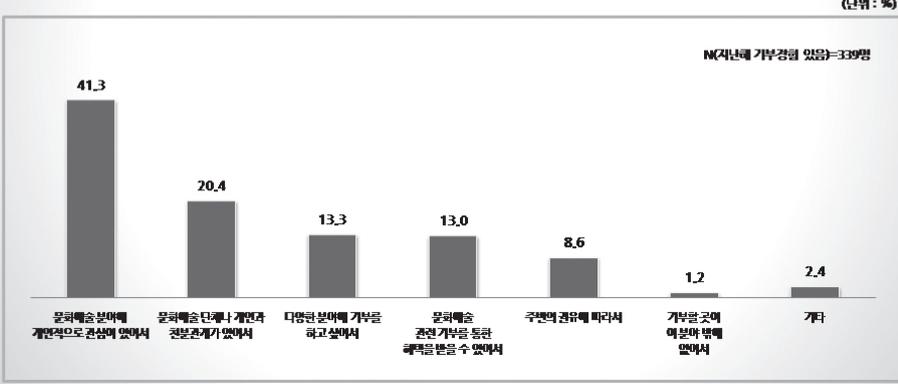
13

8. 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이유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이유,

'문화예술 분야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41.3%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분야 기부 이유로, '문화예술 분야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음
- 그외,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과 친분관계가 있어서(20.4%)',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하고 싶어서(13.3%)', '문화예술 관련 기부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13.0%)', '주변의 권유에 따라서(8.6%)', '기부할 곳이 이 분야 밖에 없어서(1.2%)', '기타(2.4%)' 순임



14

CHAPTER ; II

조사결과 : (2) 2013년도 문화예술 기부의 경험과 만족도

- 1 문화예술 분야 기부 결정 시, 각 항목 고려 정도
- 2 문화예술 분야 기부처에 대한 생각
- 3 문화예술 분야 기부할 때의 느낌
- 4 문화예술 분야 기부 중단 또는 변경 경험 여부 및 이유
- 5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의 원하는 사용 분야
- 6 문화예술 분야 기부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2014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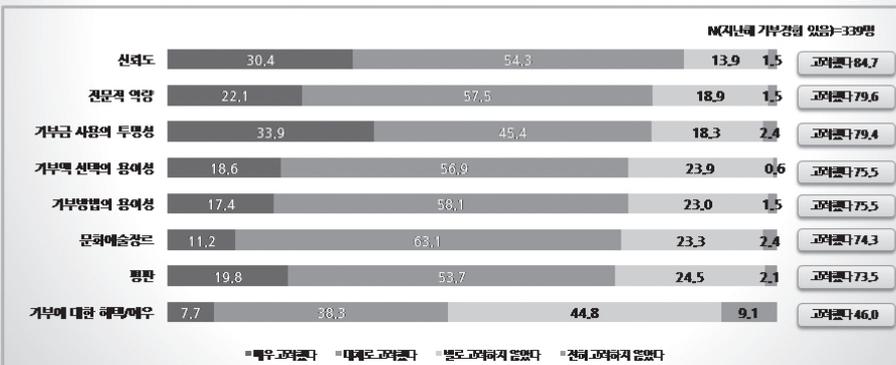
1. 문화예술 분야 기부 결정 시, 각 항목 고려 정도

문화예술 분야 기부 결정 시, 각 항목 고려 정도

‘신뢰도(84.7%)’ > ‘전문적 역량(79.6%)’ >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79.4%)’

- 문화예술 분야 기부 결정 시, ‘신뢰도’를 가장 ‘고려했다(매우+대체로)’라는 응답이 84.7%로 가장 높음
- 그 외, ‘전문적 역량(79.6%)’,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79.4%)’, ‘기부액 선택의 용이성(75.5%)’, ‘기부방법의 용이성(75.5%)’, ‘문화예술장르(74.3%)’, ‘평판(73.5%)’, ‘기부에 대한 혜택/예우(46.0%)’ 순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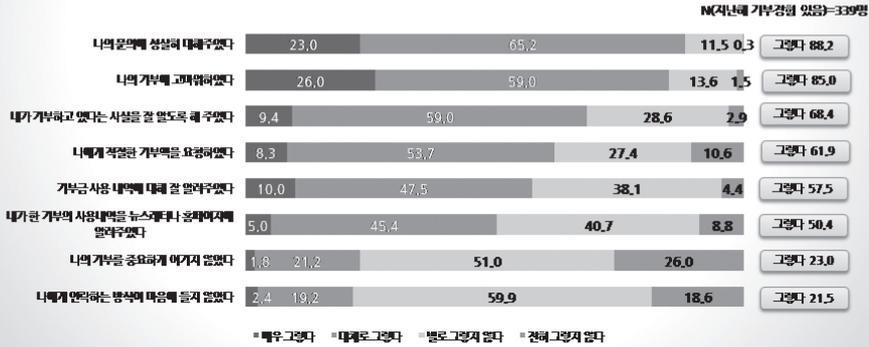


16

2. 문화예술 분야 기부처에 대한 생각

문화예술 분야 기부처에 대해 긍정적 평가에 동의하는 응답은 50% 이상으로 높은 반면, 부정적 평가에 동의하는 응답은 20% 내외로, 긍정적 평가가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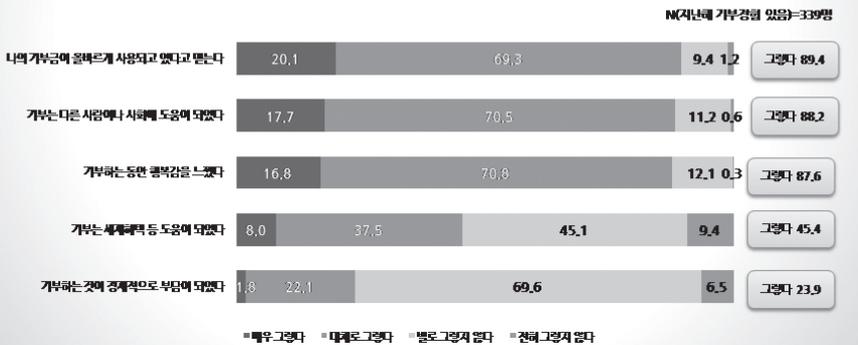
- ☑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하였던 기부처가 '나의 문명에 성실히 대해주었다'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라는 응답이 88.2%로 가장 높고, '나의 기부에 고마워하였다(85.0%)', '내가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도록 해 주었다(68.4%)' 등의 순임
- ☑ 반면, '나의 기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23.0%)', '나에게 연락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21.5%)'로 부정적 평가는 낮음 (단위: %)



3. 문화예술 분야 기부할 때의 느낌

문화예술 분야 기부 시, '나의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믿는다', 89.4%

- ☑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할 때, '나의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믿는다'에 대해 '그렇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89.4%로 가장 높고, '기부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88.2%)', '기부하는 동안 행복감을 느꼈다(87.6%)' 순임
- ☑ 그외, '기부는 세계에 행복 등 도움이 되었다(45.4%)', '기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다(23.9%)'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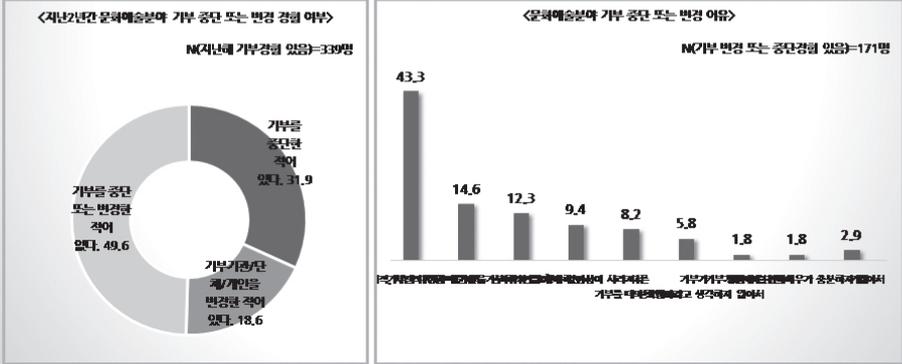


4. 문화예술 분야 기부 중단 또는 변경 경험 여부 및 이유

2013년 문화예술분야 기부자 과반, '지난 2년간 문화예술분야 기부 중단 또는 변경 경험 있다(50.5%)'
 기부 중단 또는 변경 경험 이유,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43.3%

- 지난 2년 간 문화예술 분야 '기부를 중단 또는 변경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49.6%로 가장 높고, '기부를 중단한 적이 없다(31.9%)', '기부 기준/단체/개인을 변경한 적이 있다(18.6%)' 순임
- 지난 2년 간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를 중단 또는 경험 없는 응답자의 경우,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중단 또는 변경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고, '기부의 대상자나 기준을 신뢰하지 않아서(14.6%)', '계속 기부하라는 요청이 없어서(12.3%)' 등의 순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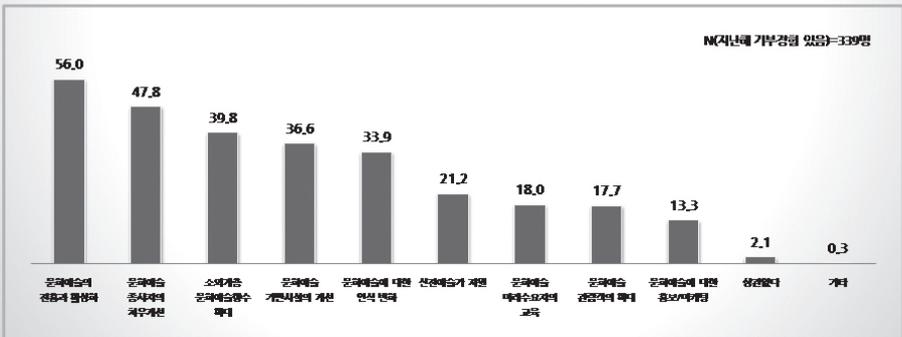


5.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의 원하는 사용 분야(중복응답)

문화예술분야 기부금 원하는 사용 분야,
 '문화예술의 진흥과 활성화(56.0%)', '문화예술 종사자의 처우개선(47.8%)' > '소외계층 문화예술향수 확대(39.8%)'

-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의 원하는 사용 분야로 '문화예술의 진흥과 활성화'라는 응답이 56.0%로 가장 높음
- 그 외, '문화예술 종사자의 처우개선(47.8%)', '소외계층 문화예술향수 확대(39.8%)',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개선(36.6%)',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33.9%)', '신진예술가 지원(21.2%)', '문화예술 미래수요자의 교육(18.0%)', '문화예술 관람객의 확대(17.7%)', '문화예술에 대한 홍보/마케팅(13.3%)', '상관없다(2.1%)', '기타(0.3%)' 순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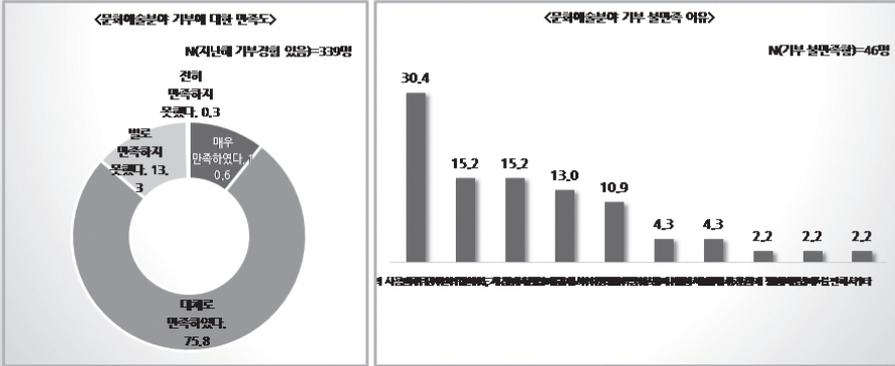
6. 문화예술 분야 기부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문화예술분야 기부자 10명 중 8명 이상, '문화예술분야 기부 만족(86.4%)'

문화예술분야 기부 불만족 이유, '기부금의 사용이 투명하지 않아서, 30.4%

- ❑ 문화예술분야 기부에 대해 '만족하였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86.4%, '만족하지 못했다(별로+전혀)'라는 응답은 13.6%임
- ❑ 문화예술분야 기부에 대해 불만족 한 이유로는 '기부금의 사용이 투명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0.4%로 가장 높고, '단체나 기관의 신뢰도가 낮아서(15.2%)',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15.2%)', '기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0%)', '공연이나 전시의 품질이 맘에 들지 않아서(10.9%)' 등의 순임

(단위 : %)



21

CHAPTER : II

조사결과 : (3) 2013년도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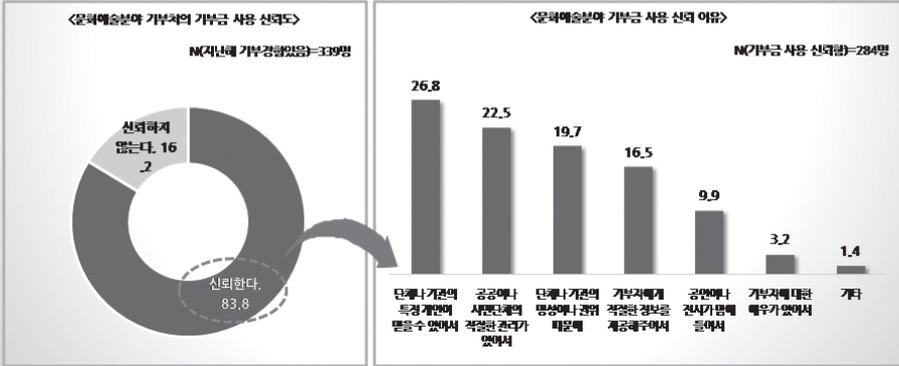
- 1 문화예술 분야 기부처의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신뢰도 및 신뢰 이유
- 2 향후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 규모 계획
- 3 문화예술 분야 기부처로부터 기대하는 대응



1. 문화예술 분야 기부처의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신뢰도 및 신뢰 이유

문화예술분야 기부자 10명 중 8명, '기부금 사용 신뢰함(83.8%)'
 신뢰 이유, '단체나 기관의 특정 개인이 믿을 수 있어서',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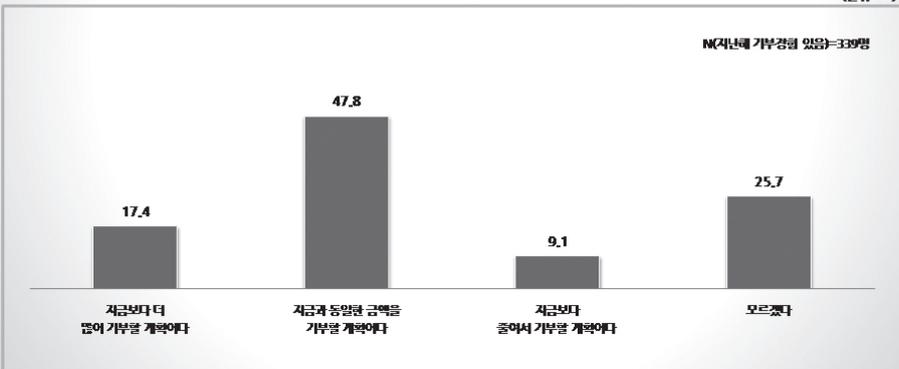
- 문화예술 분야 기부처의 기부금 사용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3.8%인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2%임
- 문화예술분야 기부자 10명 중 8명 이상은 기부금 사용에 대해 신뢰함
- 문화예술분야 기부금 사용 신뢰 이유로, '단체나 기관의 특정 개인이 믿을 수 있어서'가 26.8%로 가장 높고, '공공이나 시민단체의 적절한 권리가 있어서(22.5%)', '단체나 기관의 명성이나 권위 때문에(19.7%)' 등의 순임 (단위: %)



2. 향후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 규모 계획

향후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 규모 계획,
 '지금과 동일한 금액 기부 계획', 47.8%

- 향후 계획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액에 대해 '지금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47.8%로 가장 높고, '지금보다 더 많이 기부할 계획'이다(17.4%), '지금보다 줄여서 기부할 계획'이다(9.1%) 순임
- 2013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경험이 있는 기부자 10명 중 5명 정도는 동일한 금액을 기부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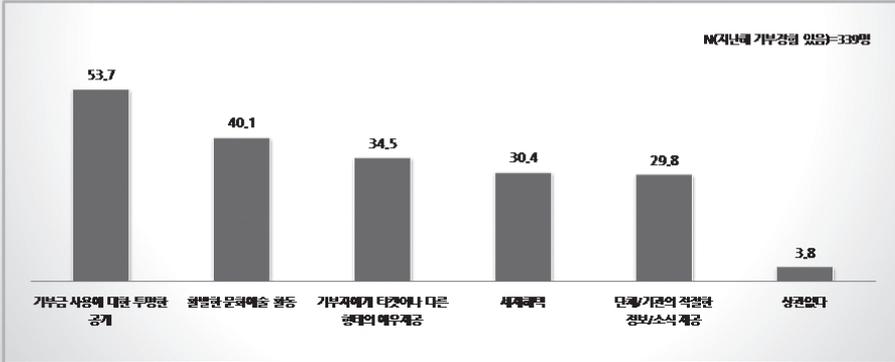
3. 문화예술 분야 기부처로부터 기대하는 대응(중복응답)

문화예술분야 기부처로부터 기대하는 대응.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53.7%)' >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40.1%)' >

'기부자에게 티켓이나 다른 형태의 예우제공(34.5%)'

- ❑ 문화예술분야 기부처로부터 기대하는 대응에 대해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53.7%로 가장 높음
- ❑ 그외,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40.1%)', '기부자에게 티켓이나 다른 형태의 예우제공(34.5%)', '세계여행(30.4%)', '단체/기관의 적절한 정보/소식 제공(29.8%)', '상권없다(3.8%)' 순임 (단위: %)



CHAPTER : II

조사결과 : (4) 2013년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 1 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처/자원봉사 장르
- 2 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활동 시간
- 3 2013년 문화예술 분야 정기적 자원봉사 활동 및 빈도
- 4 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처 인지경로
- 5 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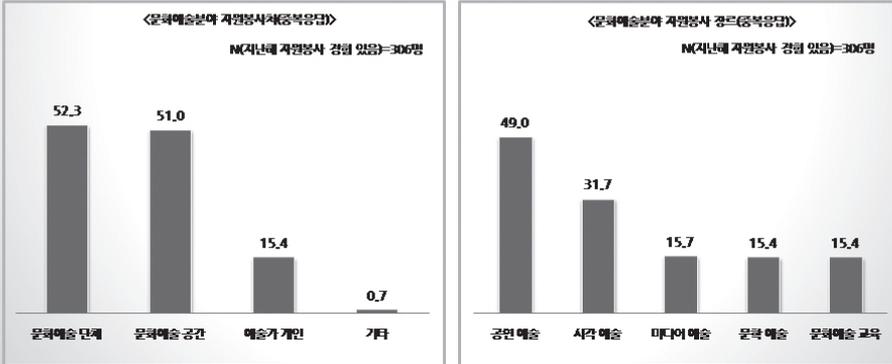


1. 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처 및 자원봉사 장르(중복응답)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처, '문화예술 단체(52.3%)' > '문화예술 공간(51.0%)'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장르, '공연 예술(49.0%)' > '시각 예술(31.7%)'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처로, '문화예술 단체'가 52.3%로 가장 높고, '문화예술 공간(51.0%)', '예술가 개인(15.4%)', '기타(0.7%)' 순임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장르로는 '공연 예술'이 49.0%로 가장 높고, '시각 예술(31.7%)', '미디어 예술(15.7%)', '문학 예술(15.4%)', '문화예술 교육(15.4%)' 순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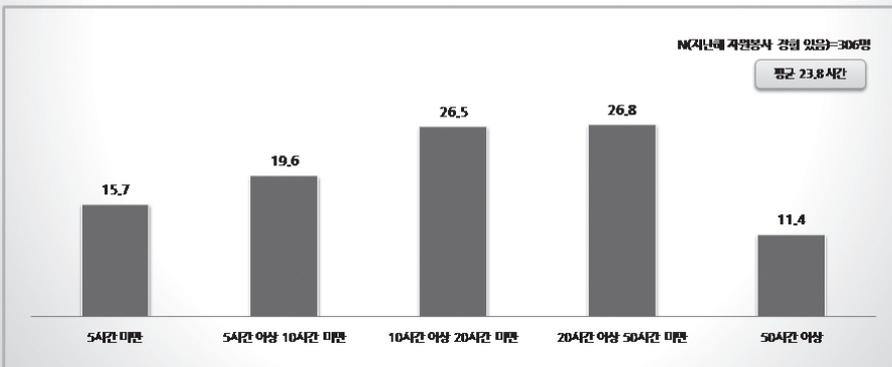
27

2. 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활동 시간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활동 평균 시간, 23.8시간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활동 시간은 '20시간 이상~50시간 미만'이 26.8%로 가장 높고,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26.5%)',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19.6%)', '5시간 미만(15.7%)', '50시간 이상(11.4%)' 순임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활동 평균 시간은 23.8시간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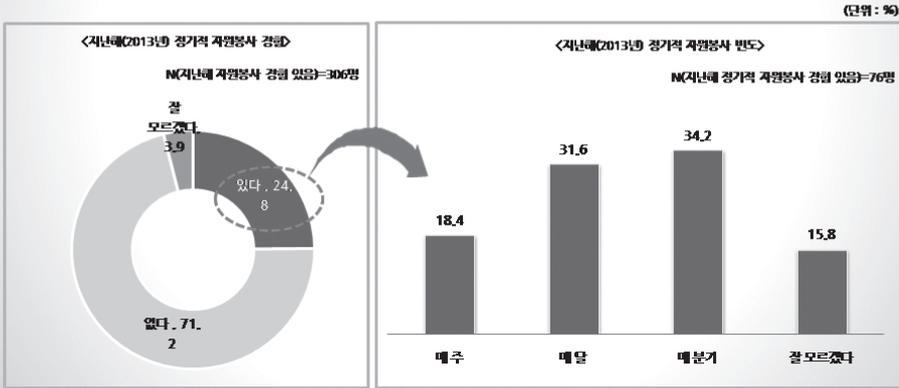


28

3. 2013년 문화예술 분야 정기적 자원봉사 활동 및 빈도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분야 자원봉사자 10명 중 2명 이상, '정기적 기부 경험 있음(24.8%)'
 정기적 자원봉사 빈도, '매 분기(34.2%)' > '매 달(31.6%)' > '매 주(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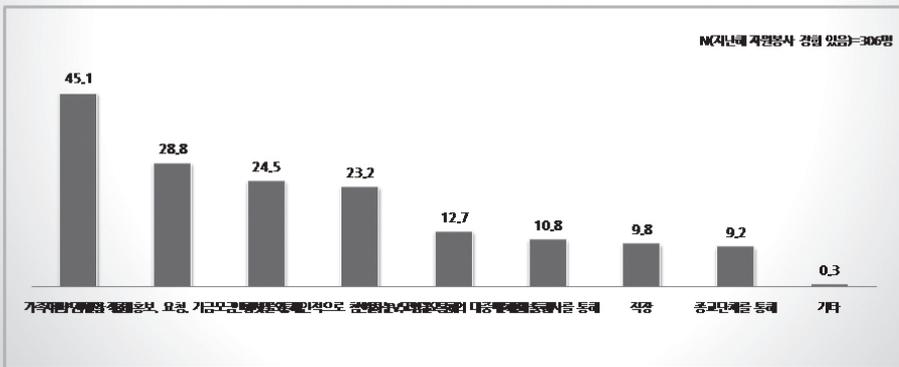
-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분야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4.8%인 반면, '없다'는 응답은 71.2%인
- ❑ 정기적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매 분기' 정기적으로 기부했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고, '매 달(31.6%)', '매 주(18.4%)' 순임



4. 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처 인지경로(중복응답)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처 인지경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45.1%)' > '기관/단체의 직접 홍보, 요청, 기금모금 행사를 통해(28.8%)'
 '인터넷을 통해(24.5%)'

-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분야 자원봉사처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고, '기관/단체의 직접 홍보, 요청, 기금모금 행사를 통해(28.8%)', '인터넷을 통해(24.5%)', '그 외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등(23.2%)',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12.7%)', '문화예술행사를 통해(10.8%)', '직접(9.8%)', '종교단체를 통해(9.2%)', '기타(0.3%)'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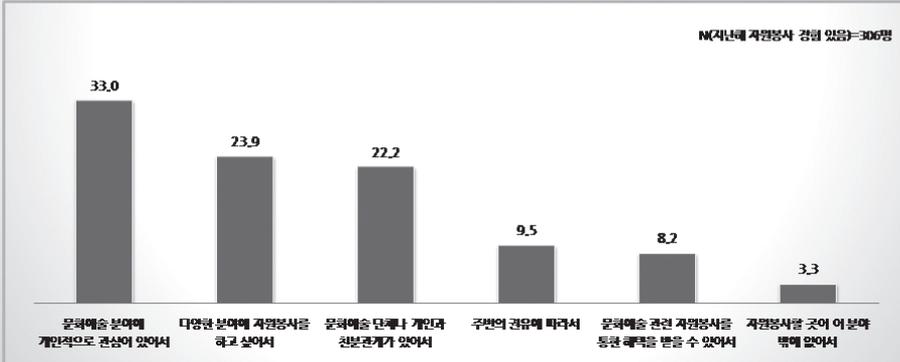
5. 2013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한 이유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이유.

'문화예술 분야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33.0%)' > '다양한 분야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23.9%)'

- ❑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를 한 이유에 대해, '문화예술 분야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33.0%로 가장 높고, '다양한 분야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23.9%)',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과 친분관계가 있어서(22.2%)' 순임
- ❑ 그 외, '주변의 권유에 따라서(9.5%)', '문화예술 관련 자원봉사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8.2%)', '자원봉사 할 곳이 이 분야 밖에 없어서(3.3%)' 순임

(단위: %)



31

CHAPTER ; ||

조사결과 : (5) 문화예술 향수

- 1 문화예술 이미지
- 2 2013년 문화예술 관람 횟수 및 지출 금액
- 3 선호하는 문화예술 장르
- 4 문화예술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생각
- 5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참여 의향
- 6 예술나무 운동 인지 여부 및 참여 의향
- 7 문화예술 지원 기업에 대한 이미지
- 8 문화예술 공연 관람 시, 중요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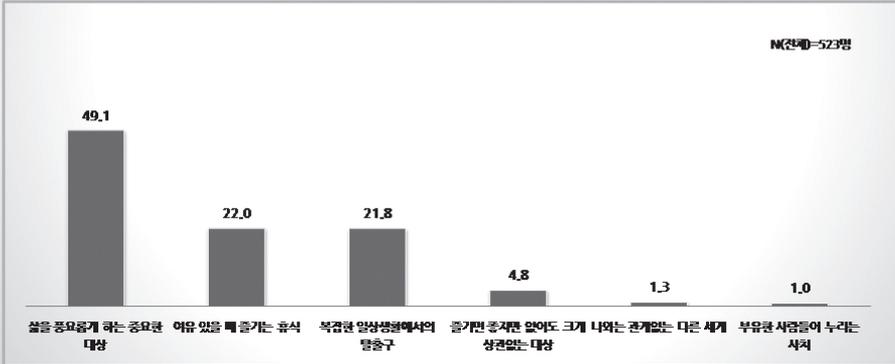


1. 문화예술 이미지

문화예술 이미지, '살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대상 (49.1%)' > '여유 있을 때 즐기는 휴식(22.0%)'

-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이미지에 대해 '살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대상'이라는 응답이 49.1%로 가장 높고, '여유 있을 때 즐기는 휴식(22.0%)', '복잡한 일상생활에서의 탈출구(21.8%)' 순임
- 그외, '즐거워 좋지만 않아도 크게 상관없는 대상(4.8%)', '나와는 관계없는 다른 세계(1.3%)',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사치(1.0%)' 순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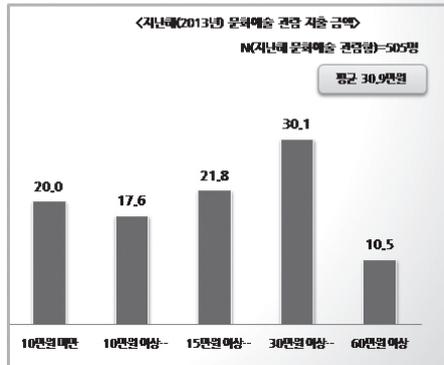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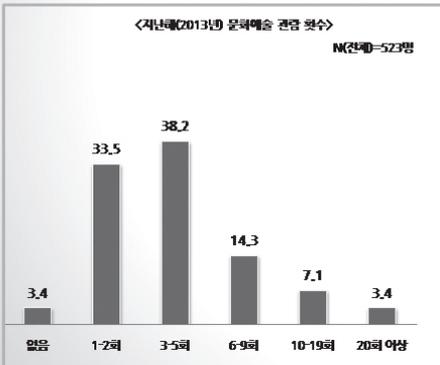
33

2. 2013년 문화예술 관람 횟수 및 지출 금액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관람 횟수, '3-5회', 38.2%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관람 지출 평균 금액, 30.9만원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관람 횟수는 '3-5회'가 38.2%로 가장 높고, '1-2회(33.5%)', '6-9회(14.3%)', '10-19회(7.1%)', '20회 이상(3.4%)', '없음(3.4%)' 순임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 관람 지출 금액은 평균 30.9만원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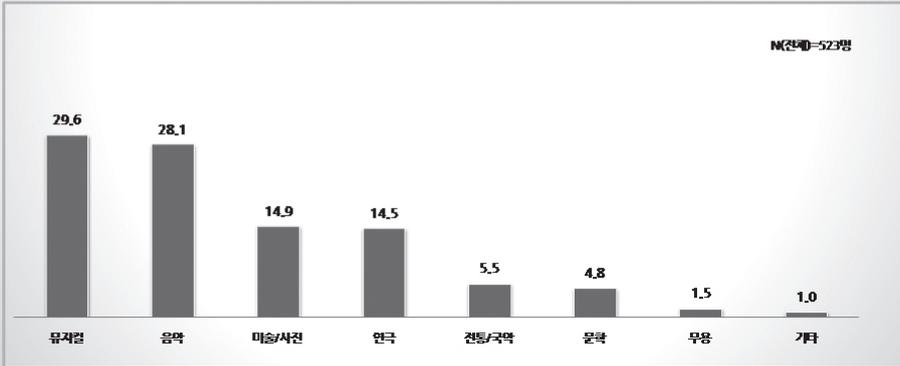
34

3. 선호하는 문화예술 장르

선호하는 문화예술 장르

'뮤지컬(29.6%)' > '음악(28.1%)' > '미술/사진(14.9%)' > '연극(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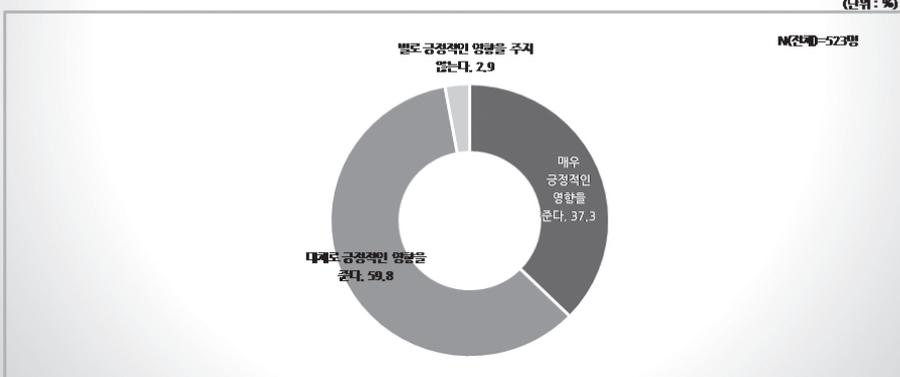
- ❑ 선호하는 문화예술 장르에 대해 '뮤지컬'이라는 응답이 29.6%로 가장 높고, '음악(28.1%)', '미술/사진(14.9%)', '연극(14.5%)' 순입니다.
- ❑ 그 외, '전통/국악(5.5%)', '문학(4.8%)', '무용(1.5%)', '기타(1.0%)' 순입니다.



4. 문화예술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생각

문화예술, '삶에 긍정적인 영향 준다', 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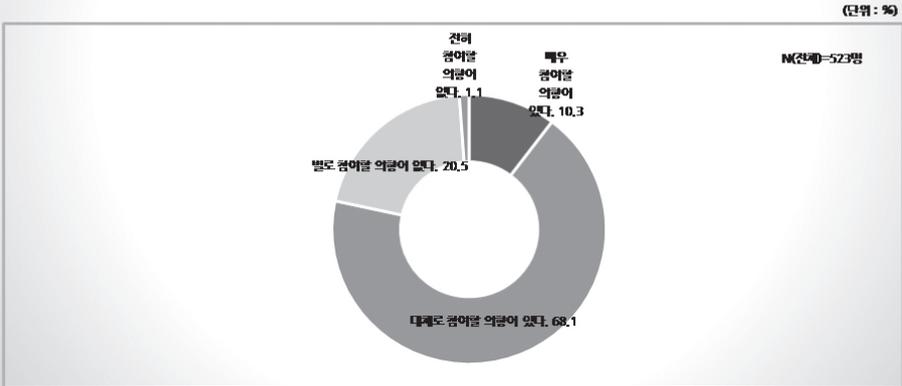
- ❑ 문화예술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97.1%인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별로+전혀)'는 응답은 2.9%에 불과함
- ❑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나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은 문화예술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5.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참여 의향

크라우드 펀딩, '참여 의향 있음', 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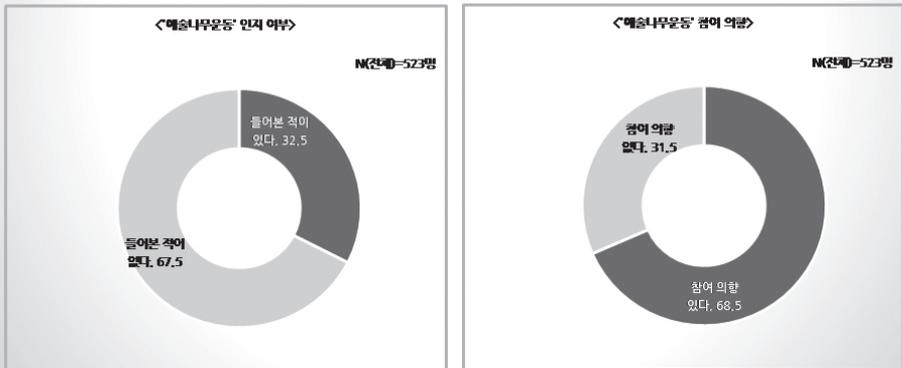
- 문화예술 관련 프로젝트에 크라우드 펀딩 등의 소액기부나 후원을 통해 '참여할 의향이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78.4%인 반면, '참여할 의향이 없다(별로+전혀)'는 응답은 21.6%임
-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나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크라우드 펀딩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됨



6. 예술나무 운동 인지 여부 및 참여 의향

예술나무운동, '들어본 적이 있다', 32.5%
 예술나무운동, '참여 의향 있다', 68.5%

- '예술나무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7.5%인 반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2.5%임
-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나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예술나무운동'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음
- 향후 '예술나무운동'에 '참여 의향 있다'는 응답이 68.5%인 반면, '참여 의향 없다'는 응답은 31.5%임
-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나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예술나무운동' 참여 의향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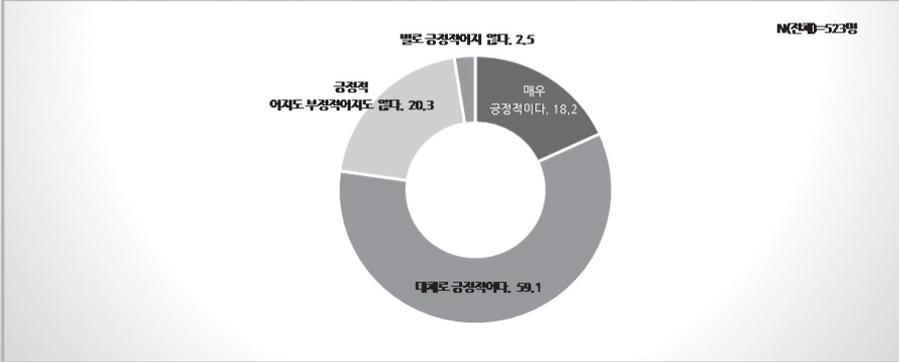


7. 문화예술 지원 기업에 대한 이미지

문화예술 지원 기업에 대한 이미지, '긍정적이다, 77.2%

- 문화예술분야 지원 기업에 대해 '긍정적이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77.2%인 반면, '긍정적이지 않다(별로+전혀)'는 응답은 2.5%임
- 그 외,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응답은 20.3%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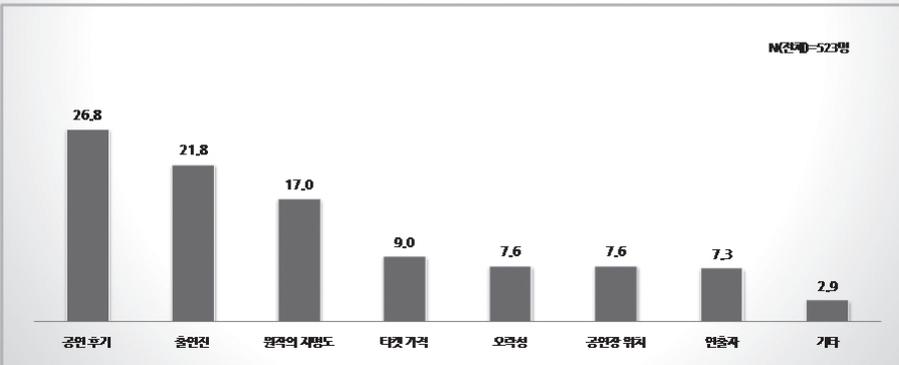
39

8. 문화예술 공연 관람 시, 중요한 기준

문화예술 공연 관람 시, '공연 후기 중요', 26.8%

- 문화예술 공연 관람 시, '공연 후기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응답이 26.8%로 가장 높음
- 그 외, '출연진(21.8%)', '원작의 지명도(17.0%)', '티켓 가격(9.0%)', '오락성(7.6%)', '공연장 위치(7.6%)', '연출자(7.3%)', '기타(2.9%)' 순임

(단위: %)



40

CHAPTER : III

조사결과 : 문화예술단체 자원봉사 및 기부 실태 (기부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 1 2013년 문화예술단체 자원봉사 경험 및 시간
- 2 2013년 문화예술단체 기부 경험 및 기부액
- 3 2013년 문화예술단체 자원봉사 하지 않은 이유 및 향후 봉사 의향
- 4 2013년 문화예술단체 기부 하지 않은 이유 및 향후 기부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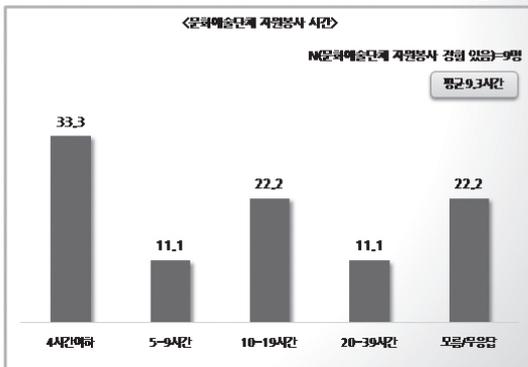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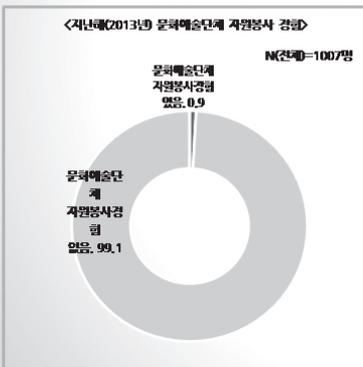
2014년 문화예술 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

1. 2013년 문화예술단체 자원봉사 경험 및 시간*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단체 자원봉사 경험, '있다' 0.9%
지난해 문화예술단체 자원봉사 시간, 평균 9.3시간

-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단체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0.9%에 불과함
-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단체 자원봉사 시간은 '4시간 이하'가 33.3%로 가장 높고, '10~19시간(22.2%)', '20~39시간(11.1%)', '5~9시간(11.1%)' 순열. 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9.3시간임

(단위: %)



* 사례수 9명으로, 분석에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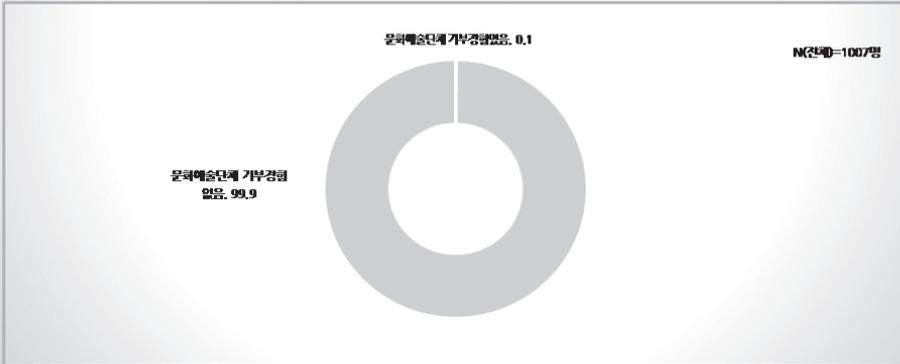
42

2. 2013년 문화예술단체 기부 경험 및 기부액*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단체 기부 경험, '있다', 0.1%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단체 기부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0.1%에 불과함

(단위: %)



* 사례수 1명으로, 금액 평균 기재하지 않음. 1명여 기부액(원금+물품)은 150만원임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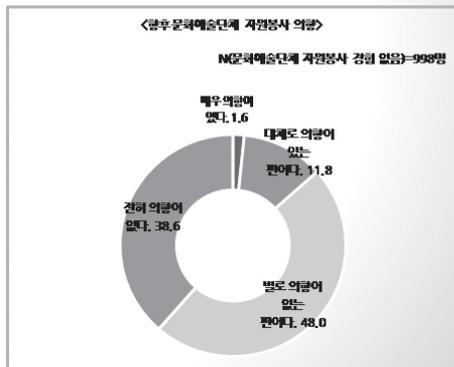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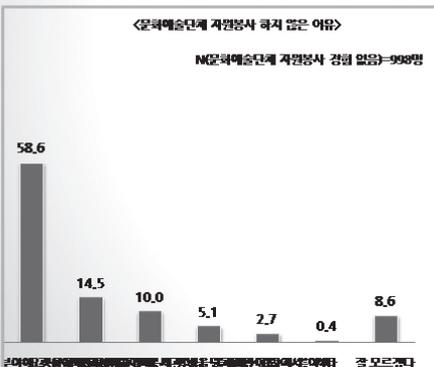
3. 2013년 문화예술단체 자원봉사 하지 않은 이유 및 향후 봉사 의향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단체 자원봉사 하지 않은 이유,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없어서', 58.6%

향후 문화예술단체 자원봉사 의향, '있다', 13.4%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8.6%로 가장 높고,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14.5%)', '문화예술분야 자원봉사 방법을 몰라서(10.0%)' 등의 순열
- 향후 문화예술단체 '자원봉사 의향이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13.4%인 반면, '자원봉사 의향이 없다(별로+전혀)'라는 응답은 86.6%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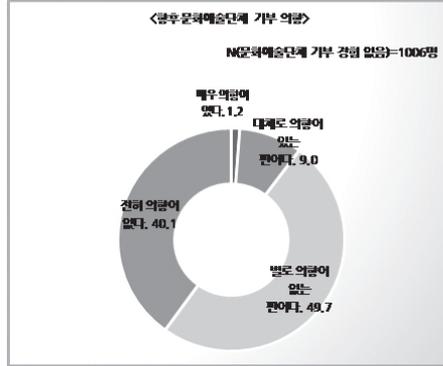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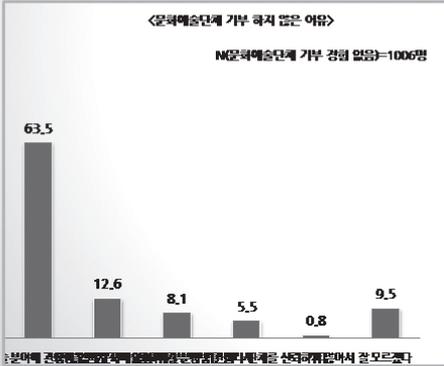
44

4. 2013년 문화예술단체 기부 하지 않은 이유 및 향후 기부 의향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단체 기부 하지 않은 이유,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없어서, 63.5%
향후 문화예술단체 기부 의향, '있다', 10.2%

- ❑ 지난해(2013년) 문화예술단체에 기부 하지 않은 이유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63.5%로 가장 높고,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12.6%)', '문화예술분야 기부 방법을 몰라서(8.1%)' 등의 순임
- ❑ 향후 문화예술단체 '기부 의향이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은 10.2%인 반면, '기부 의향이 없다(별로+전혀)'라는 응답은 89.8%임

(단위: %)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부록

4

2013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 조사설문지



문화·예술 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입니다.

저희는 아름다운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 기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실태, 문화예술 분야 기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조사 결과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통계적인 자료 분석용으로만 활용됩니다.

주관기관 :



조사기관 :



문의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장윤주 간사 (02) 6930-4564

한국리서치 여론조사1부 성현정 차장 (02) 3014-0168

유승아 대리 (02) 3014-1051

1. 응답자 선정 질문

선문1. 귀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 단체, 개인, 행사를 위해서 기부를 하시거나 자원봉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 분야

- 문화예술분야란, 문학(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미술(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포함) 전시회, 서양음악(클래식, 서양악기 관련),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연극, 뮤지컬,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이 포함됩니다.
- 단 '문화예술'에서 영화 관람,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연예(방송 프로그램 등)는 제외합니다.

문화예술 기부

-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 개인, 행사에게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관과 단체, 개인, 행사에 직접 현금, 자산, 물품을 내는 것은 물론, 모금기관을 통해 현금, 자산, 물품을 내는 것, 해외 문화예술원조, ARS를 통한 기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길거리 예술가에 대한 기부, 후원자로 예술품 전시회에서 예술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문화예술 자원봉사

-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과 단체나 행사 또는 개인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과 단체, 행사 또는 개인을 위해서 도슨트(Docent)나 축제도우미, 전문직(의사, 통역, 변호사)의 봉사는 포함됩니다.
- 단,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아동,양로시설 등)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 봉사활동과 종교단체 내의 일상적인 문화예술활동(성가대 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
|---------------------------------|--------------------|
| 1.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한 적이 있다 | ☞ 선문2,3,4 응답후 문1로 |
| 2.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만 한 적이 있다 | ☞ 선문2,3,4 응답후 문1로 |
| 3. 문화예술 분야의 자원봉사 활동만 한 적이 있다 | ☞ 선문2,3,4 응답후 문18로 |
| 4.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한 적이 없다 | ☞ 조사 종료 |

선문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 |
|-------|-------|
| 1. 남자 | 2. 여자 |
|-------|-------|

선문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선문4. 귀하께서는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 | | | | | |
|-------|-------|-------|-------|-------|
| 1.서울 | 2.부산 | 3.대구 | 4.인천 | 5.광주 |
| 6.대전 | 7.울산 | 8.경기 | 9.강원 | 10.충북 |
| 11.충남 | 12.전북 | 13.전남 | 14.경북 | 15.경남 |
| 16.제주 | 17.세종 | | | |

II. 2013년도 문화예술 분야 기부

문1. 귀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에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행사에 문화 예술 기부를 하셨나요? 기부하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행사에 기부한 금액을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현금과 물품을 구분하여 응답해주시고, 물품은 구매 당시의 거래 가격이 아닌 현재의 현금 가치로 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귀하만의 기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립니다.

기부한 곳	문1-1. 기부여부	문1-2. 기부금액	
		문1-2-1. 현금	문1-2-2. 물품
1. 문화예술 공간(전시장, 공연장, 박물관, 등)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2. 문화예술 행사(공연, 전시, 축제, 이벤트 등)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3. 문화예술 단체(공연 및 전시단체, 기획사 등)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4. 예술가 개인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5.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6. 기타 ()	① 있다 ② 없다	___만 ___천원	___만 ___천원

문2. 귀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에 어떠한 장르의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에 문화예술 기부를 하셨나요? 기부하셨던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의 장르를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공연 예술(음악, 국악, 무용,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2. 시각 예술(회화, 조형, 사진, 서예, 도예, 디자인 등)
3. 문학 예술(시, 수필, 소설, 동화, 번역 등)
4. 미디어 예술(영상, 디지털콘텐츠 등)
5. 문화예술 교육
6. 기타()

문3. 문화예술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기적’의 기준은 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의 기부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있다 (정기적으로 문화예술 기부를 한 적이 있다)☞ 문3-1로
2. 없다 (일회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다)☞ 문4로
9. 잘 모르겠다☞ 문4로

문3-1. 정기적일 경우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1. 매 주
2. 매 달
3. 매 분기
9. 잘 모르겠다

문4.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 등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기부 하신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 등을 알게 되신 경로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2. 인터넷을 통해
3.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4. 기관/단체의 직접 홍보, 요청, 기금모금 행사를 통해
5. 직장
6. 종교단체를 통해
7. 그 외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8.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9. 기타()

문5. 귀하께서는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 등에 기부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1. 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지원
2. ARS 전화
3. 온라인(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4. 지로납부
5. CMS 자동이체
6. 급여공제
7. 현물
8. 장소대여
9. 기타()

문6. 귀하께서는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 등에 기부를 하신 주된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직접 단체나 개인을 지원
2. 기관·재단 등 공익적 조직을 통한 지정 기부(기부할 기관·단체(인)을 지정)
3. 기관·재단 등 공익적 조직에 기부(기관·재단의 후원사업을 통해 기부)
4. 후원회(예 : 예술의전당 후원회, 세종문화회관(세종문화회관 후원회)를 통해 지원
5. 기타()

문7. 귀하께서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 등에 기부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문화예술 분야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2. 주변의 권유에 따라서
3.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하고 싶어서
4. 기부할 곳이 이 분야 밖에 없어서
5. 문화예술 관련 기부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티켓할인, 공연관람 혜택 등)
6.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과 친분관계가 있어서
7. 기타()

Ⅲ. 2013년도 문화예술 기부의 경험과 만족도

문8.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에 기부를 결정하실 때 다음의 항목들을 어느 정도 고려하셨나요? 귀하께서 고려하신 정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영역	매우 고려했다	대체로 고려했다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1. 문화예술장르	①	②	③	④
2. 신뢰도	①	②	③	④
3. 전문적 역량	①	②	③	④
4. 평판	①	②	③	④
5.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①	②	③	④
6. 기부액 선택의 용이성	①	②	③	④
7. 기부방법의 용이성	①	②	③	④
8. 기부에 대한 혜택/예우	①	②	③	④

문9. 다음은 귀하께서 기부하셨던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내용에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내가 기부하였던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적절한 기부액을 요청하였다	①	②	③	④
2. 나의 기부에 고마워하였다	①	②	③	④
3. 나의 문의에 성실히 대해주었다	①	②	③	④
4. 나에게 연락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5.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잘 알려주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도록 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7. 나의 기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8. 내가 한 기부의 사용내역을 뉴스레터나 홈페이지에 알려주었다	①	②	③	④

1. 문화예술의 진흥과 활성화
2. 문화예술 종사자의 처우개선
3.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
4. 문화예술 관람객의 확대
5.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개선
6. 문화예술 미래수요자의 교육
7. 문화예술에 대한 홍보/마케팅
8. 신진예술가 지원
9. 소외계층 문화예술향수 확대
10. 기타()
11. 상관없다

문14. 귀하께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하신 후 어느 정도 만족하셨나요?

- | | |
|----------------|----------|
| 1. 매우 만족하였다 | ☞ 문15로 |
| 2. 대체로 만족하였다 | ☞ 문15로 |
| 3. 별로 만족하지 못했다 | ☞ 문14-1로 |
| 4.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 ☞ 문14-1로 |

문14-1.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 후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서
2. 공연이나 전시의 품질이 맘에 들지 않아서
3. 단체나 기관의 신뢰도가 낮아서
4. 단체나 기관의 평판이 낮아서
5. 기부금의 사용이 투명하지 않아서
6.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7. 기부 방법이 불편해서
8.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충분하지 않아서
9. 기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0. 기타()

IV. 2013년도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

문15.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에서 귀하께서 기부하신 기부금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고 신뢰하시나요?

- 1. 신뢰한다 ☞ 문15-1로
- 2. 신뢰하지 않는다 ☞ 문16로

문15-1. 신뢰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단체나 기관의 명성이나 권위 때문에
- 2. 단체나 기관의 특정 개인이 믿을 수 있어서
- 3. 공공이나 시민단체의 적절한 관리가 있어서
- 4. 공연이나 전시가 맘에 들어서
- 5. 기부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서
- 6.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있어서
- 7. 기타

문16. 귀하께서는 향후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에 어느 정도 기부할 계획이십니까?

- 1. 지금보다 더 많이 기부할 계획이다
- 2. 지금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할 계획이다
- 3. 지금보다 줄여서 기부할 계획이다
- 4. 모르겠다

문17. 귀하께서는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에 기부하신 후 기부처(개인)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귀하께서 원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1. 세제혜택
- 2. 단체/기관의 적절한 정보/소식 제공
- 3. 기부자에게 티켓이나 다른 형태의 예우제공
- 4.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
- 5.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
- 6. 기타
- 7. 상관없다

☞ 선문1의 1 응답자 문18로 이동
 선문1의 2 응답자 문24로 이동

V. 2013년도 문화예술 분야 자원봉사

문18. 귀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에 다음 중 어떠한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나요? 자원봉사 하셨던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에 해당 되는 곳을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문화예술 공간(전시장,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2. 문화예술 단체(공연 및 전시단체, 기획사 등)
3. 예술가 개인
4. 기타()

문19. 귀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에 어떠한 장르의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에 문화예술 자원봉사를 하셨나요? 자원봉사 하셨던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의 장르를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공연 예술(음악, 국악, 무용,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2. 시각 예술(회화, 조형, 사진, 서예, 도예, 디자인 등)
3. 문학 예술(시, 수필, 소설, 동화, 번역 등)
4. 미디어 예술(영상, 디지털콘텐츠 등)
5. 문화예술 교육
6. 기타()

문20. 귀하께서 지난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하신 자원봉사 활동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1년간 하신 문화예술 관련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1년간 총 _____ 시간

문21. 문화예술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기적'의 기준은 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의 자원봉사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 | | |
|----------------------------------|----------|
| 1. 있다 (정기적으로 문화예술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 | ☞ 문21-1로 |
| 2. 없다 (일회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다) | ☞ 문22로 |
| 9. 잘 모르겠다 | ☞ 문22로 |

문21-1. 정기적일 경우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 | | | |
|--------|--------|---------|-----------|
| 1. 매 주 | 2. 매 달 | 3. 매 분기 | 9. 잘 모르겠다 |
|--------|--------|---------|-----------|

문22. 귀하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 등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자원봉사 하신 문화예술 기관이나 단체, 개인, 행사 등을 알게 되신 경로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2. 인터넷을 통해
3.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4. 기관/단체의 직접 홍보, 요청, 기금모금 행사를 통해
5. 직장
6. 종교단체를 통해
7. 그 외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8.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9. 기타()

문23. 귀하께서 문화예술 자원봉사를 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문화예술 분야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2. 주변의 권유에 따라서
3. 다양한 분야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4. 자원봉사할 곳이 이 분야 밖에 없어서
5. 문화예술 관련 자원봉사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티켓할인, 공연관람 혜택 등)
6.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과 친분관계가 있어서
7. 기타()

VI. 문화예술 향수

문24. 귀하께서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1.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대상
2. 여유 있을 때 즐기는 휴식
3. 복잡한 일상생활에서의 탈출구
4. 즐기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대상
5. 나와는 관계없는 다른 세계
6.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사치

문25. 귀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에 문화예술 관람에 몇 회 정도 참여하셨습니다니까?

- ◎ 문화예술 관람에는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미술(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포함) 전시회, 서양음악(클래식, 서양악기 관련),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연극, 뮤지컬,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이 포함됩니다.

◎ '문화예술'에서 영화 관람,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연예(방송 프로그램 등)는 제외합니다.

- | | | |
|--------------|-----------|-----------|
| 1. 없음 ☞ 문27로 | 2. 1-2회 | 3. 3-5회 |
| 4. 6-9회 | 5. 10-19회 | 6. 20회 이상 |

문26. 귀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2013년 1월~12월)에 문화예술 관람에 어느 정도 지출을 하셨습니까? 지난 1년간 지출하신 총 금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 관람에는 문학행사(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미술(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포함) 전시회, 서양음악(클래식, 서양악기 관련), 전통예술(국악, 풍물, 민속극), 연극, 뮤지컬,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이 포함됩니다.

◎ '문화예술'에서 영화 관람,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연예(방송 프로그램 등)는 제외합니다.

지난 1년간 총 _____ 만원

문27. 귀하께서는 어느 장르의 문화예술 분야를 가장 선호 하십니까?

- | | | |
|-------|----------|----------|
| 1. 음악 | 2. 미술/사진 | 3. 문학 |
| 4. 연극 | 5. 뮤지컬 | 6. 전통/국악 |
| 7. 무용 | 8. 기타 | |

문28. 귀하께서는 문화예술이 귀하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3. 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29. 귀하께서는 문화예술 관련 프로젝트에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등의 소액기부나 후원을 통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자금이 없는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창작 프로젝트나 사회공익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도 불립니다.

- | | |
|------------------|-------------------|
| 1. 매우 참여할 의향이 있다 | 2. 대체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 |
| 3. 별로 참여할 의향이 없다 | 4. 전혀 참여할 의향이 없다 |

문30. '예술나무운동'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창작지원, 신진예술가지원, 문화예술 소외계층지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문화예술기부확산 캠페인입니다. 직접기부, 크라우드 펀딩, ARS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 기부활동을합니다. 귀하께서는 '예술나무운동'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1. 들어본 적이 있다
2. 들어본 적이 없다

문31. 향후 '예술나무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참여 의향 있다
2. 참여 의향 없다

문32. 귀하께서는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업의 활동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신가요?

1. 매우 긍정적이다
2. 대체로 긍정적이다
3.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4.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5.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

문33. 귀하께서 문화예술 공연 관람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출연진
2. 공연 후기
3. 오락성
4. 공연장 위치
5. 티켓 가격
6. 연출자
7. 원작의 지명도
8. 기타()

Ⅶ. 응답자의 특성

배문1. 귀하께서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이십니까?

1.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임
2.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아님

배문2.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농/임/어업
2. 자영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생산/기능/노무직
5. 사무/관리/전문직
6. 주부
7. 학생
8. 무직/퇴직/기타
9. 모름/무응답

배문3. 귀하의 월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전 소득을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_____ 만원

배문4. 귀댁의 가구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여금, 이자, 임대료 등 가족 모두의 소득을 합하여 월평균으로 응답해 주시되, 세전 소득을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_____ 만원

배문5. 귀댁의 가구원 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이십니까?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수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친척, 군
대간 자녀, 유학 간 자녀 등은 포함하고,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는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
니다.

_____ 명

배문6.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중되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
|---------------|----------------------|
|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 2. 중학교 졸업 |
| 3. 고등학교 졸업 | 4.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 중 |
| 5. 대학교 졸업 | 6. 대학원 재학 이상 |
| 9. 모름/무응답 | |

배문7.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은 어떤 형태입니까?

- | | |
|----------|--|
| 1. 자가 | |
| 2. 전세 | |
| 3. 월세 | |
| 4. 기타() |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한국 최초의 유일한 기부문화전문연구소로서 한국사회에 기부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기부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정확한 통계자료, 기부 선진국의 풍부한 사례들을 제공하는 나눔의 지식 창고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연구 및 조사, 교육, 출판, 정보 교류를 통하여 기부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 기부문화 연구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 ‘기빙인덱스’는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활동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제시합니다.
기업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기업문화에 적합한 한국형 지표를 개발하여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합니다.

■ 기획연구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부유층기부문화활성화,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과 같이 한국사회의 꼭 필요한 기부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획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매년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를 개최하여 국내외 최신 기부 동향 및 선진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창조적이고 성숙한 기부문화 형성을 모색,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빙코리아 연구자료는 영어로도 번역 출판되어 해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 기부관련 해외 연구동향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기부와 관련된 해외 연구동향 조사 및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부문화 연구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연구자료는 기빙코리아 홈페이지(www.givingkorea.org)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Tel 02-766-1004 / E-mail research@beautifulfund.org
(110-035) 서울 중로구 자하문로 19길 6 (옥인동)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를 이끌어주시는 분들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장	김영진 (☎) 한독 회장 김기수 (☎) 모앤즈 회장 김일섭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김중민 (☎) 스탬뱅크 회장 박용만 (☎) 두산 회장 이강호 (☎) 한국그린포스럼프 사장	김 광 (☎) 삼양제맥스 사장 김정완 (☎) 매일유업 회장 남승우 (☎) 풀무원 사장 윤계승 (☎) 대웅 부회장 정몽윤 (☎)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기부문화연구소장	소장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기부문화분과	부소장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연구위원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위원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위원 박 철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연구위원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경성대학 경영학부 교수 연구위원 이형진 도서출판 아르케 대표 연구위원 한정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연구위원 김운호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연구위원 민인식 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위원 박태규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연구위원 이민영 한국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위원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조교수 연구위원 황창순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업사회공헌분과	부소장 박성연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구위원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겸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소장 연구위원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연구위원 전상경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연구위원 이상민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도법제분과	부소장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위원 서희열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연구위원 박내천 회계사 연구위원 손원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연구위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구위원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위원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연꽃기금, 나눔문화1% 기부자님, 참 고맙습니다.

- Giving Korea 2014는 연꽃기금, 나눔문화1% 기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꽃기금은 우리사회의 건전하고 올바른 상속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유산1%나눔' 운동을 통해 대중적인 유산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1%기금은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가 방향을 잃지 않고 깊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삶을 바꾸며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 비영리 역량강화 등
기부문화 확산의 토대가 되고자 합니다.



(주)엔케이솔루션	강미영	강병권	강병규	강석열	강수진	강순철	강승우	강의숙
강정은	강준서	강준형	강지유	강현주	고형곤	고혜정	고화숙	곽성윤
구자영	권기전	권재민	권혁선	김경남	김경민	김경아	김경화	김기수
김나영	김나영	김대훈	김동원	김명애	김명희	김문희	김미정	김민규
김병성	김병수	김상돌	김상섭	김상훈	김생수	김석진	김선미	김선우
김성중	김성태	김성호	김성호	김세웅	김 술	김송현	김수민	김수연
김승숙	김아름	김양환	김영각	김영미	김영민	김영희	김예지	김예진
김유진	김윤선	김은도	김은정	김의원	김인선	김인환	김일섭	김장호
김재숙	김재영	김재중	김정규	김정길	김정태	김정현	김정환	김정훈
김종애	김종용	김종원	김종윤	김종호	김주선	김주연	김주희	김준엽
김지예	김진영	김진우	김진원	김창은	김철호	김태우	김태원	김한결
김현진	김형숙	김형중	김훈찬	김홍덕	김희경	나민유	남궁석	남궁원
덕산기업	도현오	동아쏘시오홀딩스	라지석	류원희	류종욱	마석윤	마춘희	문순일
문준상	문천수	민만석	민창기	박경욱	박경완	박경인	박경화	박미선
박병일	박상규	박상욱	박상용	박상일	박선미	박선미	박성수	박성연
박소라	박소영	박수길	박승원	박영미	박옥식	박유숙	박은혜	박재균
박정훈	박종규	박종욱	박찬숙	박치현	박태규	박효진	방치완	배정환
백송이	백승록	변영찬(최정인)	봉인주	서경임	서남주	서연수	서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손은경
손형순	송광식	송상진	송승규	송원빈	송은정	송은주	송필홍	송호진
신유림	신윤호	심재민	심현정	안미경	안영호	안준표	안중산	양미라
양선미	양성훈	양영우	양혜리	양혜원	엄기석	연미성	연 후	예상희
오신영	오은순	오준석	오희정	옥지연	우정혜	원윤희	유미은	유승식
유진경	유창열	유현욱	윤가영	윤성원	윤은주	은형란	이강욱	이경민
이관원	이구민	이기세	이남철	이동익	이만규	이명길	이명석	이명준
이미영	이민선	이민영	이상신	이선명	이선미	이선태	이선훈	이성민
이성준	이성훈	이성희	이소민	이소희	이수옥	이수지	이연명	이영관
이영이	이용재	이용주	이윤미	이윤아	이윤정	이은주	이정안	이정열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진영	이찬열	이춘형	이태성	이태희	이현경
이현행	이혜령	임미정	임서연	임선명	임성연	임연아	임이찬	임종구
장민경	장선영	장수정	장수진	장윤식	전영호	전은희	전찬윤	정선범
정수진	정숙인	정영은	정유경	정유진	정윤희	정재연	정종인	정진숙
정태연	정한영	정효은	조리라	조민정	조송제	조수연	조숙자	조승연
조정민	조주현	조진규	조창환	조태운	조향희	조형근	주봉철	지병주
진근탁	차은실	차홍조	최광은	최상천	최석환	최소진	최순형	최승인
최용민	최윤석	최지선	최지선	최진섭	최진혁	최철수	최화규	한강수예술제보존회
한규일	한덕규	한동우	한선미	한정환	한진국	한창엽	허서윤	허세준
허은선	허은희	허제민	현성모	홍경진	홍인성	홍정민	홍탁균	황미라
황순정	황신애	황아현	황윤정	황지연	황현조	황 휘		황성현

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발행일 2014년 10월 23일
발행처 아름다운북
발행인 예중석
등록일 2006년 10월 25일 제300-2006-150호
지은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획및 편집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주소 110-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육인동)
전화 02)766-1004
전송 02)730-1243
웹사이트 www.beautifulfund.org
디자인 해튼D&P
인쇄 해튼디앤피 02)2266-6372

ISBN : 978-89-93842-29-6
ISBN : 978-89-93842-18-0(세트)

값 15,000원



Giving Korea 2014

The 13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Giving Culture

값 15,000원



ISBN 978-89-93842-29-6
978-89-93842-18-0 (set)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